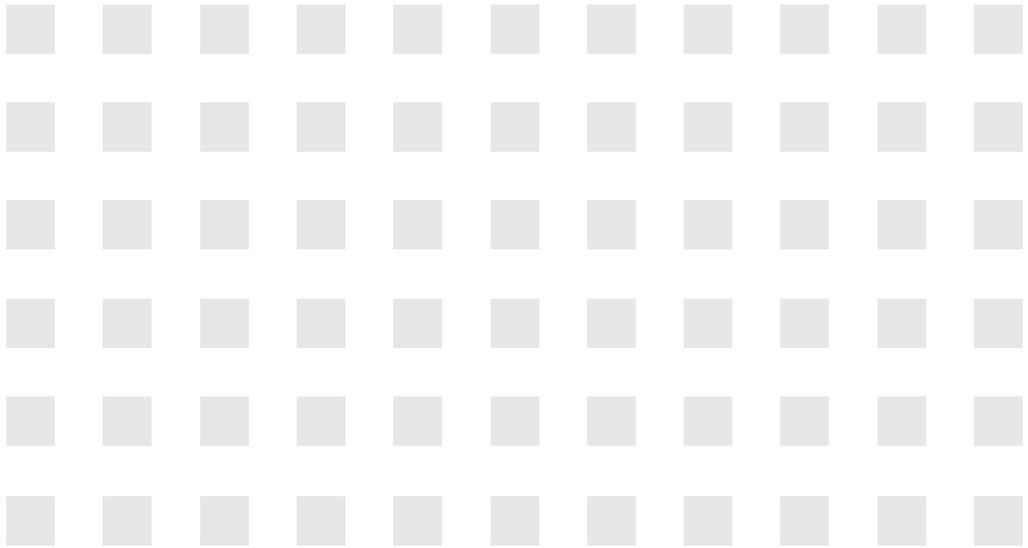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 여신 관련 텍스트 분석

—

좌혜경 · 조현설



발 간 사

제주에는 심방들이 부르는 ‘신들의 뿌리(본)를 푸는 본풀이’인 무속신화가 잘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제주큰굿’의 〈일반신본풀이〉라고 부르는 열두 신에 대한 본풀이는 ‘여신신화’라 할 정도로 여신과 밀접합니다. 그녀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갖은 시련을 극복하고 희생 후 여신으로 좌정하고 있습니다.

농경신이 된 ‘차청비’나 운명의 여신으로 알려진 ‘가문장아기’처럼 원래부터 그 능력이 뛰어나 스스로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집안을 지키는 ‘조왕할망’이 된 ‘여산부인’이나 무조신의 어머니인 ‘자지명왕아기씨’, 꽃감관의 어머니인 ‘원강암이’ 등 모신(母神)들은 갖은 고생 후에 신이 되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곤 했습니다.

제주도 본풀이는 기실 의례인 굿과 그 의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심방, 그리고 실제 심방에 의해 굿이 펼쳐지는 의례 장소인 신당,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부된 무형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본풀이의 문화사적 가치 해명을 위해 여신들의 신적 직능과 관련된 텍스트를 분석하고 학술적으로 체계화 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근간에 와서 제주신화는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전승자의 부재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어서 지속보전에 대한 정책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현재 무속의례와 관련해서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송당리 마을제’, ‘제주큰굿’과 ‘송당본향당’, ‘새미한로산당’, ‘와홀본향당’, ‘수산본향당’, ‘월평다락굿당’ 등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및 개인 자신의 문화유산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공간(협약 제2조 1항)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해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협약 제2조 2항)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신화는 구술 전통 및 표현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연구진들의 연구가 앞으로 제주도 신화의 글로벌한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9년 12월

제주연구원장 김 동 전

목 차 CONTENTS

I. 서론	1
1.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 내용	1
3. 연구 방법 및 자료	2
4. 주요 연구 내용	4
5. 정책과제와 활용 효과	4
II. 일반신 본풀이의 여신 화소 전개	5
1. 〈천지왕본풀이〉의 ‘총명부인’	5
2. 〈삼승할망본풀이〉의 ‘삼승할망’, ‘구할망’	7
3. 〈초공본풀이〉의 ‘주지명왕아기씨’와 ‘유정승따님애기’	13
4.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미’	18
5.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	22
6.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25
7.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이’와 ‘강님’의 처	33
8.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과 ‘노일저대’	39
9. 〈칠성본풀이〉의 ‘칠성아기씨’	46
10. 〈지장본풀이〉의 ‘지장아기씨’	50
11. 〈사만이본풀이〉의 ‘사만이부인’	54
III. 여신 이미지 분석	58
1. 여신의 탄생	59
2. 여신의 성장	60
3. 만남과 혼인	62

4. 자식의 탄생과 모성성	63
5. 곡종과 공업	65
IV. 여신본풀이에 나타난 세계 인식	66
1. 선과 악	66
2. 죽음과 재생	68
3. 대립과 화해	69
4. 욕망과 갈등	73
V. 여신 관련 정책 제언	74
1.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인정	74
2. 여신 신화의 보전에 대한 작업	75
3. 여신 신화가 구연되는 곳 현장의 보존 작업	75
4. 제주 여신 신화 자료관 혹은 신화관 설립	76
5. 여신 신화를 활용한 각종 콘텐츠 개발 사업	76
 참고문헌	 78
Abstract	79
 〈부록〉 2004년 제주 큰굿(제주특별자치도 소장) 일반신본풀이	 81

표 목차

〈표 1〉 〈일반신본풀이〉 속의 여신 명과 역할	2
〈표 2〉 여신 지부왕 '총명부인' 화소	7
〈표 3〉 '삼승할망'(맹진국할망, 옥황상제따님애기) 화소, '구할망'(동해용궁따님애기), '홍진국대별상부인'(서신국마누라)	9
〈표 4〉 '노가단풍조지명왕아기씨'와 '유정승따님애기' 화소	14
〈표 5〉 '원강아미' 화소	19
〈표 6〉 '가문장아기' 화소	23
〈표 7〉 '자청비' 화소	27
〈표 8〉 '과양생이'와 '강님'의 처 화소	34
〈표 9〉 '여산부인'과 '노일저대' 화소	40
〈표 10〉 '칠성아기씨' 화소	47
〈표 11〉 '지장아기씨' 화소	52
〈표 12〉 '사만이 부인' 화소	55

1. 서론

1. 목적과 필요성

- 제주의 무속신화는 '여신신화'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풍성하고 독특한 여신들의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으며, 이를 관통하는 서사 형성의 원리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제주신화의 문화사적 가치 해명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신의 뿌리를 풀어내는 신화 본풀이에 나타난 여신들의 역할과 내용에 관련된 구술 자료 텍스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여신과 관련된 텍스트 분석 자료의 학술적 탐색으로 제주신화의 세계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시급함
 - 전승자의 부재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어서 지속보전에 대한 정책이 시급함

2. 연구 내용

- 본풀이 속의 여신 화소들을 분석 후 나타난 주제어를 중심으로 여신들의 이미지를 분석함
- 여신들의 얽힘 속에 나타난 제주신화의 본풀이의 세계관을 분석하고 지속보전 방안을 모색함

3. 연구 방법 및 자료

- 연구 대상
 - 제주의 일반신본풀이 중 여신 관련 본풀이
- 주 자료는 제주학연구센터 소장 굿의례 현장 아카이브 자료

- 2004년 이종춘 대역례 굿(제주특별자치도 소장) 일반신본풀이
- 2018년 이야기체 〈일반신본풀이〉 이용옥 구술

II. 일반신본풀이의 여신 화소 전개

1. 〈천지왕본풀이〉의 ‘총명부인’

- 〈천지왕본풀이〉의 지부왕인 총명부인은 베포와 도업을 돕는 여신적 특성이 강한 지모신으로서 성격이 강하며, 천지왕에게 순종하는 여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
 - 천지왕으로부터 수태되어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들은 서로 어멍국 아방국을 다투는 등 인간적인 욕망을 보여주고 있음
 - 두 아들은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여 두 세계를 만드는 데 인간들이 사는 이승에 사는 사람들은 ‘꽃바꾸기’로 가로치기를 했던 동생의 행위처럼 남의 물건을 탐내고, 물건을 훔치는 등 무질서, 혼돈, 무법이 가능한 세계가 됨

2. 〈삼승할망본풀이〉의 ‘삼승할망’, ‘구할망’

- 삼승할망은 옥황상제의 딸인 천신으로서, 많은 아량과 덕이 있는 신적 직능은 자손을 수태하고 해산시킴
 - 인간 후손들의 얼굴을 곰보로 만들고 질병을 주는 마마신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흥진국대별상 머느리에게 수태를 주기는 했으나 해산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흥진국대별상의 굴복을 이끌어냄
 - 삼승할망, 구할망, 마마신 세 편의 개별 본풀이는 삼승할망의 신적 직능 확인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며, 저승의 세계에서 아이들을 담당하는 신격을 지닌 구할망은 온갖 질병으로 아이들의 죽음이 일상화된 시기에 신앙민들에게 송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죽은 아이를 저승으로 잘 보내어야 한다는 민간의 인식이 담겨있음

3. <초공본풀이>의 ‘자지명왕아기씨’와 ‘유정승따님애기’

- 아들들의 성장에 ‘자지명왕아기씨’어머니의 역할은 자식 교육을 위하여 헌신함
 - ‘거무선생’의 시중을 들고, 세 아들은 서당에서 물을 떠오는 ‘물지기’, 벼루 가는 ‘벼루지기’, 아궁이에 불을 때는 ‘굴묵지기’를 담당하면서 공부를 함
 - 나날이 일취월장하여 과거에 합격하지만 양반의 자식이 아닌 ‘중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결국은 입격을 거부 당하고, 천대받는 신분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점에서 아들 삼형제는 늘 수모를 받아야 했음
 - 유정승 집의 아들은 자신의 과거 합격을 위해 ‘젯부기삼형제’의 어머니를 죽이는 데, 이는 상종의 자식들이 과거에 입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것이지만 삼형제는 바라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무업을 택해서 심방이 되는 운명을 감내해야 했음
- 아들들은 어머니를 ‘삼시왕’으로 모시는데, 대대손손 무업 조상으로서 또 ‘다시 좃앙 올 조손’을 맞는 대모신의 신격의 위상을 지님
 - 여성으로의 태어남은 여자이기에 받아야 하는 수모 또는 고난을 넘어서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수모나 고난은 자식 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고난은 공업을 위한 기대감과 암시라 할 수 있으며, 인류애적인 것으로 기대됨
- ‘젯부기삼형제’를 과거에 낙방시키려고 온갖 수작을 한 유정승아들은 그 되갚음을 받게 되고, 그의 여동생이 다시 무업에 임하게 되는데, ‘유정승따님애기’는 무구인 푸른색의 육간제비를 내려받고, 무당서 삼천 권을 읽어 공인된 최초의 여 심방이 됨
 - 양가집의 규수인 그녀가 최초의 무속의례를 집전하는 사제자이면서 무업의 조상으로서의 심방이 됨

4.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미’

- ‘한락궁이’는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악한 이를 죽이고 선한 사람을 살리는 양형(量刑)의 저울로 이용되던 꽃이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되었는데, 이는 곧 영웅의 탄생을 의미함

- ‘원강암이’의 삶의 안목은 남성의 선택과 결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녀는 가난 하지만 꽃감관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성 ‘사라도령’을 선택했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극복한 후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가면서 서천꽃밭의 꽃감관직으로 자식을 양육한 성공적인 여신의 삶을 수행할 수 있었음
- 이는 원강암이라는 여신이 지닌 지혜에서 얻어진 결과임

5.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

- 가문장아기의 집안은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부자가 되고, 가문장아기의 전상으로 아주 좋은 상황에 이를 수 있었음
 - 부친은 “누구 덕에 입과 먹고 사느냐”고 질문하고 시험했을 때, 복과 덕은 ‘자신’의 운명에 있음을 강조함
 - 완고하고 보수적인 부친은 딸의 대답을 완강히 거부하고 결국은 내쫓는데, 이러한 아버지의 충효를 강조한 유교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에 대해 모친과 두 언니들마저도 거들다가, ‘지네’나 ‘버섯’으로 환생하고 부모는 앞을 못 보는 눈먼 소경이 됨
 - 집안이 다시 가난해져서 부부는 고난을 겪게 되며, 동냥질을 해야 하고 눈까지 멀어 장님이 되고 마는데, 이는 전상신을 우대하지 않고 의견을 무시해서 집 밖으로 내쫓음으로써 다시 본래의 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풀이에서는 좋은 전상을 무시하고 뿌리 친 것은 바로 남성의 권위였고, 잘 살게 되자 교만한 마음은 딸을 거부하게 되어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
 - 반면, 가문장아기는 마 파는 세째마통이를 만나 금을 발견하고 부자가 되는데, 부모가 눈이 멀고 거지가 된 것을 직감한 가문장아기는 소경 잔치를 해서 부모의 눈을 뜨게 해 다시 광명의 세계로 이끄는 개안(開眼)설화의 주인공이 됨

6.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 자청비 신화는 제주 땅에서 태어난 여성이 이상적인 농경의 여신으로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후 주인공 자청비는 대사회성을 지향하게 되면서 영웅적인 행동은 ‘공업’(功業)으로 전환하게 됨

- 이 공업에서 얻은 결과는 하늘에서 열두시만국 세경 너른 땅과 오곡의 씨앗을 얻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농경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일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업은 싸움에서 이기는 전사로서의 모습과 남성인 천신과 농경의 지모신으로서의 역할이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남
- 자청비가 지닌 곡모신(穀母神)으로서의 신적 특성은 농경신화로서 농축신의 설정과 농경신에 대한 신격의 정당성, 제사의 기원, 의례의 당위성과 아울러 농사의 시작과 농경법 마련, 작물의 파종 시기 등을 규정하고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조직을 마련함
- 자청비가 지닌 역량은 농본 사회에서 내재된 잠재력이며, 곡물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의 어머니인 지모신으로서의 역할도 큼

7.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이’와 ‘강님’의 처

- 차사본풀이는 저승차사가 된 주인공 강님에 대한 본풀이지만, 이 본풀이 전반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 버무왕의 아들과 과양생이 처의 이야기가 없으면 강님에 대한 서사물은 염라왕을 잡아오는 일에 그침
- 원님은 인간의 죄로는 판결을 낼 수 없어서 저승 염라왕을 모셔다 심판받게 되는데, 염라왕의 심판에 따라 판결이 나고, 결국 과양생이 처는 아홉 장님이 이끄는 말에 사지가 찢겨져 죽임을 당하고 남방아에 넣고 뿔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모기로 환생하여 인간의 피를 빨게 됨
- 강님의 처는 긍정적인 이상형의 인물로, 첩을 많이 거느린 똑똑한 남편 강님에 대해, 남편이 하는 일을 묵묵히 따르는 순종형의 아내이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내조하는 여성임
 - 저승길을 알려주는 문전신(門前神) 하르방과 할망도 강님 아내의 덕을 칭찬함
 - 똑똑한 강님을 추천한 것도 원님아내였고, 저승길을 안내하고 저승에 간 남편을 위해 ‘상례법’을 만든 것도 강님아내의 지혜에서 이루어졌음
 - 문화나 문명의 시작과 발전은 여성들의 지혜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죽어서 치르는 죽음에 대한 의례와 저승법을 마련함도 강님의 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두 여성은 바람직한 여성상과 지양해야 될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 본풀이를 수용하는 제주여성 층에 많은 교육적인 효과를 시사했을 것임
- 강남 아내의 조강지처와 같은 삶의 고통과 인내는 결국 이별할 때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그 덕으로 염라왕을 잡아다가 과양생이 처의 원을 해결할 수 있었고, 고을의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게 되며,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8. <문전본풀이>의 ‘노일저대’와 ‘여산부인’

- 가정을 일구는 조강지처 격인 여산부인은 일곱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먹을 것마저 구하기 위해 걱정해야만 하는, 제주 섬의 지극한 일상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여성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여산부인’은 여자의 꼬임에 넘어서 같이 놀러 살며 제대로 먹지도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 반 주검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여성임
 - 미역장사를 갔다가 ‘노일저대’라는 주막집 여성의 거짓 꼬임에 넘어 오갈 데 없었던 남편을 찾는데, 남편이 처한 상황에 대해 그 처지를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받아들이고 흰쌀 밥을 지어 대접하는 가부장제하의 아내 역을 담당하는 봉건적 사고를 지닌 인물임
 - 그녀 역시 노일저대의 꼬임에 넘어가 목욕하다 물속으로 밀쳐서 그만 죽게 되며, 자식들이 어머니가 누웠던 흙으로 떡 찌는 시루를 만들게 되는 동인(動因)이 됨
- 일곱아들 중 막내아들 ‘녹디생인’ 역시 어머니의 분신처럼 가족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어야만 했는데, 그가 형들을 죽여 애를 내어야만 하는 처지에 있을 때,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산뿔(멧돼지)을 잡아서 간을 내어 노일저대에게 가지고 가서 그녀의 흉악한 계획을 폭로하게 했음
 - 물 속 추운 곳에 죽었던 어머니를 서천꽃밭의 꽃을 꺾어다 살리고, 늘 음식을 만들고 불이 있어서 따뜻한 부엌신 곧 조왕신으로 좌정하게 했음

9. <칠성본풀이>의 ‘칠성아기씨’

- 제주인의 뱀신앙은 잘 우대하면 풍요와 부(富)를 가져다준다고 믿었고 지극히 여성적인 상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칠성신들의 좌정처도 여성들이 계속해서 거처하거나 주관하는 장소인 고팡, 식사하는 장소 등은 여성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
 - 제주 칠성골에 사는 송칩할망은 부자 집의 안주인으로 그 집안의 부자가 된 내력 등을 칠성신과의 인연에서 실마리를 끌어냈고, 칠성신이 집안에 좌정함으로써 다산(多産)과 부(富)를 가져온다고 믿게 함
 - 칠성신은 마을이나 집 안팎의 공간에 좌정하는 가족공동체의 일원이면서 마을 공동체를 돌보는 신이며, 칠성아기씨는 다산과 풍요를 뜻하는 동물적인 상징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임

10. <지장본풀이>의 ‘지장아기씨’

- 지장아기가 출생하고 성장하여 결혼 이후 시집살이를 하면서 ‘전세남곳’을 벌이기 위해 여러 공업을 쌓은 후 죽어서 돌부처로 변신할 때까지의 과정이 낭송체로 구연됨
- 성인이 된 이후 열다섯 살이 되면서는 착하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고 여기 저기 중신이 들어오는데,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자 시집 식구들이 기뻐하며 온갖 재산과 재물을 물려줌
- 삶을 극복하기 위해 스님을 불러 사주팔자를 묻자, 초복은 팔자가 좋지 않고, 중복은 팔자가 좋고, 말복은 팔자가 좋지 않아 ‘전세남곳’을 해서 덕업을 쌓도록 함
- 덕(공)업을 쌓기 위해 굿을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특히 인간에게 질병과 재앙을 주는 ‘새’(사, 邪)라는 부정한 것을 내쫓는 무속의례의 ‘새드림’ 제의 근거는 이 지장신의 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본풀이를 통해 이 의례 설명이 가능함

11. <사만이 본풀이>의 ‘사만이’ 부인

- 주인공 사만이 부인은 지극히 일상적이며 현실적인 여성으로, 집안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양식을 사려고 할 정도로 집안을 돌보는 현모양처 격인 여성임
 - 남편 사만이는 아내에 비하면 이상적이고 늘 발전적인 것을 기대하여, 곡식을 사러 갔다가 식구들의 배고픔은 안중에도 없고 양식 대신 사냥을 위한 문명의 산물인 ‘총’을 사들고 옴
 - 아내의 구박에도 무릅쓰고 하루는 총으로 사냥하러 갔다가 백년조상이라고 하는 백골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초하루 보름 제를 드리며 모셨더니, 대각록 소각록 등 사슴을 잘 잡아 고대광실 높은 집과 남전북답의 땅을 지닌 부자가 됨
- 백년조상을 모시는 것에 불만을 가진 사만이 부인이 불을 지피다가 백년조상이 ‘땡구르르’ 하고 소리를 내자, 부인은 잘 우대해줘서 배불리 먹어, 요망하고 시끄럽다고 하여 불에 달군 ‘부짓덩이’에 달고 뒷밭으로 던져버림
 - 다음 아니라 조상의 기제사는 하지 않고 백년조상만 위하는 것에 불만을 해오던 염라왕의 몸 받은 차사들이 사만이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백년조상이 ‘땡구르르’하게 시끄럽게 굶
 - 백년조상을 위해서 가난하던 차에 짐승들을 잡아 잘 살게 되었고 목숨을 잃을 철녀에는 다시 액의 예조를 줄려고 시끄럽게 소리를 내어 징표를 준 것인데, 사만이 부인은 이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모시던 것을 던져 버리는 무엄함을 저지름
- 사만이 부인은 모시는 백골이 시끄럽게 굶면 내던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또 남편이 죽음에 임박한 것을 알고서는 제물을 차려 차사를 대접하는 조강지처로서의 이미지도 보임

Ⅲ. 여신 이미지 분석

1. 여신의 탄생

-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나는 여신들의 탄생과 성장을 보면, 우선은 신격이 높은 존재이어서 ‘귀함’을 기본으로 함
 - 일반적으로 여신들은 남신들에 비해 자식이나 아들을 얻기 위해 절에 가서 수륙제를 올리고 귀하게 태어나는데, 이러한 여신들은 재물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하여 아기씨로 탄생하지만, 여신들은 신화 전개상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수난을 극복하고 신으로 좌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딸이어서 대부분 같이 동행하지 못한 귀한 아기씨들은 “아버지가 잠근 문은 어머니가 수리 두고, 어머니가 잠근 문은 아버지가 수리”를 둘 정도로 폐쇄된 공간에 칩거하게 됨
 - 이 폐쇄 공간에 비친 한줄기의 빛과 같은 은혜는 불사의 선생 등과도 관련되며, 이러한 남성에 의해 행해지는 머리 ‘가르마타기’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함

2. 여신의 성장

- 구비전승 속에서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받거나 또는 자신들의 의지로 인해 집에서 출가하는 시기는 보통 열다섯, 십오세 경으로 나옴
 - 여신들의 성장과정에 있는 ‘아기씨’또는 ‘애기씨’들은 늘 도전적인 인물들에 의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귀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외부의 세력에 의해 당해야 만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예정되기도 함
 - 〈초공본풀이〉의 어머니 ‘조지명왕아기씨’는 절에 가서 체를 드리고 태어나는데,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절의 주접선생이 찾아온 후 아기씨 머리 ‘가르마타기’ 하는데, “녹하지만 단풍들었던 후연, 저 달은 곱기는 고운데, 가운데 계수나무 박혔건마는, 우리 법당에 오란 수륙드려 낳은 인간에 조지명왕아기씨 만큼은 못 곱덴” 이라고 할 정도로 미모를 갖춘 여성으로 자라남

3. 만남과 혼인

- 여신들의 성장과정 중에서 남신과의 만남으로 인한 혼사(婚事)나 잉태는 여신들의 삶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음
- 여신의 상대가 되는 자들은 지상의 인간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 온 천지와 주접선생으로 범인과는 다른데, 이러한 만남도 혼인으로 해석이 가능함
 -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은 부모가 없는 동안 지하 공간에서 아기씨를 찾아 온 외부인들과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나, 자식의 잉태로 인해서 이루어진 암묵적인 혼인은 이후의 결연의 계기를 만들어, 전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한 단계 진전되는 모티브적 성격이 강함
- 만남이 실제 혼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혼인으로 나타남

4. 자식의 탄생과 모성성

- 여신에게서 자식의 탄생은 어머니가 됨과 동시에 이후 자식들이 공업을 달성함으로써 인간과 신의 세계에 기여하게 됨
 - 분풀이 속의 여신들은 스스로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자식들 특히 아들들의 성장과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충분함
 - 그녀들은 자식을 얻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모성성이 강한데, 아버지 없는 자식을 낳은 여성이 아들에게 부친을 찾아주는 것과 부친을 찾아서 뿌리를 확인하는 노력이 이루어짐

5. 곡종(穀種)과 공업(功業)

- 여신들이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 이를 '공업'이라고 한다면, 이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졌던 것들을 말함
 - 사회공동체, 가족공동체, 신앙공동체의 이익과 안정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 무속이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신들이 행하는 일 중 '공업'은 인류의

공생에 이바지하는 공공의 행위들이 인정되어 나타남

- 신화의 여신들은 인류애적인 사랑이 기본이 되는 공업을 위해 헌신했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랑은 인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신이나 자연을 향해서도 이루어짐
- 공업을 크게 이룬 여신들은 향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자청비는 무사적인 능력을 갖추고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웠으며, 시아버지의 시험을 극복하고 오곡과 메밀 씨앗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농경을 시작하게 하는 농경신으로서 문화여성영웅과 같은 존재임

IV. 여신 신화에 나타난 세계 인식

1. 선과 악

- 본풀이에서 선과 악에 대한 두 주제는 평행선상에서 이어지고 있으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선(善)의 발현’, ‘선을 지향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악한 것은 반드시 멸하고 선한 것은 이긴다는 논리와 맞먹는데, 무속이라는 서민 종교의 논리에서 이루어진 강한 신념임
 - 선과 악의 대결은 양자의 대결이 아니라 결국은 절대자로 귀결되며, 본풀이를 향유하는 계층들의 염원이고 의지라고 할 수 있음
- 악의 징벌과 선의 천거는 인류 보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면, 무속의 본풀이는 인류의 삶에 대한 모범적 답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본풀이에서의 선과 악은 일정 부분 옳다 그르다고 할 수 없이 교섭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한 교섭은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결국은 절대자에 의해서 판결지어지 기보다는 스스로에 의해서 맺어지는 원인과 결과임

2. 죽음과 재생

- 서천꽃밭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꽃들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이 곳을 지키는 이공신 ‘한락궁이’는 종으로 들어간 집 주인 ‘재인장제’의

핍박을 견뎌내고 결국은 서천꽃밭의 주인인 부친을 대신하여 꽃감관이 됨

- 한락공이가 영웅이 되기까지는 재인장제의 수모를 딛고서 아들을 낳아 기른 어머니 '원강아미'의 희생이 있었음
- 가난한 집의 구덕훈사로 인해 남편을 선택할 정도로 원강아미는 약속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는 의리가 있고 강한 이미지로 다가옴
- 아들 한락공이는 어머니를 두고 부친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다양한 꽃을 가지고 와 재인장제 집안을 몰락시키고, '사람 살리는 꽃'으로 어머니를 살려냄
- 자청비 역시 남장으로 서천꽃밭에 가서 꽃감관의 딸과 결혼하여 자신을 못살게 굴어 죽였던 남성 종 '정수남이'를 살리기도 하고 또 모략으로 죽은 남편을 살리기도 했음

○ 서천꽃밭의 꽃은 이승과 저승의 공간계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꽃을 상징함으로써 죽어서 끝이 아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생의 기회를 만들어 줌

- 무속의 공간계는 이승과 저승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승의 세계는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꽃의 힘을 빌었을 때 다시 태어나서 재생할 수 있고 기대를 버리지 않게 하는 희망의 공간일 수가 있었던 것임

3. 대립과 화해

○ <천지왕본풀이>는 천지왕의 쌍둥이 아들이 경쟁을 통해 이승과 저승의 주재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천지왕이 쌍둥이로 분화되는 과정은 태극이 음양으로 분화되고 음양의 운동이 태극을 형성한다고 하는 역(易)의 이치와 논리적으로 동일함.

- 신화적 사유가 철학의 논리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이 음양의 운동에서 긴요한 대목은 대립하면서도(상극) 보완적인 관계(상생)에 있음

○ 굿 자체가 인간과 신, 신과 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추구하는 종교적 의례라는 점에서 이런 대립적 시각은 일견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주 무속신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화해가 여신으로부터 촉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삼승할망본풀이>에는 두 세계의 대립이 구조화되어 있는데, 저승과 이승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 있으며, 상호 적대적인 시공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 화해(균형)를 이루고 있는 시공이고, 이 화해는 여신 생활할망으로부터 나눔

-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대립쌍이 변형되었을 때, 대립을 넘어 화해를 이루는 쪽은 결연되어 있는 버려진 자, 타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제주여신 신화의 목소리가 반영됨

4. 욕망과 갈등

○〈초공본풀이〉에서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신분이 높아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무업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양가집의 자식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점선생에 의해 잉태되어 탄생했고 불도 땅에서 자라서, 이들이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음

- 그들에게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과 모친을 살리고 본연의 일에 충실한다는 점에 대한 갈등이 있었으나, 그 결정은 무속 세계의 법을 마련하고 의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인류애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음

○각 본풀이마다 신들의 욕망은 인간의 것과 다름 아니나 그 욕망으로 나타난 결과는 신의 직능이나 본풀이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청비가 남편을 얻고 시아버지의 시험을 거쳐 농경의 씨앗을 얻어온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보다는 농신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각 욕망에 관한 맥락적인 모티프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V. 보전과 자원화를 위한 정책방안

1.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인정

- 제주도 본풀이는 기실 의례인 곳과 그 의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심방, 그리고 실제 심방에 의해 곳이 펼쳐지는 의례의 장소인 신당,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부된 무형문화유산임

- 무속의례와 관련해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송당리 마을제, 제주큰굿, 신당이 있으나 제주도 본풀이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목록에 없는 실정임
 - 기존에 지정된 것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 제주도 무형문화재 송당리 마을제, 제주큰굿, 송당본향당, 새미한로산당, 와흘본향당, 수산본향당, 월평다락굿당의 신당이 있음
 -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및 개인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공간”(협약 제2조 1항)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에 대해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협약 제2조 2항)로 규정
- <제주도본풀이>는 무형유산적인 측면에서 ‘구술 전통’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수 있음

2. 여신신화의 보전에 대한 작업

- 체계화를 위해서는 여신의 정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함.
 - 백주또, 자청비, 삼승할망 등 여신들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제출되어 있으나 당(堂)에 좌정한 여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고, 여신들의 신화를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여신의 정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긴요함
 - 이 작업을 바탕으로 제주 여신들의 전체적인 계보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3. 여신 신화가 구연되는 곳 현장의 보존 작업

- 제주여신 신화의 특징은 ‘제주큰굿’의 현장에서 재현되는 살아 있는 신화이어서, 각 여신별로 구연되는 곳 현장에 대한 조사와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
 - 개별 연구자 단위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기관 차원에서 정리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 긴요함

- 설문대할망과 같은 창조여신의 경우 곳 안에는 없지만 제주의 지형지물과 관련하여 전설화된 자료가 적지 않고, 관련 유물들이 산재해 있으나 적절히 보존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어서 구전되는 여신과 관련된 자연물 등을 도 문화재 등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곳을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신 신화 보전의 차원에서는 여신 신화가 무가로 불리는 상황을 특화하여 보존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구연 공연이 필요함.

4. 제주 여신 신화 자료관 혹은 신화관 설립

- 여신 신화를 보존하고 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집적과 정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그간 연구 정리되고, 새로 체계화 된 여신들의 신화를 가시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이 전당을 여신전(女神殿)으로 꾸며 전시하는 공간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제주 돌문화공원 내에 신화관이 조성되고 설문대전시관 내에 신화관을 설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제주의 여신들을 대내·외로 홍보

5. 여신 신화를 활용한 각종 콘텐츠 개발 사업

- 전설의 땅 프로그램을 운영
 - 위기에 처한 이야기 예술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이야기 구술전통의 부흥 조치
 - 이야기 구술 및 청취 공간 마련
 - 이야기 구술의 새로운 기능, 전승방법 모색
 - 새로운 구술 공간과 청중 개발
 - 비슷한 생각을 가진 시민, 이야기 구연자, 전문가들의 전국 차원 또는 지역 차원의 협력
 - 전체의 복지를 위해 이야기 구술 가치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1. 서론

1. 목적과 필요성

- 제주신화 <본풀이>는 무속의례에서 구연되는 신화로, 제주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가치 면에서 글로벌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고, 굿이라는 제의기반을 바탕으로 본풀이의 내용이나 형식이 독자적인 신화의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어 보전 가치가 큼
- 특히 제주의 무속신화는 '여신신화'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풍성하고 독특한 여신들의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으며, 여신 신화를 관통하는 서사 형성의 원리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제주신화의 문화사적 가치 해명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신의 뿌리를 풀어내는 신화 본풀이에 나타나는 여신들의 이야기 속 역할과 내용에 대한 구술자료 텍스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여신과 관련된 텍스트 분석 자료의 학술적 탐색으로 제주신화의 세계적인 가치를 찾아내고, 가창자의 부재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어서 지속보전이 시급함

2. 연구 내용

- 제주 무속 큰굿 의례에서 불려지는 <일반신본풀이> 속에 나타난 각 본의 여신 신명(神名)에 따라 신에 대한 화소를 정리함.
 - <일반신본풀이>는 큰굿에서 부르는 일반신들의 본을 푸는 이야기로, 12개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 주제는 천지창조, 인간생명의 탄생, 삶과 죽음, 농경, 부귀, 집안의 안녕 등에 대한 주제를 실현함

- 본풀이 속의 여신 화소들을 분석한 후 나타난 주제어를 중심으로 여신들의 이미지를 분석함
- 여신들의 업힘 속에 나타난 제주신화의 본풀이의 세계관을 분석하고, 지속보전 방안을 모색함

3. 연구 방법 및 자료

- 본풀이의 서사 자료는 서사 진행에 따라 주제어를 추출하고 신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텍스트를 선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소장 2004년 제주큰굿 영상 채록자료
- 보조자료: 일반신본풀이 텍스트 분석
 - 2017년 이용옥본 이야기체 일반신본풀이
- 연구 대상 여신 명

〈표 1〉 <일반신본풀이> 속의 여신 명과 역할

유형	본풀이 명	여신 명	역할, 위상	
일반신본풀이	천지왕본풀이	총맹부인	소별왕, 대별왕의 모	
	삼승할망본풀이	삼승할망(생불왕) 맹진국따님애기	- 아이 잉태 - 아이 양육	
	구할망본풀이	구할망 동이옹궁따님애기	- 죽은 아이를 저승으로 인도 - 아이들에게 질병을 줌	
	마누라본풀이	서신국마누라	- 대별상마누라(마마신)의 부인 - 아이를 잉태하였으나 해복하지 못하고 삼승할망의 도움으로 아이 낳음	
	초공본풀이	저 산줄이 벌고, 이 산줄이 받아 왕대월석금하늘 주지 멩왕아기씨		- 주자선생에 의해 잉태 - 젓부기삼형제(무조의 신)를 낳음
		유정승따님애기		- 최초의 심방 - 자부장자의 외동딸아기를 위한 곳을 함
이공본풀이	원강아미		- 사라도령과 구덕혼사 - 한락궁이 모	

유형	본풀이 명	여신 명	역할, 위상
일반신본풀이	삼공본풀이	가문장아기	- 스스로 운명 개척 - 마통이와 결혼하여 부자가 됨 - 부모의 눈을 뜨게 함
		은장아기	- 가문장아기를 내쫓는데 일조함
		늦장아기	- 가문장아기를 내쫓는데 일조함
	차사본풀이	과양생이 각시	- 버무왕아들 삼형제를 죽인 후 연못에 버림 - 연꽃에 핀 꽃을 따다가 태운 후 나온 구슬을 먹고, 삼형제를 낳음 - 삼형제가 죽은 원인을 밝히다가 악행이 드러나 염라대왕 장치
		김치원님 부인	- 원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림을 끌어들이는 것을 조연함
		강림 큰 부인	- 강림을 도왔으나 염라대왕이 데려가자 상을 치름 - 기일 제사법을 마련함
	세경본풀이	자청비	- 하늘옥황의 문도령을 사모하여 시련을 거쳐 오곡의 씨앗을 얻어다 제주땅에 농경을 행함 - 지모신, 곡신, 사랑의 신 특성
		서수왕딸아기	- 문도령과 혼인하려고 했으나 자청비가 나타나서 파혼 당함 - 죽어서 새가 됨
	문전본풀이	여산부인	- 일곱아들의 모 - 조왕신(부역신)이 됨
		노일저대귀일의 딸	- 남선비의 첩이면서 악처 - 아들을 죽이려다 발각되어 측간에서 죽음 - 칙도신(변소신)
	칠성본풀이	칠성아기씨 칠성아기씨의 일곱 딸	- 중에 의해 임신이 되어 일곱의 뱀을 낳음 - 송대장 집을 부자로 만들고 좌정함 - 안칠성이 됨
	맹감본풀이 (사만이 본)	수만이 부인	- 자신의 머리를 잘라 양식을 사오라고 함 - 삼차사를 맞아 방액하여 남편을 살림
	지장본풀이	지장아기씨	- 식구들이 죽음을 보고 '전세남 곳'을 한 뒤 새로 환생함

4. 주요 연구 내용

- 연구 대상
 - 제주의 <일반신본풀이> 중 여신 관련 본풀이
- 주 자료는 제주학연구센터 소장 굿의례 현장 아카이브 자료
 - 2004년 이종춘 대역례 굿(제주특별자치도 소장) 일반신본풀이
 - 2018년 이야기체 <일반신본풀이> 이용옥 구술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 시간적 범위: 2017~ 2019
- 조사 방법
 - 문헌연구
 - 현장연구
- 연구 내용
 - 여신 관련 공통의 주제어 추출
 - 신적 직능에 따른 주제어 추출
 - 공통 주제어에 나타난 신적 특성 규명
 - 본풀이 텍스트 속의 페미니즘적인 이미지 분석
 - 본풀이에 나타난 세계관적 기반 모색

5. 정책과제와 활용 효과

- 제주신화 <본풀이>의 문화사적 가치 추출
- 제주여신들의 이미지 분석으로 제주여성 정체성 확립에 기여
- 여신의 이야기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자원 발굴
- 여신 관련 <본풀이>의 글로벌 가치 해명

II. 일반신 본풀이의 여신 화소 전개

1. <천지왕본풀이>의 '총명부인'

- <천지왕본풀이>는 ㄱ 초감제 <베포도업침> 의례에서 부르는데, 초감제의 소제차인 <베포도업침>은 천지자연과 인문사상인 천지혼합(天地混合)으로부터 우주개벽(宇宙開闢), 일월성신(日月星辰)의 발생, 중국이나 우리나라 산수(山水)나 국토(國土)의 형성, 국가나 인물의 발생 등 지리 역사적 사상을 차례차례 가창함
 - 이 자연사상의 발생가창을 '베포친다'고 하고, 인문사상의 발생가창을 '도업친다'라고 하는데, 이는 굿하는 장소를 신에게 해설하여 올리고 우주까지 확대시켜 설명을 시작하는 것임.
- 초감제는 천지개벽으로 하늘과 땅이 열리고 질서 체계가 이루어지기 이전 '일목궁'의 상태에서 이 어둡고 답답한 혼란스러운 세계를 열어 제치고 새벽을 깨우는 제차임
 - ㄱ 시작 전에 혼돈된 지상세계의 질서를 정리하고 ㄱ 하는 장소의 신성성을 위해 '베포'를 치고 '도업'을 쳐서 우주적 질서와 인문사상의 발생가창을 다루는 초감제의 소제차가 있음
- <천지왕본풀이>에서 '천(天)-남(男)-저승-형(兄)-선(善)-질서(秩序)'와 '지(地)-여(女)-이승-제(弟)-악(惡)-무질서(無秩序)'라는 쌍분적 세계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먼저 남녀라는 이성의 결합에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 하나 실패하고, 형제라는 동성동혈에 의해서 이를 극복하려 했으나 결국 인간이 가진 문화 때문에 다시 실패한다는 것으로, 인문질서의 혼란은 운명적인 모순임을 시인하는 것"¹⁾
- 신이 꽃 가꾸기 경쟁으로써 생사의 직능을 관장한다는 정도에 그쳐져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생(生)-현세(現世)-육(陸)-승리(勝利)-번영(繁榮), 사(死)-피세(彼世)-해(海)-패배(敗北)-쇄멸(衰滅)'이라는 이항 대립의 구조논리가 있고, 자연의 매개가 양영역의 융화에 실패하고, 결국 문화에 의해서 현세의 생이 번영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²⁾

1) 현용준, 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329쪽.

2) 위의 책, 334~335쪽.

-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천지왕의 능력으로 수명장제와 같은 악덕한 상술을 가진 인물을 징치했으나, 결국은 두 형제 대별왕과 소별왕의 법칙이나 원칙을 어기는 '꽃가꾸기' 시합에서 동생 소별왕이 '꽃바꾸기'를 통해 저지른 범죄가 아직도 지상에서 난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음
 - 하늘에는 남신인 천지왕과 땅에는 여신인 지부왕이 좌정해 있는 공간 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곡씨(박씨)를 심어서 자란 나무는 수직 공간 속에서 오르내리는 통로가 됨
- 일반적으로 곡식을 빌어다 밥을 해서 바치는 모티프는 여성들의 지극한 일상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악한 인물을 징치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고, 또한 인간세상의 창조를 위해 두 아들을 낳아서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이분법의 논리 마련도 여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악은 반드시 몰락하고 선이 이긴다는 선과 악의 이중적인 논리도 여신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
 - 형제간의 규칙 어기기, 약속의 파기, 법의 위반으로 인해 세상에는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법이 달라지는 원인이 되고, 이승에서는 온갖 범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은 그 원리가 <천지왕본풀이>에 근거함을 말함
- <천지왕본풀이>의 지부왕인 총명부인은 베포와 도업을 돕는 여신적 특성이 강한 지모신으로서 성격이 강하며 천지왕에게 순종하는 여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천지왕으로부터 수태되어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들은 서로 어명국 아방국을 다투는 등 인간적인 욕망을 보여주고 있음
 - 두 아들은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여 두 세계를 만드는데 인간들이 사는 이승에 사는 사람들은 '꽃바꾸기' 가로치기를 했던 동생의 행위처럼 남의 물건을 탐내고, 물건을 훔치는 등 무질서, 혼돈, 무법이 가능한 세계가 됨
 - 여신의 역할만으로 보았을 때 선과 질서의 구현, 승리와 번영만을 예고하나, 남성들에 의해 인문 질서가 혼란되어 양 영역의 융화에 실패
- 여신 중심으로 전개한 화소는 천지왕/지부왕(총명부인), 수명장제(수맹이네), 애기(아기), 대별왕/소별왕, 아방국/어명국, 본메본짱이 있음
 - 여신의 역할은 단지 밥을 해서 천지왕에게 드리고, 아이를 수태한 것으로 인간적인 갈등이나 법의 존재에 대해 지극히 수동적인 편임

<표 2> 여신 지부왕 ‘총명부인’ 화소

여신 명	전개	무가(이중춘, 2014)	이야기체(이용욱, 2018)
총명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지왕이 지부왕에 내려섬 - 수명장자에게 쌀을 빌어 천지왕에게 식사 대접 ○ 수맹이(수명장자) 징치 ○ 대·소별왕의 모 - 소별왕, 대별왕 탄생 ○ 아버지 찾기 본메 본짱은 콧씨 세 방 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지왕이 지부왕 누려사난, 밥 혼상을 지어 놀 곡명 없어 지난 그 고을에 수명장제 집 이 간 쌀 한 뿔을 앓아다가, 혼불두불 제 삼불을 일어네 천지왕 밥 혼상을 차려드렸더니 - 첫 숟가락에 머흘이 먹히자 천지왕은 딸란 온 칠천 명의 제군사와 오천 명의 진중에게 걸명하는 신식 잡식법을 마련함 ○ 천지왕님아, 지나간 밤 얘기 이름이나 성명 지왕감서, 아들이랑 낳건 몬저난 건 대별왕, 말째난 건 소별왕, 이름 성명이나 지읍소서 - 혼 텃줄에 아들 성제 솟아난, 몬저 난 건 대별왕, 말째 난 건 소별왕으로 이름 지읍데다. - 혼설 두설 열다섯 십오세, 7만 준삭 차가난에 아방국도 두투곡, 어멍국도 두툼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명부인은 밥상을 차리젠후난 헐 수 엇이 수맹이네 집이 간, 쌀 혼뿔을 간 장례에 빚저단 - 혼 작박을 거려 난, 밥 혼상을 차려 천지왕 안티 상을 들렁가난 첫 숟가락을 뜯게 머흘이 씹힌 거라 - 나쁜 마음 먹은 수맹이는 이 고을에 뇌물 필요가 없다. 수맹이 네랑 사름 죽어난디 귀양풀이 헐 때랑 오곡밥후영 경허연 그걸로 주렌 ○ 간밤이 뉘 아기는 나면 뉘엔 이름 지읍니까 - 혼 텃줄에 두 개를 낳뉘, 아들랑 낳건 먼저 난 걸랑 대별왕, 말째 난 걸랑 소별왕 - 본메본짱은 콧씨 세방울을 심어 한 줄은 지붕위로 두 줄은 옥황더레 올리도록 - 애긴 나난 아들 성제가 태어난, 게난 몬저 난건 대별왕으로 이름 지오고, 말째 난건 게난 소별왕으로 이름을 지완

2. <삼승할망본풀이>의 ‘삼승할망’, ‘구할망’

- 제주 큰굿 초감제의 <배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 등을 통해 세계의 기원과 질서를 풀어난 다음에 인간의 탄생을 기원하는 <불도맞이제>에서 <삼승할망본풀이>를 부름
 - 굿의 첫머리 창조신화를 통해 제시되는 세계의 질서는 천지왕과 소별왕·대별왕 등인 남성신들에 의해 구축되며, 다음으로 등장하는 신이 바로 여신인 생불할망임
- <할망본풀이>에는 <명진국할망본풀이>라고 하는 <삼승할망본풀이>와 동이웅궁따남애기인 <구할망본풀이>, 그리고 마마신인 서신국 혹은 흥진국대별상이 등장하는 <마마신본풀이>가 있음
 - 이 세 본풀이는 각기 다른 개별적인 본풀이가 아니라, 삼승할망을 중심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명진국할망인 ‘삼승할망’이 중심임

- 비교의 대상이 되는 천상계와 요왕계 곧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바다에서 함(函)에 담겨 떠 온 상주표착(箱舟漂着)의 두 할망의 신적 특성인 선과 악, 이승과 저승, 해양과 천상, 삶과 죽음의 대립을 통해 보여주는 두 신의 역할은 큰 의미가 있어 보임
- ‘맹진국따님애기’는 석가여래 아버지와 석가모니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부모에 효심하고, 일가친척이 화목하고, 깊은 물에 다리 놓아 월천(越川) 공덕 쌓아가는’ 애기씨로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감
 - 천상의 옥황상제의 딸인 삼승할망은 전지전능하여 신화의 스토리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녀는 아이를 포태시키거나 낳게 할 수 있었음
-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이름처럼 동해용왕아버님과 서해용궁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열다섯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수염을 뽑거나 담뱃대를 꺾고, 어머니의 젖가슴을 잡아 뜯은 행위를 하고, 불효한 죄로 용궁에서 쫓겨남
 - 당본풀이에서 비슷한 짓을 한 ‘퀘네킷또’가 쫓겨나듯이 무쇠석갑에 갇혀 바다에 버려졌는데, 불효와 축출이 그녀의 신화적 요소임
 - 임박사는 구할망이 실린 석곽을 바다에서 건지고 그녀의 도움으로 아기를 잉태했으나, 임신한 아내가 해복이 어려워 서급을 다투던 차에, 천상의 옥황상제에게 간청하고 하늘에서 보낸 삼승할망의 도움으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었음
- 동이용궁의 딸은 삼승할망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아이의 해산을 도왔다는 불만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상징성을 지닌 생명의 꽃씨로 꽃피우는 내기를 해서 삼승할망이 이김
- 삼승할망과 구할망 두 신은 그 출자가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바다 용궁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할망인 동이용궁따님애기는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죄를 지어 석함에 담겨 이 세상에 인간처로 오게 됨
 - 두 할망 신의 내방과 그 신적 출자는 성격이 다른데, 용궁에서 쫓겨난 신과 이 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하늘에서 간택되어 내려온 신으로 상대적 차별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두 할망의 역할은 고정되고 있으며, 이승에서 아이의 생육을 돌보는 ‘삼승할망’과 15세 미만의 죽은 아이들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구할망’으로 구분하는 장치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음
- 삼승할망은 옥황상제의 딸인 천신으로서, 많은 아량과 덕이 있는 신적인 직능을 지니고, 자신이 자손을 수태하고 해산시킨 인간 후손들의 얼굴을 곰보로 만들고 질병을 주는 마마신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흥진국대별상 머느리에게 수태를 주기는 했으나 해산을 돕지 않아서 결국 흥진국대별상의 굴복을 이끌어냄
 - 삼승할망, 구할망, 마마신 세 편의 개별 본풀이는 삼승할망의 신적 직능 확인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며, 저승의 세계에서 아이들을 담당하는 신격은 온갖 질병으로 아이들의 죽음이 일상화되어 신앙민들에게 송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죽은 아이를 저승으로 잘 보내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있음

〈표 3〉 삼승할망(맹진국할망, 옥황상제따님애기), 구할망(동해옹공따님애기),
홍진국대별상부인(서신국마누라) 화소

여신 명	전개	무가 (오춘옥, 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삼승할망 (맹진국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풀이 서사 ○ 할마님은 옥황상제따님애기(명전대왕따님애기) - 열렬하고 똑똑하고 요망짐 - 인간 자손들에게 포테를 줌 - 해산도 시켜줌 ○ 삼승할망이 마마신인 홍진국 대별상을 만나 자손들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함 - 홍진국대별상 며느리에게 자손 생물을 주었으나 어디로, 몸 가를 곳을 모름 ○ 홍진국대별상부인은 서신국 부인에게 와서 의논함 - 할마님 법당 앞에 와서 절함 - 노각성주부연줄로 내려섬 - 며느리의 해복(解腹)을 도와주었으나 눈도 코도 없는 아기를 낳음 ○ 홍진국대별상이 용서를 빌며 도움을 요청 - 은가위로 눈과 코를 찌르니 천하도령이 됨 - 삼승할망에게 굴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님 불도연맛이로 할마님 난산국데레 제누립서 ○ 할마님은 옥황상제 따님 애기롭서 - 남방사주, 봉에바지, 북방사주 저고리 열두폭 대홍대단 훗단치메, 명지줄 장옷은 열두단출 돌고, 낙낙장송 코제비 버선을 신어 - 노각성주부연줄로 옥황데레 도올롭디다. - 어계삼승 구덕삼승, 걸레삼승 거느리어, 혼착 손엔 번성꽃, 혼착 손엔 환성꽃을 둘러잡앙, 아덜 자손을 채급하곡, 딸 자손을 채급을 시겨주옵데다. ○ 어명 몸엔 아호열 둘, 은도리 방석에 종이 붓을 낱, 예미 젓줄 등기명 열두과만 준삭이사 차민 할마님은 노각성주부연줄로 누려삼네다 ○ 머리 풀어 곤지에 걸어두고, 치메 벗엉 간지에 걸어두고 초자리 걷어 북덕자리 깔앙, 할마님 들어가민 얘기어명 상가메에 은찝기뜬 손으로, 삼세 번을 싹영 머리도진물 씨더지민, 부뜬 빼는 닛추우고, 열두신 빼 물러앗어근 인간 회복을 시겨주옵데다 - 동데레 머리허민 동부자 솟아나곡, 서러레 머릴허민 서가난을 시기곡, 남데레 머리허민 남장수를 시기곡, 북데레 머리허민 북단명을 시겨근 회복을 시겨줍데다 ○ 난 인간생불 할마님으롭서, 네 자손 후손 손메가 하나 잇이난 좋은 준지나 채급시겨 줌센 하자 거절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마님은 옥황에 명전대왕 따님애기로서, 하도 열렬하고 똑똑하고 요망지난 - 널랑 인간에 내려 강 인간 자손덜 포테도 시겨주곡, 해산도 사겨주곡, 경허영 법지법을 마련허라 ○ 남방사주 저고리에, 북방사주 말바지 입곡, 열두폭 대홍대단 훗단치메 입고 물명지 장장옷에 단추도 열두 단추, 이제 금주란 철죽대, 은주랑 만죽대를 짚으곡. 촌실 혼제, 은구세 그걸 돌런 만산족두리 둘러싼 나막창신에 웨코 벗은 백농보선 신고허연 - 정월 초사흘날 이구산으로 딱 내려사난 - 문 베기던 보난 걸레삼승, 업계삼승, 구덕삼승, 일흔여덟 보살 청달 ○ 할마님은 금법당데레 들어산 할마님은 앓아 천리를 보고, 사만리를 보난, 가난한 집이도 자손이 귀하고, 막 잘 사는 부자침이도 자손이 귀하고 - 가난한 자손에게도 포테를 주고, 부재침이도 포테를 주는 디, 하루 앓양 천 명을 포테주고, 해산을 시기젠허민 만 명을 해산시기는 디 ○ 딱 열두폭 대홍대단 치메 벗언 걸어놓고 - 북덕자리 출런, 얘기어명 상가머리를 여러 번을 싹어두언 - 아들을 낳젠허민 붉은 이슬을 누리고, 딸은 낳젠허민 흰 이슬을 누려 - 옥황에서 올 때 가지고 온 촌실로 얘기 뱃도롱줄을 묶영 은구세로 뱃도롱줄을 꿸영 - 동데레 머리허난 잘 살켜어, 서가난, 남장수, 북단명 험직허다 ○ 할마님 애기 키우젠허민, 물웨크듯, 당베치크듯, 남누물키와가듯, 버릇버릇허영 할마님에게 잘 키와줍센

여신 명	전개	무가 (오춘옥, 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삼승할망 (맹진국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망 주손 신디강 엮어지고 틀어지게 영혜연 열두 송흠을 불러주어간다. ○ 서신국의 아들이 후를 날은 인간흔서를 홉데다. - 가매부출에 톨랑가서 서신국 메누리한테 생불을 주어간다 - 서신국 며느리는 죽을 사경이 뉘엿구나, ○ 여인이 몸이 뉘곡 비는 놈 안티는 지는 법이로구나 - 노각성주부연줄로 느려삼디다. 서신국 며느린 혜복을 헤여갑디다. 혜복을 헤여도 눈도 코도 엇인 애기로구나 - 너도 네 주손 좋은 얼굴을 보고 싶으나, 나도 내 주손 좋은 얼굴을 보고 싶구나. - 촘쌀 흔제 품에 콤어 놓고, 은구세를 콤에 품어 앓영 간 콤주멍이를 조약후게 건드리난 천하도령이 솟아납데다 - 할마님이 아멩해도 나 기술이 아멩중덴 허여도, 할마님 기술만인 못헉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마님에게 불도맞이도 하고, 공을 듣이는 거 ○ 명진국할머님이 흥진국 안테 엇데를 허연 준지를 하여주지말아 줍센 - 흥진국대별상이 핏네나는 디나 멩이는 여정네가 남자의 행차길에 막 옥을 허멍 주손들에게 준지를 줍 - 할마님이 슬그머니 부애가 난 흥진국메누리한테 포테를 시겟주게 - 열두 달이 뉘가난 애기어멍도 죽을 수경이 뉘가고, ○ 할마님이 금법당 안에서 영문을 열안 보난, 축지법으로 읽어서 여자에 마음으로, 남정네가 여정네를 훗앙 와이벤 - 배소꿈의 손주도 못 볼 지경이 뉘난 ○ 옛날 얼굴은 다 못 맨들아도 내 자손 고은 얼굴을 맨들아도렌 - 할마님이 간 보난 옛날 본 얼굴은 엇인 - 게도 메꿀만이 매꽈시난 그 맨 알앗덴 후연 ○ 대별상 메누리 애깃배 맞추게 허연 - 은구세로 콤주동이 쓰와후게 건드난 옥동자가 찰락하게 씨더지난 - 나 기술 좋덴허단 보난 나보다 더 좋은 할마님도 있구나
구할망 (동해용궁따님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이용궁할머니의 탄생 - 석 들백일 불공을 드림 - 동이용궁따님애기 행실이 안 좋아, 무쇄설략에 넣고 띄움 - 임박사가 발견하여 열고 아기씨를 발견함 ○ 동이용궁할마님이 임박사 부인에게 생불을 줌 ○ 아기를 해복시킬 방법을 몰라서 옥황상제에게 등장 - 명진국따님애기를 보내 아기 탄생을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이용궁 큰 할마님은 아방국은 동이용궁, 어멍국은 서이용궁입니다. - 용궁뉘님애기 구월구일 탄생후난 혼 설 두 설적인 어머님 가슴에 앓앙, 무렵에 앓앙, 젓고고리 톨은 쉼, 두 설 세 설 나가난 아버지 무렵에 앓안은 조삭 흔췌, 이런 종자 놉 뒷당, 집안 허주나키여 ○ 무쇄설략 속에 담안 상거심 주석통췌 절로 생강체완 죽으라고 동이요왕 더레 띄와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다섯 살 안에 죽어부는 애기들은 구할망이 데려가는 거, 서천꽃밭 더레 - 동이용왕말췌뉘애기가 혼 설 적엔, 두 설 적엔 어멍 짓가슴 두 드린 췌, 아버지 삼각수 홀튼 췌, 시 설 적엔 췌 의복 버물린 췌, 니 설적엔 동네 델척 종저 우막음제 - 무쇄설략을 짠 임부로임박사 시정 나건 계문게탁후연 ○ 백물레앗디 울르자, 임박사가 그 걸 건저 놓안 열안보난 췌 곱은 애기씨가 와이아신거라

여신 명	전개	무가 (오춘옥, 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p>구할망 (동해용궁따님 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이용궁할머님과 명진국할머님이 싸움 ○ 꽃가꾸기로 저승할망과 이승할망을 곱 가름 - 동이용궁 할머님 곱은 불리도 웨 불리고, 가지도 웨 가지 - 맹진국 할머님은 사만 오천육백 가지 ○ 맹진국할마님은 생불할망 - 동이용궁할마님은 저승할망으로 좌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박사는 얘기 었어, 무위 허난 야, 얘기 인간생불을 줌센, 석 들 백일 불공을 드립데다, - 나가 인간생불 할마님이 노렌, 경후건 인간생불을 줌센 - 아방 몸엔 석들 열흘, 어멍 몸엔 아오열 덜 준삭을 채와간다 - 열 달이 웨여도 몸은 못 갈라간다 ○ 옥황상제님얘기 명진국할마님은 서천제미공연 발안 넘어가노렌 허난 - 야 어멍허난에, 내가 생불 준 조스, 누게가 임이용처 데로 회복을 시겼느냐 - 머리 트듬허멍 씨와갑데다 ○ 옥황상제 천하를 굶어보 다, 곱을 싱경 꽃번성허는 데로, 저승할망 이승할망 굶갈르라에 - 맹진국할마님 허고, 동이용궁 큰할마님 허고 혼날 혼시 곱을 심엇더라 - 동이용궁 할마님 앞에 곱은 불리도 웨 불리어, 가지도 웨 가지여 - 맹진국할마님 앞의 곱은 불리는 웨 불리라도 가지도 수만오천육백 가지 ○ 동이용궁 큰할마님이랑 저상할망으로 들어상 먹곡 ○ 옥황상제님얘기 맹진국할마님이랑 이싱 생불할망으로 들어사기 곱을 갈라 마련을 - 서천꽃밭 갓수다 잘 헤영 구할망 약심짚에 인정걸 거들랑 - 돈으로 영, 과저 갑, 사탕 갑이영 인정하영 걸영, 터진 공방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안부인간 포테나 시겨보라, 포테를 시기니, 아호열덜 준삭은 차도, 해산을 못 시기는 거라 ○ 임박사가 천만 낙심을 후엔 옥황드레 금바랑소리를, 등장을 드난 - 옥황상저가 할마님신디 연락을 현 거주게 - 맹진국할마님 들어오멍 북덕자리 출련, 아곤 장식, 한 장석에 할마님 들언, 그 얘기 내완 놔두난 ○ 동이용궁말젯뽕애기 어디 덩기 단 보난, 난데 웃이 얘기 울음소리가 나난 - 맹진국할머님이 계시난 싸움 바락이 똬겨 주 - 옥황드레 도올란 옥황상저님 한 시간 이만저만허엔 ○ 옥황상저는 놋동이에 은동이에 꽃씨 싱건 준거라 - 할만님이 싱근 곱은 웨 불리에 사만오천육백 가지로 - 동이용왕말젯뽕애기 싱근 건 가지는 웨 가지 하나에, 뽕리는 사만오천육백가지로 막 벌어진거라 - 명진대왕님얘기랑 명진국할마님으로 널랑 들어상, 법지법을 마련허고 ○ 동이용궁말젯뽕애기랑 명진국할망이 포테를 칭 놔 두건, 석달열흘 백일 쫘만 똬걸랑 물로 피로 흐르게 만들고 - 애기낭 사흘, 일주일 백일 쫘만 똬걸랑, 어멍 짓네 맞칭 경혜영 얘기 돌알가곡, 경허영 얻어먹길 마련허런 - 맹진국할마님은 혼 달에 여섯 번을 상을 밧는데, 구할망은 세 번 밖에 상을 못밧아 - 아흐레, 열 아흐레, 스무 아흐레, 이 아흐렛날은 구할망 날이엔

여신 명	전개	무가 (오춘옥, 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홍진국대별상 부인 (서신국 마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신국 며느리가 죽게 되자 서신국은 문을 잠간 드러 놓 - 서신국과 친한 천왕보살님을 찾아감 - 할머니노실을 풀어야 한다고 알려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신국 메누리는 아홉열 돌 준삭과만차도 어덜로 몸 가를 처릴 몰라간다 - 아이고 메누리 죽는 꼴을 어뎡보리 - 서신국 마누라는 금금드리 생각해연 보난, 천왕보살님하고 서신국하고 돌도 없는 친구로구나 - 천왕보살님이 단수육갑오행팔팔을 지평 굳는 말이 “할마님 노실을 풀려사, 메누리도 살리곡, 조손 후손이 얼굴을 보니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진국 대별상 아들이 장가를 가자 할마님은 포태를 시킴 - 해산 할 줄을 몰라서 배속의 아이는 죽을 사경이 다뉘여감 - 홍진국대별상 부인은 서신국을 찾아감 - 누람지 폐와노고 허영, 백보 배깃덜로 굶어 소정을 하도록 함 ○ 홍진국대별상은 할마님 조손에게 가서 얼굴의 준지를 메꿈 - 대별상 메누리 아기배 맞추게 후연

- <할망본풀이> 여신 관련 주제어로는 삼승할망(인간생불할마님), 동이용궁, 용궁뜨님애기(동이용왕말젓뜰애기), 무췌설각, 서천꽃밭, 인간생불할마님, 포테, 금바랑소리, 천왕보살, 불도연맞이, 옥황상제뜨님애기(명전대왕뜨님애기), 홍진국대별상마누라(서신국마누라), 환생꽃과 번성꽃, 상가메, 노각성조부연줄 등을 들 수 있음

 - 삼승할망은 아기의 육아에 필요한 어께(업게), 구덕, 걸레할망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에도 할망의 신적 기능이 있고, 삼승할망이 관여한다고 여김
 - 환생과 번성꽃은 아기의 포태를 가져다주는 생명의 꽃이며, 또 이승과 천상을 오고 갈 때 쓰는 ‘노각성조부연줄’이나, 아이의 생명줄과도 같은 ‘상가메’와 같은 주제어는 생명이나 수태를 의미함
- 여성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두 여신 동이용궁딸인 해양을 출자로 한 여신 ‘구할망’과 하늘을 출자로 한 천신 옥황상제의 딸인 ‘삼승할망’은 신적 직능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대조가 되는데, 구할망은 어둡고 부정적인데 비해 삼승할망은 문제를 해결하여 밝음의 세계를 가져오고 있음

 - 이 할망본풀이는 여성들의 성장과 가내의 훈육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매김했을 것으로 보임

3. <초공본풀이>의 ‘주지명왕아기씨’와 ‘유정승따님애기’

- <초공본풀이>는 무법을 창안하고 무악기와 무구를 만들어 굿을 하는 심방(무당) 조상(祖上) 신에 대한 본풀이임
 - 무속의 기본 원리가 되는 무법과 이를 담당하는 직능신이 필요한데, 무속의 세계를 관장하는 여신으로는 삼시왕에서 무구를 관장하는 천상적 존재로 ‘주지명왕아기씨’와 무당서 삼천 권을 읽고 최초로 무당이 된 ‘유정승따님애기’ 두 신임
 - 신의 위계와 조상들의 계보는 제주도의 심방 집에서 치르는 무속의례로 심방들이 역가 바치는 ‘신 곳’에서 신질(신길)을 밟는 조상들이 열거되는데, 초공본의 <공시풀이>는 ‘초공연질’의 무조신과 무당서 삼천 권을 읽은 최초의 여무인 ‘유정승따님애기’로 거슬러 올라감
 - 무조신인 초공을 낳은 어머니 ‘주지명왕아기씨’는 절에 가서 빌고 태어난 귀한 여신으로, 부유한 부모들은 아들을 바랐지만 재물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정성이 모자라 결국은 딸로 점지되었음
 - 바친 재물이 한 근이 모자란 것은 여신의 탄생을 예언하는 관용적 수법으로, 이는 태어난 아기의 운명이 순탄치 않을 것을 암시함
- ‘주지명왕아기씨’는 아들들의 출산(出産)과 양육(養育)을 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
 - 천상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남성인 ‘주접선생의 가르마 타기’로 수태되어서, 주접선생을 찾아가서 온갖 시험을 겪었으나, 남편은 불도 땅으로 가서 아들을 낳아 키우라고 하면서 같이 사는 것을 기대해 수난을 겪고 찾아갔으나 거절을 당함
 - 남편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똑똑하고 영리한 ‘젯부기삼형제’의 탄생과 양육에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니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음³⁾
 - 불도 땅에서 낳은 아들들의 탄생도 신이한 데, ‘젯부기삼형제’는 겨드랑이나 가슴을 헤치고 태어나서, 이들의 탄생은 비범한 영웅 탄생이면서 천상적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아들들의 성장에 ‘주지명왕아기씨’ 어머니의 역할은 헌신적으로 자식 교육을 위하여 ‘거무선생’의 시중을 들고, 세 아들 역시 서당에서 물을 떠오는 ‘물지기’, 벼루 가는 ‘벼루지기’, 아궁이에 불을 때는 ‘굴묵지기’를 담당하면서 공부를 함
 - 그들은 나날이 일취월장하여 과거에 합격하지만 양반의 자식이 아닌 중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결국은 입격을 거부당하고, ‘중의 자식’이라는 천대받는 신분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점에서 그녀 자식인 아들 삼형제도 늘 수모를 받아야 했음
 - 유정승 집의 아들은 자신의 과거 합격을 위해 ‘젯부기삼형제’의 어머니를 죽이는데, 이는 상중의 자식들이 과거를 입격하지 못하는 것에 인한 것이지만 삼형제는 바라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무업을 택해서 심방이 되는 운명을 감내해야 함

3) 이유경, 2012,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 탐색의 양상과 의미”, 『어문논문』 제40권 제1호, 어문학회, 204쪽

- 아들은 어머니를 ‘삼시왕’으로 모시는데, 대대손손 무업 조상으로서, 또 ‘다시 훗앙 올 조손’을 맞는 대모신의 신격과도 같은 위상을 지님
 - 여성으로의 태어남은 여자이기에 받아야 하는 수모 또는 고난을 넘어서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수모나 고난은 자식 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고난은 공업을 위한 기대감과 암시라 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공업은 인류애적인 것으로 기대됨
- ‘젓부기삼형제’를 과거에 낙방시키려고 온갖 수작을 한 유정승아들은 그 되값음을 받게 되고, 그의 여동생이 다시 무업에 임하게 되는데, ‘유정승따님아기’는 무구인 푸른색의 육간 제비를 내려받고, 무당서 삼천 권을 읽어 공인된 최초의 여 심방이 됨
 - 양가집의 규수가 최초의 무속의례를 집전하는 사제자이면서 무업의 조상으로서의 심방이 됨

〈표 4〉 ‘노가단풍조지명왕아기씨’와 ‘유정승따님애기’ 화소

여신 명	전개	무가(서순실, 2014)	이야기체(이용욱, 2018)
노가단풍조지명왕아기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정국과 짐진국 대감의 딸 - 재물이 부족해 자지명왕아기씨 딸로 탄생 ○ 주점선생에 의해 수태 - 초공신 임신 후 집안에서 쫓겨남 - 금봉채로 다리 놓고 철죽대 그릇을 보고 주점선생을 찾아감 - 초나락까지 시험을 거침 ○ 초공신의 모 - 불뚫당으로 내려서서 세 아들을 낳음 - 바느질로 아이들 공부시킴 ○ 과거보러 보냄 -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중의 자식이라고 해서 과거를 주지 않음 - 아기씨를 깊은 궁에 가두고, 죽었다고 해서 속임 ○ 아들은 심방이 되어 어머니를 삼하늘에 모시고 삼시왕에 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때는 산 앞은 발이 벌여수다, 저 산 앞은 불이 벌여수다, 저 산엔 노가단풍이 진 곳 험네다. - 주점선생이 저 돌은 곱긴고와도 가운데 계수나무 밝힌 듯하고, 저 돌보다 더 고운 아기씨가 금세상에 컴뽀후난 ○ 아기씨는 하느님이 불까 청너울을 쓰고, 지하님이 불까 흥너울을 쓰고, 얼굴 뵈오리야 뵈너울을 씨어간다 - 은수저로 방울방울 좇을 새에, 없던 손이 내돌양, 아기씨 머리 삼세번을 쓸 어가난 줍막줍막 놀래여 - 세곰세곰 연드레 먹고 저라 여미저라 먹고저라 높은 낭에 열매로구나, 딸수가 엇이난 황금산의 신령이로구나, 모진 광풍 불어가난 열맨 떨어지언 - 눈을 곱방눈이 뵈고, 입은 작박 입이 뵈고, 야겐 흥쫂이 뵈고, 벼는 무사 등동베가 뵈고, 발은 무사 동동 발이 뵈여시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에 간 주청허언 난 애기씨면 녹하지언단풍들엇덴 후언 ‘녹하단풍조지명왕애기씨’로 이름 지은 거라. - 추점선생이 하는 저 돌은 곱긴고운 가운데 계수나무 박혔건만, 우리법당에 오란 수룩드려 낳은 인간에 녹하단풍조지명왕애기씨 만큼은 못 곱덴 ○ 애기씨가 명과 복이 풀르난 명과 복을 잇으레 권제를 받으려 음 - 느진덕정하님 주는 것 광, 애기씨 손으로 흔 흡을 주는 걸 맞서질 못후영 ○ 하늘이 불건가 청너울을 둘러쓰고, 지하님이 불건가 흑너울을 둘러싼 - 한착 손 옥황에 단수육갑 짚으레 갓덴 현손이 뜬금 엇이 나오란, 애기씨 상가메 머리를 세 번을 술술허게 씌어분거라 - 애기씨가 그 날부터 먹던 밥도 먹기 싹푸고, 속이 니울니울헌게, 석덜열흘 백일이 뵈어가난 돌클돌클 혼 연드레도 먹고정후고, 세곰세곰 오미조도 먹고정후고 - 아맹헤도 이상허다 나 뜰애기야 이레오렌 조곳디에 오렌후난, 가슴에 젓줄이 푸룻푸룻 산 거 아니

여신 명	전개	무가(서순실,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p>노가단풍조지 명왕아기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대양에 물을 떠다 놓 안 젓가슴을 헤친 바래여 보난, 아기씨 배안에 중 이 아기덜 삼형제가 앓양 컴구나, “이년, 저년 죽 일 년아, 잡을 년아, 대동 통편에 청뱃섬에 목 걸령 죽일 년아, 궁 안네도 버 름이 들어서냐, 앞뱃디랑 작두를 걸라, 뒷뱃디랑 버 텅을 걸라” ○ 아기씨로구나, 먼정에서 초나록을 까젠후난 닉빨 로 까젠후난 닉빨이 아프 고, 손으로 까젠후난 손이 아프고 ○ 중은 두 가속 출령 사는 법이 었이난, 불돗땅에 내 려강 몸 해산헤영 살렌 - 어머니 누단 조드랭이로 나와간다, 누단 조드랭이 는 형님나난 놀핏네가 나 고, 웬 조드랭이로 나와간 다. 날랑 어머니 오목 가 슴 헤쳐근 나보져 - 바농질 허멍, 이 아기덜 공부를 시킵데다 - 과거를 보내기 위해 어머 닌 은석냥을, 혼사람이 혼 냥씩 넉여 주난 갖엇구나 ○ 황금산 신령님이 꾀죽할 망한데 선물을 시기길, 아 기덜 글 써준 것을 상시 관인 지동토인 독무릎 알 더레 강 그 글들을 놔두 렌 - 삼천선비는 과거낙방이 고, 젓부기삼형제는 과거 급제를. - 양반은 과걸 아니주고, 중 의 아기덜은 과걸 주엄썩 가 - 삼천선비들은 연주문을 마쳐도 마칠 수가 었어간 다, 삼형제는 연주문을 마 치난에 와르릉하게 쓰러 지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대양에 물을 떠단, 원 이상 허 덴 헤연, 앓전 보난 중의 아덜 삼형제가 배쓰곱에 잇인거라, 다 섯 목숨 죽이민 무시거 허고, 아 무 디 가도 명만 불영 살렌 허멍 금봉채 연봉채, 감은 암쇄를 내 어준거라 - 거북이가 완 영, 눈짓으로 이제 지 등더레 타렌 ○ 초나록을 내어주크메, 그거 반착 짜리 썰 하나도 었이, 착쌀 하나 웃이 그거를 문딱 강, 혼동이를 올리면 날 훗양 온 게 분명허덴 - 새들이 완 파닥후난, 새들이 완 다 까즌거라 ○ 시왕 곱은 연질을 탕 그디 내려 사민 '불도땅'이난, 그디 강 해산 도 허고 - 누단 거드랑이로 헤우천 틀언 나오고, 돌재는 웬 거드랑이를 헤우천 나오고, 신명두 분명두 경 헨 솟아나고, 살아살축삼명두 는 오모손이 요 가슴을 헤살 나 온거라 - 거무선생 집에서 날랑 부엌데기 로 들어서고, 큰 아덜은 굴목지 기로, 셋 아덜은 베리지기로, 죽 은 아덜은 문지기로 들어상 일 하쿠다 - 구쟁이, 점벙이 하나씩 헤 입지 고 돈 세입, 톤톤허게 소중이에 싼 났단 명심허영 강오렌 ○ 과거 당선 뻬젠, 부모가 죽으면 과거를 헤여도 과거를 안짚낫젠 - 어멍을 강 지폰 궁더레 가두와 불렌 헨거라, 갠 가두와 텅, 어멍 죽엇젠, 거짓말 허영, 이것들 과 거 불합격 허게 해불젠, 어멍 속 곳하나 허영 이젠, 이젠 봉분을 만든 거주게 - 죽은 어멍 얼굴이라도 보켄, 경 허영 그걸 판 보난 어멍 얼굴이 랑 마랑 어멍은 었고, 어멍 속곳 하나 잇인 거라.

여신 명	전개	무가(서순실,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p>○ 삼천선비들은 이 아기를 벌려허게 낫젠 헤연, 물멧지 전대로 목을 걸려 단, 청뎃섭에 목을 걸려 단, 청뎃섭에 목 걸려, 깊은 궁에 가두안</p> <p>- 어머니 죽덴 무신 말이고, 두루막 벗언근 혼 쪽 어깨 둘러메고, 행경 벗언 우튼 두건씨고 먹먹헌 가심이로구나, 머구낭 방장대 짚어 얹안</p> <p>- 출병막을 헤천보난, 어머니 물멧지 단속곳 잇엇구나, 단속곳 본메본짱 갖영, 어딜가민 졸코, 웨진 하르방 좇안가난, 어멍 좇이컬랑 심방질허렌</p> <p>○ 심방질을 헤영 어멍만 좇인덴 허민 심방질을 허쿠덴</p> <p>- 어머니 좇젠후난 양반 팔아 무반 삼아근, 이 심방질을 헛수다</p> <p>- 어머니야 우리덜 보고프건, 저하늘에 별을 보멍, 삼하늘로 앓앙 이시민 다시 좇앙 올 주슨이 잇수다</p>	<p>○ 어멍을 좇젠허민 과거는 허민 당대고, 심방질을 허민 전대전손, 만대유전, 유례전득</p> <p>- 어멍 본메로는 모욕상잔, 동골락헌 걸로 이건 어멍 본메로</p> <p>- 젓부기삼형제는 삼시왕으로 도올르고, 어머니이랑 삼하늘로 좌정을 헛서, 당주방을 딱 지경 앓고,</p>
김진국부인	<p>○ 임정국 대감의 부인</p> <p>- 수록재를 들임</p> <p>- 자지명왕아기씨의 모</p> <p>○ 딸을 임신하여 낳고, 지하벼슬 살려감</p>	<p>○ 백 근이 차민 아들이 나는데, 혼 골량이 떨어져서 딸조식이 날 듯 헛네다.</p> <p>- 입던 옷엔 똥네 나고, 먹던 밥엔 굴네 나고, 먹던 장엔 장칼네 나고, 물엔 펄네가 난다.</p> <p>○ 아덜조식이면, 책실로나 데령가지만, 여조식이라 데령가지도 못후곡, 어멍허민 즐고</p>	<p>○ 수록들이민 허나 못허민 딸조식이라도 남직허우다. 혼근이 부족허연 백근이 못 참수다, 게난 딸이라도 취급시켜 좇직후난</p> <p>- 우리 팔조엔 딸도 좋수덴, 물아레 옥돌 곱은 애기씨, 가마귀 젓늘개 곱은 애기씨가 어멍신디 풀풀 기어오란</p> <p>○ 아덜로 나시민 책실로나 데령가주 만은 딸로 나부난 책실로도 못 돌양 가곡</p> <p>- 아버지가 중근 문은 어머니가 수리 두고, 어머니가 중근 문은 아버지가 수리 두웨</p>

여신 명	전개	무가(서순실,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핏죽할망/ 주모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젓부기삼형제에게 핏죽을 팔아주고 과거급제를 도와 줌 ○꿈에 선몽하여, 삼형제가 쓴 글을 상시관에 전달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가다 핏죽할망네 집이 들어간 핏죽을 한 사발씩 사먹어 아전 - 천도천왕, 지도천왕, 인도천왕 글을 써서 지동통인에게 주라고 현몽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막집 할망에게 선몽하여, 왜손지가 상시관의 몸중사 뉘신고라 - 수양청버드남에 도령들 서이가 앓양 비세굴이 울엄시메, 그 아이를 돌아당 시장기도 멀려주고, 밥 먹는 동안에 붓전에도 강 붓도 사다 주고, 종이전에 강 종이도 사다주렌 - 손지가 점심먹으레 왔어난 상시관 독무릎에 이거 강 상시관 독무릎 앞데레 강 솔제기 놓아볼렌
유정승따님 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의 여무 - 복수로 양반의 딸을 선택 - 삼시왕에서 약밥약술 - 육간제비를 받음 - 백지알대김굿을 함 ○삼시왕에 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훗일곱살에 상근 돌에 물 팡돌 노념놀이를 하다가 육간제비를 품어 신병이 나서 늑게 됨 - 아기씨가 시름이나 시고젠 내려가다 '조복장제집' 이 단 딸아가기가 죽어 열두메에 무건 잇입데다 울음소리가 난 들어간 - '백지알대김'을 놀령 나오명 허는 말이, "내 가 불민 '소왕계꿈' 물영 살어 날거난" - 일만제기 내여주난 알엇넉 조부장제침의 간 큰 굿헤연오란 삼시왕에 종명하였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정승 아들이 들언, 우리 과거한 것도 낙방을 시켜 불엇던 말이며, 거난 원수 갚음을 허주겐헨 - 유정승뉘님애기 여섯 술에 땡염시난 간제비 여섯 개를 채와분거라, 일곱살 뉘난 눈이 어둡어분거라 - 젓부기삼형제가 무당서 삼천 권을 내여주명 통달허영 오렌허난, 10년이 걸려 장대 내어반 딱 저울리난 백근이 차는 거라 - 조복장제네집이 우념꽂이 끌아져서, 진맥을 해보니 삼시왕에 걸렸수다 하고 굿을 해서 77세에 돌아가신 거

■ <초공본풀이> 여신들은 '노가단풍조지명왕아기씨' 아기씨와 그녀의 어머니인 '김진국부인', 초공신들을 과거 급제하도록 도와준 '핏죽할망' 또는 '주모할망'이 있고 최초의 무의의 길을 걸어 연질을 밝은 '유정승따님애기'가 있음

- 주제어로는 '돌', '계수나무', '흥너훔', '청너훔', '권제', '머리', '상가메', '임신', '황금산', '초나록', '시왕곱은연질', '불돛당', '과거', '중의 자식', '조드레이', '삼명두(삼형제)', '검은 암쇄', '삼천선비', '지픈궁', '머구낭방장대', '출병막', '본메보장(단속궁, 모욕상잔)', '삼하늘', '삼시왕', '심방질', '당주방' 등이 있음
- 주제어는 주 여신격인 '조지명왕아기씨'가 자식들을 키우는 과정에 대한 화소, 그리고 삼천선비의 모략으로 지픈 궁에 가둬져 죽은 후 자식들이 무조신이 되어 굿을 해서 살아나, 결국 자식들을 무조신으로 만들고, 그녀는 삼시왕의 당주방에서 무조신 곧 아들들을 돕는 여신으로 등극함

4.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미’

- <이공본풀이>의 여주인공 ‘원강아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부친의 구덕혼사로 인해 가난한 집의 아들인 ‘사라도령’을 남편감으로 선택했는데, 사라도령은 서천꽃밭의 꽃감관의 역할을 맡을 정도로 능력은 있었으나, 임신한 원강아미를 서천꽃밭으로까지는 데리고 가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재인장제’의 집종으로 팔아야 했음
 - 재인장제 집에 팔린 ‘원강아미’는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종 살이를 했는데 아들을 낳아 ‘한락궁이’라고 이름지우고 키우다, ‘한락궁이’가 아버지 찾기에 나서는데, 서천꽃밭의 꽃감관지기인 부친을 만나서 본메인 ‘삼동낭용얼레기’를 맞춤으로 부친임을 확인함
 -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부친찾기’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는 것만이 아니라, 재인장제 집의 종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탈출해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도약임
 - 재인장제 집에 있던 원강아미는 주인집의 시련을 견디지 못해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 아들은 부친으로부터 모친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서천꽃밭의 꽃을 꺾고 와 재인장제 가족들에게 복수하고 어머니를 살림
 - 서천꽃밭의 꽃은 무속세계의 권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신성성을 지니며, 사람의 생사를 관장하기도 해서 꽃은 영험한 존재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음
- 본풀이에 나타나는 서천꽃밭의 꽃은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새로 태어날 아이의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여성들에게 수태를 줄 수 있으며 <구할망본풀이>의 꽃은 ‘불도맞이’ 의례에서는 아이들에게 질병을 주는 ‘악심꽃’으로 이를 꺾어주어야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음
 - 서천꽃밭의 꽃은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 선과 악 등의 이분법을 넘어설 수가 있는데, 원래 꽃가꾸기를 통해서 저승과 이승의 갈래를 설정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선악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생과 사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임⁴⁾
 - ‘한락궁이’는 부친의 허락으로 꽃밭에서 꽃을 가져와 그 꽃으로 어머니를 죽인 재인장제 가족을 복수할 수 있었고, 생불꽃으로 죽은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으며, 다시 ‘서천꽃밭’이라는 천상의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가난한 가족사는 부친 ‘사라도령’의 대를 이어 아들 한락궁이가 꽃감관 직을 맡게 되면서 막을 내림
- ‘한락궁이’는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악한 이를 죽이고 선한 사람을 살리는 양형(量刑)의 저울로 이용되던 꽃이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되었는데, 이는 곧

4) <천지왕본풀이>에서 아우가 형을 내쫓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승에 산 사람들의 범죄 악을 꽃가꾸기를 통해서 정의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문화 속에서 ‘꽃가꾸기 내기’는 거의 공식문법으로 자리매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꽃에 대한 인식 역시 <이공본풀이>처럼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재인장제를 징치하는 ‘수레멜망악심꽃’은 그 동안 지어 놓은 죄를 징치하는 꽃이고, <차사본풀이>에서는 버물왕의 세 아들을 죽여서 연못에 던져 그 화신으로 태어난 꽃은, 아무리 아름다운 형상을 한 꽃이더라도 ‘과양생이’ 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못된 것을 징벌하기도 한다. 삼승할망이 꽃을 잘 피우고 무성하게 잘 자라게 한다는 것은 ‘아이의 생육’과 관련한 유감주술적 효력을 지닌다. 또한 ‘바뀌치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불가능한 범죄행위로서 죽음이나 소멸을 예조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권선징악적인 관념의 소산이다.

영웅의 탄생을 의미함

- 원강아미의 삶의 안목은 남성의 선택과 결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녀는 가난하지만 꽃감관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성 '사라도령'을 선택했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극복한 후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가면서 서천꽃밭의 꽃감관직으로 자식을 양육한 성공적인 여신들의 삶을 수행할 수 있었음
- 이는 원강아미라는 여신이 지닌 지혜에서 얻어진 결과임

<표 5> '원강아미' 화소

여신 명	전개	무가(오춘옥,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원진국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강아미의 모 - 재물을 많이 올렸지만 정성이 부족하여 딸을 얻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절간에 영급이 좋고, 실력이 좋고, 수덕이 좋으면 우리절에 왕 수록이나 드러뽑서, 생불이 잇일 듯 - 원진국대감님이 잔뜩하게 강답에 강나록, 모답에 모나록, 물멍지 쟁멍지 잔뜩하게 지영 완 불공을 해도, 정성이 많질 못후난에 여궁네를 체급홀 듯 - 김진국대감님은 어멍 몸에 아호열 둘을 준삭을 채완, 아들이 솟아나난 사라도령으로 이름 석자 지웁데다 - 원진국대감님은 여궁네가 솟아나난 원강애기로 이름 삼자 지와간다 ○ 부제집이 애기라 일로도 딸을 줌서, 절로도 딸을 줌서 후여가는구나 - 부자집이 오랑 문흔짱을 들려도 원진국님애기 원강애긴 눈도 거듬떠 아니 베리는구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진국 대감님은 출령은 건 많은 디, 정성이 부족허난 딸을 취급시켜 줄 듯 후난 - 원진국은 절에 가멍 구루마에 슴빱하나, 송악 베여, 장삼 베여, 썰도 대백미여, 소백미여, 막 실령가고, 짐진국은 가정 갈 거 엇이난 물흔 그릇 땡 아침이민, 밤이민 이제 촌이슬을 맞히고, 낮인 촌벧을 맞히멍 장항 뒤에서 경허멍 지극정성을 헨 간거라 ○ 원진국 대감님은 딸을 난거라, 원진국 대감님이 난 딸은 '원강아미'로 이름을 지웠인디
원강아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강아미는 짐진국의 아들 사라도령과 구덕혼사 후 결혼 ○ 남편인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에 꽃감관 직으로 갈 때 길을 떠남 - 임신한 원강아미는 제인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려 남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진국 아기씨가 김진국 집안에서 문흔짱을 드리난, 서른 여덟 니빠디가 허우덩씩 하게 웃는구나 - 생불을 들어산 서너넉덜 대여섯 덜 일고 여덟덜 증안 존삭차는데 ○ 원진국 아기씨가 김진국 집안에서 문흔짱을 드리난, 서른 여덟 니빠디가 허우덩씩 하게 웃는구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이 아들 낳고, 나가 딸을 나나, 우리 구덕혼사를 후영, 사둔인 추룩하게양 ○ 원강아미 신디 하간 디서 증진이 오는 거라, 부제로 잘 살고 후난, 경해도 시집을 아니만 가쿠편 후는거라, 사라도령안티 이제 시집오렌 허연 증진을 오난, 아 대번칙에 대답을 후는거라

여신 명	전개	무가(오춘옥,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원강아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인장제의 유혹을 물리치고 신산만산한락궁이를 낳아 키우는데 온갖 시련을 겪음 ○ 한락궁이가 15세가 되자 부친을 찾아가고, 서천꽃밭에서 만나서 본매를 확인함 - 제인장제는 아들을 내보낸 '원강아미'를 토막내어 죽임 ○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됨 - 부친을 만나 본매를 확인함 - 악심꽃으로 제인장제를 죽이고, 환생꽃으로는 어머니를 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불을 들어산 서너넝덜 대 여섯 덜 일고 여덟덜 줌안 준 삭차는데 - 서천꽃밭디서 사라데왕 님 아. 꽃감관을 살레웁서, 꽃생인을 살레웁서 - 부제침이 단똥애기야, 혼서 무영 깊은 정도 못써겨 본디, 이 애기 처가속 애기도 갖영 놈의 우의똥곡헌디, 어땡허 영 꽃감관을 살레가리 ○ 이만허민 어땡허리 나는 남편 똥라근 저싱 꽃밭 그찌 가 쿠다 - 기당기당 나가 죽어지는 혼이 있어도 난 똥랑 가오리다 ○ 벤 불어지곡 콩그실그치 발은 붕물고, 잘 저디 강은앵에 종으로라도 풀앙 차비 노수나 허영갑서 - 혼발짜으로도 걸지 못허쿠다, 발도야 동시랑케 붓고, 예 걸을 자신이 엿수다 - 아바님아 저 종 삼서, 저 종 사민 우리 집이 유가부가 혈종이우다 - 어명은 돈 석냥을 받고, 아기는 은 석냥을 받으쿠다. 아기는 종으로 오래 부러먹곡 할 거난 ○ 아덜랑 낳건 '신산만산할락궁이'로 이름을 지우곡, 똥랑 나건 '뽕광똥이'로 이름을 지우시라 - 삼동냥용얼레기 혼짜를 똑 깍어서 폐적을 주어간다 ○ 우리 법은 벤 아기가 낭 석덜 백 일, 몸을 잘 조리헤어 야 몸허락 허는 법이우다 - 원강부인님은 낳는 게 아들이사 난다. 이름은 '신산만산한락궁이'로 지와간다 - 걸름발 베와근 데막똥이에 물탕 돌리멍 노념을 헤가사, 열다섯 십오세념영 세경 농잠대를 지평 저 세경땅에 강똥을 갈아가사 부베간이 몸허락을 허는 법이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이 아들 낳고, 나가 똥을 나나, 우리 구덕혼사를 허영, 사둔인 추록 허게양 ○ 원강아미 신디 하간 디서 종진이 오는 거라, 부제로 잘 살고 허난, 경해도 시집을 아 니만 가쿠덴 허는거라, 사라도령안티 이제 시집오렌 허 연 종진은 오난, 아 대번칙에 대답을 허는거라 ○ 돌이가 혼안허연 사는 디, 애기 벤 거 아니, 애기 벤디 물구덕 지연에 물 질레 간 오노렌허난, 꽃감관 꽃생인을 살러오렌 - 아이고 나도 혼디 가쿠다, 나 혼자만 이디 잇이민 어땡헛 니까, 나도 혼디 가쿠다, 가 당 죽는 한이 있어도 낭군님 똥앙 가쿠다 - 어웁을 심은 확 둥긴게, 손에 어웁이 베인거라, 똥기당 보민 뽕경헌 줄거리가 있어예, 어웁에 그것은 원강아미 피라, ○ 낭군님아, 날랑 양, 저 집이 강 풀아두영 갑서, 난 질에 질병 나고, 발에 발병 난, 더 이상 걸영 가질 못허쿠다 - 제인장제는 죽은똥애기 그라, 저 디 나상 보라 누게 왓이니, 종 사렌 험수다, 아바지 상 똥당 양, 아버지 심심 풀이라도 합서 ○ 아덜랑 낳거들랑 '한락궁이'로 이름을 지우고, 똥랑 낳거들랑 '한락데기'로 이름을 지와도렌 - '삼동냥용얼레기'를 딱허게 반착을 주고, 사라도령은 이전 서천꽃밭드레 가 분거 아니 ○ 베속에 벤 애기 낳앙, 석덜 열흘 백일은 똥어사, 몸허락을 험니다. - 아덜은 낳안 '한락궁이'로 이름을 지은 거 아니

여신 명	전개	무가(오춘옥,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원강아미		<p>- 멩텅이 그득, 가멍이 그득, 그랑줍씨 한섬 좇어 논걸 시 켜오랑 바찌난 혼방울이 웃덴 죽일 팔로</p> <p>○ 궁쫄레라도 혼 좀만 헤여단 북까줍서, 콩이라도 먹구정 허우다</p> <p>- 바싹 떼분 솟창더레 손을 간 바싹허게 부찌멍, 바른 말 해 줍서, 날 나은 아버지 간딜 강 확실허게 수실데로 글아 줍서</p> <p>- 어머니 죽는 혼이 있어도 나 간 디랑 그리쳐 주지랑 맙서, 범먹이나 헤줍서, 아버지 꽃 감관 살레 간디, 좇이레 가멍 베고프민 정심요기를 허쿠다</p> <p>○ 삼당낭용얼레기 혼짜을 네어 난 아버지꺼영 네여노난 줌에 줍숙 맞아 가는구나</p> <p>- 어머니 도살릴꽃으로 어머니를 도살령 느네어멍이영 사랑보멍 살거곡</p> <p>- 만연장제집 식구덜 울음꽃, 웃음꽃, 싸움꽃, 씨멜망꽃을 가지고 가서 다 멸망시키고</p> <p>- 만연장제 죽은뜰애기 장방속에 곱앗단 우리 어멍 죽은 디 그리쳐주민 살려주켄</p> <p>○ 지픈지픈 천지소 속에 물에 간 죽여 된 들이쳤구나</p> <p>- 어머니 좇안 오랏수다, 무신 줌을 영 잠이파, 그만 장 일 어납센</p> <p>- 와들랭이 살아나 일어나간다, 야 물은 뽏따불고 어머니 신체만 잇엇구나</p> <p>- 말 글을 꽃, 빼 오를 꽃, 솔 오를 꽃, 피오를 꽃, 오장 육부 기릴 꽃, 금봉도리체로 후리멍, 어머니 일어납센</p> <p>- 설운 어머니 날 만당 고쟁 하영 헛수다. 아버지광 좇양강, 나 이승서 못 산데신 오레강 지픈 정 주멍 삼서</p> <p>○ 신산만산한락궁이 천상베필을 무언에 만연장제 칩이 그 재산 다 차지헤연, 부모 못산 대신 이 애기 천하 거부제로 잘 살앗덴 홉디다</p>	<p>○ 후를 날은 '제인장제'가 어디가 부난, 제인장제네 집 공장 막이나 털영복서, 한락궁이가 안터레 들어오멍 정지에 완 우리아버지 아니지 양, 바른 말합써</p> <p>- 암만 어머니 죽이켄 해도, 나 어디 갓젠 글오민 안뵈민덴</p> <p>○ 그 거 이 느네 어멍이여, 느엇이난 초대김, 이대김, 삼대김 받단, 느네 어멍은 죽엇저</p> <p>- 돛박낭아레 간, 청댓섭으로 목걸련에 영, 목메영 돛박낭아레서 죽어분거라, 이긴 보난 거미줄은 막 헤영허게 쓰고,</p> <p>- 고리동반에 너울지, 너울지 우리 굶허레 가멍, 공깃상에 항상 댓섭해영 찌르나, 돛박낭 헨 영 찢러 놓는</p> <p>○ 굶허레 가멍 공깃상에 대섭해영 찌르나, 돛박낭 헨 영 찢러 놓는 고망 베롱베롱 헨, 영 동글동글 헨 떡 쏘곶에 담양 헨거, 그 법으로 저 너울지 허고, 이젠 대로 목 즐란 죽엇엔 허영 돛박낭 영 찢러 곡</p> <p>- 어멍 빼만 슬그랑허게 남아 시난 피 오를 꽃, 솔 오를꽃, 오장육부 말 글을 꽃, 사름 생길 꽃 난,</p> <p>- 어머니 때리는 매가 아니고 어머니 살리는 목적으로 때리는 땀니덴</p> <p>- 나 이봄 죽이난 너미 자졌저, 어머니 살려된, 어멍 누워난 자리도 땅도 하도 아까운거라</p> <p>- 당글 네게 메영, 대세왕 굶허는 디는 열네 방울, 심방 집이 굶 헨 때는 스물여덟 방울, 방거떡 동글락허게 맨들양 그 우터레 놀아근에게</p>

- <이공본풀이> 여신은 원강아미로서 이공신 ‘한락궁이’ 어머니임
 - 주제어로는 수륙, 생불, 불공, 여궁네, 문훈장, 구덕훈사, 시집, 물구덕, 본메, 삼동낭얼레기, 꽃감관, 꽃생인, 농잡데, 세경땅, 공장막, 돛박낭, 청뎃섯, 범벅, 도살릴꽃, 만연장제 작은딸, 천지소, 봄 즙, 악심꽃, 환생꽃, 당클, 병거떡, 금봉도리체, 천상베필, 거부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주제어들은 여신과 직접 관련되어 주제어를 통해서 여신의 탄생과 성장, 결혼, 남편과의 이별, 이들의 탄생, 죽음, 환생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본풀이에서 신화적 상징성을 갖고 있음

5.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

-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의 주인공은 남성 신격인데, 이들은 천지창조에 이바지하거나 의례나 제도를 정비하고, 삼차원의 꽃가꾸기를 통해 생사를 넘나들 수 있는 서천꽃밭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한편 본풀이 속의 여신들은 남신들을 보좌했고, 자식을 키워서 세계에 이바지함
- <삼공본풀이>의 주인공 가문장아기는 집안에서 세째 딸로 태어나서 ‘전상신’이 되었으며, 이 전상의 존재 유무에 따라 집안의 흥망이 좌우되곤 했음
 - 집안의 부를 관장하는 여신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가정 경제나 사회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삼공본풀이>에서 부자가 될 전상을 운명적으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거지 행색을 하고 얻어먹으러 다니던 부모마저도 ‘자식복’으로 부자가 되었음
- 장주근은 전상을 ‘전생인연’의 법으로 해석하고, 불교적 관념이 제주사회에 수용되어 민속 화되고 전승되는 하나의 관념이라고 보았음
- 가문장아기의 집안은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부자가 되고, 가문장아기의 전상으로 아주 좋은 상황에 이를 수 있었음
 - 부친은 “누구 덕에 입고 먹고 사느냐”고 질문하고 시험했을 때, 복과 덕은 ‘자신’의 운명에 있음을 강조함
 - 완고하고 보수적인 부친은 딸의 대답을 완강히 거부하고 결국은 내쫓는데, 이러한 아버지의 충효를 강조한 유교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에 대해 모친과 두 언니들마저도 거들다가, 두 언니는 ‘치네’나 ‘버섯’으로 환생하고 부모는 앞을 못 보는 눈먼 소경이 됨
 - 집안이 다시 가난해져서 부부는 고난을 겪게 되며, 동냥질을 해야 하고 눈까지 머는 비극으로 쇠락해지고 마는데, 이는 전상신을 우대하지 않고 의견을 무시해서 집 밖으로 내쫓음으로써 다시 본래의 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풀이에서는 좋은 전상을 무시하고 뿌리 친 것은 바로 남성의 권위였고 잘 살게 되자 교만한 마

음은 딸을 거부하게 되어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

- 반면 가문장아기는 마 파는 세째 마통이를 만나 금을 발견하고 부자가 되는데, 부모가 눈이 멀고 거지가 된 것을 직감한 가문장아기는 소경 잔치를 해서 부모의 눈을 뜨게 해 다시 광명의 세계로 이끄는 개안(開眼)설화의 주인공이 되었음
- 삼공본풀이는 전국적으로 '내복에 산다'게 설화로 분포되고 있고, 가문장아기의 역할은 백제 무왕 설화의 선화공주나 심봉사 눈뜨는 대목의 심청이와 같은 중요 모티프에 그 맥이 닿아 있기도 함

- 현승환은 '내복에 산다'게 설화는 맹인, 잔치, 개안화소가 없고, 제의 형태도 없는 반면 삼공본풀이는 의례가 남아있고 신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설화 곧 민담과 신화, 그리고 전설의 원천 자료로서 이후 장르 변이가 되는 과정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함
- 제주도 <토산일뤼당 본풀이>에는 용왕의 세째 딸이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받아 신적인 직능을 행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눈에 바람을 일으켜 눈가시가 들게 하거나, 부채로 부쳐서 가시를 씻어내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주력을 인정받게 되는 개안화소가 있음
- 이처럼 운명의 여신이 딸이라는 점은 제주사회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여성의 역할이 제주사회의 경제적인 부를 형성하여 집안을 지탱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구체적으로 제주해녀들은 자신이 번 돈으로 봉제사, 노부모 봉양, 재산 형성, 하물며 남편이나 동생의 학비 마련도 담당함

<표 6> '가문장아기' 화소

여신 명	전개	무가(정태진, 2014)	이야기체(이용욱, 2018)
은장아기 / 돛장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 녘과 아랫 녘에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음 - 어느 해 흉년이 들어, 상대가 풍년이 든 것으로 알고 서로 얻어먹으려 감 ○ 둘이는 만나서 서로 부부간이 되어 딸 셋을 낳음 - '은장아기', '돛장아기', '가문장아기'로 이름을 지음 ○ 먹고 쓸 만하게 부자가 되자 부모는 세 딸에게 물어 봄 - 누구 덕에 사는가에 대해 두 딸은 부모 덕에 산다고 함 ○ 자신의 덕에 산다고 하자 내쫓는 두 언니들에게 복수함 - 청주냉이와 용달버섯으로 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잇 녘에 '강이도령'은 아랫 녘의 '강이영성이서 불'에게 서로 얻어먹으려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길에서 만남 - 서로질레서 만났구나, 그 젓 날은 통성명 무언보니 혼 팔져 혼 사주 뉘엿구나 - 강이도령, 강이영성 그 때는 부베간 법 마련한다 ○ 딸아기 삼형제가 솟아난다, 이 아기 이름 성명을 지와 보져, 먼저 난 것은 은장아기로 일름 성명 지와간다 - 두 번 째 난 아기는 '돛장아기'로 일름 성명을 자왓구나 ○ 아기덜 삼형제 솟아나니, 이제는 먹을 만 쓸 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서룬 아기덜 이레 오라 보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상실은 '강이영성'이가 살고, 알상실은 '홍문수천'이가 살았인디 - 옷상실에서는 알상실에 풍년이 들고, 알상실에서는 옷상실에 막 풍년이 들었젠 후연, 그디 얻어 먹으레 감수다 ○ 둘이가 부베 간이사 삼양 삼주, 물고랑에서 사느디, 아기 베연 낳는 거 보난 딸이 난거라 - 은장아기로 이름을 지우고, 따시 딸을 난거라 돛장아기로 이름을 지우고 - 가문장아기가 난 살아가는 게, 그냥 삼시간에 경 부제가 뉘어 부는거라 ○ 은장아기 돛장아기를 불러서 "년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공발신 해서 사느냐" - 아버지도 덕, 어머니도 덕,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에 살ampus다.

여신 명	전개	무가(정태진,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은장아기 / 늦장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딸아기 불런, 너는 누게 덕으로 나왔느냐 - 하나님덕, 지와님덕, 아바님 어머니 덕입네다 ○ 은장아기 그젯 날은 나고 가져 영허여 - 청주병이 몸으로 환상을 허여간다. ○ 감은장아기 나고 가난, 아이고 큰딸아기 늦장아기, 늦장아기도 나고 가난디, 설은 성님네도 아시영 웨 놀창 나고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문장아기 불런에,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 어머니도 덕이 우다 마는, 나 베포롱 아래, 뒤 선그릇이 덕이우다 ○ 아버지 통설대 들르고, 어머니 부짓망이 들런 느 두들젠 앞저 - 그 말 글아된 탁 내려사난 아, '청주병이'가 뉘분거라. - 탁 느려사젠 혼게 '용달버섯'이 뉘분거라.
가문장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 덕에 사느냐 ○ 가문장아기 쫓겨나자 부모가 눈봉사가 됨 ○ 쫓겨난 가문장아기는 작은마통이를 만나서 부자가 됨 ○ 걸인잔치를 하고 부모 상봉함 ○ 들은 말 본말이나 해서 일천간장 풀자, 눈이 번뜩하게 떠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론 얘기가 너는 누게 덕으로 나왔느냐 - 하나님도 덕 입네다, 지와님도 덕 입네다, 아바님이 덕 입네다, 어머니베똥알 선그릇이 덕 입네다 ○ 아바님 당달봉수 눈이 어둑어 부러구나, 이제는 할망 의지혜영 훌목 잡아 이레 저레 못 바리난 요레 걸음서, 저레 걸음서 영허여 가는구나 ○ 족은 딸아기 이제야 족은 마통이 만냥, 이제야 고데 광실 높은 헤여, 부제로 잘 살았구나 ○ 족은딸 감은장아기 사는디, 이제는 걸인잔치 헤염젠, 소문 들어지난에 - 걸인잔치 헤염구나, 할망은 하르방 훌목을 비여잡아, 어서 들어가난에 음식을 출연 들어가난에 - 배고픈 집에 먹는 게 문딱 먹어가는구나 ○ 들은 말이나 잇수가, 본말이나 잇수가, 들은 말 본말 글읍서 - 아이고 들은 말, 본말, 설은 아바님 일천 놀레로 시름 허거들랑 일천간장 다 풀리멍, 어둑운 눈 어둑터정 - 설은 아바님아 이제랑 어둑운 눈 번뜩하게 뜯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공발신 허느냐 - 하나님도 덕, 아바님 어머니도 덕이우다 마는, 나 베포롱 아래 선그릇이 덕이우다. ○ 아방은 베깃데레 나가젠 현게, 문대방에 눈 강 탁 쳐부난에, - 어멍은 정지로 나가젠 현게, 정짓문에 문대방에 간 그냥 앓양 눈 쳐부난 - 할망 하르방 훗단 보난 돌이가 눈이 어둑어 부러 ○ 큰 마통이와 셋 마통이, 작은 마통이에게 어디가민 인간처가 잇인고 양 - 작은 마통이는 재 넘고 비주리 초막에 양 노인네 할마님 혼자 잇인디 잇수다 ○ 가문장아기 하양삭삭 그은 쓸난 곧밥허연 작은 마통이에게 가니, 아이고 영 맛 존 밥이 어디시넌 ○ 좀은 자젠 허난 작은 마통이가 "저 나 발더레라도 늙서" - 경 발에 누원허는게 부부간이 됐어 ○ 작은 마통이 마 파난디나 강 보주긴 허영, 파민 금이여, 파민은 이어, 금은보화가 막 나온거라 - 삼시간에 집도 나고, 큰 밧도 나고, 부제가 뉘거라 ○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뉘잇인디, 혼번 훗아보는게, 걸인잔치나 해보게 마셈

여신 명	전개	무가(정태진,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가문장아기			- 돌이가 봉사 뉘연, 막댕이 꺾고 짚고 허연 오는 거 보난, 분명 히 아버지 어머니라 - 아방 어명은 손 삭삭 부비명, 죽 을 쥘을 지었수다, 우리 살려 줘 서 ○ 가문장아기 술 들렁은에 잔더레 비왕해가민 잔이 다락 떨어져부 난 눈이 뵤뚝하게 떠져분거라

- <삼공본풀이> 여신인 가문장아기는 부(富)를 가져오는 전상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두 언니 ‘은장아기’와 ‘놋장아기’가 보조적인 인물임
 - 주제어는 ‘베뜨롱아래 선그뚝’, ‘청주냉이’, ‘옹달버섯’, ‘마통이’, ‘놀레’, ‘정짓문’, ‘고대광실’, ‘걸인잔치’, ‘금은보화’가 있음

6.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 세경신 자청비는 ‘농경의 신’이면서 온갖 시련을 거친 후 제주 땅에 농경의 씨앗을 가져온 곡신임
 - 신으로 좌정하기까지 거친 인생 역정의 서사적 줄거리는 구성 전개가 뚜렷함
 - 여신으로의 탄생은 재물이나 정성의 모자람이 원인으로 아들이 아닌 딸로 점지를 받고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여신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운명적인 것으로 예고됨
 - 주인공 자청비의 성격은 고정적이거나 불변적 인물이 아닌 입체적 성격의 인물이면서 능력이 뛰어난
- 여성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남장’을 통해서 성 역할에 대해 자유스러웠고 양성구유(兩性具有) 행위를 통해 제한된 성의 역할에 대해 해방이 가능했음
 -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어서 남성들이 유혹이 늘 따랐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났는데, 집안의 종인 정수남이의 유혹을 물리치는 사건 전개는 전통사회에서의 대 남성관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여성으로서 극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성 닮음을 얻기 위한 남장(男裝)은 신화를 구연하는 제주여성들이 남성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일, 특히 싸움에 나가거나 대사회적인 활동에서 남성들만이 가능하다고 인식되는 사회이기 때문임

- 두 남성 정수남이나 문도령은 둘 다 자청비에 비해 미치지 못한 인물들로 나타나,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고전(古典)에서의 전형화 된 남성상과는 차이가 있음
 - 그녀는 자신에게 거짓을 고하고 유혹하던 남성 종인 정수남이를 죽였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데, 남장을 하고 남성 역할을 하면서 서천꽃밭의 부대감 덕 사위로 들어가 부영새를 잡아주고서, '사람살리는 꽃'을 따고 와서 종을 살리자, 부모는 자신의 딸이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 한다고 하며 다시 내쫓음
- 자청비는 그를 남편으로 삼았으나, 우유부단한 성격과 믿을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늘 실망하였음
 - 시냇가에서 빨래하다가 문도령이 맘에 들어 남장을 하고 오라비 곧 남성이라고 속인 후 동거하며 공부하였음
 - 문도령은 서수왕 딸에게 장가 가기로 된 사실을 안 후, 사랑을 고백하고 시아버지의 시험을 거친 후 허락을 받았음
 - 자청비는 남성성을 의심받았을 때 남성처럼 행동하고 '오줌싸기' 내기 등에 참여하며 여러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기고, 서당 공부도 월등한데 반해, 문도령은 자청비의 행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약간은 어리석고 우둔한 남성적인 이미지를 지님
 - 이는 무속사회를 지탱하던 여성 단골인 제주여성들이 자기화 된 삶의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청비 신화는 제주 땅에서 태어난 여성이 이상적인 농경의 여신으로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후 주인공 자청비는 대사회성을 지향하게 되고 영웅적인 행동은 '공업'으로 전환하게 됨
 - 이 공업에서 얻은 결과는 하늘에서 열두시만국 세경 너른 땅과 오곡의 씨앗을 얻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농경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일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업은 싸움에서 이기는 전사로서의 모습과 남성인 천신과 농경의 지모신으로서의 역할이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남
 - 자청비가 지닌 곡모신(穀母神)으로서의 신적 특성은 농경신화로서 농축신의 설정과 농경신에 대한 신격의 정당성, 제사의 기원, 의례의 당위성과 아울러 농사의 시작과 농경법 마련, 작물의 파종 시기 등을 규정하고 농경사회에서의 필요한 조직을 마련함
 - 자청비의 역할은 농본 사회에서 내재된 잠재력이며, 곡물생산의 지반이 되는 땅의 어머니인 지모신으로서의 역할도 큼

<표 7> 자청비 화소

여신 명	전개	무가(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자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하거부로 살아도 자식이 없음 ○ 절간법당에서 원불수룩을 드려서 백근이 모자라 여궁녀가 솟아남 ○ 자청해서 태어나 '자청비'라고 이름 지음 ○ 주천강 연못에서 문도령을 만남 ○ 남북으로 갈아입고거무선생한테 문도령과 같이 공부 ○ 자청비가 여성임을 의심받는 문도령과 내기 시험에서 이김 ○ 문도령집에서 장가가라는 전갈이 올 - 자청비와 같이 하늘옥황에서 내려옴 - 자청비가 여성임을 밝힘 ○ 자청비 방에서 열두 사랑을 다 품음 - 도실낭씨앗으로 본메본짱을 내어줌 ○ 종에게 문도령 놀아난 곳을 가르쳐 달라고 하며 돌이 찾아 나섬 ○ 산중에서 종에게 호되게 당하자 종을 죽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국 대감님, 조지국 부인님 별진밭 천하거부로 잘 살아도 자식 없음 - 은단병에 서단마게 초쌀 혼평 졸끈 묵영, 이레 저레 등글리곡 웃일 일이 잇습니덴 ○ 동개남 상중절, 서개남 상세절 부처 직헌 대서님은 헌당 헌절 혈어지난 시권 제 삼문을 받으레 내려삿수덴 - 우리 절간 법당으로 오랑 원불수룩이나 드러봅서 - 석덜백일 뉘는 날은 대추남 은저울대로 저우려보난 백근이 못차난 여궁녀라도 솟아날 듯후덴 ○ 조지국 부인님은 밥에 밥네 나간다, 물에 펴네 나간다. 국에는 장칼네도 나간다 - 알아구리 그튼 아기에, 물아래 옥돌 그튼 아기에, 여궁녀가 솟아난다. ○ 절간 법당으로 간 조청허영 날져, 조청비로 이름 생명 지와 - 조청비 아기씨 상전님아 궁근 팥에 앉안 연서답을 허여가난 ○ 서천국 거무선생 앞이 곱닥한 아기씨가 앉안 연서답을 와라차라 허염시난 - 길 넘어가던 도령인데 물이나 혼주박 떠 주민 먹영 가쿠덴 - 표주박에 물을 떠 버드낭 씹을 확하게 흘턴 물에 동글동글 띄완 드리난 문도령님은 물을 먹언 ○ 어머니 아버지 방에 놀러들언, 저도 글공부를 해영 오쿠다, 남자도령 그찌 출려 얏언, 문도령신디 간 통성명을 허는 것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진국 대감님과 조진국 부인이 절간 법당에서 수룩을 드려 - 딸이 태어나서, 금인가, 은인가 키우는 디 - 글공부도 허고 활공부도 허고, 하강 거 다 허는디 ○ 주천강 연못못딜 연세답을 갖추, 꽃그튼 도련님이 넘영가는 거라 - 어디레 가는 도련님이 뽕니까, 수양청버드낭 씹을 확하게 흘턴 사발더레 놓안 안넌거라 - 풀잎사릴 놔사 닛굽으로 그 풀잎사릴 안 먹젠 허민 닛굽으로 술술 불어사 물에 체허질 안허는 법이여 ○ 거무선생 안티 공부허레 가젠헤도 친구어성 못 감수다, 오랍 동싱 구디 풀양 강 공부허는게 여땡허우파 - 여자 옷을 벗어두언, 남북방에 놀러들언, 남자 옷 다 입언, 오랍 동생이엔 거짓말 해부 난 ○ 조청비는 거무선생 곁는 양 잘 허고, 문도령은 앗앙 막 꾸박꾸박 - 조청비 허는 건 보연 여자가 님은 디, 저렇게 남자 행동을 헌덴 말이여 - 오줌 그릴락이나 헤보젠, 조청빈 열두모작을 헤단, 알드레 받천 글기난, 열두 방축을 골긴거라 ○ 아버지 어머니도 나신디 제계왕, 나신디 제계왕 장계 가렌허연 오랏수다 - 몸모욕허언 헤어지겐 허언, 주천강 연못못디 허난 - 나는 문도령안티 모든걸 이겨시난, 옷통에서 목욕을 허쿠다 ○ 손심영 이넉 방더레 들어간, 열두사랑 다 풀리고 - 조청빈 귀한 조식이난, 상다락이여 중다락이여 ○ 도령님아 이제 어땡험네까, 게난 본메본짱이나 내여취팅 갑센 - 도실씨 혼방을 내여준거라, 순이 나고 잎이 돋고, 남이 뉘영, 이 도실꽃을 피영 열매가 올안 타 먹염시민, 나가 강 오켄

여신 명	전개	무가(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자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무선생 앞이 글광 활을 배우러가는구나 - 너희 둘이 한날 한시에 글공부 오라시난, 한 방에 서 한 책상에 앉앙 연삼년을 글공부 배우렌 - 은대양에 물을 떠당 소복이 낱 은젧가락을 걸청 문도령신디, 은젧가락 떨어지민 글도 떨어지곡 활도 떨어질거난 - 좀 못잔 문도령은 자청비 보단 글도 떨어지곡, 활도 떨어지곡 ○ 연삼년 글도 베울 만이 베와시난 글공부 활공부 무청 서수왕에 결혼허렌 - 한방에서 글공부를 헤시난 가게웨민 나도 그찌 가쿠다, 문도령은 자청비 광 일천서당 나오는구나 - 날은 더워지난 년 나보다 글도 활도 떨어지난 널랑 알통에서, 나는 웃통에서 몸을 금으키여 ○ 아바님 어머니 연삼년 글공보 베왕 오랏수다 - 여자 입성 입어 바련 보난 문도령이 잇엇구나 ○ 서수왕에 장개 안간다고 하고 오크매 하고 도실씨를 하나주고 옥황더레 상천허영 - 도실꽃이 만발허민비 날 좃앙 올 건가 허여도 아니 오라간다 ○ 정이엇인정수님이 낭허레 보내젠후난 봄이라 해는 진진하고 먼 길 걸어간 - 풀 한줌 물 한번 아니 맥연 네부난, 동서러레 다 자빠져시난 - 멩게낭 백단 솟불, 와랑와랑 피와 노왕, 물 아흠 쉼 아흠 구웁 먹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실이 올안, 걸 탄 먹어도 문도령은 소식이 엇인 거 아니 ○ 저 놈의 집 중 그추록 강 아지렁이 꽃이여, 진달레 꽃도 꺾영오곡 경허렌 - 물 아흠 쉼 아흠은 물도 먹고정허고, 애가 큰 큰 무르난, 다 죽은 거라 - 다리 쫓고령이 앉앙, 그걸 문딱 물 아흠 쉼 아흠 먹언, 이젠 가죽 머리만 등에 진거라 ○ 문왕성 문도령 내려왕 놀아난디 알아질타, 나 그디 돌아다줄타 - 는쟁이 그루 닷 뉘, 소금 닷 뉘 논거 상전님, 그거 먹읍서, 촛그루 닷 뉘 소금 노나 마나 헌건, 나 먹쿠다 ○ 한직을 자청비 끊어먹으안, 째째헨 먹을 수가 엇어, 목이 캄캄몰란 - 옷 우알로 민짜 벗언 두언 앙, 업더정 먹어서 목이 안 몰라마 씌 - 그 옷을 하나 씌 두개 씌 다 벗인 거 아니, 벗어 두언 엇더저물먹다 보난 - 상전님아, 나 도렌허는 거, 다 주켄허민 옷 안네쿠다 - 상전님아 입이나 혼 번 맞춰보아시민 좋암직허우다 - 상전님아 읍서 상전님 첫대 곶은허리나 안아보게 마썌 ○ 오늘 밤인 느영나영 이디 산골에서 누왕 자사키여, 웅심내지말앙 느영나영 뉘 잘거난 나 옷을 도라, 빙삭하게 웃으멍 이제 옷을 내어준거라. - 돌멩이라도 허영, 후꿈 움막이라도 돌러라. - 자청민 안네서 세 고망을 막으민, 혼 고망은 빵 불 숨안 추와불고 ○ 오늘은 날이 붉아부난이 느영나영 눅진 못허고, 나 독무릎더레 완 엇더지라, 나 이나 잡아주마하고 잠을 들게하여 활을 내어놓안 정수님이 귀더레, 웬 귀로누단 귀더레 꼭 쏘아분거라

여신 명	전개	무가(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자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중 산중 낭허레 올라가 단 내려보난 테역단풍 좋아서 문왕성 문도령님이 궁녀신녀청 거느려 테역 단풍 줘디서 복장귀 두드 리명 노는 것이 하도조앙 - 웨아흠 몰아흠 간간무레, 웨아흠 몰아흠 좇젠 가시 자왈로 다 덩기단보난 입 었던 옷도 갈기갈기 ○ 상전님이랑 높은 동산에 앓앙 밥 먹읍서, 종이난 굴형에라도 내려상 밥 먹 쿠다 - 벧 와랑와랑 나는 높은 동산에 앓안 범벅을 흔적 독하게 끈어 먹으난 - 정수남아 애가 칭칭 몰라 진다, 요물을 먹어가게 - 조청비 옷저구릴 벗언 낭 우티 걸쳐두고, 꼭 고치 물을 먹어야 험니덴 ○ 날이 저물앙 못내려 갈거 난 호룡담을 다왕, 움막을 짓영 뇌영 나영 후룻밤을 지세영 - 정수남아 경 웅심만 내지 말앙, 나 독무림 배개 삼 앙 누렌 - 은장도로 웬 귀로 오른 귀레 찢러 정수남이 소르 록하게 죽어가웁니다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이웃인정수님이 행실이 께쌌 후연 죽여된 오랏수다. - 느 가고정 현 데로 나가렌, 다올 려분거라 ○ 부대감집이 공고를 썩 붙인거 보난, 부영세를 잡아주면 검뉴울 이 자꾸웨고 영하니까, 내가 말 젓사위를 허켄 - 서천꽃밭디간 베따지 영 내연 누웠이난, 부영센 그디 뚜듯헌디 완 베따지에 우이 톡 앓으니, 그 를 폭후게 심언, 화살을 찢러 - 우리 사위 할 만하덴, 석달 열흘 백일을 잘 멕이고 해도 부부간 에 관계가 없어, 아 남녀간의 구 별법이 어시난 - 강남천자국세변도원수를 막으레 가는 길이라서 부정하고 서정허 연, 제가 몸정성을 하고 있습니 다 ○ 서천꽃밭디 들어간에 피오를 꺾 술오를 꺾, 오장육부 말 굴을 꺾, 사름생길 꺾이여 문딱 꺾은거라, 정수남이 죽은 딜 좇안간, 그 꺾 을 추레추레 대로 다 난, 열세변 을 때련 살련, 또 물에 태완 여 멍신디 간거라 - 지집년이 남도 남저, 사름을 죽 이고 살린덴 말이 똬 말이고, 아 이고 나가렌 ○ ‘인간 조청비’라고 써진 흥세 미 녕을 짜서 옥황에 올라가자, 문 도령이 알아보고서 지상으로 와 자청비를 만나려하나 만나주지 않음 - 화가 난 자청비는 문도령 손가 락에 바늘로 찢러서 쥘진 피가 붉긱후게 나도록 후난 - 부모 눈에 골리나고 시찌난 나 왓이네, 나도 느 닳은 아이 못돌 앙살키여

여신 명	전개	무가(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욱, 2018)
자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남 ○ 서천꽃밭 부대감 집의 사위를 들어 꽃을 따다가 종을 살림 ○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해서 다시 집에서 쫓겨남 ○ 주모가 문도령 장가갈 때 옷을 짜자, 자청비가 눈물로 옷을 짜서 수양 딸이 됨 ○ 문도령과 자청비의 해후 ○ 문도령 서수왕 딸과 혼약 회의 ○ 자청비 머느리 되기 위한 시험 ○ 강남천자국 세번도원수 막음 ○ 문도령 독주를 마시고 죽음 ○ 문도령을 살리기위해 꽃감관덕 자원 사위로 들어감 ○ 상동낭용열레기를 본메로 주고, 헤어짐 ○ 사름 살리는 꽃을 들고 와서 문도령을 살림 ○ 문도령 서천꽃밭으로 가서 부대감 사위 역할을 함 ○ 돌아오지 않는 문도령을 믿지 않고 인간세계로 내림 ○ 염주신농씨에게서 오곡의 씨앗과 메밀씨를 가지고 이 땅에 농경을 함 ○ 자청비는 세경신중마누라님으로 들어서서 상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님이 행실이 하도 곳언, 이만저만 해연 움막안내서 죽여된 오락수다 - 기집 년이 남도 남저, 어떻 사람을 죽이느니 ○ 자청비애기씨 상전님은 주모땅 할마님 차단 비단클에 앗안 비단을 짚시난 - 수양똥애기로 들영 나영 그찌 비단클에 앗안 비단이나 짜멍 살기 어찌 후겠느냐 - 문도령 입을 도폭을 지와 가멍, 안설에 자청비 이름 삼자를 새겨가는구나 ○ 이 밤 저 밤이 뉘면 자청비 신디 가크메, 문도령 오라신간 해영 문을 열렘헝서 - 자청비 누운 방 앞으로, 굴메를 비치와가난, 자청비가 문도령인 줄 알아 - 어멍 눈에 글리나곡, 아방 눈에 식지 난 몸 뉘여시난, 옥황 서천꽃밭디 도올랑 사름 살릴 꽃이나 해영옵서 ○ 문도령은 옥황에 도올란 피오를꽃, 말 곁을 꽃, 사름 살릴 꽃 허연 오락이난 ○ 정수님이 살아나움디다 예, 정수님이 살려 집으로 둘안 들어간 - 기집년이 남도 낫저 독험도 독허다, 어떻 사람을 죽이곡 살리느니, 어서 문 뵈기디 나고가렌 ○ 문도령님 지하레 자청비 상사병이 난 죽을 소경이 뉘연, 자청비 먹던 물이라도 강 떠오렌 - 나도 신녀 궁녀 청광 그찌 옥황에 도오를 수가 잇겠느냐 - 저부줄을 탄 옥황에 도올라, 문도령 시권제를 내어줍서, 문도령방 앞으로 간 나무에 걸터앗안 - 저 달은 곱긴곱다 마는, 달 가운데 계수나무 잇어지고 - 방으로 둘안 들어 간, 낮이는 팽풍 뒤에서 살려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레에 유왕유리허연 덩기노렌 허난, 궁네청, 시네청덜은 앗안 비세굴이 아이들이 울엄서 - 그걸 떠 올라강 표주박을 혼 번 만 더 내류왕, 날 혼디 우터레 옥황더레 돌아다주민 어뉘히니 ○ 문도령이 밤중에 이 밤과 저 밤 세연 나왕 '저들은 곱긴 곱주만은 인간에 이신 자청비만은 아니 곱덴' - 머리 다 깎으고, 송낙 쓰고, 스님으로 출려, 집에 간 권제를 받았 나완 - 저 돌은 곱긴 곱다마는 옥황에 문도령만이 아니곱덴, 송낙을 벗건보니 자청비 아니 ○ 우리집 머느리로 올 자랑 문국성, 씨야방 직랑도폭을 똑 맞게 지어단 입지렌 - 푸리 몸으로 환생해서 지레기랑 소매, 품을 문딱 재연 완, 시야방 직랑도폭을 헨 입지난 똑히 맞은거라 - 사람은 새사람이 좋습네까, 묵은 사람이 좋습네까, 나 서수왕에 장개 안가쿠다 ○ 우리 메누리 될 자랑, 칼선드리 발아들고, 발아나렌, 축원을 허연 칼 우터레 탁 올라사난 방울비가 도록도록 - 발 뒤꿈치를 솔썩하게 비난, 해영헌 치마각에 피가 맺어진 거라 ○ 강남천자국에 세번도원수를 험젠허난, 문도령 가살건디 - 문도령님아 그만이 앗아십서, 나가 강 막앙오쿠덴, 강남천자국에 간 세번도원수를 막안 온거라. ○ 술을 천 잔을 주고, 만 잔을 주고, 그건 독약이우다, 독주우다. 먹지말앙 그냥 이 앗더레 다 담양옵서 - 게와시가 도련님 나 술 혼잔 막 번앙갑서, 하도허난 방앙 먹은게 풀우에서 알러레 털어 저분거라

여신 명	전개	무가(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자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수왕에서 예문예장 가져 드리렌 허를 몇 번 씩 독촉 이 오라가난, 아버님 신디간 예수를 제경 - 목은 것이 좋덴 허건 서수왕 에 장게 못가켄 허곡 - 아버님이 목은 것이 좋덴 허 난, 서수왕에 장게 못가게 뒤엿수다 ○ 내 며느리가 적실하면 백탄 숯불 피와놓앙, 칼선도릴 발 아나곡, 발아들민 내 며느리 로 적실허덴 - 마지막에야 발 뒤꿈치로 피 가 빨긋하게 나난, 여자라 현 것은 전보름 후보름 법이 있습니다. ○ 서수왕에서 하도 이거 독촉 을 오라가난 - 혼 번은 강 오라야 흘 길 강, 혼잔 술이라도 대접허건 혼 잔 술에 새가 들영, 목숨 죽 어질거난 - 술 혼잔 권하는 게 혼잔 술 에 소르특기야 몰 알려레 텔 어지언 ○ 서천꽃밭이 훗앙 들어 강, 사름 살리는 곳이나 허여당 문도령이나 살리준 - 죽은 화기새 서천꽃밭디 허 나 던져된, 화기새를 훗젠헝 수다 - 부성감택 주운사위 허기 어 찌 허겠느냐. 주운사위 허영 - 오도독기 사름 살릴 꽃만 꺾 언 콤에 곱져간다. - 우리가 혼인을 허영 얼굴도 익숙지 아니허곡 오래 살아 나지도 아녀곡, 서울 상시관 에 들어가면 어느 제사에나 올 디, 상동낭용얼레기 반 짝을 내주어간다 ○ 집으로 오란 문도령신디, 누 운 방문 올안, 피 오를 꽃, 술 오를 꽃, 말 곱을 꽃, 사 름을 살릴 꽃, 설운 낭군을 살린 ○ 설운낭군 살리젠 서천꽃밭 부성감집이 단똥애기 주운 사위로 들어시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짝 손으로 안앙 몰탄 이제 집이 완, 문도령이 죽지 않았 다는 것을 알릴려고, 재열을 창문에 돌아매난, - 저 구들에 누원 앙, 저거 볍 서, 코고는 소리, 바르릉 바르 릃 소리 안 남수과, 막 코골멍 잠수게 - 무췌 주베기 해 난 확확 던지 명, 무췌 방식 허연 데끼명, 무췌 주베기를 먹으니 니빨이 다 꺾어지는 가라 - 정수남이 살리던 곳을 낫단, 그걸 놓안 문도령을 살린거라 ○ 서천꽃밭 부대감네 집이 들어 간 조원 사위 허여단, 나온 적 이 있수다, 게난 그디 강 선보 름 살건, 그디 강 후보름 살 앙, 양쪽 살림을 허영헝서 - 조청빈 올 때 꺾지 광목 치마 를 간장 물에 동강 념고, 밤이 는 촛이슬 맞고 낮이는 촛벧 맞오명 막 동간 너거라 ○ 자청비 잇인걸, 나가 잇어불 어된 왓덴, 모자도 거꾸로 쓰 고, 사모관디도 거꾸로 입고, 아멩이나 제게 험 오는게 막 거꾸로 험 왓이난 - 차메영 확 감아입언, 난 가쿠 다, 금시상에 누려사쿠덴 허 연, - 나 잘못 해서계, 나 잘못 해서 계, 영 등기문 복 찾아지고 현 것이, 그것이 나무가 뒤덴 예 ○ 내려오단 보난 정수남이가 질 레에 앉은거라, 큰 상전님네 다 죽어부난 갈 데 올데 었고, - 막 부젓침이 몰무쉬에, 사름 에덜 헤연 밧하나, 막 담아 난, 먹던 밥이라도 잇거들랑 허꿈만 줌서, 젊은 것들이 너 네 대로 행 먹으라 - 곱겅이 용쉬, 헝은 앙에 돌렝 이 밧디 허는 디 이시난 그디 간, 차롱에보라 ○ 이제 먹으난 그 밧디랑 모든 게 잘 뒤게 허연, 가지요름, 쇠요름 올라근에 조도 허민 왕강 싱강 허게 허고, 보리에 도 감비역도 주게 말고

여신 명	전개	무가(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 전보름 후보름 후명 가명 오명 협센, - 먼 발치로 바라보아도 문도령님은 자청비신디 눈도 먼아니 바리난 ○ 영후난 남자의 웨무음이구나, 난 옥황에 사라지랴, 열두시만곡이나 다 허영 인간에 강 인간덜 농업농서 허영 살기 마련허긴 - 마지막에는 모멸쌀 탄 급허게 놀 디 었이난 소중길 확 벗언, - 시만곡씨 탄 지하례 내려오단 보난, 장남덜 밧갈암시난 - 넘어가던 길손인데 점심이나 줌센, 장남덜 먹을 정심도 었덴 - 장남덜 쌀기쌀성을 불러주곡, 광난이 징도 불러주기 마련헌다. ○ 옛집을 들어사고 보난 정수남이 올레로 들어산 어부제끼 업더져 - 어머니도 아버님도 죽은 때가 오래였수다 - 설운아버님이랑 제석하르바님으로 들어상 밥읍서 - 설운 어머니랑 제석할마님으로 들어상 받기마련허서 ○ 조청비는 세경신중마누라로 들어상 상받기 마련을 후읍데다	- 우리가 밧디 강 밥 먹젠허문 제석할망 나시렌 허영 먼쳐서너 밧더레 케우려 똥 밥먹고 하는 거, 계난 용시를 헤신디 ○ 오곡농사씨를 탕와야 농사를 질건디, 염제 신농씨안티 올라간거라 - 오곡씨를 타아전 오단 보난 무물썬 안탄 와져서 - 두 번 차 올라간 모물씨를 소중기에 벗언, 소중기에 싨 모물씨 앓앙 와 나부난 걸름 위에도 나고, 무물은 늦은 농사허여도 후디 해먹고

■ 자청비의 화소는 다양한 편으로, 그녀의 탄생과 성장, 결혼, 그리고 농경신으로서의 좌정과 관련된 주제어로 구성됨을 알 수 있음

- '수룩', '주천강', '하늘옥황', '도실낭씨앗', '옥돌', '연서답', '남복', '몸모옥', '움막', '범벅', '서천꽃밭', '홍세미녕', '비단클', '표주박', '덜', '예숙', '백탄숯불', '방울비', '치마깍', '칼선도리', '방울비', '무쉐방석', '간장', '무멸씨', '소중기', '제석하르바님', '제석할마님', '오곡농사씨', '돌랭이⁵⁾임
- 자청비 화소 중 '자식'에 관련된 화소가 없는 것은 그녀의 일생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고, 농경신으로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가족이나 가정을 꾸리지 않고 공업을 행하고 신성성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음

5) 제주지역에서는 일정 크기의 작은 발뽕기를 일컬음

7.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이’와 ‘강님’의 처

- 과양생이의 처인 ‘과양생이 부인’은 동네에서 가장 악한 여자로 알려져 있는 반면, 염라대왕을 잡으러 강님을 저승으로 보낸 강님의 처는 조강지처로 알려져 있음
 - 절에 가 자라며 명을 잊던 버무왕의 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다가 ‘과양생이’ 집을 지날 때 명심하라는 대사가 지시한 말을 의심했으나, 그 말을 잊어버리고 날이 어두워져 하룻밤을 묵으려고 과양생이 부인 집으로 들어간 후 내주는 술을 먹고 죽음
 - 과양생이 부인은 버무왕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들이 지니고 있던 비단이 탐이 나서 아들을 죽이고 연못에 가서 버리는데, 그 이후 연못에는 버무왕의 아들 삼형제가 연꽃으로 화해서 물 위로 떠오름
 - 과양생이 처는 꽃이 아름다운 나머지, 탐내어 그 꽃을 꺾어다 기둥에 걸어두었는데, 지나다닐 적마다 머리를 뜯자 화가 나 분을 참지 못하고 화로에 던져서 불에 태움
 - 꽃을 태운 화로의 재에는 세 개의 구슬이 남게 되는데, 과양생이 처는 이 구슬을 입에 놓고 놀다가 목안으로 들이키고 임신을 해서 아들 삼형제를 낳았으며, 버무왕의 아들 삼형제이면서 과양생이 아들들은 공부 가 뛰어나 과거를 본 후 합격함
- 과거를 마치고 돌아오는 세 아들이 남의 자식이라고 여긴 과양생이 처가 악담을 하는 데 아들 셋이 집안으로 들어와 조상에게 절을 하다가 모두 죽고, 이에 분통이 터진 처는 고을 원님에게 원인을 규명해주길 의뢰해서 결국은 저승의 염라왕을 모셔다 판가름을 내고 과양생이 처인 죄인을 응징함
 - 처는 탐욕이 한계를 넘어서 극치에 이르고, 자신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라 여기고 증오하다가 화를 자초했으며, 저주가 죽음에 이르고 그 악함은 극에 다다름
- 차사본풀이는 저승차사가 된 주인공 강님에 대한 본풀이지만, 이 본풀이 전반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 버무왕의 아들과 과양생이 처의 이야기가 없으면 이 강님에 대한 서사물은 염라왕을 잡아오는 일에 그침
- 원님은 인간의 죄로는 판결을 낼 수 없어서 저승 염라왕을 모셔다 심판받게 되는데, 이러한 악도 염라왕의 심판에 따라 판결이 나고, 결국 과양생이 처는 아홉 장님이 이끄는 말에 사지가 찢겨져 죽음을 당하고 남방야에 넣고 뽕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모기로 환생하여 인간의 피를 빨게 됨
- 강님의 처는 긍정적인 이상형의 인물로, 첩을 많이 거느린 똑똑한 남편 강님에 대해 처는 남편의 하는 일을 묵묵히 따르는 순종형의 아내이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내조하는 여성임
 - 저승길을 알려주는 문전신(門前神) 하르방과 할망도 강님 아내의 덕을 칭찬함
 - 똑똑한 강님을 추천한 것도 원님아내였고, 저승길을 안내하고 저승에 간 남편을 위해 만든 ‘상례법’을 만든 것도 아내의 지혜에서 이루어졌음

- 문화나 문명의 시작과 발전은 여성들의 지혜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죽어서 치르는 죽음에 대한 의례와 저승법을 마련함도 강님의 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두 여성은 바람직한 여성상과 지양해야 될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 본풀이를 수용하는 제주여성 층에 많은 교육적인 효과를 시사했을 것임
- 강님 아내의 조강지처와 같은 삶의 고통과 인내는 결국 이별할 때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그 덕으로 염라대왕을 잡아다가 과양생이 처의 원을 해결할 수 있었고, 고을의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게 되며,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표 8> '과양생이'와 '강님'의 처 화소

여신 명	전개	무가(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과양생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물왕의 세 아들이 명이 짧음 ○ 명을 잇기 위해 절로 들어감 ○ 부모가 보고 싶어 돌아오는데, 과양생이 집에 들름 ○ 과양생이 세 아들을 죽이고 연못에 던짐 ○ 세개의 꽃이 피어 있어서 집으로 돌아 왔으나, 머리를 뜯어서 화로에 던짐 ○ 불을 빌러 왔으나 화로에서 구슬 세 개를 얻고 삼켜서 수태가 됨 ○ 세 아들이 태어나서 과거하러 감 ○ 과거해 오는 이들에게 몹쓸 욕을 했으나 정작 아들이 과거 급제함 ○ 악담처럼 세 아들이 죽음 ○ 과양생이는 고을 원님에게 상소 ○ 원님은 강님을 저승으로 보내 염라왕을 데려오도록 함 ○ 염라왕이 과양생이에게 아들들의 거처를 묻음 ○ 주천강 연화못에 버물왕의 아들을 드물린 물을 퍼서 아들들의 뼈를 건져 냄 ○ 아들들을 서천꽃밭의 꽃으로 살려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서님아 죽다 남은 이야기덜도 열다섯 십오 세가 당허민, 스고전명이 매기라후니, 이 아기덜 죽을 날만 알곡 허멍 멩과 복을 잇어 났수겐 - 우리 절간 법당으로 보내 영 연삼년 이야기덜 아, 절간 생활을 시겸시민, 멩과 복은 잇어 날 듯 합니다. ○ 범물왕 아덜 아기덜, 삼형제 멩과 복을 빌레 동계 남 상중절, 서계남은 은중절로 소곡소곡 들어간다 - 백비단도 삼삼은 구, 아흠 필을 올려간다 ○ 과양땅에 과양생이 사움 데다, 과양생이 부인님은 하도 욕심이 과한 사람이 난, 백비단을 짓덴 후난 안체로 돌안 들어간 - 느네덜 먼길 내려오라시 난 우선 시장도 헤실거여 마는, 애가 콘콘 몰라시 난, 도약주라도 혼잔 헤여 다 줄테니 씨원허게 마셔 시민 - 아침 저녁 마시는 곡차카 부덴 혼잔 싹 마시는 게, 동서러레 다 자빠져가는 구나 ○ 아기 덜 깊은 잠에서 깨어나질 안허난 수장남도 불러간다, 수벨캠도 불러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네 암만 글을 잘허민 무시겔 허고, 활을 잘허민 무시겔 허느니, 느네 덜이 명이 단단 쫓라지여 열다섯 십오셀 못빙김 직허다. - 소소님아 우리 애기덜 내일 모레 사시 날까지 법당으로 보내 쿠다 - 비단 아흠필을 내어 주커메, 시장기가 날 때가 있나, 시장기가 구이 나겔랑 아무 집이라도 들어 강 그 비단 세치 싹만 끊어주멍, 식은 밥에 물죤이라도 받아 먹영 시장기라도 물리멍 절에 올라가고 ○ 저 구름은 삼형제 얼굴도 보안 넘어 감건마는, 우리사 살아 잇어도, 아바님 어머님 생이별 허여 오란 이게 무신 일인고 - 아기덜 얼마나 아방, 어멍 보구 정 허영 영 험신고 허연 - 과양땅이랑 들어가건 명심허영 간 오라이 ○ 중이 주식 들어 암시니, 아 수장 남, 수벨감야, 저 중 귀잡앙 처불렌, 남다 처불렌 - 버물왕의 아들이엔 후난 겁이사 파짜 난거라, 그 때에 이제 밥훈 숫가락 거려놓고, 냉수에 닥닥 존안, 숫가락 세개 걸천 왔은 디 앞더레 앗아다 주난 - 놓이거 공허게 먹으면 목 걸리곡, 아흠치만 과양생이 각시 애기라도 잇이민 속적삼이나 머리 덩기라도 들이게 아흠치만 끊어 저될 가기가 어떻허파

여신 명	전개	무가(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과양생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양생이일곱썩에 돌아 매어 갈기갈기 찢은 후 뼈만 남음 ○ 뼈를 굴목낭 방에에 놓고 뽕아, 모기로 환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양땅에 광청못디 강 돌 돌아멩 들이쳐불민 너이덜 옛날부터 종이문세 걸 어주마 - 광청 못디 강 돌 돌아메영, 문딱 들이쳐 가는구나 ○ 광청못디 민물 황저국이 이 아기덜 문딱 삼색 연꽃으로 내보넨 꽃입니다 예 - 삼색꽃을 오도독기 꺾어 앗언, 하나 꽃은 일문전이 꽃아간다, 하나 꽃은 상깃밀 꽃오와 간다, 하나 꽃은 뒷문전도 꽃오와 간다 - 나가명 들어오명 나 보젠 후난 나를 허우툷엄구나, 불러레나 진어불라 - 북북 부비어아전 정동화리에 간 불천수혜시켜 ○ 뒷집이 청태산 주모할마 남은 불방울 하나 빌레오 랫수덴, 정동화리에 간 제를 해싼 봄센 - 불씨는 다 꺼져 었고, 난디 었이 삼색 구실만 있 었구나 ○ 과양생이 부인 삼색 구실 잇덴허난, 요거 손에 방노리개허기 좋다 - 입 노리개 허단 목 알러레 소로록허게 삼색꽃이 이제 문딱 내려가 - 한 덜 두 덜, 아흠 열덜 그득차난 아방엿인 아기 삼형제가 솟아난다 - 자는 것도 굴발소리, 노는 것도 굴발소리 뒤어간다 ○ 상시관에 과거보러 가게 뒤난, 과양생이 낳은 아기 덜 어머니 우리도 강 과거나 보양 오쿠다 - 후를 낳은 과양 땅으로 삼만관속, 아덜덜 삼형제 과거허영 오는 줄도 모르고, ○ 과거에 당선 뒤영 오는고, 당선 뒤영 오는 사람덜량 문전더레 돌아 앗양 절하건 속곡허영 줌자는 듯이다 죽으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양생이가 정지에 간 솟뚜껍이 왓그랑탕 왓그랑탕 소리가 나 - 오년 묵은 촌지름에 삼년 묵은 간장물 솟디 난 불 솟아가난 - 삼형제 잠시난 누단 귀로 웅귀레 소로록허게 비와부난, 얼음산에 구름 녹듯 소로록허게 다 죽은거라 ○ 수장남 수벨카마, 요것 가멩이에 툷툷허게 몰아 앗엿이, 존둥이덜에 돌멩이를 돌아메영 주천강 연화못디강 다 디물리와불라 - 주천강 연화못디 간보라, 영장이 나 올르지 안 헤시나 ○ 고장 세개가, 삼색베기 고장이 동골동골허게 뜯거라 - 물은 간 물먹젠 후난 천리만리 그 고장이 확허게 놀아왕 물먹는 물주동일 박박허게 모지려부는거라 ○ 삼색베기 고장은 동골동골 떠시난 물막개로 활활활 이넉 앞더레 등기명 - 빨강헌 고장은 병실병실 웃는 형치를 하고, 노랑 고장은 싱긔싱긔 용심내는 형치를 하고, 푸른 고장은 우는 형치를 한거라 ○ 손을 몰알더레 쑥허게 드물란, 구덕에 노완 집이 오란 - 일문전에 하나 꽃고, 뒷무똥더레 하나 꽃고, 생깃지둥더레 하나 꽃고 - 과양생이 각시 허운데기 상고박도 심영 박허게 동겨불고, 뒷술작도 허운데기 심영 그자 복허게 매불고 ○ 박박허게 무지런 정동화리더레 불을 팍허게 붙여분거라 - 과양생이야 각시아 나 불망구리 혼방울만 도라 ○ 정동화리 뒤쓰난 불망굴은 었고, 구슬 세개가 나운거라 - 입에 들어가난 동골동골 허단보난 구슬 세개가 다 녹안 오물렉기 목알러레 내려가분거라 - 그날부터 포테가 뒤언 현 게, 아흠열 덜 준삭 채완 낳는 건 보난, 아들 세쌍둥이를 난거라

여신 명	전개	무가(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과양생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과거 당선 뉘 오라 시난, 삼형제 앓저냥, 동네잔치를 허켄, 문전상을 출려뉘 절을 삼시번 속고 허게 - 문전 앞이서 잠자는 듯이 다 죽엇구나 ○ 개고튼 원님이여, 쉼고튼 원님이여, 이녁 절체를 몰란 날만 붉아가민 후옥을 헤여가난 ○ 과양생이 아달덜 삼형제 죽은 절첸 허젠허민, 염녀왕을 동원 마당더레 청허여 들일 수가 잇느냐 - 강림이가 하도 역력하고 똑똑허난 좋은 절첸 헐겁니다. ○ 강림이가 저승 염녀부인 탄 앞, 내려사는 가매 앞으로 왕, 어느 누구가 막아 섬시난 - 나는 인간에 강림인데, 염녀왕을 동헌 마당더레 청허젠, 이싱 강림이가 뉘웁니다. - 인간에 조복장제단똥애기 몸에 신병 낭 널 모레 날 소오시가 뉘여가민 - 시왕연맛이로 누려 상, 널 모레 소오시가 근당허민, 어 동헌마당 더레 누려사켄 - 염녀왕은 상을 받안, 어느 동안 염녀대 우틸로 가, ○ 강림이가 집이 오랑 보난 줌을 잠시난, 저심도 아니 가곡, 집이서 잠만 잠덴 - 염녀왕이 동헌 마당 널 모레 올 때까지 하옥허켄, ○ 염녀왕이 내려사가난 확허게 뉘지둥 두에 간 숨어가는 것이, 염녀왕은 벌써 알아서 뉘지둥을 대툼으로 썰어 - 아무 쉼 엇인 강림이 저싱까지 보네여 나를 청헤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상시관 과거허레들 가젠후난, 우리가 강 와사 축지방이라도 쓸거 아니쨌 - 삼형제 과걸 가부난 이날이나 올건가, 저날이나 올건가 ○ 동으로 과거 당선 뉘언, 막 주네 나팔들 불멍 비비동당 허멍 - 과거허영 오는 거 저건, 어느 집안 산천인고 - 우리 목다리 썸에만 오거들랑 오도독기 그자 다 죽게 해줍서 - 과양생이네 집더레 막 들어오는 거 아니, 과양생이 빈술박 들고 얼씨구 좋다 우리 집안 산천도 그럭저럭 뉘여간다 ○ 큰 아덜은 동방급제를 허엿수덴 허연, 문전에 출려 놓안 절을 허렌 허연, 절을 허난 속곡허게 죽어불언, 셋 아덜은 동네 어룬 덜 불러단 절을 허난 속곡허게 절한 게 아니 일어나, 죽은 아덜은 조왕에 간 절을 허난 다 죽어부거 아니 ○ 누게영 싸왕 죽으나, 도투단 죽으나 매를 맞안 죽으나, 이녁 옥살이 지영, 이녁애기 죽은 걸 해결 못허키여 - 개고튼 짐치원아 쉼고튼 짐치원아, 이만한 절체도 못허멍, 이 고을에 사름 엇이난 완에 원님살이 험덴 ○ 너네 애기덜 어디 문얼느냐, 앞뵈디 뉘뵈디 출병헛수다 - 간 팽보난 아무 것도, 애기랑 마랑 아무 것도 엇어 편편이라 ○ 주천강 연화못에 그 버물왕 아들들 드물라분 물을 다 썬거 아니, 경허연 다 푸단 보난 빼만 슬그랑허게 남은거라 - 염라대왕이 서천꽃뵈이 도롤란, 피 오를 곳, 슬 오를 곳, 오장 오를 곳, 사름 생길 곳, 말 굴을 곳 차례로 놓안 송악낭 막데기로 연세 번을 두들기니, 애기덜이 와들렉이 일어나멍 ○ 과양생이 두가시를 쉼앓배로 묶은거라

여신 명	전개	무가(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과양생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과양성인디, 봉분을 간 박박 판 보난, 신체는 간 곳이 었고, 아덜 삼형제 누워난 디 거미줄만 - 앞 밧디랑 솟청 걸라, 뒷 밧디랑 먹통 걸라, 목에 큰칼 씨왕 죽일팔로 들러 간다 ○ 염녀대왕, 염녀부인님아 그런 것이 아니고, 독헌 독약주를 맥연 과양땅 광청 못디간 문딱 들이쳐부럿수덴 ○ 고을백성 다 불런 광청못을 푸고 보니, 아기덜 열두뺨만 남아시난 이 아기덜 살려다가 - 동경국 어명국 아방광 촛양가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곱 쉼에 아홉 장남을 거느려 벌통 돌아메고 허연, 물에 쉼겨 튀어가민 벌은 왕허민 막 놀려들어, 가시덤불마다 돌갈퀴마다 그냥 하도 쫓안뎅기단 보난, 갈기갈기 찢어지단 남은 건 빼만 슬그랑허게 - 이 동네 얘기씨덜 힘 때 좋다, 굴묵낭방에 난 독독 못안 거품불언 푸후연 불려부난 여름 뉘면 모기가 뉘고, 칠팔월에 극다귀 뉘연, 산 때도 사름을 벵겨 먹언게 죽어도 사름 피 빨양 먹어, 경허연 모기로 환생을 시기난 - 일곱 쉼에 아홉장남 과양생이 쫓안 뎅기던 거는 귀양풀이 혈 때 아홉 귀양으로 얻어먹으라
강님이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님이 염라왕을 잡으러 저승가려고 본처를 만나러 감 ○ 강님의 처는 붉은 토맹지에 흰글을 쓰고 와서 저승 관장 패로 삼음 ○ 백시리 석장을 지음 ○ 조왕할망이 염라왕 찾아갈 길을 가르쳐 줌 ○ 염라왕과 약속을 하고 강님이 이승으로 돌아와 큰 부인과 해후 ○ 염라왕이 강님의 혼을 빼앗아 감 ○ 큰부인의 탄식과 흐터진 머리를 찢으로 묶기 ○ 호상법과 삼년상 상제례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부인신디 강 만단정철 허영 일뤼뎅 가젠 허영 강림이 큰 부인신디 오랑 보난 - 큰부인님은 보리방에 물 적혀 놓안 오뉴월 방에 드리쿵쿵, 네 쿵쿵 지엄구나 ○ 나 오닐 동원 마당더레 급허게 께를 맥여 불러들여, 저싱강 염녀왕을 동원 마당더레 청허여 들이겄느냐, 목심을 바치겄느냐 - 저싱을 가젠허면 저싱관장 펠 갖어사 험네다, 저싱관장 펠 내여줍데가 - 흰중이에 검은 글법이난, 혼일 알곡 두일 모른 설운 낭군님아 ○ 강림이 저싱을 갖다 오렌 허멍, 야 어멍 이싱법을 줍디가, 이걸 갖어 저싱을 갖다 오렌 허건, 기언이랑 무기언을 험센 - 강림이만 역력헌 줄 알앗더니 강림이 큰부인 역시 똑똑헌 부인이로구나 예 ○ 붉은 토맹지에 흰글을 죽은 걸 야 그걸 풀풀 몰안 집으로 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오관디 벗언 율드레 놓아두고, 족두리 벵건 놓아두언, 그 길로 나오란 이구십팔 열여덟 각시들만 좇양 뎅겄시난 - 큰각시 사는 디나 강 얼굴이나 보양 가주게 허연, 허울허울 가단보난 - 큰각시 굴묵낭방에 도훼남 절굿대에 물보리 섞어난 이녁 전승팔제 생각허멍, 이여도 방에여, 이여도 방에여 ○ 잘 나도 내 낭군이요, 못 나도 내 낭군이요, 내 낭군이 워낙 잘나부난, 각시덜도 기생첩년덜 이구십팔 열여덟 개를 행 뎅겄이난, 경해도 나 집이 온 손님이난 구들에 간 보주겐 - 여자엔 헌 건 양, 동산에 앓양 소피를 봐도 치메깍 젖을 줄 모르는 건, 여자의 모음 아니우파 - 저승 염라왕 잡으레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저 사름 얼굴이나 보양가젠, 나가 마지막 길을 오랏노라 ○ 저싱은 무싱 거 허렌 값수파, 염라왕 잡으레 감져, 저승가렌 헌 본메 줍데가

여신 명	전개	무가(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강님이 처		<p>- 설운 낭군님이 요게 저싱 관장뵙니다.</p> <p>○ 저싱을 가젠허면 백시리 석징도 지어간다, 혼징은 문전하르바님, 혼징은 조 왕할마님 짚시</p> <p>- 혼징은 강림이 저싱 가명 시장허고, 베고프민 먹을 정심으로 마련을 허옵니다</p> <p>○ 붉은 토맹지를 갖단 저싱 이불 삼아 툇허게 덮어두고, 촛대 한쌍 향노상납 피워간다.</p> <p>○ 강림이 저승길이 어딜런고</p> <p>- 어이 큰부인 성심이 기뻛 허연, 너허, 저싱 염네왕 좇아들어 갈길을 그리치저 허는 팔만사천 제 조 왕할마님이노라</p> <p>○ 인간에 주북장제 단돌아기 몸에 신병난 날모레 소오시가 뉘여가민</p> <p>- 시왕연맛이로 누려 상, 널모레 소오시가 근당허민, 잠시 잠깐 어 동헌마당 더레 누려사켄</p> <p>○ 원님이 덩드렁 뉘은 주먹으로 확 네 굴기난, 강림이가 덩글랑하게 쓸어집디다 예</p> <p>- 강림이 부인 앞에 부고장을 보내여간다. 강림이 부인 동헌 마당에 눌러들어</p> <p>- 강림이 저승을 갖다오렌 허난, 아니 갖다 오라십데가, 염녀왕을 청하여 들이렌허난 아니 청허여십데가, 어서 본 데로 말을 허여줍센</p> <p>- 이레 저레 누웁 동글단보난, 신데자 수페머리 이레저레 허터져시난, 짚으로 급허게 머리 무꼬기 마련을 허여갑데다</p> <p>- 좋은 호상법 마련한다, 설운 낭군 살아 먹는 뉘, 쓰는 뉘, 야 삼년상 놓게 마련한다</p>	<p>- 저싱 글은 붉은 거에 흰글을 써야 가는 법이우덴, 이거 멩전허는 게 강림이 큰각시가 내온 법이고</p> <p>- 옷이나 이제나 맨들안 입전 보내주겐 허연, 이제 가명 또 베고프문 어떻허리 헨</p> <p>○ 여자엔 헨 건 꿈에 시꾸와도 새물인데, 강림이 저승가는 길에 어떤 여자가 빈 허벽을 지어서 어르느냐고</p> <p>- 게난 주먹으로 그 허벽을 와쌍하게 벌러붙엇어, 겐 벌러난 법으로, 옛날엔 사름 죽어나민 그 구들에 사기그릇 허여근에 이제 와쌍와쌍 벌르고, 푸데더레 사기그릇 뉘그네 방에간 벌르고</p> <p>○ 난 느네 큰각시네 집이 조왕할망인디, 너 큰각시 지극정성이 기뻛허난 너 저승질이나 곱아주젠</p> <p>- 너 큰각시 생각허영 나오랏이메, 나 떡이랑 너가 먹영 가고, 너 떡이랑 쌍 가당보민, 문전하르방이 이실꺼매, 문전하르방 안네영 저승질 곱아도렌</p> <p>- 난 너 큰각시네 문전하르방인데, 너 허는 건 퀘쌌허드라 만은, 너 이 큰각시 하도 지극정성 기뻛허난 너이 큰 각시 생각허난 저승질 곱아주젠 나왓다</p> <p>○ 소오시가 뉘여가난 동으로 날씨가 거뭇거뭇 해 가고, 서으로도 거뭇거뭇 해 간게</p> <p>- 염라대왕이 연단위에 탁 산보난, 비오고 벼락 천둥소리에 문 딱 변장들 허명, 다 그디 이신 사름덜 곱아붙어신디</p> <p>- 강림이는 이디 큰칼을 싸와노난 돈도 기도 못허연 7만이 그 비 맞으멍 앓은거라</p> <p>- 염라대왕님이, 일분일초만 늦어시민 머리털 하나가 7류왕 죽을 뻔 했습니다</p> <p>○ 잇인 때엔 각시만 얼영뎡기명부수 날 속상허고, 조들리왔주만은, 엇이난 양 혼 모음 혼 뜻영 소상도 뉘겨수다. 대상도 뉘겨수다. 나 첫 식게도 허엿수다, 정절수절 직허영 앓헨 허엿수다</p>

여신 명	전개	무가(이승순,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강님이 처			- 경허난 열 각실 언영 덩겨도 큰 각시가 큰각시여 - 그날 밤이 이젠 돌이가 누원, 열 두 사랑을 다 풀리운거라 ○ 날랑 저승 가명 혼을 빼영 가크 메, 짐치원이랑 몸친 앓입서 - 아그랑작대기 자락 거리밀려볼라, 뒤어지게, 아이고 죽었수다, 죽었수다 ○ 사름 죽어 성복하기 전인, 산디 짚허영 머리 묶어근영에 우리 상제덜 경 헨 덩겨난 법 마련허고, - 초수렴도 허여도 섭섭허다, 정수렴 허여줘도 섭섭허다, 대수렴 헤여줘도 섭섭허다

- 전체적인 신화의 구성이 과양생이에 대한 전반부와 강림의 처에 대한 후반부가 이분화되어 있고 여신들에 대한 사건 진행이 별개임
 - 과양생이와 관련 주요 화소는 ‘밥숫가락’, ‘속적삼’, ‘머리맹기’, ‘춤지름’, ‘간장’, ‘얼음산’, ‘연못’, ‘삼색꽃’, ‘정동화리’, ‘불씨’, ‘구슬’, ‘과거’, ‘주네나팔’, ‘문전’, ‘조왕’, ‘굴묵남방에’, ‘꼭다귀’, ‘모기’, ‘귀양풀이’로 추출됨
 - 강림의 처에 대한 화소는 ‘보리방에’, ‘굴묵남방에’, ‘도훼남절굿대’, ‘각시’, ‘기생첩’, ‘본메’, ‘백시리’, ‘허벅’, ‘조왕할망’, ‘문전하르방’, ‘염라대왕’, ‘시왕연맛이’, ‘호상법’, ‘소상’, ‘대상’, ‘식계’, ‘산디짚’ 등이 있음

8.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과 ‘노일저대’

- <문전본풀이>는 제주지역의 가옥 구조와 남편과 처첩, 의붓자식간의 갈등 관계를 통해 집안 인물들의 역할만이 아니라 가옥에 좌정한 신격과 직능간의 관계를 잘 구현하고 있음
 - 남산비의 조강지처 여산부인은 제주의 여염집 아낙과 다름없으며 무역장사를 갔다가 육지에서 만난 첩인 노일저대와의 갈등 관계를 통해 제주 집 가옥에 좌정한 신들의 특성을 잘 말해줌
- 현용준은 문전본풀이를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가족의 비극을 계모담(繼母譚)으로 엮는데, 육지부 계모담의 전개와 달리 제주도 가신들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⁶⁾고 정의함

6) 현용준, 1992, 『문헌신화와 무속신화』, 집문당, 267쪽.

- 본처를 죽이고 자식들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악녀 '노일저대'는 악한 행위가 탄로 나서 도망치다 칩간에서 목매어 죽고 신체의 일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재료인 바다 해산물로 환생하게 됨
- '노일저대'와 '여산부인'은 대응되는 인물로 죽어서는 제주에서의 부역을 지키는 조왕신과 변소의 신인 측간신 두 신으로 대응됨
- 제주의 가옥 구조 중에서 변소와 부엌은 멀리 떨어져 있고, 두 곳은 상극으로 부엌의 지푸라기 하나라도 변소로 가져갈 수 없는데, 바로 '동티'라고 하는 부정함이 있어서 처와 첩의 관계를 상극으로 상징함

■ 조왕신은 온 가족의 삶을 담당하는 신으로 모신적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집안 가족 구성원의 삶의 행복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불을 주재한다는 것은 사악한 것을 없애고 복을 가져온다는 믿음과 함께 하는데, 노일저대는 죽어서 인류의 음식먹거리가 되는 해산물을 만들어내고, 각 신체의 일부가 해초가 되거나 패류가 되는데, 신화에서의 사체환생 모티프는 생산신적 면모가 강하고 자연의 순환구조 속에서 죽음과 삶은 생명 현상과 자연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음⁷⁾

■ <문전본풀이>는 단지 문전신에 대한 일대기라기보다 제주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제주인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나 주거문화 그리고 음식문화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신화임

- 문전신에 대한 의례가 아직도 유교식 제례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신화가 지니는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뿌리 깊이 내려진 문화현상에 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표 9> 여산부인과 노일저대 화소

여신 명	전개	무가(오춘옥,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여산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선비의 일곱아들 탄생 ○ 무곡장사 간 남편을 찾아 나섬 ○ 여산부인이 바다를 건너 남선비를 만나보니 노일저대의 꼬임에 빠져 체죽만 먹고 있음 ○ 고운 쌀로 밥을 하고, 남선비에게 들고 감 ○ 노일저대는 여산부인을 죽여야 한다고 꾀를 냄 ○ 몸 목욕하던 물에 가서 여산부인을 물속으로 밀어서 죽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전 아방 남선 고을, 남선 비워다, 문전 어멍 여산고를 보조국입데다 ○ 남선비야 남인 가장남야 메역 혼베 시켜 네건, 육지강 메역장서 헤여근 무곡으로 나 바광웁서, 저 애기덜 배고팡 우는 걸 봅서, 저 애기덜 밥이나 맥여보게 ○ 어느 날이민 이 남편네 무곡 바광 오걸랑 이 애기덜 배부른 밥 맥이린 메날 손 가락 오그력 폐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선비 생원과 여산국 부인님이 부배 간을 삼안, 아기를 낳단 보난 아들 일곱을 낳음 ○ 서난허고 가난공서 헤노난 곡철곡헬 거느령, 남박에 남신을 팡 구멍도식을 헤영 살아가난 하도 가난허고 ○ 제주도에 나는 소산지 제물을 실령 육지 강 그거 풀양 쓸 받안, 무곡이나 지어당 우리식구 살아가는 게 어평허우파 ○ 느네 아버지 느네를 먹연살리젠 무곡치레 간 아니오람저, 초신을 혼사름이 하나씩 날 삼아도라

7) 김정호, 문병두, 2014, "한일 사체 환생 신화연구: 노일저대귀일의 딸과 오케츠히메노가미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72집, 한민족어문학회.

여신 명	전개	무가(오춘옥,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여산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선비는 눈이 어두워서 노일저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압 ○ 노일저대는 아이들마저 죽이려고 함 - 남선비에게 문점을 하도록 함 - 아이들의 애(간)을 내어 먹어야 한다고 함 ○ 노일저대의 피에 아이들이 죽게 되자, 꿈에 현몽하여 계시 ○ 산에서 내려오는 노루를 죽이려고 하자, 산돼지를 잡아서 애를 내도록 함 ○ 노일저대는 먹지 않고 이불 속으로 넣자 녹두생인이 발각 ○ 노일저대 측간으로 달려가서 죽음 ○ 녹두생인 서천꽃밭으로 가서 피 오를 낫, 슬 오를 낫, 말 그를 낫 등을 따다가 어머니를 살림 ○ 어머니는 조왕할망으로 좌정 - 누웠던 자리의 흙으로 시리를 만듦 ○ 노일저대는 측간신이 됨 - 변소와 부엌은 멀게 두는 전통가옥 구조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아방을 아명이나 훗아보저, 남선비야, 살았 건 몸으로 읍서, 죽영 저승 갓 당 혼정으로 머릿 거월이라도 한 거월만 요 상동낭용열레 기러레 혼정으로 ○ 어머니야 생각해보민 잘허는 일이라도, 그런 일을 헤영 아버지 좇지 못헙네다. 읍서 널랑 붉은민 우리 일곱 성제가 '아야심산 신산 꽃'이 올라근 곶은 낭을 베 여오걸랑, 베나 짓영, 그 배탕 읍서, 아버지 훗아간 섬에 훗아 가보기 어뎡허우과 ○ 이 네 정영 저 배탕 저 물막은 섬까지 요답 에이세끼라 혼날 혼시 꿰기 입에 갈로구나, 아이고 어뎡허코 - 애기덜 달레연 집이 강, 그거 앳영 오령 일곱성제를 보내두고 어뎡 혼자만 그 베질허영 저 배당을 나간다 ○ 여산고를 보조국은 오동나라 정지고을로 들어가구나, 남선비 간 섬으로 들어가젓구나 ○ 주연이나 못이쿠다, 이 막살이에 어느 걸랑 나 궁둥이 데곡, 어느 걸랑 주인 궁둥이 델 나위 잇수과 - 우리 집이 가민 우리 고향에 이만한 집은 잇수다. 다냐사민 나그네 몸이 됩니다. - 아이고 요 어른아 솟이나 빌립서, 나 먼디 베질 헨와 나난, 벤 바싹 고판 못 살쿠다, 밥이나 허영먹저 ○ 각서 추물 열두가지 일곱가지 메물 짓갈 출련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상을 출련 남선비 한테 들렁가는구나 - 저 어른아 어뎡헌 일이우과 밥상 출려다 넌 먹음센 혼밥은 아니먹고, 비새 그찌우는 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산국 부인님도 배 탕 가젠허난, 꼭 그 자리에 가난, 이 배탕광 저 배당에 가난 모진 광풍이 불언, 막 뎛스젓닥 갈라젓닥 - 맹천고픈 하늘님아, 날 살려줍서, 요왕님아, 선왕님아 살려줍서 ○ 지장뱃디 새 두리는 애기씨들이 지네 놀레주게 - 요 새 저 새 밥주리 욱은 새야, 너미 경 욱은 체 하지마라, 남선비 욱은 간에도 아이 못인 그물에 들언, 노일저대 호탕에 빠전, 전베 독선 다 풀아먹언 체 죽만 먹단 보난 인명천지 뉘엿젠 ○ 시양삭삭 그은 썬, 존동이 진 그은 썬, 초불 두불 연시번을 씻언 솟디 놓안, 불낙시건 밥허연 반찬 출리고, 남선비 신디 들렁간거라. - 문전 모른 공서가 잇이명, 주인 모른 나그네가 잇입네까, 개도 주인이 먹어봐사, 나그네도 먹을꺼 아니과 - 아시야 이런 남편 모성 살젠허난 고생헤엇저, 저 정지에 간 보라, 나 밥헤여 된 거렁 남은 거 잇이메 그거 밥 먹으라 ○ 성님이우과, 성님인 거 난 몰란 양, 나 잘못해젓우다 - 저 녀을 죽여볼어사 나가 고향에 강 안 식구들도 나 추지후고, 고평 간도 나 추지해사, 영헤영헌 밥을 먹을로구나 ○ 성님도 오젠허난 쥌물 몸드레 지쳐실거, 나도 오늘 강 일 허젠 허난 양 막 더운 뎛 흘려나난, 강 우리 목욕 행 오게마썬 - 혼 번 두 번 미는 체허당 세번 쥌 자락허게 밀리명 물더레 빠쳐분거라 그냥 ○ 그 녀 잘 죽엇어, 나 그 녀으로 허연이, 나 신체가 다 동나고 나 빙신까지 뉘영 눈까지 어둑어서

여신 명	전개	무가(오춘옥,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여산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선빈 오동나라 정짓고을 무곡장서 간에 밥도 굶곡 먹을 거 잇이난, 체죽만 먹 단 보난, 요센 말로 영양실 조사 걸려신디 눈도 어둑고 나이도 들어가고 허난 ○ 얼음 녹듯 여산고를 보조국은 천지소 물에 빠전에 죽 어간다 ○ 일곱성제가 오동나라 정지 고을로 간 - 우리 어멍 죽은 딜 아니 굴 아주민 우리 일곱 성제가 할마니 죽이쿠텐 - 그리치는 건 돛박낭 아레 물이 솟박헌 디로구나 ○ 서천꽃밭디강 족은 녹디생인 족은 아덜이 어머니도 환싱시길 꽃을 강 꺼경 타 오쿠다 ○ 어머니 도환싱시길 꽃을 탄 왕, 어머니 혼정이잇건 물을 뺏뜬서 - 금봉도리체로 삼세 번을 후리멍, 무정 눈에 줌도 염치 잇이 잠수다, 혼정 잇건 일러남서 - 와들랭이 도환싱 시겨간다. 어머니 뉘난 자리야 내불리야, 흑을 동글동글 둥그려서 시리모양이 뉘엿구나 - 녹두생인이 주먹으로 푹허게 고망을 뜯루니 시리 일곱 고방법 마련 ○ 물에만 오래 누워 추웁 아 무디나 못삼니께, 설운 어머니랑 멘도롱헌 조왕으로 들어삼서 - 삼맹일 기일 제삿 때, 문전제 지내영, 두번 체 알잡싹헌 건, 조왕더레 궤묻는 - 조왕할망으로 큰 어멍은 들 어사곡, 귀일저데노일의 딸은 서각부인으로 들어사기 - 남선비는 올레 어긋담에서 죽으난 올레어귀 정살지신으로 들어사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운 어머니야 어머니는 어디 가고 이거 어뎡헌 일이쨌 - 무정 눈에 줌이 소로록허게 온 거 아니, 일곱 성제가 누웁 자는 디, 어머니야 꿈에 시꾸완, 우리 일어나렌 허연 - 산노리 하나가 툭락툭락 튀멍, 노려 오는거라, 이제 그 노리를 심영 죽영 앗앙 가젠 죽이젠 허난 - 난 산신대왕 산신백관인디, 날랑 살령 보내고, 나 조롬에 곧 산툭 일곱무리 오람시메, 예미랑 씨전중으로 놓아두고 새끼 여섯이랑 애 내영감서 ○ 주천강연화못딜 넘어갈 때엔 아무 것도 웃어신디, 넘어 올땐 보난 연꽃이 핀거라 ○ 어머니는 물 아레서 죽언 슬은 다 시내방천에 흘러불고, 빼만 슬그랑허게 남은 거아니 - 서천꽃밭디 녹디생이가 놀려 들언 피 오를 꽃, 슬 오를 꽃, 말 그를 꽃, 오장 육부 생길 꽃, 사름 생길 꽃 - 어머니야, 이 매는 때리는 매가 아니고, 어머니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불효자식 매 놓 않수덴 - 어머니 혼저 그릅서, 물 아레 누원 고생하영 헛수덴 ○ 어머니는 물 쓰꿈에 살아부난, 조왕할망으로 앗안, 하루 삼시번 불화식 허걸랑 듯듯허게 앗앙 불도 칩곡 조왕할망으로 들어 앗읍서 - 노일저데귀일의 딸은 벤소에 서 죽어부난, 벤소지기로 앗앙, 계난 벤소허고 조왕은 두 씨 앗아이라부난, 조왕엿 거 벤소에 못가고, 벤소엿 거 조왕에 못가고 ○ 조왕엿 거 들렁 벤소에 가민, 급헌 동티 불러주영, 노일저데 귀일이 딸이 시알허영 경 허영 사름 죽는 법

여신 명	전개	무가(오춘옥,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여산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왕 광 벤소는 두 씨앗이 뒤편, 변소엿 거 조왕 더레, 요 검질이라도 한가 지낭가지라도 들이청 불을 떼나 들이치민 급헌 동티주는 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멍 누워난 자리 네불리엔 그 어멍 누워난 자리를 막 뒤지단 보난, 그릇이 동골락하게 뒀난, 얹어 놓안 여섯 성제가 문딱 주먹으로 박아붙어신디 - 박을 데가 웃언 젤 가운데 팡 허게시리 박으난, 시리고망 일 굵개를 마련허난
귀일저데노일 (노일저대귀일의 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선비노일저대귀일의 딸을 만남 ○ 노일저대귀일의 딸 호탕에 들어 부부간이 됨 ○ 여산부인이 찾아와 남선비를 구대하자 화를 냄 ○ 남선비 식구들을 죽여야 하겠다고 꾀를 냄 ○ 남선비에게 재 넘어서 점을 치고 오도록 함 - 아이들 애를 내어서 먹어야 병이 낫겠다고 함 ○ 녹두생이가 노일저대귀일의 딸의 꾀를 간파해서 죽임 ○ 노일저대귀일의 딸 칩간으로 가서 쉬운 대자머리로 목메어 죽음 ○ 노일저대귀일의 딸 머리, 눈, 귀, 코, 베, 똥고망, 물몬주리 등 신체의 부분들이 해산물이 됨 ○ 남선비의 똥은 방에 짚어서 폭풍 부름에 불려서 모기 극다귀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디서 온 어룬이파, 아이고 읍서 나영가민 메역 잘 풀아네쿠다 ○ 남선비 전베독선 실령 온 메역 혼 벤 오꽃허게 다 들러먹어졌구나 - 가도오도 못허고, 물 막은 섬에 오라노코, 집일 가쟁헤도 노수도 엇고, 차비도 엇고 노수도 엇언 ○ 남선비 욕은 간에도 메역 전베독선 헤연 무곡지언 오랏당 귀일저데노일의 딸 호탕에 넘어난 메역 혼 베 오꽃 다 먹으난 - 귀일저데노일의 딸광 부베간 삼안에 대추나무 코갈집에 도졸귀 엇인 거적문 돌고, 체죽 도고리 죽 솟가락 꼽아 놓고 물똥불에 등을 숙연 ○ 죽은 부인 귀일저데노일이 딸 녀은 어디가네 저물양 무신 짓사 허멍 놀당 와신디, 치멧귀에 체 혼춤 싸 앓어 오란 - 집에서 일 것이 놀멍 넘어가는 간나이 닳은 년광 히야까시만 허멍 ○ 몰랏수게, 나도 그찌 가쿠다, 날 놓아될 어멍 성님만 가쿠과, 물 부림씨라도 허멍 그찌 살쿠다 ○ 먼질 오랑 물 막은 섬에 오랑 갈 땀 양, 몸에 모옥을 행 가사주, 몸에 물비리여 갱비리여 몸에 굶인 야 허물도 나곡, 안 줍니께 읍서, 모옥이나 헤영 걸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동나라 오동고을이라, 배 고프고 시징허난 주모 집이 간, 주모 할망신디 간, 밥, 옛날이 난 국밥 정도 사먹어 앓언, 보난, 그 장시하는 사람이 노일저데귀일 딸이라 ○ 이 날 저 날 헨 살단 보난 노일저대귀일 딸 호탕에 들언 전베독선 식거 간 거 문딱 풀안, 노일저대귀일 딸허고 부베간이 똥거라 ○ 개 그튼 놀아, 쉼 그튼 놀아, 질레에 넘어가는 질칸 나이 년덜, 심어놓아 허약가십 뉘일러나, 날랑 더운 똥 흘리멍 너놈 먹을 거 강 빌레 멩기당 보건, 너놈은 집이 앓양하는 것이 ○ 노일저대귀일의 딸도 그만히지만 구들에 뉘단 생각을 허난, 나가 잘못허당 요 것들 손에 꼭 죽어짐직을 허난, 나가 문저 꾀를 썩, 요 것들을 죽여 불주겐 헨 - 아이고 배여, 배 아팡 죽어지켄 그냥 구들 니 구석을 다 똥구는 거라 ○ 요 제 넘고 저 제 넘영 강 보면, 삼도전 시커리에 멩탱이 쓴 점쟁이가 잇우다. 그디 나 강점이나 헤여 방 읍서, 무신 동티 산디, 어디 걸려사신디 혼저 강 읍서 - 남선비 올레드레 나가부난 화다닥허게 나완 헛간에 간, 이 제 멩탱이 앓아 내연, 올담질 허영, 이 담 넘고, 저 담 넘연 삼도전 시커리에 간 앓은 거아니

여신 명	전개	무가(오춘옥,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p>귀일저대노일 (노일저대귀일)의 딸</p>		<p>○ 귀일저대노일의 딸은 남산고을 여산고을 보조국 등을 밀어주는 추록 물을 등더레 좁아 노명, 두어 번 손을 밀어주는 추록 허당, 세경바리는 트멍엔, 등을 간 팍 미난, 짚은 천지소에 물에 남선비 큰부인은 스르륵끼 골라</p> <p>○ 귀일저대노일의 딸 하도 행실이 께쌌헨 나 물러레 건미려 죽여된 나만 오랏수다</p> <p>- 남선빈 눈 어둑어 놓고 큰각시 입던 웃이영 오고생이 건지영 입은 큰각시카부덴</p> <p>○ 아바진 우리 아바지라도, 어머는 우리 어머가 아닐거우다</p> <p>- 먼 바당 베질허영 오라나난 이, 수질도 허고 멀미도 허고, 머리도 헛득허고, 나 건질 못허키여, 속이 늘락늘락허연</p> <p>○ 장항도 몰랑 주악주악, 밥 쓸항도 몰랑 주악주악, 살림살이가 어평헌디 그자 서틀러가는구나</p> <p>○ 암만이라도 눈칠 보난 아덜단 일곱성제 호탕에 기냥은 못 살암직 허난, 어떤 수작이라도 제껴야 아덜 일곱성제를 다 죽여된 이 남편팡이 살림을 츠질허영</p> <p>- 동넱펜 돌양 강 봅서, 삼거릿 질에 가민 멩긴 혼넵 쓴 할망이 막 일도 잘 알고</p> <p>- 귀일저대노일의 딸은 헛간에 간 어느 제 확허게 못바리는 트멍에 멩텅이 허나</p> <p>○ 느네 아방은 아판 어디 간 들은난, 느네 일곱성제 예 냉먹으민</p> <p>- 후술만 더 먹영 도부족허민 펠롱 해점직허다.</p> <p>○ 요놈의 예펜으로 헿 우리 어머 죽고 우리 아방 이 정체 뉘곡 우리 일곱 성제 이 고생 험꾸나</p>	<p>○ 무시거엔 골음디가</p> <p>- 아덜덜 애 내연 먹으렌</p> <p>○ 혼 배에 두개 싹 네 번만 나민, 벨리 체왕 요덜 성제, 벨리 체왕근에 요덜 성절 안내쿠덴</p> <p>○ 어머니 성님들 애 내영 오랏수다</p> <p>- 아이고 중병 든 사름은 이, 약 먹는디 아니 본다, 나가 불라</p> <p>- 하나만 더 먹엇이민, 가슴에 몽클락 헿거, 문짝 느려가키여 게, 헤가난 녹두생이가 문을 확 율안 들어간</p> <p>- 아이고 중병 든 사름은 이 아니 잡나</p> <p>○ 작박 골은 손콰으로 백장 허우틀언 나가난 벤소백이 엇인거라, 칙간에 간 쉬은 대자 머리로 목메연 지렁이 죽연 잇엇고</p> <p>- 머리는 박박 꿩어단 저 바당더레 데껴부난 멘산이여, 툴이여, 감태여 문딱 마련을 허고</p> <p>- 눈은 돌좌단 천리통 망원경으로 설련을 허고</p> <p>- 귀는 꿩어단 무전기여 전화기여 설련을 허고</p> <p>- 눈은 돌좌단 천리통 망원경으로 설련을 허고</p> <p>- 귀는 꿩어단 무전기여, 전화기여 설련 허고</p> <p>- 코는 돌좌단 침통으로 맨들고, 입은 돌좌단 마이크 맨들고, 발은 꿩어단 곰베로 쓰고, 젖은 돌좌단 가지쟁이로 쓰고, 바당에 가민 해삼으로 썼던허고, 베포롱은 돌좌단 보말 수두리 보말인가 경헤연</p> <p>- 베는 돌좌단 물이슬 요즘 말로는 헤파리, 퐁고망은 돌좌단 물문주리 허고, 이제 배설은 꿩어단 쉼베도 설련허고, 손툽발툽은 빠단 굼벵, 바당에 가면 굼벵도 설련허고, 남선비 좋아하는 어느 세계 물건은 저 바당에 데껴부난 대전복이여, 소전복이여, 이제 마련허고, 허단 남은 건 굴묵낭 방에 난 독독허게 못안 폭풍 부름 불려부난 모기 극다귀 몸이 뉘젠허고</p>

여신 명	전개	무가(오춘옥,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귀일저데노일 (노일저대귀일)의 딸		- 다슴어멍 허는 걸랑 날 방 덜 정다십서 ○ 올레 펜으로 돈노렌 헌계, 도세기 질루는 드딜팡에 간 민치락 아래 발 흔짝을 능 끄린게 ○ 쉬운 데자 수페건진 머리 박박허게 메어단 바당에 드 리치난 지총 몰망이 웨어가 는구나 - 대가린 돌도고리, 눈은 서 울 높의 왕방울로 - 닛빨은 빠단 뗏겨부난 저 바당의 데오살로 - 손툽발툽 빠단 던지난 바당 에 물굼벵 쉼굼벵 딱지로 - 젓가슴 둘러단 뗏기난 굴멩 이로 환생 - 뱃또롱은 풀라단 뗏기난 저 바당의 멩망으로 환생 - 똥꼬망은 둘러단 뗏기난 물 문주리로 - 양 다리는 풀라단 뗏기난 드들팡으로 - 가운데 무을은 풀라단 뗏겨 부난 대전복에 소전복에 - 손은 풀라단 뗏기난 곱베로 환생 - 발은 풀라단 뗏기난 쉼스령으 로 환생 - 남아있는 건 독이목에 독독 뽕안 그루 맨들안 허풍부름 에	

- <문전본풀이>에 있어서 여산부인과 노일저대 화소는 ‘조강지처’와 ‘첩’이라는 점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남
 - 여산부인 관련 화소는 ‘메역’, ‘무곡장사’, ‘전베독선’, ‘쌀’, ‘초신’, ‘상동냥용열레기’, ‘배’, ‘지장밭’, ‘문전’, ‘정지’, ‘고팡’, ‘밥상’, ‘몸 모욕’, ‘천지소’, ‘돛박냥’, ‘서천꽃밭’, ‘도환싱’, ‘금봉도리체’, ‘장항’, ‘쓸항’, ‘시리’, ‘연화못’, ‘산툽’, ‘산노리’, ‘조왕할망’, ‘변소’임
 - 노일저대 관련 화소는 ‘칙간’, ‘치맏귀’, ‘신대자머리’, ‘다슴어멍’, ‘젓가슴’, ‘대전복’ 등을 들 수 있음
- 조강지처인 여산부인 관련 화소들은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 등 상징성이 강하고, 신화소들은 여성적인 특징이 강함

9. <칠성본풀이>의 ‘칠성아기씨’

- <칠성본풀이>는 절에 가서 칠성기도를 드리고 태어난 귀한 여자아이가 겪는 수난과 그것을 극복한 후 신이 되는 과정을 전개하고 있음
 - 칠성아기씨의 여신으로의 탄생은 재물의 모자람이 원인으로,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출타해 가마를 따라가다가, 자신의 모습도 뱀처럼 되고 배 속에는 일곱의 뱀 새끼를 잉태하게 됨
 - 아기씨가 뱀들을 잉태하는 과정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집에서 불량하다고 판단을 한 부모는 무쇠 철갑에 담아 바다로 띄워버림
- 무쇠철갑이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바다로 떠올랐을 때, 함을 열고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물에 들어가서 작업하던 해녀들로, 보물이 들었을 것이라고 여긴 해녀들은 서로 다투다가 고기 낚으러 온 ‘김첨지’라는 노인에 의해 중재되고 함 속에 무슨 보물이 들어있는가를 알고 싶어 손을 넣어 확인하던 차에 뱀에 물려 고통을 받음
 - 이들을 위한 제를 올리자 그 결과 아픈 것이 낫게 됨으로써 제주사람들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할 수 있었음
 - 이 뱀들은 칠성신이 되어 제주도 동북쪽 함덕에서 제주시까지 오던 중에 미리 좌정한 당신들에 의해 거절되고, 좌정처를 찾아 함덕에서 제주시 성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온갖 시련을 겪음
 - 각 마을에 좌정한 당신들의 ‘자리지킴’에 의해 거부당하자, 결국 성안에 들어와 산짐승에 물 뜨러 온 송대장 부인에게 발견되어 그녀의 치마폭으로 들어간 후 각 곳을 찾아가 좌정함
- 각각의 딸들은 관아지인 목관아지, 대정원과 정의현감 상을 받는 곳으로, 그리고 과원에 좌정하는 과원할망, 안고팡의 안칠성, 마당의 뒷편에 좌정한 뒷할망 등 창고지기와 대독간을 차지함
 - 칠성아기씨의 시련은 다른 여신들에 비해 더 극심한 편인데, 다른 여신들이 천신에 의해 잉태되는 것에 비해 뱀을 잉태한 것은 집안 가족이나 아기씨에게는 어처구니가 없고 상상치 못할 일임
 - 여신들이 아기씨 적에는 열쇠로 잠긴 곳에서 사는데 비해 칠성아기씨는 공사 나가는 부모를 쫓아 나가 가마뱃줄을 잡고 갈 정도로 적극성을 지니며, 결국 뱀을 잉태하게 된 것은 동물적 상상력의 신화적 발상이라 할 수 있음
- 칠성본풀이에서 뱀은 서구 신화 속의 뱀의 상징성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제주인의 뱀신앙은 잘 우대하면 풍요와 부(富)를 가져다준다고 믿었고 지극히 여성적인 상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칠성신들의 좌정처도 여성들이 계속해서 거쳐하거나 주관하는 장소인 고팡, 식사하는 장소 등은 여성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
 - 제주 칠성골에 사는 송첩할망은 부자 집의 안주인으로 그 집안이 부자가 된 내력 등을 칠성신과의 인연에서 실마리를 끌어냈고, 칠성신이 집안에 좌정함으로써 다산(多産)과 부(富)를 가져온다

고 믿게 함

- 칠성신은 마을이나 집 안팎의 공간에 좌정하는 가족공동체의 일원이면서 마을 공동체를 돌보는 신이며, 칠성아기씨는 다산과 풍요를 뜻하는 뱀의 상징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임
- 사람의 삶이 곳간(고팡)의 풍요, 관리로서 입격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지녀야 할 부(富)와 귀(貴) 등을 담고 있기 때문임

<표 10> 칠성아기씨 화소

여신 명	전개	무가(서순실, 2014)	이야기체(이용욱, 2018)
칠성아기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성 기도를 해서 딸이 태어남 ○ 부모가 공사 살러 갈때 가마뱃줄을 따라가다 떨어짐 ○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뱀인데, 배는 두롱배가 돼서 일곱개의 뱀이 보임 ○ 무췌철갑에 담아 바다로 띄움 ○ 철갑을 주운 일곱 잠녀는 칠성에 걸려서 병이 났다가 칠성 한집을 모셔서 부자가 됨 ○ 송침이 할망 세백 물질레간 치매에 베염이 들어와서 부자가 됨 ○ 안칠성, 밖칠성 등 각기 흩어짐 ○ 봄 나민 봄 철갈이, 가을 나민 가을 철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나라 장설룡이 대감님 살읍데다. 송나라 송씨부인 부베간을 뗏이난 유기전답 좋읍디다 - 이십 쓰물 서른 넘어서도, 자식이사 어서근 무우유화 허십데다 - 법당에 오랑 수룩을 올리민 아기가 잇을 듯 - 백근 근량이 차민 아들을 날 듯하고, 혼골량 만 떨어저도 여주식이 날 듯 험네다 ○ 석월백일은 당허난 안산유태가 뉘었구나, 아기 난건 보난 여주식이 나옵데다 ○ 천하베실 살러갈 때, 아덜 주식 그뜨민 책실로나 데령 갈 걸, 여주식이난 아니 웰로구나 - 아기씨는 중근 문을 열영 앓던 나왕 아버지 탄 가메 연분출에 돌아지어근 천하 베실 살레 올라가는구나 - 묵은 각단 새 각단 밧디 당허난 아기씨는 떨어진다 ○ 아기씨는 낮이는 촌 이실을 맞아간다, 밤이는 흥 이실을 맞아간다 ○ 눈은 무사 곰방 눈이 뉘고, 입은 무사 작박 입이 뉘고, 목은 흥쭈 뉘고, 배는 둥둥 베가 뉘고, 발은 둥둥 발이 뉘여시니 - 은대양에 물을 떠다 놓안 은젓가락을 걸천, 아기씨 배안에 베염이 일곱이 사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설룡 대감님과 송설룡 부인님이 경 부자로 살아도 자식이 었어서, 동개남 상저절, 서개남 금법당에 백근 군량을 채완 간 칠성기도를 드린거라 - 당신네도 정성이 부족허난 아들은 못 낳곡, 딸 낳쿠덴 - 집에 완에 좋은 날 잡안 천상 베필을 무으난 포태가 뉘언, 애기 낳는 거 보난 딸 난거 아니 ○ 우리 칠성기도를 허연 낳앗덴, 이 애기 이름을 칠성애기 렌 지은거라 - 애기씨 문안에서 밥을 주곡, 문안에서 옷을 주곡, 물을 주곡 행 키왕시렌, 강 왕 종문서 벗겨주마 ○ 아바지 어머니가 가메 탕 가가난, 어느 동안 애기가 솔썩 이 가메 뱃줄 심영덜 가가난 그 애기도 혼통에 들어근에 애기가 가단 묵은 각단 새각단 밧디 가단 애기가 지청 오꼴 떨어저분거라 - 애기씨 상전님이 간간무레 뉘었우다, 삼년에 살 공수 건 석달에 판단후영 내려옵서 ○ 대수님이 살려줍서, 조룸에 가는 대수님 꺾전에 인간소리가 난거라 - 묵은 각단 새 각단 밧디서 하도 누원 둥굴어부난, 온몸에 피가 그냥 유희이 낭자가 뉘언, 막 물비리 당비리가 뉘고, 몸은 얼굴은 사름이고, 몸은 베염이 뉘거라

여신 명	전개	무가(서순실, 2014)	이야기체(이용욱, 2018)
칠성아기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이아덜 쉼철이 아덜 불러 다근, 무쉼철갑 짜간다. 조심 통쉼 절로 중간 저 바당에 띠왔더니 ○ 함덕오름무생이코지에 무쉼철갑이 오르난 니가 봉갓저, 나가 봉갓저 하도 싸웁니다. - 하르바님이 조심 통쉼 열언 보난 베염이 일곱이 나오란 더럽고 추첩허구나 - 일곱집이 일곱즈녀 앞물에 들레 갖다근 신에 신병 나간다 - 일곱 즘녀들 열두신 빼가 아프곡, 질리곡 집이오란 별일을 해도 안 좋안, 이거 칠성에 걸렸구나, - 칠성한집을 모션, 헤여가난 일곱 집이 일곱 즘녀 다 뺑은 좋고 부제로 잘 삼데다 ○ 낮인가민 인간덜 눈에 띠곡, 밤인 가민 밤질이랑 못가곡 - 신촌은 진드르 들어가난, 신촌 진드르 길은 먼질이우다. 자동차도 가민 백이십씩 뽕으멍 가는 질이라 ○ 베릿네에 물이 펜찍 펜찍 잇이난, 우리 성안터레 가젠허민 목은 옷이랑 벗어두영 가시냥에 걸쳐두영, 여기서 몸모욕허라 ○ 송대장부인님이 산지네드레 들어가단 보난에 난디엇인 베염이 일곱이 사려 잇이난 - 앞치메에 일곱 베염이 다들어오랏구나, ○ 우리영 모다정 살 필요가 잇이나, 이제랑 다 이녁만씩 굶 갈랑 살게 - 설운아기덜, 동창지기, 서창지기, 남창지기, 창고지기 마련해간다 ○ 연양 상고팡은 대독간도 츠지, 소독간도 츠지, 대도지도 소도지도 검은 독, 누린독 츠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설롱 대감이 웨여가난, 우리 풀 우리 아기씨 간디 알아지느넨, 웨민 아기씨가 아이들을 만 헌디 잇수다 ○ 울레에 상근들어 물팡돌 아래 오란 놔 분거라, 베도 보난 두릉둥 베가 - 은대양에 물을 떠단 앓전, 굴메를 보난 베염 여섯 개가 베쓰곱에 오골오골 담아진거라 ○ 동이와당 쉼철이 아들 불러단, 무쉼철갑 짠, 귀양정베나 보내 불주게 헨 ○ 함덕 일곱 즘네들은 헛물질이 나 들어보젠 허연 무레질 허레간, 무쉼철갑이 무에낭상가지에 걸련 - 이 쓰곱에 금이 드나, 은이 드나, 느네 들 입곱즈네가 똑골이 갈랑들 앓이고, 이 책갑이랑 날도라 - 나오는 건 보난 베염 일곱개가 느 꼴리는 내가 물과, 내 꼴리는 느가 물고 ○ 일곱 즘네들이 집이오난 머리에 궂인 허물도 난다, 눈엔 도랑팔 한팔도 나고, 귀엔 귀아덜도 나고 코에 콧줄이여 - 외국서 들어 온 메친 조상신디 걸렸우다. 베염을 그려노양, 사나흘을 아홉석을 풀어보민 알도리가 잇이쿠다 - 푸다시 허고 일곱 석을 나사온게 좋는 철이 모르게 오골오골 단딱 좋아 - 일곱 즘네들은 망사리 그득씩 허는거라, 대전복이여, 소전복이여 뭐 몽게요, 구쟁기여 ○ 함덕 무을 안네 빨리 안 나가 시민 선흘고 들어 강 들굽낭작대기 해단 동서드레 막 케우려불켄 막 욱을 헌거 아니 ○ 낮이랑 뉘건 소로질로 곱아근에게, 대로질은 사름덜 하영뎡겨부난 소로질로 가고, 밤이랑 뉘건 우리 무을 방 대로질로 가게

여신 명	전개	무가(서순실,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칠성아기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북 쌀상두거리가 잇인디, 급 소항하늘이 꼭 화살들령 우릴 쓰왓직허우다, 옛날 밤질 걸을 때엔 뒤 안 돌아본덴 허는 법 지법을 마련해두언 ○ 베릿넨 오랑보난 물이 벤직벤 직 험서, 무근 옷은 가시앙 우 터레나 돌그망더레나 옷 벗어 두언 발착발착 몸모욕을 헨거 아니 ○ '그으니무르' 올라사난 애가 그 옷그옥 후는거라, 옛날엔 막 동산이라난 생이라 ○ 산짓물에 가 보난, 막 몸오욕 도허고, 칠성 일곱개가 들어가 난 다 무습고 ○ 관덕정 맷돌 우의 가난, 지동 토인은 햇빛나난 빈직빈직 해 가난, 창으로 앓안 옷터레 케 우령 데껴분거라 ○ 송침이할망 세백이 물질레 간, 치메벗언 그 팡 우터레 놔뵤, 베염이 들어 앓아난 거 아니 - 안고팡더레 솔솔솔솔 문딱 들 어간거라, 삼월삼짓날 뤼영 궁 기궁기 솟아냥 멩길 때랑 우리 가 만나게 - 큰꿀은 대정원 상받는 딜로, 둘째는 정의현감 상 받는 딜로, 목관야지 판관 상 받는 딜로, 새각시 상 받을 때에 밥두 쟁이 열안 상 알더레 놓으면, 안동헌을 마련하고 과원할망으로, 날랑 안고팡 안칠성으로 바깳디는 뤼할망으로 - 일년 철갈이 두 번 반양, 봄 나민 봄 철갈이, 가을 철갈이, 그 때랑 만나뵤

■ <칠성본풀이>는 다른 본풀이에 비해 여신의 속성이 인간적인 속성보다는 동물적 속성이 강함

- 얼굴은 사람인 인간이고, 몸은 뱀인 동물의 모습을 지니게 되나 석함에 담겨서 제주 땅으로 들어 온 이후는 태어난 새끼들과 함께 뱀의 모습으로 등장함

- 여신의 모습은 인간적인 속성을 지녔으나 동물적 상상력은 농업사회에서 쥐를 퇴치하거나 부(富)를 가져다주는 신격으로 '주제어'들이 등장하는데, 여성적 속성이 강하게 나타남
 - '칠성기도', '가마뱃줄', '칠성한집', '천하베실', '포태', '무췌설갑', '귀양장베', '무에낭상가지', '일곱 좁네', '송대장부인님', '앞치매', '들굽낭작대기', '산짓물', '관덕정', '송침이할망', '안고팡', '안칠상', '뒷할망', '철갈이'가 있음

10. <지장본풀이>의 '지장아기씨'

- <지장본풀이>에서 부르는 지장아기씨는 기구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새남굿>을 벌이고 억울한 원혼들을 저승으로 천도하고 사악한 것을 없애는 신이 되었나를 구연함
 - 본풀이는 '사악한 것을 다울린다'고 하는 '새도림'의 제차에서 불리는 것으로 서사적인 줄거리는 출생과 성장, 덕업과 환생으로 정리가 가능함
- 지장아기가 출생하고 성장하여 결혼 이후 시집살이를 하면서 '전새남굿'을 벌이기 위해 여러 공업을 쌓은 후 죽어서 돌부처로 변신할 때까지의 과정이 낭송체로 구연됨
 - 지장아기는 자식이 없는 집안에서 원불수룩을 드려서 딸로 태어나 부모와 조부의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네 살 적에는 조부모가 돌아가시고 대여섯 살이 되는 해에는 부모가 죽게 됨
 - 갈 데 울 데 없는 지장아기씨는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면서 외삼촌 댁으로 가서 살지만, 온갖 박대를 받고 고생하면서 길거리로 내쫓기게 되는데, 이런 고단한 처지를 하늘의 옥황새가 알아와서 아기씨의 몸을 덮어줌
 - 이처럼 지장아기씨는 다른 여신들처럼 역시 귀하게 태어나서 자랐고, 길거리로 쫓겨 내보낼 때 옥황의 새가 그녀를 감싼다는 것은 그녀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줌
- 성인이 된 이후 열다섯 살이 되면서는 착하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고 여기저기 중신이 들어오는데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자 시집에서는 기뻐서 온갖 재산과 재물을 물려줌
 - 그녀는 시집에서도 아들을 낳아 대환영을 받고 전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낭군이 죽고 아들마저 죽어 기가 찰 노릇임
- 삶을 극복하기 위해 스님을 불러 사주팔자를 물었는데, 초복은 팔자가 나쁘고, 중복은 팔자가 좋고, 말복은 팔자가 좋지 않아 '전새남굿'을 해서 덕업을 쌓도록 함
 - 굿거리의 제수를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서천서역국에 가서 뽕나무를 얻어다가 누에를 키워서 명주를 만들어 신다리용 천과 아강베포 끈, 호롱춤치(주머니), 극보야잘리(자루)를 장만함
 - 머리를 자르고 송낙을 써서 중의 행색으로 동서남북을 다니며 재 올릴 권제를 받아 굿에 쓸 재물을 마련함

- 덕(공)업을 쌓기 위해 굿을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특히 인간에게 질병과 재앙을 주는 ‘새’(사, 邪)라는 부정한 것을 내쫓는 무속의례의 ‘새드림’ 제의의 근거는 이 지장신의 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본풀이를 통해 이 의례 설명이 가능함
 - 과거에는 소나 말을 잡아 음식거리를 제공하는 백정 집안에서 〈도살아지장〉을 푸는 것이나 ‘거무영청대전상’에서 〈지장본풀이〉를 푸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한데, 지장본풀이는 고대에 있어 열두거리 큰굿을 행할 때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에서 비롯된 신화라 추정할 수 있음”⁸⁾
 - 현재 전승되고 있는 본풀이를 보면 지장신의 정체가 다소 모호한데, 지장아기씨의 사주를 본 대사가 ‘전새남굿’을 하라고 하자 뽕나무를 키워 짠 명주로 다리를 놓아 자신으로 인해 돌아가신 죽은 부모, 시부모, 남편, 자식을 위해 굿을 하고, 지장의 아기씨가 환생하는 결말을 보이고 있어 망자의 한을 씻어 저승으로 천도하는 신격이 드러남
- ‘시왕맞이제’에 등장하는 저승신 가운데 열한 번째 신이 지장대왕이라는 점, 본래 불교에 유래를 두고 있는 이 신은 바리데기처럼 원혼을 저승으로 천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함
 - 네 살 때부터 조부모와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더니 열다섯에 결혼하고는 시부모, 남편, 자식까지 죽음에 이르게 해서,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저승사자와 같은 지장 아기씨임.
- ‘옥황의 부엉새’도 중요한데, 부모를 잃은 지장이 외삼촌댁에 수양딸로 가서 학대를 받을 때 하늘 밥과 옷을 주어 지켜주던 존재로, 지장아기의 처지에서 보면 천상에서 보낸 구원자인 셈임
 - 지장에게는 구원자이지만 지장의 생존이 곧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의미하므로 부엉이의 조력과 구원은 죽음의 지속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부엉이는 밤에 활동하여서 밤을 상징하는 새로 지장아기의 등가물, 상징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함.

8) 이수자, 2004,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476쪽.

<표 11> '지장아기씨' 화소

여신 명	전개	무가(오춘옥,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지장아기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산과 여산이 수룩을 들인 후 지장아기씨가 탄생함 ○ 한 살부터 다섯 살까지는 어머니 아버지의 연 조세를 받음 ○ 여섯 살부터 여덟 살까지는 할아버지, 할마님이 죽음 ○ 십오 세가 되어가니 착하다고 동서에 소문이 남 ○ 문도령에게 시집을 가서 생남을 봄 ○ 아기를 가지자 유기야 전담 등 재산을 물려 줌 ○ 아기가 한두 살 되니 시부모가 다 죽어 감고 ○ 낭군님까지 오도독 죽음 ○ 일곱 살되니, 이 아기마저 죽음 ○ 대사에게 사주를 가려 달라고 함 ○ 전새남굿을 하도록 함 ○ 명주를짜서 다리를 놓고, 절대로 방아를 짚어서 떡을 해 '전새남'을 올림 ○ 서천꽃밭의 통부처의 몸으로 환생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남상축 귀곶추고 송낙지 구만장 가사지 구만장 거느려 놓고서 원불당 가더라, 원수룩 드리난 지장이 아기씨 솟올라 나더라 ○ 혼 설이 나든 해 어머니 무렵에 연조세 받던고, 두 설이 나든 해 아바님 무렵에 앉아 연조세 받던고, 네 설과 다섯 설 근당허난 하르방 무렵에 앉아 연조세 받던고 ○ 여덟 살 나던 해에 하르방 할마님 다 죽어가더라. 아홉 살 나던 해 아바님 어머니 다 죽어가더라. ○ 아홉 살에 동방네 금방상 웨삼촌 댁에 백방을 가더라, 수양을 가난에 개 먹단 접시에 술랍을 돌린다. ○ 하늘이 밥 준다, 지애가 옷 준다. 열다섯 십오 세 근당사 허난에 착허덴 소문이 절로야 나는고. ○ 옥황에 문도령 출삭이 나더라, 가고보니 허급을 허난 이바지 보낸다. ○ 이바지 받고, 신량이 가더라, 가는 날 오는 날, 좋은 일 허던고, 생남을 보더라, 생남을 보난 이 아기 한두 설 당허난 시부모 조상 다 죽어 가는고. ○ 설운 낭군님까지 오도독 죽는고, 나 년의 팔자야 나 년의 사주야. - 훗 일곱 살 넘으난 이 아기도 오도독 죽더라. ○ 대사야 소서야 나 팔자 곱립서, 일러나 가던고, 초복은 좋구나, 중복은 나쁘다, 말복은 좋구나, 일러나 가더라. ○ 부모야 조상, 설운 낭군님, 설운애기 전새남하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산과 여산이 자식이 없어 호호 탄복을 헌거라 ○ 이제 절에 간 수룩을 들인게, 지장의 아기씨가 소로롱소로롱 솟아난 거 아니 - 혼 설이 나는 헨 어머니 무릎에 앉안 연조세하고, 두 설은 나난 아버지 무릎에 앉안 연조세를 부리고, 다섯 설은 나난 어명부터 오곳 죽어분거 아니, ○ 십오 세가 웨여가난 하도 착허난, 착허덴 소문이 동서로 나난 - 중신을 오는 거라, 계난 허급을 허난 이젠 이바지가 오고, 신량이 오고 신부가 가고, 경시집을 가난 - 나 며늘애기씨 출림도 출러져, 착험도 착허덴 ○ 이제 애기를 가지난 유기야 전담, 물무쉬, 아올라 돈막 재산을 물려줬저 - 열여섯 나난 시어명부터 죽어분거 아니, 열일곱 나난 시아방 죽어불었저, 열여덟은 나난 낭군이 죽어분거라 ○ 이제 팔저가 험악허난 생남조까지 다 죽어부난, 동네에 시누이가 사난 시누이 사는 디가난 시누이 나 똥년은 혼지방에 넘으난, 베투이 닷 웨, 니가 닷 웨, 이제 시누이 테를 헌거라 ○ 동으로 오는 건 대수님 오는고, 서으로 오는 건 수스님 오는고. 나 팔자나 곱려줍서, 나 수주나 곱려줍서, 나 팔자 곱읍서 - 말년에 좋젠허민 시아방, 시어명, 생남자까지라도 다 전새남을 해줍서 ○ 전새남을 허젠허난 아무 것도 어시난게 무신거 해서 전새남을 헐거 아니, 쇠대자 구멍이 헤우천 판 그디 뽕낭 싱건

여신 명	전개	무가(오춘옥,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지장아기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묵낭 서리에 굴묵낭 지동에 문혀 오는 고, 집세와 가더라, 집세와 놓고 ○ 옥황에 도올라 누에씨 타다 근 누에를 싱근다 누에가 크는고 - 초감제 도리어, 불도에 도리어, 일월에 도리어, 초이공 도리어, 시왕에 도리어 - 호름전데 직부찰리 헤여놓고 동으로 들어 서으로, 서으로 들어 동으로 시권제 받아가는구나 - 시콧방에 헤여놓고, 이제는 청비발아기덜 불러놓아 방에 찜찌 ○ 초감제 제주여, 본향에 지주 헤여간다, 두일레 열나흘 전세남굿 육마을 곳 헤여간다 ○ 지장아기씨 어딜로 가리요, 은장에 거리로, 늦장이 거리로, 감은장 거리로 ○ 요새 저새 근당헌다. 지장새여 요새 저새 추어 혈쭈, 지장만보살 신풀었구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왈그락 잘그락 강명지도 짜고, 물명지도 짤, 이제 그거 짜난, 이제 할마님 두리어, 이제 시왕의 두리어, 초공전 두리어, 영가 두리어 경 헨 다 허단 남은 건 잇이난, 전세남을 헐거난 - 굴묵낭 방에에 도에낭 절긱대로 이어도 방에여 이어도 방에여 ○ 체 아래 그루는 짐짐도 짐지고, 체 우의 그루는 훑음도 훑은난 ○ 시왕수지에 올린, 그거 동골동골 노념허연 옆도잔 네여단, 연당 만당 ○ 전세남을 올리난 살당살단 지장이 아기씨가 죽언가난, 년 인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헤였젠 ○ 서천꽃밭디 통부체 몸으로 환생을 허난

■ <지장본풀이>에서는 아기씨가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으나 집안 식구들과 자식마저 죽음

- 주제어는 ‘수륙’, ‘연조세’, ‘아버지’, ‘중신’, ‘유기’, ‘전담’, ‘생남’, ‘팔조’, ‘소주’, ‘굴묵낭’, ‘서리’, ‘옥황’, ‘전세남’, ‘절긱대방아’, ‘서천꽃밭’, ‘통부처’임
- 집안의 시왕, 초공, 영가두리를 놓아서 ‘전세남굿’을 하고 새(사, 邪)를 없애고 공덕을 쌓아 서천꽃밭의 통부처가 됨

11. <사만이본풀이>의 ‘사만이부인’

- <사만이본풀이>는 <멩감본풀이>라고도 하는데 멩감신의 이름이 사만이로, 이 멩감신은 수렵을 주로 하는 집에서 모셔지는 신이며 ‘업신’역을 담당함
 - 멩감은 농경사회의 농업, 목축, 수렵에 관련되기도 하고, 액막이로서의 직능신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의례상으로는 <작은굿> 또는 <비념>의 형태를 띠는데, 이를 <멩감>, <멩감코스>라고 하며, 이 본풀이에서는 멩감신 사만이에 비해 부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녀는 사만이가 주워온 백골인 백년조상의 풍요와 액막이 직능을 강화하면서 남편인 사만이의 수렵신적인 직능도 강화함
- 주인공 사만이 부인은 지극히 일상적이며 현실적인 여성으로, 집안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양식을 사려고 할 정도로 집안을 돌보는 현모양처 격인 여성임
 - 남편 사만이는 아내에 비하면 이상적이고 늘 발전적인 것을 기대하여, 곡식을 사러 갔다가 식구들의 배고픔은 안중에도 없고 양식 대신 사냥을 위한 문명의 산물인 ‘총’을 사들고 옴
 - 아내의 구박을 무릅쓰고 하루는 총으로 사냥을 하러 갔다가 백년조상이라고 하는 백골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초하루 보름 제를 드리며 모셨더니, 대각록 소각록 등 사슴을 잘 잡아 고대광실 높은 집과 남전북답의 땅을 지닌 부자가 됨
- 백년조상을 모시는 것에 불만을 가진 사만이 부인이 불을 지피다가 백년조상이 ‘땡구르르’하고 소리를 지르자, 부인은 잘 우대해줘서 배불리 먹어 요망하고 시끄럽다고 하여 불에 달군 ‘부짓댕이’에 달고 뒷밭으로 던져버림
 - 다름 아니라 조상의 기제사는 하지 않고 백년조상만 위하는 것에 불만을 해오던 염라왕의 몸 받은 차사들이 사만이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백년조상이 ‘땡구르르’하게 시끄럽게 굴
 - 백년조상을 위해서 기만해하던 차에 짐승들을 잡아 잘 살게 되었고 또 이제 목숨을 잃을 찰나에는 다시 액을 줄려고 시끄럽게 소리를 내어 징표를 준 것인데, 사만이 부인은 이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모시던 것을 던져버리는 무엄함을 저지름
- 백년조상은 “여성들은 산을 바라보면서 오줌을 싸도 치매깍 젓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다가 올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여기면서 여성들의 한계가 있음을 꾸짖음
 - 염라왕의 몸 받은 삼차사가 내려서자 물과 쌀, 돈을 놓고 사만이부인은 상을 차리고 액을 막는데, 저승차사들은 상을 받고서, 삼십(三十)의 십(十)자에 한 획을 그어 천(千)자를 만들고, 대신에 사만이의 대충대명으로 동방삭을 잡아감
 - 사만이의 부인은 모시는 백골이 시끄럽게 굴면 내던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또 남편이 죽음에 임박한 것을 알고서는 재물을 차려 차사를 대접해 방액하는 조강지처로서의 이미지도 강함

<표 12> 사만이 부인 화소

여신 명	전개	무가(이중춘, 2014)	이야기체(이용욱, 2018)
수만이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만이가 안부인을 만나 사는데, 자식들이 태어났으나 구명도식을 못시킴 ○ 머리를 잘라서 팔아 곡식을 사오도록 함 ○ 장터에 가서 마사총을 사가지고 옴 - 구명도식을 위해 평사냥을 갔으나, 사냥이 안되어서 백년조상을 들고 옴 ○ 각시는 맨 보선창으로 나완, 알러레 떨어지멍 땡그르르 구름 ○ 노리사슴을 맞혀다가, 고대 광실 너른 집에 유기전답 재산을 일귀서 잘 살아감 ○ 고팡에 간 백년조상을 주어다가 뒷밭으로 던짐 ○ 부모조상 물 아니 준 쥬로 염라왕 몸 받은 처서가 옴 ○ 사만이라고 써진 축지방을 삼십이라고 쓴 것을 삼천으로 고침 ○ 집에는 큰대 세와놓고 막 굿을 하다가 삼체수가 뇌물을 받아먹은 후, 새한마리를 올려 앉혀서 천자를 만들어 버림 - 동방색이 삼천년잡아오라고 함 - 삼척동자 같은 동방색이도 저승차사에게는 당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동녕해연 얻어 먹으레 멩기다가 후를 날은 장대감 똥님애길 만난 보난 훈 날 팔제 수주난 - 열다섯 십오 세가 뉘연 남녀 구별법을 알아지난 - 인간혼서를 허난, 애기나는 건 보리꼬르 밀꼬르 오망속 속 솟아나난, 이 애기덜 구명도식을 못시켄 ○ 장대감님 똥님애긴 쉬인 데자 수페머릴 비연 스스만이 그라 - 장터에 강 이걸 풀양 쓸 받양 오민 애기덜 훈때라도 배부른 밥을 맥이켄 - 스스만이 각시 머리 앓안 장터에 간 돈 석냥을 받안 장구경을 허염시난 질이 넘은 마사총을 풀암시난 ○ 구리텡이 닳은 걸 우뚝지에 둘러매연 오라시난 - 그런 건 뭐하는 거우과, 쓸은 어디레 붙데가 - 이것만 둘러근 풀미굴산노 조방산야야산 신산꽃을 도올랑 노는 썩 불질해영 마처당 구명도식헌덴 ○ 뒷날 아침에 불러난 방향으로 가 보난, 뽕년 조상이 멩그르르 궁굴엄더라 - 나를 돌아단 잘 위후민 부재 팔명을 시겨주마 ○ 백년조상 모상오란 올레에 물코실낭 상가지에 걸어두고 안네 들어간 가속그라 사실 말을 곱으난 ○ 수만이 각신 맨 보선창으로 나완 보난, 뽕년조상은 알더레 떨어지언 땡그르르 둥굴엄더라 - 오뉴월 영청 한더위에 물코실낭 아래 누윙 으씩허게 추운 징을 불러주민 쫓터는 병을 마련허여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년국 수만이가 안부인을 만난 살젠후난 애기 덜은 하영나고, 옷 줍서 밥 줍서, 두린애긴 젓 줍서, 경허연 울고 ○ 안부인은 머리 막 잘랐당, 그 머리 끊영주멍, 배고판 살아지쿠가, 장에 강 무시거 쓸이라도 곡식 식량이라도 받았옵서, 이 머리 갓 풀양 받았옵서 ○ 애기덜은 어느 때 울고, 훈저당신 오민 아이들 밥 헨 주젠헨덴 ○ 백년대굴이 앓안 집에 들어간에 각시한티 곱으난에 각시는 막 뽕당뽕당허난, 아무 소리도 허지말양 그런 거 허민 부정안 아니뉘난 - 물 떠놓고 경허연, 이제 초후루 보름을 허는게 아닌게아니라, 사능을 가민 동으로도 팡허민 대각록이여, 서으로도 팡허민 소각록이여 ○ 수만이 각시는 집이 앓양 불노렌, 백년대굴이가 땡땡땡땡구르르 허멍 - 이제 수만이 부인은 정지에서 불 솟단 부짓멍이에 불 벌경헌 거 이시난 - 이놈의 조상 우리 집이 와네 초후루 보름 허멍 잘 먹어가난, 배야지 불영 뭐헨덴 - 배야지사 불어신디사 우리 집이 완 잘 먹고 잘 살아가난, 하도, 노망사 헨신지, 하도 땡그르르 땡그르 헤가난 저 밧디레 데겨불었수다 ○ 수만이 수만아 너는 죽고 나는 살면 무엇을 허것느냐 - 훈저 출렁 집으로 강 대통기 시킨 거 방, 이제 큰 굿을 허고, 베틀 딜로 가걸랑 산으로 가근앵에, 어디 고요헌 딜로 강 땡땡 쳐 놓고 축지방 수만 이영 써놓고 이제 빨리 액을 막아야 켄

여신 명	전개	무가(이중춘,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수만이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리각록 사심을 마쳐다가 가죽머린 푸는 것이 헤포 삼년이 뉘난, 고대광실 높은 집, 남단 북단 너른 밧, 몰무쉬 유기전답 재산 일환 잘 살아가난 ○ 아덜하나 난 수수만이를 놓아두고 집도 밧도 엇언, 재산도 못 물려주언 오랏수다 마는 수수만이 뽕년조상 봉가단 잘 위염후여가난 ○ 뽕년조상도 베불어가난 벨요망을 다혜염구나, 고팡에간 뽕년조상을 누렛단 뒷밧더레 데껴부난 ○ 부모조상 물 혼직 아니 준 췌로, 염라왕 몸 받은 처서가 오라가난 - 이걸 곱아주젠 혜연 하도 야단혜여가난, 너네 각신 나를 이와고치 구박을 혜엿덴 후난 ○ 기영후난 여즈엔 혼건 산더레 돌아얏앙 소필 보민 치메 각 젓는 줄 모르는 여즈의 소견이 아납니까, - 죽은 일은 알곡 살 도레가 업십네까 ○ 높은 팽풍 책상을 싱경, 팽풍에랑 '수수만이'라 이름 석잘 씨영 부찌 두영, 백보벳갸디 업디허곡, 너의라근 집안 안느로 벳갸딜로 상관 오름지법을 마련후고 - 삼쳐수님은 연등상널 가음을 혜연에 누려오단보난, 이와같이 출려노와시난 시장헌 처서 시장길 물리고 - 팽풍더레 바레어 보난 수수만이라 이름 석자가 부찻더라, 어차 불쌍 수서만이 잡으레 오느디 수수만이 정성 받아지엇구나 ○ 스문절박하고 재촉을 허난, 처수님이 혼베코 만 녹여줍서, 집이 가근에 보리끄르 밀끄르 나은 애기덜 잘 잇이렌 허고, 가속구라 잘 살당오렌 곱아두영 가쿠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도 세 그릇, 쌀도 세 그릇, 돈도 세 개, 신도 세 개, 이제 업데하여 이시난 삼체수가 내려산거라 - 내려사난 배고팡 죽어지켄 밥을 후려쳐먹고, 혼 체수는 왕래노숙 엇덴허연 돈을 앓안담고, 혼 체수는 이제 옷도 다 떨어지언 신발 다 헐고 허난, 신발을 신으켄허연 신발을 신고허연 - 죽지방을 한번 보켄 보난, 수만이영 허영 딱 써져서 - 삼십이엔 쓴 거를 삼천으로 강 고쳐분거라, 글자 우의 새 혼모리를 앓언, 경 천자로 고쳐부난, 저승 염라대왕이 암만해도 수만이를 안 돌양은 거라 ○ 검은 숯을 희게 멘들양 오랜 허난애, 검은 숯을 희게 씻젠, 저 골체에 담양 왕글랑 왕글랑 험이난애 - 우리 아버지 중병들언 검은 숯을 희게 씨찻당 딸령 먹으면 좋덴 허난 딸령수다 - 삼천년을 살아도 그런 말은 못들업썬덴, 아이고 이거 '수만이'로구나, 저승을 둘안 어서 바빠가자 허고 저승을 둘안 간거라, 여기서 날 돌양 갈게 아니고 우리 집으로 강, 우리마누라 신디라도 가노렌 행가쿠덴 ○ 집엔 간 보난 큰 대 세와놓고, 상버리줄 메어놓고, 막 이제 굿을 허는거라, 경허난 마침 방액 때가 뉘거라 - 삼체수가 액막이를 받안, 그걸 받아얏언 저승을 간 - 삼체수가 뇌물을 받아 먹으난, 삼십 십자에 새 혼마릴 울려 앓언 천자를 만들어분거라 - 강 동방색이 삼천년 잡양오렌

여신 명	전개	무가(이중춘, 2014)	이야기체(이용옥, 2018)
		- 금마답은 바래여 보난 큰데 세완 염라왕을 청헤연 타는 몰안장 드려 방역헤염더라 ○ 금베리에 촌먹을 곁양 열십자 우의 은뭇을 들렁 세 혼 마릴 올려놓으민 일천째가 뿔거난 - 좌도나철 우도나철 취 판관이 문셀 활활 견언보난 서른이 아니라 삼천 년이 뉘엿구나 ○ 동박세기가 넘어가명 보난 검은 숲을 씻엄시난, 저 어른은 혼 일은 알고 두 일은 몰람수다. 검은 것은 오래 씻이민 희어지는 법이우덴 - 어차 불쌍 나가 삼천 년을 살아도 이런 말은 아니 들어 보구렌 - 요게 '동방세기'로구나, 소문 절박을 헤연 염라대왕에 바친 베가 잇입네다.	- 동방색이 삼천년 살아도 검은 숲 씻어 희게 된 덴 허는 말은 아니 들엇젠허난, 동방색이를 잡아서 가는 데 삼척동자 같은 동방색이도 저승 체스님한테는 당하지 못함 ○ 이 본은 사농해난 집이 가민 푸는 본

■ 수만이 부인과 관련된 주제어를 뽑으면 여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함

- '머리칼', '장터', '마사총', '백년조상(대굴)', '고팡', '노리사슴', '고대광실', '정지', '부짓댕이', '큰대', '평풍', '동방색이' 등임
- 머리칼을 장터에서 팔아서 마사총을 사고 온 남편을 질책하다, 어느 날 남편이 백년이나 된 조상 백골을 가지고 와 이를 모셨더니, 그 이후부터는 노루나 사슴이 잘 잡혀서 고대광실 집이 생김
- 어느 날 백년조상은 남편 사만이를 잡으러 저승사자들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땡그랑거리자, 부인은 옆 발로 내던져서 아우성을 쳐대는데, 부인은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고 여기서 삼차사에게 빌어 액을 면하고 삼차사는 동방세기를 잡아감.

III. 여신 이미지 분석

- 제주의 <일반신본풀이> 여주인공에 대한 이미지 추출은 많은 부분, 제주여성 공통의 페미니즘적 시각을 나타내는 주제어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
 - 일반 신들의 유사성 및 주 인물이 보여주는 행적을 정리하여 탄생, 성장, 만남, 혼인, 모성, 공업, 생산, 좌절, 곡종, 죽음이라는 단어 분석을 통해 이미지 추출이 가능함
 - 여신들은 절에 가서 수록재를 드리고 얻을 정도로 귀하게 태어난 자식들인데, 제를 올릴 때 재물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하여 딸로 접지 받으며, 대부분 이러한 여신들은 본풀이에서 주역을 담당하지만 부모가 출타하면서 폐쇄된 공간에 유치되고 이때 다른 외부자(주접선생, 뱀) 등에 의해 수태되기도 함
- 여신들의 탄생은 전체적으로 공식화된 형식처럼 보이는데, 온전한 삶이 운명적으로 예고된 남성들의 보조 혹은 내조의 역이 전제되기도 함
 - 성장 과정에서 여신 아기씨들은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 처럼 부친 혹은 부모와 가까운 지역의 친척들과의 견해차로 도전을 받거나 또는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처럼 집안에서 일하는 종을 죽였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결국 쫓겨나지만, 그 후에도 '지나치다'는 명분으로 지속적인 도전을 받게 됨
- 외부자에 의해 수태되어 집에서 쫓김을 당하나 자신의 노력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하게 됨
 - 여신들의 시련의 일부는 남성들에 의해서 수태되어 임신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 헤어짐이라는 상실과 같은 고난 극복의 과제가 남겨져 있음
 - 이러한 과제들은 자식들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 서천꽃밭의 꽃을 활용해서 죽은 어머니를 살려 신직을 부여받기도 하고, 이 결과는 여신들이 공업을 달성해서 영웅이 되거나 부처가 되는 등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

1. 여신의 탄생

-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나는 여신들의 탄생과 성장을 보면, 우선은 신격이 높은 존재이어서 ‘귀함’을 기본으로 함
 - 일반적으로 여신들은 남신들에 비해 자식이나 아들을 얻기 위해 절에 가서 수륙제를 올리고 귀하게 태어나는데, 이러한 여신들은 재물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하여 아기씨로 받는데, 여신들은 신화 전개상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수난을 극복하고 신으로 좌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러한 신들은 초공신 젓부기삼형제의 어머니인 ‘노가단풍조지명왕아기씨’나 꽃감관신인 ‘이공신’, 한락궁이의 어머니 ‘원강아미’, 농경의 여신인 ‘자청비’, 부(富)를 관장하는 칠성신 ‘칠성아기씨’와 공을 닦아 영혼을 천도하는 ‘지장아기씨’를 들 수 있음
- 임정국대감님 부부는 수륙제를 들였으나 재물 한 근이 모자라서 딸을 점지 받았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단풍이 들 때 절에 가서 제를 올리고 조청해서 낳았다는 의미에서 ‘노가단풍조지명왕아기씨’로 붙임
 - 태어난 아기는 ‘물 아래 옥돌 곶은 아기씨, 물 위 까마귀 젓날개 곶은 애기씨’(물 아래 옥돌과 같은 아기씨, 물 위 까마귀 곶 날개 같은 아기씨)로 아주 귀한 자식이지만 딸이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제한이 많았음
 - 한 예로 부모가 상경하여 공사(公事)에 나갈 때에도 아들이었으면 책실로 데리고 갈 것을 딸로 태어나 이렇지 저러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함
- 딸이어서 대부분 같이 동행하지 못한 귀한 아기씨들은 “아버지가 잠근 문은 어머니가 수리 두고, 어머니가 잠근 문은 아버지가 수리”를 둘 정도로 폐쇄된 공간에 칩거하게 됨
 - 이 폐쇄 공간에 비친 한줄기의 빛과 같은 은혜는 불사의 선생 등과도 관련되며, 이러한 남성에 의해 행해지는 머리의 ‘가르마타기’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함
 - ‘원강아미’도 부친이 원진국의 부자이어서 많은 재물을 바쳐 수륙제를 들여 얻은 자식인데, 그에게는 재물은 많았으나 정성이 부족하여 딸이 태어났고, 친구인 김진국 대감은 가난해서 재물이 부족하였으나 정성이 있어 아들을 점지 받음
 - 두 부모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구덕혼사를 했는데 ‘원강아미’는 구덕혼사를 맺은 ‘사라도령’과 백년기약을 맺음
 - 귀한 딸을 얻기 위해 수륙을 들인 여신은 자청해서 낳았다는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자청비’를 들 수 있는데, 그녀 부모인 임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은 천하거부로 살았으나 자식이 없어 하던 차에 ‘서개남’과 ‘동개남’ 은증절에 가서 원불수륙을 드림
 - 차린 재물을 은저울대로 재어보니 한 근이 모자라서 딸로 점지 받았는데, 자청비는 빨래를 해서 손이 곱다는 종의 말을 듣고 ‘주천강연하못디’ 갔다가 공부하러 가는 문도령을 만나는데 두 인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이는 자청비를 여성 영웅으로 만드는 동인(動因)이 됨

- <칠성본풀이>의 '칠성아기씨'는 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씨부인 두 부부가 절에 가서 칠성기도를 올리고서 태어나는데, 이 여신은 뱀을 잉태하고 자신도 칠성신의 직능을 하면서 관가나 집안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 좌정하게 됨
 - <지장본풀이>의 지장아기씨는 부모인 남신과 여신이 수륙을 드린 뒤 태어나 온갖 수난을 겪고, 스스로 집안에서 공업을 행함으로써 결국은 부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됨

2. 여신의 성장

- 일반적으로 구비전승 속에서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받거나 또는 자신들의 의지로 인해 집에서 출가하는 시기는 보통 열다섯, 십오세 경으로 나옴
 - 여신들의 성장 과정에 있는 '아기씨' 또는 '애기씨'들은 늘 도전적인 인물들에 의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귀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외부의 세력에 의해 당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예정되기도 함
 - <초공본풀이>의 어머니 '자지명왕아기씨'는 절에 가서 제를 드리고 태어나는데,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절의 주접선생이 찾아온 후 아기씨 머리 '가르마타기' 하는데, "눅하지언 단풍들었덴 후연, 저 달은 곱기는 고운데, 가운데 계수나무 박혔건마는, 우리 법당에 오란 수륙 드러 넣은 인간에 주지명왕아기씨만큼은 못 곱덴" 하고 그리워 할 정도로 미모를 갖춘 여성으로 자라남
- <이공본풀이>의 여주인공 '원강아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부친의 구덕훈사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유한 집에서 문훈장이 오더라도 눈으로 쳐다보지 않다가, 가난한 집안의 김진국 아들인 '사라도령'에게서 문훈장이 오자 '서른여덟 이빨을 허우덩씩 웃음 웃으면서' 선택함
 -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도 "너는 누구 덕에 사느냐"는 부모의 질문에 "하느님도 덕입니다. 지와님도 덕입니다. 아버님이 덕입니다 마는, 어머님 덕입니다, 배똥알 아래 선그릇이 덕입니다"라고 자존감 있게 대답함
 -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어렸을 적부터, "딸이 태어나서 금인가 은인가 키웠는데, 글공부도 하고, 활공부도" 하는 것처럼 그녀는 여성이지만 글과 활을 배우는 문무를 지닌 인물이 된다는 것을 예견해서 딸이지만 아들 못지않은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음
- <칠성본풀이>의 칠성애기도 절에서 칠성기도를 드리고 낳았다 해서 애기 이름을 '칠성애기'라 지었고, 부모가 벼슬을 하러 갈 때 아들자식이면 책실로나 데리고 갈 것인데, 하녀 종에게 "애기씨를 문 안에서 가두고 밥과 옷을 주고, 물을 주면서 키우고 있으면 다녀와서 종 문서 벗겨주마"고 약속함

- 아기씨는 부모가 타고 가는 '가마뱃줄'을 잡고서 묵은 새왓(띠발)을 지나다가 온 몸에 피가 낭자하고 뱀으로 변해 뱀 새끼를 잉태함
- <지장본풀이>의 지장아기씨는 한 살부터 다섯 살까지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의 연조세를 받으면서 자라고, 여섯 살부터 여덟 살 나던 해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죽어서 고아가 되고 십오 세가 되는 해에는 착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서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감
 - 신화 속의 여주인공들은 성장기에서부터 남과 다른 대우를 받았고, 부모 슬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여 있었으나 스스로 강해져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마뱃줄을 따라 가다가 뱀의 모습으로 변함
 -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얻은 귀한 딸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녀들은 그 굴레를 깨고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을 꿈꾸는 수 밖에 없음
- 도전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것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임
 - 자지명왕아기씨가 아름답다고 느낀 주점선생이 찾아왔을 때, "아기씨는 하늘이 볼까 두려워 청너울을 쓰고, 지하님이 볼까 흥너울을 쓰고, 얼굴을 빌까 하여 백너울을 쓴다". 주점선생이 옥황의 한쪽 손으로 단수육갑을 짚으러 가게 되자, "한 손이 뜬금없이 나와서 아기씨 상가마의 머리를 솔솔하게 쓸어내리는데, 이 결과 아기씨 눈은 '곰방눈'이 되고 입은 '작박입', 목은 흥줄이 되고, 배는 통통 배가 되고, 발은 동동발이 되었다."
 - 이처럼 정해진 남편 없이 아기를 잉태한 결과는, 높은 집안의 귀한 자식을 지닌 부모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딸을 집에서 내쫓거나 석각에 담아서 바닷물에 띄워버리게 됨
- <초공본풀이>의 '자지명왕아기씨'는 잉태를 하게 한 아이의 부친이 주점선생을 찾아가자 불도 땅에서 아이를 낳도록 인도해 주었고,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미'는 꽃감관 직을 맡아서 서천꽃밭으로 가는 남편을 쫓아가다, 장자집의 종으로 살면서 꽃감관이 될 아들 한락궁이를 낳음
 - <칠성본풀이>의 칠성아기씨는 뱀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석각에 담아 바다로 띄워져서 바다를 떠돌고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 역시 자신의 운명이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에 달려 있음을 고하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부자가 될 운명을 지닌 딸이 집안에서 사라짐으로 인해 이 집안은 다시 가난과 절망에 이르게 됨
 - 이처럼 여신들은 성장 과정에서 고난 또는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그녀들에게 다가오는 운명 과도 같은 것이기도 하고 이러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

3. 만남과 혼인

- 여신들의 성장과정 중에서 남신과의 만남으로 인한 혼사(婚事)나 잉태는 여신들의 삶에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음
- 여신의 상대가 되는 자들은 지상의 인간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 온 천지왕과 주점선생으로 범인과는 다른데, 이러한 만남도 혼인으로 해석이 가능함
 -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은 부모가 없는 동안 지하 공간에서 아기씨를 찾아 온 외부인들과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나, 자식의 잉태로 인해서 이루어진 암묵적인 혼인은 이후의 결연의 계기를 만들어, 전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한 단계 진전하는 모티브적 성격이 강함
 - <천지왕본풀이>에서 "천지왕이 지부왕에 내려사난 총명부인은 밥상을 차리젠후난 할 수 것이 수 멩이네 집이 간 쌀 혼뉘를 장례에 빚저단"(천지왕이 지부왕에 내려사자 총명부인은 밥상을 차리려고 하니, 할 수 없이 수멍이네 집에 가서 쌀 한 되를 빚저다가) 천상에서 내려온 남성을 대접하기 위해서 쌀을 빌어다 밥을 지어 대접하는 행위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두 아들을 얻게 됨
 - <초공본풀이>에서 자신의 절에서 수륙을 드리고 태어나 미모가 뛰어나다는 것을 안 주점 선생은 자지명왕아기씨에게 명과 복을 주려고 권제를 받으려, 부모님이 없는 사이에 아기씨 집으로 찾아 오는데, 아기씨는 하느님이 불까 청너울을 쓰고, 지하님이 불까 흥너울을 쓰고, 얼굴 뵈오리야 뵈너울을 쓰고서 권제를 주다가 흘린 쌀을 줌고, 이때 주점선생은 '가르마타기'로 아기씨를 잉태시킴
- 만남이 실제 혼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혼인으로 나타남
 - <이공본풀이> 원강아미는 구덕혼사로 결정된 남편을 선택했고, 임신한 후 재인장자 집에서 기거하다가 남편을 서천꽃밭으로 보내고 혼자서 종노릇을 하며 지내는데, 주인인 재인장자는 계속해서 여신을 유혹하지만 이를 물리치고서 아들을 낳음
 - 이처럼 '혼인'이라는 것은 여신들이 후세를 낳기 위한 잉태의 형식을 갖추어 이어지는데, 이때 태어난 '한락궁이'는 부친의 대를 이어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됨
- <삼공본풀이>의 삼공신 '가문장아기'는 마 파는 '작은마통이'를 만나는데, 가문장아기가 지은 밥이 맛이 좋다고 여기며 숙식을 같이하다가 마 파던 곳에 있는 금은보화를 발견해서 집과 밭을 사고 부자가 됨
-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와 문도령의 만남은 고소설에서 종종 등장하는 공식적인 장면임
 - 손이 고운 종을 따라 빨래를 갔다가 만나서 물을 요청하고, 목에 걸리지 않게 버드나무 잎을 물에 띄워주고 남성으로 가장해 하늘옥황에 가서 문도령과 같이 공부하다가 결국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미리 혼약이 되어 있는 문도령과 약속을 파기한 후 시아버지의 시험을 거쳐 남편을 얻음
 - 자청비와 문도령의 만남과 사랑은 어느 여신들이 했던 것에 비해 극적이고 드라마틱한데, 자청비는 종이면서도 사랑한다고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자청비에게 대립하던 정수남이와 같은 인물들의 역할과 행동을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돋보임

4. 자식의 탄생과 모성성

- 여신에게서 자식의 탄생은 어머니가 됨과 동시에 이후 자식들로 인해 공업을 달성함으로써 인간과 신의 세계에 기여하게 됨
 - 본풀이 속의 여신들은 스스로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자식들 특히 아들들의 성장과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충분함
 - 그녀들은 자식을 얻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모성성이 강한데,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낳은 여성이 아들에게 부친을 찾아주는 것과 부친을 찾아서 뿌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짐
-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과 '소별왕'의 모친인 '총명부인'이 천지왕과 하룻밤을 지내고 얻은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주거나 다시 만나서 확인하는 증표로 '본메'가 필요한데, 천지왕은 곡씨(박씨) 세 방울을 쥐서, 줄기를 지붕으로 올려서 줄을 타고, 두번 째의 줄은 하늘옥황으로 올라가 아버지를 만나도록 했음
 - <초공본풀이>에서 부모와 집 사람들은 '자지명왕아기씨'가 주접선생에 의해 수태된 것을 알고서 "죽일 년아 잡을 년아, 청뎃섭에 목 걸령 죽일 년아, 궁 안에도 바람이 들어서냐, 앞뱃디 랑 작두를 걸라, 뒷뱃디 랑 버텅을 걸라"고 하면서 집에서 쫓겨나 결국은 갖은 고생을 한 후 아기의 아버지를 찾아가 불도땅에서 삼형제를 낳음
-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이 처는 일반 여성들이 지니는 모성성과는 다른 경우인데, 버무왕의 세 아들을 죽이고 연못에 버리자 거기서 연꽃이 피어올라서 따고 와 기둥에 걸어두었다가 늘 지날 때마다 머리를 뜯어서 화로에 던져 불을 질러 태웠는데도, 화로에서 구슬 세 개를 발견한 그녀는 구슬을 입에 넣고 놀다가 먹어서 수태가 됨
 - 이후 태어난 세 아들은 똑똑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모른 어머니는 다른 집 아들들인 줄 알고서 악담을 해대자, 그 말은 결국 아들 삼형제에게 돌아오게 되어 아무 이유도 없이 죽게 됨
 - 억울한 과양생이 처는 원님에게 하소연 하였으나, 이전에 저지른 버무왕의 아들을 죽인 것마저도 염라대왕의 심판에 의해 판명이 되어 결국은 사지가 찢기고, 뼈는 뺏아서 모기로 환생시킨 후 사람들을 괴롭히는 해충이 되는데, 이는 악이 악을 부르고 악을 제공한 자가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문전본풀이>의 남선비 본부인 여산부인은 인물들과의 갈등보다 삶에 지친 여성의 모습을 잘 보여줌
 - 여산부인은 남편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무곡장사를 가서 돌아오지 않자, 아들들이 만들어 준 배를 타고 남편을 찾아 나설 정도로 용기가 있는 여성이지만, 결국은 첩의 꾀임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고 맘
 - 일곱 아들 중 맨 막내인 '녹디생인'은 계모의 술수를 알고서 형들과 함께 악한 죄를 공개했다가, 그녀는 측간으로 가서 목을 매게 되는데 아들들은 그녀의 신체를 나눠서 바다에 던지자 해산물로

변해 탄생

- '녹디생인'은 서천꽃밭에서 사람 살리는 꽃을 따고 와 어머니를 살린 후, 어머니가 빠져서 누웠던 자리의 흙으로 떡 찌는 시리를 만들어 인류에게 제사에 쓰일 떡을 만들 수 있게 했고, 물에 빠져 죽어서 따뜻한 불 화덕 옆을 지키며 음식 만드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부엌의 신 '조왕할망'이 됨

■ <문전본풀이>의 '노일저대'나 '여산부인' 이 두 여신은 인류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첩인 '노일저대'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본처를 죽일 수 있는 냉혈동물로 악녀이지만, 이 여성은 죽은 후 신체에서 환생한 전복 등의 바다 해산물을 음식물로 제공한 것에 비해, 본처인 여산부인은 떡 시리를 이용하여 미곡으로 떡을 만드는 문화를 창조케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됨
- '여산부인'의 모성성은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다고 본다면 첩인 경우는 해양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가정을 일구는 조강지처 격인 여산부인은 일곱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먹을 것마저 구하기 위해 걱정해야만 하는, 제주 섬의 지극한 일상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여성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여산부인'은 여자의 꼬임에 넘어서서 같이 놀러 살며 제대로 먹지도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 반 주 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여성임

■ 일곱아들 중 막내아들 '녹디생인' 역시 어머니의 분신처럼 가족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어야만 했는데, 그가 형들을 죽여 애를 내야만 하는 처지에 있을 때,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산뿔(돼지)을 잡아서 간을 내어 노일저대에게 가지고 가서 흉악한 계획을 폭로하게 했음

- 막내아들은 서천꽃밭의 꽃을 꺾어다 물 속 추운 곳에서 죽었던 어머니를 살리고, 늘 음식을 만들고 불이 있어서 따뜻한 부엌의 신인 조왕신(竈王神)으로 좌정하게 했음

■ <칠성본풀이>의 칠성아기씨는 귀한 여자로 태어나서 부모의 가마뱃줄을 잡고 뒤따라가다가, 다시 일곱 개의 뱀을 뱃속에 잉태하는데, 이후 칠성의 일곱신은 의인화되어 나타남

- 칠성아기씨는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신과 새끼들을 데리고 함덕에서 제주시까지 이동하다가 신적인 직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주성안의 송대감 맥 부인을 통해서 성안으로 들어와 각기 좌정해서 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거처지를 정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5. 곡종과 공업

- 여신들이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 이를 ‘공업’이라고 한다면, 이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했던 것들을 말함
 - 사회공동체, 가족공동체, 신앙공동체의 이익과 안정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 무속이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신들이 행하는 일 중 ‘공업’은 인류의 공생에 이바지하는 공공의 행위들이 인정되어 나타남
 - 신화의 여신들은 인류애적인 사랑이 기본이 되는 ‘공업’을 위해 헌신했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랑은 인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신이나 자연을 향해서도 이루어짐
 - 공업을 크게 이룬 여신들은 향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자청비는 무사적인 능력을 갖추고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웠으며, 시아버지의 시험을 극복하고 오곡과 메밀 씨앗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농경을 시작하게 하는 농경신으로서 문화여성 영웅과도 같은 존재임
- <초공본풀이>의 ‘자지명왕아기씨’는 아들 ‘젯부기삼형제’를 통해서 무업의 세계를 마련하게 되고 본인은 ‘삼시왕’이 되었는데, 이는 무조신 삼형제의 어머니로서 대대손손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아들들은 죽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효’를 구현함
 - <차사본풀이>의 강님의 아내는 지혜와 덕을 갖춘 여성으로 저승차사인 남편을 받들고 인류에게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보낼 때 치르는 상장례법, 저승법 등을 마련함
- <지장본풀이>의 ‘지장아기씨’는 집안의 화를 없애고 조상이나 자신이 죽어 저승천도를 위해서 ‘전새남굿’을 하는데, 결국 자신은 부처가 되어 집안 후손들의 액을 막고 조상들을 좋은 곳으로 모시게 되는 신으로 좌정함
 - 이처럼 공업은 여신들의 신적 직능을 확인시켜 줄 뿐 아니라 좌정 후 신에 대한 의례 등에 의미를 부여함
- <지장본풀이>의 자청비는 돌아가신 부모를 ‘제석신’으로 삼고, 농사용 가축인 소나 말을 치는 그녀의 남성 종 ‘정수남이’를 목축 신으로 삼아 제주 땅에 농경문화를 가져오도록 한 곡신으로 자청비는 남성 중심으로 여겨지는 적국과의 싸움에서도 적을 물리치는 일에 참여하여 공을 쌓았음

IV. 여신본풀이에 나타난 세계 인식

1. 선과 악

- 본풀이에서 선과 악에 대한 두 주제는 평행선상에서 이어지고 있으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선(善)의 발현’, ‘선을 지향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악한 것은 반드시 멀하고 선한 것은 이긴다는 논리와 맞먹는데, 무속이라는 서민 종교의 논리에서 이루어진 강한 신념임
 - 선과 악의 대결은 양자의 대결이 아니라 결국은 절대자로 귀결되는데 본풀이를 향유하는 계층들의 염원이고 의지라고 할 수 있음
- 악의 징벌과 선의 천거는 인류 본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면 무속의 본풀이는 인류의 삶에 대한 모범적 삶의 답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본풀이에서의 선과 악은 일정 부분 옳다 그르다고 할 수 없이 교섭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한 교섭은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결국은 절대자에 의해서 판결지어지기보다는 스스로에 의해서 맺어지는 원인과 결과임
- <천지왕본풀이>의 형과 아우의 대결은 원래 꽃 가꾸기에서 이긴 형이 하늘, 저승을 차지하고 동생은 이승을 차지하기로 되었으나, 동생은 형의 잘 피운 꽃과 자신이 피운 시들어가는 꽃을 바꾸고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동생이 이승을 차지함에 따라 세상에서의 혼돈이 마련됨
 - 이승에서 살인, 강간 등의 온갖 범죄가 만무한 것은 동생이 저지른 반칙으로 나타난 결과이고 이는 선하지 못한 행위를 말하는데, 동생은 형을 따라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깨뜨림으로써 무법에서 벗어난 악과 혼돈의 세계를 마련함
 - 천지왕이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지부왕 총명부인은 수명장자에게 쌀을 빌려갔으나, 쌀에 모래를 섞어 빌려줌으로써 밥에 ‘머흠’이 메기고, 결국 화가 난 천지왕은 수명장자의 자식들을 새와 곤충으로 바꿔서 징치함
- <삼승할망본풀이> 역시 ‘삼승할망’과 ‘동이용궁할망’의 대결로 선과 악이 구분되어서 나타나는데, 동이용궁할망은 처음에는 이승할망과 저승할망의 신적 직능을 지녔으나, 동이용

궁할망의 꽃 바꾸기의 부정은 스스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됨

- 저승으로 아기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할망, 곧 이 세계가 아닌 저승세계로 안내하는 저승할망이 됨.

■ 악한 이로 상징되는 신은 <문전본풀이> 중 남선비의 첩 ‘노일저대’를 손꼽을 수 있는데, 그녀

녀는 물을 건너 육지로 남편을 찾아 나서고, 본처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물에 빠뜨려 죽임

- 그녀는 본처로 가장하여 제주로 들어온 후 아들 일곱 형제의 심장을 내어 먹으려고 했으나, 결국은 현명한 일곱 번째 막내아들 ‘녹다생인’에게 계모의 계략이 발각되어 측간에 가서 죽게 되지만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음

- 신체의 일부분이 전복이나 해조류 등의 해산물로 바뀌게 되면서 인류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여신이 됨

■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이’ 처는 버무왕의 세 아들이 가진 물건이 탐이 나 죽이고 물에 내

다 버리는데,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나고 그것을 따다가 불에 태우자 구슬이 되고, 이 구슬을 입에 놓고 놀다가 목에 삼켜 잉태된 세 아들을 낳아 잘 키워서 과거 급제까지 이룸

- 과양생이는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난 아들들을 몰라보고 악담을 해서 결국 아들을 죽이고 마는데, 자신의 잘못은 뉘우칠 줄 모르고 저승의 염라대왕을 불러다 판결을 내림

- 차사본풀이 후편(後篇)은 악의 징치를 위해 염라대왕을 불러서 해결하게 되며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과양생이 처에 대한 이야기는 악한 행동이 선의 지향을 위한 복선을 전편(前篇)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과양생이 처와 버무왕의 아들은 중요한 인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

■ 신화 속의 악녀형 여신들은 악한 사건들을 전개하는데, 이 악이 다시 악을 생산하기 위한 씨종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선 지향으로 재생산 됨을 볼 수 있음

- <문전본풀이>의 ‘노일저대’도 악한 여신으로 한 몫을 담당하는데, 일곱 자식들과 처의 생계를 짊어지고, 육지부로 무역을 나간 남선비는 무능한 남성을 꼬여서 한 가족을 완전히 멸망의 위기로 몰아감

- 찾아간 본부인을 물에 빠뜨린 노일저대는 일곱아들의 어머니로서의 행세를 시작하는데, 그녀가 본처의 일곱 자식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명백히 악한 마음의 발로로 볼 수 있음

■ 제주신화의 악과 선의 개념은 필요에 의해서는 그 경계도 모호한데 여신들만의 특성으로 해석이 가능함

- 노일저대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되고, 악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의 행위에 의한 것이나 죽어서는 물질적인 신체의 변환으로 인류에게 선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로만 들어짐을 알 수 있음

- 여신들은 늘 집안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남성에만 의존하지 아니해서 집안을 지탱해야 하는 양성 평등의 역할을 담당했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남신들의 악은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바로 징치를 통해 끝나지만, 여신들의 악은 죽어서는 선한 행위로 남는 것은 인류문화상에서 위대한 창조행위로 해석되고 있음

2. 죽음과 재생

■ 신화에서의 신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재생을 뜻함

- <초공본풀이> 노가단풍아기씨가 산과 강을 건너서 간 길은 험하고도 먼 곳으로, 먼길을 거쳐 '서강베포땅'에서 드디어 출산하여 '삼명두'를 낳았다는 것은 곡식을 의인화하고 있음
- '노가단풍조지명왕아기씨'는 살해 당하지만 다시 살아나는데, 이는 재생의 모티프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기씨가 임신한 것은 봄이고, 먼 길을 간 것은 여름이며, 삼명두를 낳아서 결실을 본 것은 가을의 추수로 해석하는 신화적 상징성을 지님⁹⁾
- '노가단풍조지명왕아기씨'는 황금산 주접선생에게서 가르마 타기로 수태를 하고, 아기 아버지를 찾으러 황금산도단땅으로 가는데 험한 길을 지나 결국 주접선생을 만남
- 그는 노가단풍아기씨임을 인정하면서도 손으로 나락을 까는 등의 시험을 마치고 불도땅(서강베포땅)으로 내려가 살면서 아들 젓부기삼형제를 낳음
- 젓부기삼형제가 과거에 급제하자 이를 시기한 삼천선비들이 어머니를 죽여서 상중에 있는 자식은 과거를 못하도록 발목을 잡음
- 죽은 어머니는 살해되어 묻어 두었으나 시신은 간 데 없고 늘 입던 옷인 물맹지 단속곳이 증거물임
- 삼형제는 황금산 아버지로부터 굿법을 받아서 악기를 만들고 굿 의례를 치른 후 어머니를 살려냄

■ 굿 의례에서는 생명의 꽃을 활용한 의례 집행이 있었음

- 무속본풀이에서의 '꽃'은 죽은 이의 재생과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마법적인 힘을 가진 존재임
- 아이를 잉태하려면 꽃이 있어야 하고, 죽은 이를 살리려고 한다면 서천꽃밭에서 꽃을 따와야 하는데, 삼승할망은 꽃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잉태시켰고, 동이웅궁따님 아기인 '구할망'은 악심 꽃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의 생명을 거둬간 것임

■ 서천꽃밭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꽃들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이 곳을 지키는 이공신 '한락궁이'는 종으로 들어간 집 주인 '재인장제'의 핍박을 견뎌내고 결국은 서천꽃밭의 주인인 부친을 대신하여 꽃감관이 됨

- 한락궁이가 영웅이 되기까지는 '재인장제'의 수모를 딛고서 아들을 낳아 기른 어머니 원강아미의 희생이 있었음
- 가난한 집의 구덕훈사를 한 남편을 선택할 정도로 원강아미는 약속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는 의리

9) 신연우, 2011, "<초공본풀이> 노가단풍아기씨의 죽음과 재생의 농경신화적 이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256쪽.

있고 강한 이미지로 다가옴

- 아들 한락공이는 어머니를 두고 부친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다양한 꽃을 가지고 와 제인장제 집안을 몰락시키고, '사람살리는 꽃'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살려냄
- 자청비 역시 남장으로 서천꽃밭에 가서 꽃감관의 딸과 결혼하여 자신을 못살게 굴어서 죽였던 남성 종 '정수남이'를 살리기도 하고 또 모략으로 죽은 남편을 살리기도 했음

■ 서천꽃밭의 꽃은 이승과 저승의 공간계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꽃을 상징함으로써 죽어서 끝이 아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생의 기회를 만들어 줌

- 무속의 공간계는 이승과 저승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승의 세계는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꽃의 힘을 빌었을 때 다시 태어나서 재생할 수 있고 기대를 버리지 않게 하는 희망의 공간일 수가 있었던 것임

3. 대립과 화해

■ <천지왕본풀이>는 천지왕의 쌍둥이 아들이 경쟁을 통해 이승과 저승의 주재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천지왕이 쌍둥이로 분화되는 과정은 태극이 음양으로 분화되고, 음양의 운동이 태극을 형성한다고 하는 역(易)의 이치와 논리적으로 동일함.

- 신화적 사유가 철학의 논리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이 음양의 운동에서 긴요한 대목은 대립하면서 도(상극) 보완적인 관계(상생)에 있음
- 표면적으로는 음양이 대립을 이루고 있지만 심층을 들여다보면 음 안에 양, 양 안에 음이 내재화되어 있어서 대별왕과 소별왕은 대립하고 있음
- 이 대립은 소별왕의 속임수에 의해 지속되는 것으로, 황천강은 이승과 저승을 두 세계로 완전히 분할해 놓은 것처럼 보이거나 정교한 논리체계를 내면화하고 있음

■ <삼승할망본풀이>에는 두 세계의 대립이 구조화되어 있는데, 저승과 이승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 있으며, 상호 적대적인 시공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 화해(균형)를 이루고 있는 시공이고, 이 화해는 여신 생불할망으로부터 나눔

- 동해용궁따님애기는 맹진국따님애기가 맞서고, 용왕/석가, 불효녀/효녀, 쫓아내기/불러올리기, 바다/하늘, 무쇠석갑/노각성자부줄 등 다양한 상징을 지닌 의미항들을 대립의 속성으로 제시함
- 삼승할망은 싸움을 걸어오는 저승할망의 마음을 위로해줌으로써 '좋은 마음'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창조신이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은 이승과 저승의 대결관계를 협력관계로 변모시키고,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 새 생명들을 보살핌으로써 이승의 세계가 부패되는 것을 막는 역할까지도 수행함

- 근자에 철학자 이기상은 <삼승할망본풀이>를 거론하면서 “내기에 진다고 해서 목숨을 잃거나 어디로 축출되는 것이 아니다.”¹⁰⁾ 라는 단서를 통해 우리 곳 문화 전반에 ‘화해’의 원리가 깔려 있다고 적절히 지적한 바 있음

■ **곳 자체가 인간과 신, 신과 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추구하는 종교적 의례라는 점에서 이런 시각은 일견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주 무속신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화해가 여신으로부터 촉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대립항의 한 쪽을 차지하고 있는 동해용왕따님얘기는 부정적인 의미 항들의 연쇄를 통해 근본적으로 ‘결여’를 지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서, 동해용궁따님얘기는 어머니가 인간 세상에 가서 생불왕(삼승할망)이 되라는 신직을 받아 임신법은 들었으나 출산법을 듣기 전에 ‘아버님의 우레 같은 소리에’ 무쇠석감이 절로 닫혀 버림으로써 출산법을 모르는 불구의 삼승할망이 된 것임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여가 없는 존재인 맹진국따님얘기가 호출되는데, 그녀는 옥황상제의 임신법과 해산법까지 습득한 온전한 생불왕이 되어 초파일에 인간 세상에 하강하고, 동해용궁과 하늘옥황, 해출(海出)와 천강(天降), 결여와 충족 등의 의미 대립이 여기서 덧보태짐
- 인세에 두 명의 생불왕이 출현했으므로 승부는 불가피하게 되는데 겨루기의 종목은 천상에 올라가 옥황상제 앞에서 벌이는 ‘꽃피우기 시험’으로, ‘꽃피우기’가 종목이 된 이유는 한국 신화의 상징 체계에서 꽃이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임
- 맹진국따님얘기는 뿌리 하나에도 수만 가지의 꽃이 피지만 동해용궁따님얘기의 꽃은 피기는 하지만 한 뿌리에 가지 하나 송이 하나뿐이고, 그것도 곧바로 시들어 버리는데, 꽃을 피게 하는 능력과 시들게 하는 능력의 대립, 충족과 결여에 부응하는 대립임.

■ **두 할망의 대립은 다양한 의미 항들을 배치하는데, 삶과 죽음, 이 세상과 저 세상, 땅과 바다, 승리와 패배, 번영과 쇠멸 등의 이항 대립의 논리가 적실함**

- 꽃피우기 시험에서 진 동해용궁따님얘기는 신직(神職)이 결정되자 ‘화를 벌컥 내며 맹진국따님얘기가 피운 꽃의 윗가지를 오도독 꺾어 가진다.’ 겨루기에서 패하자 원한을 품고 백일 되는 아이들에게 경풍(驚風)과 같은 병을 주겠다는 뜻인데, 갈등이 재차 고조되는 이 지점에서 생불할망 <맹진국따님얘기>은 저승할망 <동해용궁따님얘기>를 달램
- 생불할망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생불을 줄 때, 곧 아이를 접지하고 태어나게 할 때 저승걸레, 걸레삼승, 업계삼승, 산모의 땀은 머리, 산모의 땀이 뺨 치마 적삼에 인정을 바치게 하겠다는 약속을 저승할망에게 함.
- 제주 무속에서 4, 7일이 생불할망날이고, 9일이 저승할망날이고, 그것이 본풀이에 명시된 것도 그런 인식의 결과임
- 9일, 19일, 29일에 저승할망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저승할망과 화해하려는 것, 화해를 통해 영아의 사망을 막아보려는 것 등, 이런 화해에 대한 지향이 결국 생불할망의 ‘좋은 마음하기’라는 표현과도 연결됨

10) 이기상, 2007, 『삼신 할매 신화에서 읽어내는 한국인의 살림살이 이성』, 『해석학연구』 20집.

- <삼공본풀이>는 기본적으로 가족 서사인데 그 가운데서도 부녀관계를 다루며, 가문장아기는 강이영성이서불과 흥운소천궁에궁전궁납의 막내딸로 태어나 쫓겨났기 때문에 부모-자식 사이에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 가문장아기는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는 부모의 질문에 '내 배꼽 아래 선그릇 덕에 먹고 입고 산다'고 대답한 뒤, 집을 나가자 부모는 장님이 되고 다시 가난해짐
 - 강이영성과 흥운소천은 가난해서 밥을 빌어먹는 거지 신세로, 두 인물 모두 타고난 복이 없는 박복(薄福)한 신세인데 결혼하여 셋째인 가문장아기를 낳은 뒤 발복(發福)하여 전답과 우마를 얻고 기와집에 사는 홍복(洪福)을 누리게 됨
 - '누구 덕에 사느냐'고 질문할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인 전상신 가문장아기였는데, 부모는 복을 가져다주는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 때문에 부모(혹은 아버지)와 딸은 대립, 이 대립은 달리 말하면 박복(薄福)-다복(多福)(혹은 복이 없는 사람과 복이 있는 사람)의 대립임
 - 가문장아기가 집을 쫓겨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대립이 발생하는데, 두 언니와 동생 사이의 대립임
 - 언니인 은장아기와 늦장아기는 부모의 집에 남고 가문장아기만 집을 떠난데, 두 언니는 부모 쪽을 선택함으로써 복이 없는 계열 속에 남으나 언니들은 막내딸을 가엽게 여긴 어머니 쪽이 '식은 밥에 물이라도 하여 말아 먹고 가라'고 하며 부르라는 전언을 '아버지, 어머니가 때리러 나온다'고 왜곡함
 - 그 결과 전상신인 가문장아기의 신명(神命)에 따라 은장아기는 노뚝돌 아래 청지네로, 늦장아기는 거름 아래 용달버섯(혹은 말뚝버섯)으로 '환생'해서 변신함
 - 부모는 딸들의 소식이 없자 방문을 나서다가 문 윗지방에 눈이 걸려 모두 안맹(眼盲)이 되고, 큰 딸은 청지네가 되어 노뚝돌 아래 어둠 속에 살고, 둘째 딸은 용달버섯이 되어 거름 속에 묻힘
 - '저승-바다-안맹-노뚝돌 아래-거름 속'은 하나의 계열축(은유적 관계)을 형성하면서 죽음이나 박복과 같은 부정적인 사물의 상태라는 의미를 환기시킴
 - 가문장아기는 자신을 낳친 부모를 맹인잔치를 통해 되찾아 봉양하고 개명(開明)시키고, 그 이전에 이미 가문장아기는 스스로 어둠을 쫓는 빛이라는 것을 보여줌
 - 마통이의 일터에서 빛의 상징인 생금을 발견하고, 가문장아기와 마통이의 관계는 가문장아기와 부모의 재결합의 전주곡임
 - '이승-물(땅)-생금-개안'이 또 하나의 계열축을 이루는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대립쌍이 변형되었지만 대립을 넘어 화해를 이루는 쪽은 이 후자의 계열과 결연되어 있는 버려진 자, 타 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제주여신 신화의 목소리임
-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자청비와 대립쌍을 형성하는 존재는 세경신의 신직을 받는 문도령과 정수남이인데, 둘 가운데 정수남이가 자청비의 지상의 짝패라면 문도령은 자청비의 천상(옥황)의 짝패임
 - 정수남이는 자청비 집안의 하인으로 자청비가 15세에 결연을 맺은 문국성 문도령을 옥황으로 떠나보낸 후에 갑자기 출현

11) 조현설, 2006,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사, 298쪽 참조.

- 정수남이는 게으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일을 하겠다면서 소 아흙, 말 아흙 마리를 데리고 나가 말려 죽이고는 불로 구워먹는 대식가의 형상을 지닌 인물임
- 자청비는 농경의 상징이고, 시작과 더불어 제주의 곳에 들어온 여신인데, 그 대척점에 있는 정수남이는 소천국과의 연관성 속에서 볼 때 수렵이라는 생산양식과 관련이 있고, 최종 신직은 하세경 신이지만 목축과 관련이 있는 남신으로 정수남이와 자청비의 대립은 목축과 농경이라는 생산양식, 목축신과 농경신이라는 신직 사이의 대립임
- 문도령-자청비는 각각 천상과 지상에 소속된 두 인물로 연애를 통해 결혼에 이르므로 대립 관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남편 탐색담을 통해 이 남편을 찾는 천상여행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남성들의 횡포가 나타남
 - 문도령의 부친 하늘옥황은 서수왕의 따님애기를 며느리로 맞으려는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숲 불이 이글거리는 구덩이에 칼선다리를 만들어 놓고 며느리를 시험
 - 이는 단지 신이 되기 위한 상징적 통과의례 이상의 의미, 곧 가부장의 횡포를 상징하고,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돌림각시'로 차지하려고 하는 일천선비 또한 이들의 연장선상에 있음
- 정수남이와 문도령과의 대립을 지속적 대립상태로 두지 않고, 화해로 이끄는 존재는 물론 자청비인데,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죽였지만 서천꽃밭의 환생꽃으로 되살리고 정수남이의 성품을 바꿔놓음
 - 문도령이 남장한 자청비가 결혼했던 서천꽃밭 주인대감 막내딸아기와 옥황의 명에 따라 작은 집 살림을 시작하면서 자청비를 무시하고 잊어버리자 자청비는 옥황으로부터 오곡의 종자를 받고, 친정에 돌아가 정수남이를 데리고 세경땅에 좌정함
 - 이런 행위는 결국 문도령의 반성을 이끌어내고, 문도령마저 세경신으로 좌정하게 함
- 자청비의 적극적 화해의 능력은 부정적 세력에 의해 수난을 겪지만 수난을 넘어 적대자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음

4. 욕망과 갈등

-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은 욕망이나 이러한 욕망이 세속적인 것일 때 물건이 탐이 나고, 물질적인 것을 갖고 싶고, 과거 급제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다는 것은 욕망임
 - 신화 속에서는 <초공본풀이> 젓부기 삼형제처럼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과거를 포기하고 대대손 손 무업의 조상이 되는 세속의 욕망을 포기하는 희생을 원하는데, 이러한 선택을 한 젓부기 삼형제에게도 갈등이 없지는 않았다고 보나,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신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임
 - 물론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신분이 높아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무업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양가집의 자식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삼천선비들은 실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접선생에 의해 잉태되어 탄생했고, 볼도 땅에서 자라서, 이들이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음
 - 그들에게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과 모친을 살리고 본연의 일에 충실한다는 점에 대한 갈등이 있었으나 그 결정은 무속의 세계의 법을 마련하고 의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인류애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음
- <이공본풀이>의 한락궁이는 어머니를 두고, 서천꽃밭의 아버지를 찾아감으로써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했고 아버지를 찾는 욕망이 달성되자, 꽃을 꺾고 와서 다시 죽은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음
- 각 본풀이마다 신들의 욕망은 인간의 것과 다름 아니나 그 욕망으로 나타난 결과는 신의 직능이나 본풀이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청비가 남편을 얻고 시아버지의 시험을 거쳐 농경의 씨앗을 얻어온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 보다는 농신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각 욕망에 관한 맥락적인 모티프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세경본풀이> 중에서 칼선다리를 건다가 발이 베어 치마폭으로 닦은 피가 여성들이 생리하는 근본을 마련하는 모티프가 되고, 메밀씨앗을 잇고 와서 늦게 파종한다거나 해녀들의 물웃으로도 사용하고 여성들의 속옷인 '소중기'에 싸고 온다는 것은 여성들의 몸이 농경이나 생산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

V. 여신 관련 정책 제언

1.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인정

- 제주도는 다른 지역의 본풀이에 비해 본풀이가 많고, 각 유형별 특징이 뚜렷함
 - 제주 지역의 무가권은 가장 특징적인 무가 자료를 상당량 보유한 지역으로 큰곳의 독자적인 구조로 인해 한국 무가권 중 가장 생동감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옴¹²⁾
 - 일반신본풀이로 볼 수 있는 작품은 <천지왕본풀이>, <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차사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칠성본풀이>, <멩감본풀이>, <지장본풀이>와 당신본풀이(70편), 조상신본풀이(40편)임¹³⁾
 - 제주도 본풀이는 기실 의례인 곳과 그 의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심방, 그리고 실제 심방에 의해 곳이 펼쳐지는 의례의 장소인 신당,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부된 무형문화유산임
- 무속의례와 관련해서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송당리 마을제, 제주큰굿, 신당이 있으나 제주도 본풀이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목록에 없는 실정임
 - 기존에 지정된 것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 2001, 제주도무형문화재 송당리 마을제, 제주큰굿, 송당분향당, 새미향로산당, 와흘분향당, 수산분향당, 월평다락굿당의 신당이 있음
 -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공간(협약 제2조 1항)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에 대해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협약 제2조 2항)로 규정
- 여기서 <제주도본풀이>는 구술 전통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수 있는데¹⁴⁾, 현재 유네스코 무형유산 가운데 구술 전통으로 등재된 것은 개별 작품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괴로글리> 서사시

12) 홍태한, 2001, “무가권에 따른 서사무가의 전승 양상”,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121, 130~131쪽.

13) 조동일, 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48쪽.

14) 제주학연구센터, 2019, 『무형유산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 제4회 정책학술회의, 109쪽.

- 베네수엘라 <마포요>
 - 키르키즈스탄의 3부작 서사시 <마나스>, <세메테이>, <세이테크>
 - 아르메니아의 <시스나트레르>, <사순치다비트> 등
- 제주도 본풀이는 많은 개별작품을 포괄하는 하나의 거대한 장르를 형성,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평가
-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가, 어떻게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

2. 여신 신화의 보전에 대한 작업

- 제주 여신 신화 보전을 위해서는 먼저 여신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나 개별적으로는 연구되고 있지만 총괄적 정리와 체계화(계보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체계화를 위해서는 여신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함.
- 백주또, 자청비, 삼승할망 등 여신들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제출되어 있으나 당(堂)에 좌정한 여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고, 여신들의 신화를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여신의 정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긴요함
 - 이 작업을 바탕으로 제주 여신들의 전체적인 계보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3. 여신 신화가 구연되는 곳 현장의 보존 작업

- 제주 여신 신화의 특징은 '제주큰굿'의 현장에서 재현되는 살아 있는 신화이어서 각 여신 별로 구연되는 곳 현장에 대한 조사와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
- 개별 연구자 단위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기관 차원에서 정리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 긴요함
- 설문대할망과 같은 창조여신의 경우 굿 안에는 없지만 제주의 지형지물과 관련하여 전설화된 자료가 적지 않고, 관련 유물들이 산재해 있으나 적절히 보존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어서 구전되는 여신과 관련된 자연물 등을 도 문화재 등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곳을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신 신화 보전의 차원에서는 여신 신화가 무가로 불리는 상황을 특화하여 보전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공연 공연이 필요함.
 - 이 공연을 학교 교육과 연결시켜 제주만의 특성을 구현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

4. 제주 여신 신화 자료관 혹은 신화관 설립

- 여신 신화를 보전하고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집적과 정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그간 연구 정리되고, 새로 체계화된 여신들의 신화를 가시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이 전당을 여신전(女神殿)으로 꾸며 전시하는 공간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제주돌문화공원 내에 신화관이 조성되고, 설문대신화관 내에 신화관을 설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제주의 여신들을 대내외로 홍보

5. 여신 신화를 활용한 각종 콘텐츠 개발 사업

- 2004년 <원천강본풀이>의 주인공 ‘오늘이’가 이성강 감독에 의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제주 여신을 세계적으로 알린 바 있음
 - 2018년에는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자청비가 세레스 행성의 지역 이름으로 붙여져 세계천문학계에 알려졌고, <우주로 간 자청비>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음.
 - 이 외에도 제주 내에서 자청비 등의 여신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공연물로 제작된 바 있음.
- 이런 사례들을 참조하여 더 적극적으로 여신 캐릭터를 형상화하여 각종 공연물, 서사물, 영상물, 캐릭터 용품 등으로 제작하는 사업이 긴요함.
- 신당 Day, 신화 Day를 만들어 특정 날짜에 본풀이에 관심을 지닌 일반인들이 여러 군데의 마을 신당을 돌아보면서 이야기 구연자가 들려주는 당신 본풀이를 통해 제주도 본풀이의 무형유산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당신 본풀이를 구송하는 심방의 곳을 통해 제주도 본풀이를 오감으로 체험서비스 제공¹⁵⁾

15) 이소윤, 2019,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의 이해와 활용” 『무형유산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 제4회 정

■ 크르노베리 지역(스웨덴 남부)에서는 구전 예술을 진흥하고 재활성화 하는 ‘전설의 땅’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함¹⁶⁾

- 위기에 처한 이야기 예술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
- 크르노베리 지역을 필두로 구술 전통의 부흥 조치
- 이야기 구술 및 청취공간 마련
- 이야기 구술의 새로운 기능, 전승방법 모색
- 새로운 구술 공간과 청중 개발
- 비슷한 생각을 가진 시민, 이야기 구연자, 전문가들의 전국 차원 또는 지역 차원의 협력
- 전체의 복지를 위해 이야기 구술 가치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책학술회의, 121쪽.

16) 윗글, 122쪽

참고문헌

- 강지연, 2018, “제주도 일반신본풀이를 통해 본 악(惡)의 의미와 양상”, 『한국고전연구』 4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 권태효, 2005, 「제주도 무속신화의 생성 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 김정호, 문병두, 2014, “한일 사체 환생 신화연구: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오케츠히 메노가미를 중심으로”, 『한민족 어문학』 제72집, 한민족어문학회.
- 송상조, 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신연우, 2011, “〈초공본풀이〉 노가단풍아기씨의 죽음과 재생의 농경신화적 이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 신연우, 2013, “제주도 신화와 ‘고통’의 문제”, 〈초공본풀이〉를 중심으로, 『泐上古典研究』 제37집.
- 이기상, 2007, 「삼신 할매 신화에서 읽어내는 한국인의 살림살이 이성」, 『해석학연구』 20집.
- 이소윤, 2019,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 본풀이의 이해와 활용” 『무형유산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 제4회 정책학술회의.
- 이수자, 2004,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 이유경, 2012,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 탐색의 양상과 의미”, 『어문논문』 제40권 제1호, 어문학회.
- 이지영, 2006,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 문학회.
- 정진희, 2010,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2009,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2009, 『개정 증보 제주어사전』, 일신옵셋인쇄사
- 제주학연구센터, 2019, 『무형유산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 제4회 정책학술회의.
- 조동일, 1997,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 조현설, 2006,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 좌혜경, 강소전, 2017, 『제주의 '신화지' 현지조사와 문화자원화』, 제주학연구센터.
- 진성기,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 현승환, 1993, “내복에 산다게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 현용준, 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 현용준, 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 현용준 · 현승환 역주, 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홍태한, 2001, “무가권에 따른 서사 무가의 전승 양상”,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Abstract

Textual Analysis of the Goddesses of Jeju Myth in the <Twelve Deity Bonpuri Shamanic Ritual>

Choa Hye kyung · Cho Hyun Soul

Keywords : mythology, Goddesses, shamanic ritual of 'gut', <Cheonjiwang Bonpuri>, <Halmang Bonpuri>, <Manura Bonpuri>, <Chogong Bonpuri>, <Igong Bonpuri>, <Samgong Bonpuri>, <Chasa Bonpuri>, <Segyeong Bonpuri>, <Munjeon Bonpuri>, <Chilseong Bonpuri>, <Menggam Bonpuri>, <Jijang Bonpuri>

The <Bonpuri> of Jeju mythology is a narrated mythology used in shamanic rituals which reflects Jeju's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It eminently deserves preservation as it is regarded as global heritage and its content and form based on the shamanic ritual of gut contain a unique mythological value system.

Jeju's shamanic community retains considerable materials of its rituals, and thanks to the distinctive structure of the rituals and narratives, Jeju is considered the most active region with regards to shamanism. Jeju Bonpuri are more numerous than those of other regions and each type ha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here are 12 Bonpuri sung for gods/goddesses in formal gut rituals. They are <Cheonjiwang Bonpuri>, <Halmang Bonpuri>, <Manura Bonpuri>, <Chogong Bonpuri>, <Igong Bonpuri>, <Samgong Bonpuri>, <Chasa Bonpuri>, <Segyeong Bonpuri>, <Munjeon Bonpuri>, <Chilseong Bonpuri>, <Menggam Bonpuri>, and <Jijang Bonpuri>. In addition to these twelve, there are two more, namely Dangsin (shrine gods/goddesses) Bonpuri and Josangsin (ancestor gods/goddesses) Bonpuri.

In fact, Jeju Bonpuri i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sociated with three

elements: the gut ritual; the shamans who perform the ritual; and the shrine at which shamans perform the ritual.

Jeju shamanic mythology has especially abundant and distinctive stories on goddesses that may be called 'goddess mytholog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principle of narrative formation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found throughout goddess mythology.

As part of studies to shed light on the cultural and historic value of Jeju mythology, it is essential to uncover the universal value of Jeju mythology through academic analysis of texts relating to the roles of goddesses in the Bonpuri mythology which explains the roots of the gods/goddesses. This is more urgent as gut ritual performers or those who can recite the Bonpuri narratives are gradually disappearing. Above all, it is imperative to make every effort to have Jeju Bonpuri designated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y appreciating its value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defin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Article 2, Paragraph 1). And the range is stipulated as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erforming arts;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and traditional craftsmanship" (Convention Article 2, Paragraph 2).

Regarding shamanic rituals, 'Songdang-ri village ritual' and 'Jeju Grand Gut' are currently designated as cultural assets by the provincial government. As for shamanic shrines, Songdang Bonhyangdang, Saemihanrosandang, Waheul Bonhyangdang, Susan Bonhyangdang, and Wolpyeong Darakgukdang are designated as cultural assets by the provincial government. Jeju Bonpuri focuses on oral tradition, and the patter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Jeju Bonpuri, all of which a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orth preserving, consists of rituals, shrines, and the practicing shamans.

<부록>

2004년 제주 큰굿(제주특별자치도 소장) 일반신본풀이

- 2004년 이중춘 심방 대영례굿 본풀이 -

1. 천지왕본풀이	82
2. 할망본풀이	88
3. 초공본풀이	93
4. 이공본풀이	109
5. 삼공본풀이	122
6. 세경본풀이	126
7. 차사본풀이	141
8. 문전본풀이	156
9. 칠성본풀이	169
10. 지장본풀이	175
11. 사만이본풀이	180
12. 영감본풀이	183

1. 천지왕본풀이 (이중춘 구연)

1) 천지왕본풀이 - 1

천지왕은 지부왕 대별왕은 소별왕 남정중은 화정여¹⁾ 도업허난 천지왕은 옥황이고 지부왕은 총명부인 천지왕이 지부왕 누려사난²⁾ 밥 혼 상을 지어 놀 곡명³⁾ 엇어지난 그 고을에 수명장제 집이 간 쌀 혼 뉘를 앓아다가 혼 불 두 불 제 삼불을 일어네 천지왕님 밥 혼 상을 드렸더니 쳇 손꾸락에 머흘⁴⁾ 이 맥힉데다.

“지부왕 총명님아 어떻 허난 쳇 손꾸락 머흘이 맥험수과?”

“이 고을에 수명장제집 거부제로 살아근 대미쌀⁵⁾엔 대몰레⁶⁾를 허트고 놈을 주곡 소미쌀⁷⁾은 소몰렐 허터 놈을 주고 굿인 곡석 주어근 좋은 곡석으로 바꾸고 족은 말로 주어근 큰말 받음데다.”

쌀 혼 뉘 꾸어단 농에왓 들러 반안 혼 불 두 불 제 삼불 일언, 천지왕님전 밥 혼 상을 드렸수다에.

“나 두에는⁸⁾ 칠천 명이 저 군사 오천 명이 저 진중, 딸안 오랏구나.⁹⁾”

걸명¹⁰⁾ 신식 잡식¹¹⁾법 마련헤어 두고 초경 이경 수수삼경 지핀 밤을 거세완에¹²⁾ 천지왕이 옥황더레 상천허젠 허난 지부왕 총명부인 근는¹³⁾ 말이

“천지왕님아 지나간 밤 벤 얘기 이름 성명 지왕¹⁴⁾ 갑서.”

천지왕님 근는 말

“아들랑 낱건 먼저¹⁵⁾ 난 건 대별왕 말째 난 건 소별왕, 이름 성명 지읍소서. 딸랑 나커들랑 먼저 난 걸랑 대별왕 말째 난 건 소별왕, 이름 성명 지읍소서.”

“아방¹⁶⁾ 본메¹⁷⁾나 놓아두영 갑서.”

농에왓 꼭씨¹⁸⁾ 세 방울을 내여주멍

1) 남정중은 화정여 : 남정중(南正重) 화정여(火正黎) 「사략(史略)」 전옥(顛頊) 고양씨(高陽氏) 항목에서 따온 것. 여기서 남정중의 예법(禮法) 또는 다툼의 분한(分限)을 구별하는 법.

2) 누려사난 : 내려서니. 하강下降하니.

3) 곡명 : 곡식

4) 머흘 : 자갈

5) 대미쌀 : 대미(大米)

6) 대몰레 : 굵은 모레

7) 소미쌀 : 좁쌀

8) 두에는 : 뒤에는

9) 딸안 오랏구나 : 따라 왔구나

10) 걸명 : 교수레.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는 일

11) 잡식 : 제사 때 제물에서 조금씩 떼어놓은 음식

12) 거세완에 : 지세우고

13) 근는 : 말하는

14) 지왕 : (이름)짓고

15) 먼저 : 먼저

16) 아방 : 아버지

17) 본메 : 증거가 될 물건

18) 꼭씨 : 박씨

“정월 이라 첫 돛날, 메¹⁹⁾를 심어 양 곡 줄낭 옥황더레 버치곡, 혼 곡줄²⁰⁾랑 버치근 나를 좇아 보
냅소서.”

천지왕이 옥황더레 상천허난 지부왕 총명부인 혼 텃줄에 아들 성제²¹⁾ 솟아난다. 문저 난 건 대별
왕, 말째 난 건 소별왕 이름 성명 지웁데다.

혼 설 두 설 열다섯 설 십오 세, 그만 존삭 차 가난에 아방국도 두투곡²²⁾, 어멍국²³⁾도 두툼데다.
서룬²⁴⁾ 동생 곤는 말이로다.

“두틀 것이 아니라 수치 적경²⁵⁾ 이기건 아방국 어멍국을 초질협서.”

소별왕이 수칠 제꿈디다²⁶⁾. 수칠 제꺼가니

“서룬 성님아 어떤 일로 동지 셋덜 설한풍 어떤 남은 잎이 떨어지곡 어떤 남은 잎이 아니 떨어지
옵네까.”

“서룬 동생아, 썩이 옴은²⁷⁾ 낭²⁸⁾은 잎이 아니 떨어지고 썩 구린 낭 잎이 떨어진다.”

“서룬 성님 모른소리 맏서²⁹⁾ 왕데 죽데 주죽덴 무디무디 썩 구려도 잎이 아니 떨어집네다. 머구냥³⁰⁾
은 썩이 옴아도 잎이 떨어집네다.”

대별왕이 지어간다. 다시 수칠 적경

“어떤 일로 동산에 풀은, 메³¹⁾가 쭈르고³²⁾ 굴렁에 풀 메가 집네까³³⁾.”

“동산에 건 물이 굴렁더레³⁴⁾ 지기로 메가 진다.”

인간사론 쉰 데자 수페머리³⁵⁾ 납네다 데별왕이 수칠 적경 지어간다.

“서룬 동생아, 기영 허거들랑³⁶⁾ 서천꽃밭³⁷⁾ 도올라 꽃쌀 타다근에 은소반에 꽃번성을 시겨근에
저상법 이싱법 마련허게.”

대별왕과 소별왕 서천꽃밭 도올란 꽃쌀 타단 은수반에 꽃번성을 시킵데다. 대별왕 앞에 꽃은 시

19) 메 : 초목의 묘종

20) 곡줄 : 박당굴

21) 성제 : 형제

22) 두투곡 : 다투고

23) 어멍국 : 어머니. 부모를 일컬을 때 흔히 ‘-국’이 붙음.

24) 서룬 : 대상 앞에 붙여 애정을 나타내는 표현

25) 수치 적경 : 예속 제껴서. 수수께끼 해서

26) 수칠 제꿈디다 : 수수께끼로 겨루더이다

27) 썩이 옴은 : 속이 여문

28) 낭 : 나무

29) 맏서 : 하지 마세요

30) 머구냥 : 머귀나무

31) 메 : 흙의 비옥(肥沃)도

32) 쭈르고 : 짧고

33) 메가 집네까 : 메가 길(長)니까. 메 길다(長) : 흙이 비옥하여 초목의 성장이 좋다

34) 굴렁더레 : 구렁으로

35) 쉰 데자 수페머리 : 길고 숲처럼 무성한 머리

36) 기영 허거들랑 : 그렇게 하거든

37) 서천꽃밭 : 환생(還生)꽃, 멸망(滅亡)꽃 등 주화(呪花)를 가꾸는 꽃밭

양석석 번성꽃³⁸⁾ 소별왕이 앞에 꽃 시양석석 검뉴울꽃³⁹⁾ 뒤편이다.

“서룬 성님아 읊서 즘이나 자 보게.”

대별왕은 무정눈⁴⁰⁾에 즘을 자 간다. 소별왕은 소면 엇인 즘을 자단 성님 아피 꽃은 앞더레⁴¹⁾ 등겨 놓고 이녁⁴²⁾ 앞에 꽃은 성님 앞더레 밀려 놓아두어

“서룬 성님 일어납서 꽃상귀⁴³⁾나 헤여보게.”

대별왕이 일어난 보난 꽃은 선후도착(先後倒錯)이 뒤편이다.

“서룬 동생아 널로부터 음흉허기로 저싱법 마련 허긴 마련 허라마는 강적수적 수혜 살인 만허리라.”

저싱법은-, 이수 농장법이며. 주년 날에 촘쌀그든⁴⁴⁾ 법이로구나.

대별왕이 옥황더레 상천허져 농에와т 곡씨 세 방울 정월 첫 첫날 심으는 그 법으로 무을 천제국제는 정월 상 돌 정해 일에 까는 법입네다.

정월은 첫날을 굶어보난 말 모른 세 가막세⁴⁵⁾ 오조조조 일럼구나. 구신⁴⁶⁾ 불르민 생인⁴⁷⁾ 대답허고 생인 불르민 구신 대답허난 생피⁴⁸⁾ 골리⁴⁹⁾ 닷말 닷뒤 칠세오릴 헤여단 동서러레 허터더니 남정중 화정녀 곱⁵⁰⁾을 갈릅네다.

천지왕 대별왕 옥황님 상천하난님 용상 우에 올라타난 용상이 드르렁 허게 우난에 소피

“이 용상아 저 용상아, 아무도 타민 입제여.”

웬뽕 훈 짝 미엇더니, 그 법으로 옥황 천저는 영구름을 타고 데국 천저는 코끼리를 타고 우리나라 옛날 임금은 용상 타기 마련 법지법 헤여수다.

대별왕은 저싱법 소별왕은 이싱법 염네왕은 저싱법돌 마련 허신 법 아넵네까.

인충도 삼백이요. 묘충도 삼백이요. 비충도 삼백이라. 그 가운데 만물이 영장은 인간이로구나.

38) 번성꽃 : 제주 무속에서 살림살이를 번성하게 만든다는 상징적인 꽃

39) 검뉴울꽃 : 이우는 꽃. 시들어 가는 꽃

40) 무정눈 : 몹시 괴로운 일을 당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처지인데도 스스로 감기는 '철없고 무정한 눈'이라는 뜻

41) 앞더레 : 앞으로

42) 이녁 : 자기. 자신

43) 꽃상귀 : 꽃상여

44) 촘쌀그든 : 명주실 같은

45) 가막세 : 까마귀

46) 구신 : 귀신

47) 생인 : 생이는. 생이가. 생이 : 작은 새(鳥)의 총칭

48) 생피 : 송피(松皮)인 듯

49) 골리 : 가루가 되게 짓빵은 물건 또는 가루

50) 곱 : 겹. 나눈 몫

2) 천지왕본풀이 - 2

대신시왕연맞이로, 안느로 만서당클, 신메운⁵¹⁾ 조상님광, 연양당주, 삼시왕 삼하늘, 연양탁상 우전 좌우접상, 신공시 신메운 조상님네, 시왕 대전상드레 신메와 드립네다. 대신시왕연맞이로 천지가 혼합이 뒤어옵네다.

천지혼합시도업-. 천지혼합시도업-, 제이르난, 상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밤도 왓왓⁵²⁾ 일무공후고⁵³⁾ 낮도 왓왓 일무공후난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엔, 천가에는 조후고 지가에는 축후고 인가에는 인허시난, 하늘머린 지드트고 땅이 머린 지노추니 하늘로는 청이실 땅으로는 흥이실 지장 산샘잇물 솟아가난, 떡징그찌⁵⁴⁾ 곱이 납네다. 갑을 동방은 니엄 들고⁵⁵⁾ 경신 서방은 출릴⁵⁶⁾ 들고 벵저 남방은 늘겔⁵⁷⁾ 들고 임계 북방은 활겔드난, 검고 희고 높은 건 하늘이요. 무거웁고 산발헨 건 땅 입네다.

삼십- 삼천 서른 시하늘 도업- 삼십삼천-, 서른 시하늘 도업후난 요하늘 요금시 데명천지가 붉앗구나. 잉헌 이도 삼하늘 디딘 이도 삼하늘, 삼십삼천 서른 시하늘 도업허난, 갑을 동방으로 천운성이 뜨고 경신 서방으로 직녀성이 뜨고 벵저남방으로 노인성이 뜨고 임계북방으로 테금성이 뜨난, 삼태육성 선우 성별 별자린 짓알 세별 짓우 네별~, 북두칠원데성군-, 원성군 진성군 목성군 테성군 기성군 칠원성군 도업허난, 일광님도 도업입고 월광님도 도업을 제이르니, 산베포도 도업 물베포도 도업을, 제이르난, 팔도명산 누린⁵⁸⁾ 물은 데천바당이 뒤엇십네다.

수만 수천 수웨용신 도업 제이르난, 천황씨는 옥황이고 지왕씨는 인왕인데 천지왕이 지부왕, 누려사난-, 밥 혼 상 지을 곡명 엇어지난 수면장제 집이 간 쓸 혼 웰 앓아단, 농에악을 둘러 받아, 혼 불 두 불 제 삼불을 일었더니, 천지왕전이 밥 혼 상을 디리난 쳇 순꾸락에 머흘이 맥힉네다.

“지부왕 총명부인님아, 어떤 일로 쳇 순꾸락에 머흘이 맥힉네까.”

“이 고을에 수명장젯집이 천하부제로 살아근 데미쓸엔 데몰렐 허텅 놈을 주곡, 소미쓸은 소몰렐 허터근 놈을 주곡, 굿인 곡석 주영 좋은 곡석으로 반곡, 족은 말로 주어근 큰말로 받으네다.”

쓸 혼 웰 앓아단 농에악을 둘러 받은 혼 불 두 불 제 삼불 일언, 밥 혼 상을 올렸수다.

“나 두엔 칠천 명이 저 군사, 오천 명이 저 진중이 딸안 오라시난.”

겔명 신식 잡식법 마련 해여두고, 천지왕과 지부왕, 초경 이경 수수삼경 지픈 밤 거세완에, 천지왕이 옥황더레 올르젠 허난, 지부왕 총명부인

“천지왕님아 지나간 밤, 베인 애기 이름 성명이나 지와두곡 아방 본메나 두고 갑서.”

“아들랑 낳건 모저 난 건 대별왕, 말째 난 건 소별왕, 딸랑 나낀 모저 난 건 대털왕 말째 난 건 소털

51) 신메운 : '신메움'은 큰곳의 맞이곳에서 각 재차에 해당하는 신명을 나열하는 의례를 말한다

52) 왓왓 : 어두운 모양

53) 일무공후고 : 한가지로, 모양새로

54) 떡징그찌 : 떡 쪼 같이

55) 니엄 들고 : 니엄 또는 녀염=잇몸. '니엄 들르다'는 말을 하거나 웃으며 '잇몸을 드러내다'의 뜻

56) 출릴 : 출리를, 출리 =출례. 밥 먹을 때 국과 채소를 제외한 반찬

57) 늘겔 : 늘개. 날짐승의 날개 따위 또는 옷이나 천에 덧붙여 펄럭이는 부위를 가리키는 말

58) 누린 : 내린

왕, 이름 성명 지읍소서.”

농에왓 꼭씨 세 방울~을 내여주명

“정월 첫 돛날에, 메를 심어근 양 꼭 줄랑 옥황더레 번치곡, 혼 꼭 줄라근 지봉 더레 번청 나를 좇아 보냅소서.”

천지왕이 옥황이 상천허난, 지부왕 총명부인 아홉열 덜 준삭찬 혼 텃줄 아들 성제 나난, 먼저 난 건 대별왕, 말째 난 건 소별왕 이름 성명 지읍데다. 이 애기덜 혼 설 두 설 열다섯 십오 세, 그만 준삭을 차 가난, 아방국도 두투고, 어멍국도 두툼데다.

소별왕이 말을 후뉘

“설운 성님아 우리가 두툼 게 아니랑, 수치 저경 이기는 데로 저심법이나 이심법이나 마련헛서.”

“걸랑 기영 허라.”

소별왕이 근는 말이

“어떤 일로 동지섯덜 설한풍에 어떤 남은 앞이 떨어지고, 어떤 남은 앞이 아니 떨어집네까.”

“서룬 동생아, 앞이 옳은 남은, 아니 떨어지고, 썩이 구린 남은 앞이 떨어진다.”

“서룬 성님 몰람수다. 왕대 죽대 조죽대는, 무디무디 썩 구려도, 앞이 아니 떨어지곡. 머구남은 썩이 옳아도, 앞이 떨어집네다.”

대별왕이 지어간다. 다시 수칠 저꺼 더

“어떤 일로, 동산에 풀은 메가 쭈르고, 굴렁에 풀은 메가 집네까.”

“동산에 건물이 굴렁더레 지기로 메가 진다.”

“인간사름은 썩 데자 수페머리 잇십네다.”

대별왕이 수치 저꺼 지어가난

“서룬 동생아, 서천꽃밭 도올랑 꽃썰 타탕, 은소반에 꽃번성을 시겨근, 번성꽃 뉘는 데로 저심 이심 곱 갈르게.”

“걸랑 기영 헛서.”

대별왕과 소별왕이, 서천꽃밭 도올랑 꽃썰 타단, 은수반에 꽃 번성을 시겨 놓고, 대별왕 앞에 꽃은 시양석석 번성꽃 소별왕 앞에 꽃은 시양석석 검뉴울꽃 뉘난

“서룬 성님아 읍서 줌이나 자게.”

대별왕은 무정눈에 줌을 자고 소별왕은 소면헌 줌을 자단 성님 앞에 꽃은 앞더레 등겨놓고 이녁 앞이 꽃은 성님 앞더레 밀려 두고

“서룬 성님 일어납서. 꽃상귀나 헤여보게.”

대별왕이 일어난 보난, 꽃은 선후도착이 뉘엿구나.

“서룬 동생아, 널로부터 음흉허기로, 이심법 마련 허긴, 마련 허라마는, 강적수적 수혜 살인 방화 약탈 잇이리라.”

남저 열다섯 넘어가민, 늬음 여저 뒤쫓치기 여저 열다섯 솔 넘어 가민 늬음 남저 올려보기 마련 후읍고나. 저심법은-, 이수 농장법이며. 주년 날 촘썰그튼 법이로구나. 대별왕이 정월 첫 돛날 메를 심은 그 법으로 이제 지금그장 천제 지낼 땐, 상정월 정해 일에 천젤 지내는 법입네다.

대별왕이 옥황이 상천후저 천하 알 굽어보난, 말 모른 세 가막세, 길증심 오조조조 일럼구나. 생 피 굴리 닷말 닷뉘 칠세오릴 헤여다가, 동서러레 허트난, 남정중 화정녀 으르렁 허게 울어가난
“이 용상아 저 용상아, 아무도 타민 임제로구나. 아방 타던 용상이여.”

웬뵐 혼 짝 무엇더니, 그 법으로 옥황 천저는 영구름을 타고 데국 천저는 코끼릴 타고 우리나라 옛날 임금은 용상 타기 마련헌 법지법 입네다.

인충도 삼백이요 묘충도 삼백이요. 비충도 삼백이라. 그 가운데 만물에 영장은 인간이로구나. 삼 십삼천 도설천왕 도시왕 도업허난 천지왕 지부왕 데별왕 소별왕 남정중 화정여 도업-.

남정중 화정여 도업허난, 테고라 천왕씨는 이에 목덕으로 왕을 허난 성제 열둘이 무유유화허니 각 일만팔천씨를 도업허고 지왕씨는 솟아나 화덕으로 왕을 허난, 성제 열하나 무유유화를 허니 각 일만팔천씨 도업허고 인왕씨는 솟아나난 분장구주허니 성제 구인 솟아나, 무유유화 허난, 범 백오 십세에 스만오천육백년 도업 혼 성인님도 도업입고 글지후 유왕유수신 솟아나난 남을 세완 집을 짓언 살고 수인씨는 솟아나난 시찬 솟불을 얻언 주인 화식법 마련허고 여와씨는 솟아나난 옷을 입어 몸을 가린 성인님도 도업입고 글지후에는, 테호 복희씨 솟아나난, 성은 풍성이라 사신인수허니 머리는 사름머리 몸뎡인 베염 몸이 뉘난 팔괘 그런 글 쓰는 법을 알고 시집가고 장계 들어 남녀 구 별법을 마련허고 그물을 치언 사냥법을 마련 허던 성인님도 도업 입고 글지후엔 염저실농씨 솟아나난 성은 강성이라, 인신 우수허니 머리는 소이 머리 몸뎡인 사름 몸이 뉘난 농잠델 지언, 농스 짓는 법을 그르고 백가지 풀을 맛을 보안 이약방 물법 설련 헌 성인님도 도업입고, 글지후엔 황제 헌 원씨 솟아나난 성은 희성이라 방뵐 지언 불량을 막고 창을 지언 난릴 막고 수렐 지언 먼 길을 통행 허고, 황장봉베를 짓언 저 바당을 넘어가고 넘어온 성인님도 도업입고, 글지후엔 천우고양씨 솟아나난 책녁을 네언 음과양을 분간허고, 굴멜⁵⁹⁾보안 시간법 마련허고 일년 열두돌 수계절 입춘상들을 마련허고, 삼백육십오일 팔천칠백예순 시간법 마련헌 성인님도 도업입고, 글지후엔 주안씨는 열흔씨 칼천씨 호양씨 혼돈씨 생인 도업허난, 하우상탕 주무왕 솟아나난 권력싸움 헤여가난 공자 왈 하늘에서 나온 성인이라. 서역주역을 지언 악헌 사름 선허게 허고 책을 네어 글을 배완 선비뵐을 그리친 성인님 도업허난, 은하상탕 주무왕 춘추전국허난 풍성 강성 희성 열다섯 십오생인 도업-.

열다섯 십오생인 도업허난 대신 시왕연맞이로 천왕베포도업 지왕베포도업 인왕베포도업 대신왕 연맞이 제청 신도업이웨다.

59) 굴멜 : 굴메를. 그림자를

2. 할망본풀이 (오춘옥, 이승순 구연)

1) 명진국할망본풀이

할마님불도연맞이로 할마님 난산국더레 제누립서-. 할마님 난산국이 어딤네까. 할마님은 옥황상저 따님애기롭서 상 갑자년 삼진정월 초사흘 날 남방사주 봉에바지⁶⁰⁾ 북방사주 저고리 열두복 데 흥데단 훗단치메 명지 줄장옷은 열두 단출 들고 낙낙장송 코제비보선⁶¹⁾을 신어 노각성에 주부연줄⁶²⁾로 옥황더레 도올릅데다.

노룩으로 해성을 둘러놓고 문 안네는 할마님 지국하고 문 뱃굿딘⁶³⁾ 어께삼승 구덕삼승⁶⁴⁾ 걸레삼승⁶⁵⁾ 거느리어 혼 착 손엔 번성꽃 혼 착 손엔 환성꽃 동청목은 서백금 남적화는 북훼수 시왕석세 법에 완성꽃을 둘러 잡양 산천영기 보명 산천⁶⁶⁾이 존 집안은 아덜 조슨을 체급후곡 산천이 부족헌 집안은 돌 조슨을 체급을 시겨 주옵데다.

아방 몸엔 석덜 열흘 어명 몸엔 아후열 둘 은도리 방석에 종에 붓을 왕 애미 젓줄 동기영 열두과만 존삭이사 차민 할마님은 노각성 주부연줄로 누려삽네다.

머리 풀어 곤지에 걸어두고 치메 벗영 간지⁶⁷⁾에 걸어두고 초자리 건너 북덕자리 깎양 할마님 들어가민 애기 어명 상가메⁶⁸⁾에 은짚그뜨 손으로 삼세 번을 싹영⁶⁹⁾ 머리 도진물 씨더지민 부뜨⁷⁰⁾ 빼는 느추우고 열두 신뵘⁷¹⁾ 물러앗저근 인간 훼복을 시겨주옵데다.

동더레 머리허민 동부자미 솟아나곡 서러레 머릴허민 서가난을 시기곡 남더레 머리허민 남장수를 시기곡 북더레 머리허민 북단명을 시겨근 훼복을 시겨줍데다.

할마님 굴레⁷²⁾ 뱃긴 머리 뒤엇더라. 이에 서신국 구라⁷³⁾ 인간에 강 헤명을 허영 오랜 허난 서신국은 본당에 장적문세 호적문세 걸어 간다.

준지⁷⁴⁾지기 책갑⁷⁵⁾지기 거느려 인간에 누려 사 헤명을 허레 누리노렌 허난 할마님은 부름섭 부름섭에 들은난 서신국이 인간에 헤명을 허레 오랏젠 허난 들어사명 나사명 공고 허십네다.

60) 봉에바지 : 솜을 넣어 만든 바지

61) 코제비보선 : 코가 뽕족 접힌 보선

62) 노각성에 주부연줄 : 하늘에 오르내리는 길. 하늘 옥황에 오르내리는 넝쿨 줄

63) 뱃굿딘 : 바깥에는

64) 구덕삼승 : 아기를 눕히는 구덕을 지키는 신

65) 걸레삼승 : 아기를 업는 멜빵의 수호신

66) 산천 : 조상의 뒹자리

67) 간지 : 뺨

68) 상가메 : 상(上)가마(旋毛)

69) 싹영 : 쓸어

70) 부뜨 : 짧고 모자란

71) 신뵘 : 신(身)뵘

72) 굴레 : 마소의 머리카락에 씌우는 그물 따위

73) -구라 : -한테

74) 준지 : 진주

75) 책갑 : 책갑(册匣)

“어딧 할마님 뵈니까.”

“난 인간생불할마님으로서 네 조손 후손 손메⁷⁶⁾가 후나 잇이난, 좋은 준지나 체급시겨줍센.”

헨 나오라 갑데다헤. 서신국이 생각헤연 보난

‘이 늙은이가 막상막 헤여도 핏네 나는딜로만 뎡기는 늙은이로구나. 이만허민 어떻허리.’

할마님 조손 신디 강

“준지지기 책깅지기 거느령 강 할망조손 신디 강 얹어진디 얹어지게 후곡 틀어진다 틀어지게 헤 여불렌.”

허난 할망 조손신딘 얹어지고 틀어지고 영 헤연 영 헤연 열두 송흠을 불러주어간다. 할마님이 조손은 안안⁷⁷⁾ 금금드리 생각을 헤연 보난

‘제도 내가 네운 조손인디 내 말을 거역 헤엿구나.’

할마님이 그 떼엔 용심이 난 서신국이, 아덜이 그날 예, 후를 낳은 인간 혼서를 헵데다. 가메부출⁷⁸⁾에 연부출에 녁메 무출에 딸랑갑데다. 가는 날 저녁에 서신국 메누리안티 생불을 주어간다. 서신국 메누리는 아읍열 돌 준삭 과만차도 어딜로 몸 갈를⁷⁹⁾ 처릴 몰라간다.

서신국은 메누릿 머리로 밧을 가다실피 죽을 소경 뵈엿구나. 서신국은

“아이고 메누리 죽는 꼴을 어떻 보리.”

방 안느로 간 문을 중간 누웁디다에.

서신국 마누라는 금금드리 생각헤연 보난

‘이이고 옥황에 천왕보살님후고 서신국후고 둘도 없는 친구로구나.’

천왕보살신디 올라간

“소실이 약소 질수 허우덴.”

소실 말을 다 곁으난 천왕보살님이 단수육갑 오행팔괘를 지평 곧는 말이

“할마님 노실이 뵈엿수다. 할마님 노실을 풀려사, 메누리도 살리곡 조손후손이 얼굴을 봄니덴.”

이 말을 곁아 가웁디다에.

“이 만허민 어떻 허리오.”

할마님 법당 앞더레 노람지를 끌아간다. 할마님 앞이 엷디헤연 진양도푹에 청세띠를 입언 엷디헤연

“할마님 과연 잘못 헤엿수다. 이번 혼 번만 네 조손 후손 손메 보게 해주곡 우리 메누리 살려줍서.”

굽어 들어간다. 할마님은 들며 나며 젓눈⁸⁰⁾으로 베리어 보난 서신궁이 엷데허연⁸¹⁾ 빌엄구나.

‘요 늙 뜨집⁸²⁾을 보저.’

76) 손메 : 손으로 할 수 있는 솜씨나 기량 따위

77) 안안 : 안고

78) 부출 : 문짝 등을 만들 때 기준이나 중심 뼈대가 되는 테두리나무

79) 몸 가를 : 해산하는

80) 젓눈 : 결눈

81) 엷데허연 : 엷드려

82) 뜨집 : 의향. 마음 속

모진 광풍 부름 한 주제를 더 붙여간다. 서신국은 진양도폭 자락이 찢어지도록 업데헌디 업데 헤연, 사쨌헤연 할마님 시전에 빌엄구나. 그 떤엔 할마님이 생각을 허난

‘아이고 여인이 몸이 뒹곡 비는 놈안틴 지는 법이로구나. 이만 허민 어떻 허리.’

할마님이 노각성이 주부연쫄로 느려삽디다. 머리도 짓물 씨더지어 간다. 부쁜 빠는 느추와져 간다. 열두 신빠 물러앗저 아이고 서신국 메누린 인간 해복을 헤여갑데다에-. 해복은 헤여도 눈도 코도 엇인 애기로구나 그 떤엔 따시 서신국에 할마님앞이 업디헤연

“할마님아 할마님과 과연 잘못 헤엿수다. 나 조슨 그전 얼굴을 베와 줍서. 나 조슨 좋은 얼굴 베와 주게 허민 할마님 조슨도 그전 얼굴을 내 뵈와드리쿠다에-.

“어서 걸랑 기영 험서.”

그 떤엔 할마님이 용심을 네연

“네 조슨 너도 네 조슨 좋은 얼굴을 보고 싶으나. 나도 내 조슨 좋은 얼굴을 보고 싶구나.”

“어서 기영 허저.”

할마님

‘비는 놈안틴 지는 법이로구나.’

츨썰 흥 제 품에 콤어 놓고 은고세⁸³⁾를 콤에 품어 앓영 간 애기야 콧주덩이⁸⁴⁾를 간 조악허게 건드리난 천하도령이 솟아납데다.

그 떤엔 서신국이 곤는 말이

“할마님아 할마님아 나 기술이 저 나 기술이 아멩⁸⁵⁾ 종덴 허여도 할마님 기술만인 못 험네다. 할마님 공을 갇으쟁 허민 쉬운데자 수페건지⁸⁶⁾ 머리 비영 짝신⁸⁷⁾ 삼아 용겡길⁸⁸⁾ 지영 할마님에 올린 덜사 할마님 공을 들라일라 다 갇을 수가 잇십네까. 할마님 과연 잘못 헤엿수다.”

할마님에 업데 험디다.

2) 동이용궁할망본풀이 - 1

동이용궁 큰할마님은 아방국은 동이용궁 어멍국은 서이용궁입데다. 예에 구 월 구 일 탄생험데다.

그 떤엔 그 시절에 임박서 시절 후에 애기 엇어 무위후난 처녀 물고이서⁸⁹⁾

‘야 애기 인간생불을 줍센.’

헤연 석 돌 백일 불공을 드립데다. 석 덜 백일 불공을 드립데다.

동이용궁 따님애기 구 월 구 일 탄생후난 흥 설 두 설적인 어머니님 가슴에 앓앙 무렵에 앓앙 젓고

83) 은고세 : 은가위

84) 콧주덩이 : 코를 낮게 이르는 말. =콧주베기. 콧중머리

85) 아멩 : 아무리

86) 수페건지 : 무성한 띠머리

87) 짝신 : 짝신

88) 용겡길 : 짝신 끈

89) 물고이서 : 물가에서

고리 툄은⁹⁰⁾ 쨌⁹¹⁾, 두 설 세 설 나가난 아버지 무렵⁹²⁾에 앓안 온조삭흔 쨌, 너데섯 설 나가난에 아이 고 하르바님 삼각쉬엄⁹³⁾ 흘튼⁹⁴⁾ 쨌, 예실곰 설 나가난 동네 너른 날레⁹⁵⁾ 허튼⁹⁶⁾ 쨌, 쨌 찻 종저에 막 음준 쨌여

“이런 종자 놔 뒷당 집안 허주나키여⁹⁷⁾. 불효 주식이여.”

아방 눈에 부모 눈에 글리 시찌 납데다. 무쇄설갑⁹⁸⁾쟁이 불러다가 무쇄설갑을 째에와근 무쇄설갑 쪽에 담안 상거십주석통쨌⁹⁹⁾ 절로 생강 체완 죽으라고 동이요왕더레 띄와분다. 들물¹⁰⁰⁾ 쑤에 동이 와당¹⁰¹⁾ 쑤물 쑤엔 서이와당 흥당망당¹⁰²⁾ 떠 뎡기단에¹⁰³⁾ 후를 날은 임박서 시절에 애기 엇언 처녀 물기이서 석 돌 백일 불공 후옵데다.

처녀 물기이서 임박서 시절 개문게철허렌 글 삼 쨌 쑤 띠와부난, 야 석 덜 백일 짜 쨌는 날은 임박 서님이 저 바당더레 베려사천 해영 베려보난, 야 무쇄설갑이 둥글둥글 더 올람구나.

“네게 테운 물건이건 이레 옵센.”

허난 처녀 물기이레 백무레왓더레¹⁰⁴⁾ 치긋어 오릅디다. 무쇄설갑을 개문게철을 올라 베려보난 임박서가 개문게철허렌 글 삼 쨌 쑤젓구나. 개문게철 해영 상거십주석통쨌 열안보난 야 꾀긋든 애기 씨가 앓앗구나.

“아이고 이만허민 어떻 허리오.”

“어떤 일로 이 불공을 헤염숫과.”

임박서 곁는 말은

“우린 인간에 난 인간생불이 엇이난 인간생불을 줍센 석 돌 백일 불공을 드림수덴.”

허난

“나가 인간생불 할마님이노렌.”

허난

“경 허건 인간생불을 줍센.”

허난 아방 몸엔 석 돌 열흘 어멍 몸엔 아오열 덜 준삭을 체와간다. 열 덜이 쨌여도 몸은 못 갈라간

90) 툄은 : 뜯은

91) 쨌 : 죄

92) 무렵 : 무릎

93) 쉬엄 : 수염

94) 흘튼 : 꼭 조인

95) 날레 : 이엉

96) 허튼 : 흘다

97) 허주나키여 : 좋지 않은 소문 나겠다

98) 무쇄설갑 : 무쇠 석갑(石匣)

99) 상거십주석통쨌 : 상(上)거십. '거십'은 자물쇠형. 칭을 한 주석(朱錫) 자물쇠

100) 들물 : 밀물

101) 동이와당 : 동해바다

102) 흥당망당 : 물에 흔들리는 꼴

103) 뎡기단에 : 다니다가

104) 백무레왓더레 : 백모레 밭으로

다. 할마 옥황상저 따님애기 명진국할마님은 인간에 완 서천제미공연¹⁰⁵⁾ 받안 넘어가노렌 허난
“야 어떻 허난에 내가 생불 준 조순 누게가 임이용처데로 생불 준 조순 회복을 시겠느냐.”
느 머리 나 머리 트듬허명¹⁰⁶⁾ 싸와갑데다.

“나가 생불 할마님이우다.”

“나가 생불 할마님이우다.”

멩진국따님애기후곡 간이 동이용궁큰할마님하고 싸와가난 옥황상제에선 천하를 굽어보난에
“느네덜 경 싹지¹⁰⁷⁾ 말아근넵에 꽃을 싱경 꽃번성허는 데로 저승할망 이승할망을 굽 갈르라에-
“어서 걸랑 기영 험서.”

수반에 은수반을 네여 주언 예 멩진국 할마님하고 동이용궁 큰할마님하고 혼 날 혼 시 꽃을 심엇
더라. 수돔¹⁰⁸⁾ 주멍 키와 가는 게 동이용궁 예 할마님앞에 꽃은 불리도 웨 불리¹⁰⁹⁾여. 가지도 웨 가
지여. 앞도 웨 앞이여 동¹¹⁰⁾도 웨동이여 송이도 웨송이를 피어가는구나.

이에 멩진국할마님앞이 꽃은 불리는 웨불리라도 가지도 스만오천육백 가지 가지 꽃덴 송에가 나
고 송에 꽃덴 동이 뒳고¹¹¹⁾ 동 꽃덴 꽃이 피여 송에 송에 벌어지언 동더러 벌은 가지 동청목이 버록
버록 서러레 벌은 가지언 서가난 꽃이 버록버록 남장수 북해수 꽃이 버록버록 피어나 가는구나. 어
서 동이용궁 큰할마님이랑 고에 구할마님이랑 어서 동이용궁따님애기랑 저승할망으로 들어상 얻
어먹곡, 옥황상저따님애기 멩진국할마님이랑 이싱 인간생불 할마님으로 들어사기 곱을 갈라 마련
을 허옵디다에-

3) 동이용궁할망본풀이 - 2

동이용궁할마님은 야 신간 탄싱허난 혼 설 두 설에 어머니 켓가심¹¹²⁾ 두드린 켓척 마련하고, 세
설 적에는 하르바님 무릎에 앉아 삼각술 거시린 켓척 마련험데다. 다섯 설에는 년 날레 허덕여분 켓
척 마련하고, 오섯 설에는 막맹이 허영 물탕 땡기명 동네 존장 놀림헌 켓척 마련허연 일곱 설 나던
헤에 무췌설각 창 수신요왕더레 귀양정베 보네여부니 물 아래도 연삼년 물 우이 연삼년 수수 가운
디 살앗구나. 후를 날은 임박수가 촌이물기이로 완 보니 무췌설각이 잇이난, 바련보난 곱닥헌 월궁
녀 그튼 아기씨가 앓아시난

“귀신이냐 생인이냐.”

“저는 동이용궁 따님아긴데, 혼 일곱 설에 야 버릇이 굿어지난 존데귀척 마련허여 귀양정베 오랏

105) 서천제미공연 : 모든 단골이 공물을 올리고 축원함의 뜻

106) 트듬허명 : 뜰으면서

107) 싹지 : 싸우지

108) 수돔 : 작물 등을 심은 구덩이 주위에 흙을 올리는 것을 '수돔주다, 굳올리다'라고 한다

109) 웨 불리 : 외 뿌리

110) 동 : 금방 맺기 시작한 열매

111) 뒳고 : 맺히고

112) 켓가심 : 가슴

수덴.”

허난 임박소

“우리 인간에 할마님이 었이니 할마님이나 들어사기 어찌 후오릿가.”

“어서 걸랑 기영 협서.”

동이용궁할마님 인간할마님으로 들어사난, 포테¹¹³⁾는 주어도 아기어멍덜 혼 덜 두 덜 석 덜 뉘어 가민 피로 물로 흘르게 헤여불곡 일곱 덜 뉘어 가민 자연낙테 시겨불곡, 열 둘이 넘어서도 네울 줄 몰랑 아기어멍도 죽을 스경 베 안네 아기도, 죽을 스경을 뉘어 가니, 야 이거 인간할마님으로 들어 살 자격이 었덴 허연, 임박소 옥황에 등장을 드러 명진국뚜님야기 인간할마님으로 들어 산 난 명진 국야 할마님 인간할마님으로 들어 산, 야 곱게 웨복을 시겨가난 동이용궁 할마님 혼 사홀만이, 아기 어멍 몸모옥 시건 아기어멍 야 젓줄 세완 젓멕연, 청데 구덕¹¹⁴⁾에 녹전 ‘윙이 자랑 윙이 자랑’ 허여 가난 동이용궁할마님은 놀려들어

“어뎡 허난 나가 생불을 주곡 나가 야 넵곡 현¹¹⁵⁾ 조슨을, 윙이 자랑을 허느넨.”

허난 야 명진국할마님 양반이 우레로써 싸울수가 없어지영

“물잇꼴을 시경 꼴 뉘는 걸 보양 저싱 이상 할마님법 마련허기.”

“어서 걸랑 기영 협센.”

허영 야 명진국할마님 싱근 꼴은 불리는 웨불리라도 가지는 소만오천 가지가 뉘어간다. 동이용궁 할마님 싱근 꼴은 불리는 이레 저레 번어도 금뉴울꼴이 야 뉘어가난

“우리 약속 헌데로.”

그때 명진국할마님은 인간할마님으로 들어 상 생불주곡 조슨덜 그늘 놔줍데다. 동이용궁할마님 저싱할마님으로 들어 상, 조슨덜 열다섯 미만에 정페 정풍 정썰, 불러주기 마련허고 고쁠 행불 불러 주기 마련허곡, 야 호령 꼴 바께야 이거 서천꼴뵈 가게 허던 야 동이용궁할마님 아님네까.

3. 초공본풀이 (서순실 구연)

일만 선비 덜과, 내기 바둑 장귀를 톱데다. 내기 바둑 장귀를 두난에 모두 땃구나. 삼천 선비 일만 선비덜 곤는 말이

“아기 었영 무우유화 헤신디 그 많은 돈을 땅 가민 무스거 허 것 쁘.”

이 말을 7난에¹¹⁶⁾ 임정국 대감님은 두던 바둑을 놓안 집더레 소곡소곡¹¹⁷⁾ 내려오라 갑데다.

113) 포테 : 임신

114) 구덕 : 바구니

115) 넵곡 현 : 날고 한. 날은

116) 7난에 : 말을 하니까

117) 소곡소곡 : 꾸벅꾸벅하며 거침없이 앞으로 다가가는 꼴

내려오라 가난에 향천데소(仰天大笑) 웃음소리에 나간다. 내려오단 보난 말 모른 가막새도, 길짐승도 높은 낭에 새를 깨완 오조조 깨왔구나 향천데소 웃음 들어 간 보난 비조리 초막살이¹¹⁸⁾ 돌쩌귀 거적문이로구나. 얻어 먹는 게와시¹¹⁹⁾덜이 오망속속 낳은 애기덜 아방안티 있던 아기가 어멍안티 가만 웃음 웃고, 어멍안티 있던 아기가, 아방안티 가 가난 웃음 웃어가난

“난 무신 복력 팔전고, 집더레 내려오라 간다 날만 못헌 얻어 먹는 게와시도, 애기 잇영 저추룩¹²⁰⁾ 향천데소를 웃는다.”

집이 오란 안느로 문을 중간¹²¹⁾, 대성통곡을 울어 가는구나.

느진덕이 정하님¹²²⁾ 안상노기 토용칠반상 출련¹²³⁾ 들어가건 짐진국이 부인님 근는 말이

“헌저¹²⁴⁾ 이 밥을 먹읍서 이 밥을 먹으면 웃을 일이 납니다.”

그 밥을 먹헌 상을 물리란, 앞 데자문, 능나도비를 열어 놓안, 은단팽에 서던마게 막안 놓안 촘실¹²⁵⁾ 칠곱 반 묶어근, 각진 장판¹²⁶⁾에 이레¹²⁷⁾ 둥구령¹²⁸⁾ 저레 둥구력 헤여도 웃음 아니 오란, 울음을 울 어간다.

그 때에 동계남은 은중절 서계남은 상세절 남계남은 농농절 북하산은 안동 미양절에서, 훈처¹²⁹⁾ 직헌¹³⁰⁾ 데서님 당도 파락뒤엇고나 절도 파락뒤엇고나 하늘 골른 굴송낙¹³¹⁾, 두 귀 누른 굴장삼¹³²⁾ 아강베포¹³³⁾ 직부잘리, 호롬중치¹³⁴⁾를 들러메헌 권제¹³⁵⁾를 받으레 천하 임정국대감님 집더레 도누리며¹³⁶⁾

“소승은 절이 뵙니다-.”

임정국이 대감님 부베간이,

“어느 절당에 데서님 뵙네까.”

“동계남은 은중절 서계남은 상세절 남계남은 농농절 북하산은 미양안동 절이 살암수다. 당도 파락 절도 파락 뒤헌 권제삼문 받아다 멍 없는 이 멍을 주저 복 없는 이 복을 주저. 생불 없는 주승은

118) 비조리 초막살이 : 새리 따위를 엮어 지은 집. 형편이 좋지 않게 엮어서 지은 초막

119) 게와시 : 개와시 = 동녕비치. 동녕아치. 거지

120) 저추룩 : 저렇게

121) 중간 : 잠그고

122) 느진덕이 정하님 : 하녀를 일컫는 말. 보통 '하님'으로 부름. '느진덕'은 느린 행동의 표현인 듯

123) 출련 : 차려

124) 헌저 : 어서 빨리

125) 촘실 : 촘실. 명주실

126) 각진 장판 : 유기를 칠한 좋은 장판

127) 이레 : 여기

128) 둥구령 : 굴려서

129) 훈처 : 부처(佛陀)

130) 직헌 : 지키는. (직후다)

131) 굴송낙 : 꼭지가 하나인 고깔

132) 굴장삼 : 소매 폭이 넓은 장삼

133) 아강베포 : 중이 재미(齋米)를 얻으러 다닐 때 지는 멜빵인 듯

134) 호롬중치 : 중이 재미(齋米)를 얻으러 다닐 때 지는 자루

135) 권제 : 권제삼문. 중이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부처에게 올리기 위하여 빌어가는 재미

136) 도누리며 : 도닐며. 주위를 맴돌며 걸으며

생불을 주젠 권제를 받으레 내렸습네다. 높이 들러 늦이¹³⁷⁾ 시르르르, 혼 방울이 떨어지민 멩도 떨어집네다 복도 떨어 집네다.”

권제를 받은 나가젠 허난 임정국대감님 굳는 말이

“데서님아 데서님아 수주팔자¹³⁸⁾ 오용팔관 단수육갑이나 짚어봅서. 영 아기가 엇이렌 현 팔저과.¹³⁹⁾”

오용팔관 단수육갑을 지프멍 굳는 말이

“임정국에 대감님아 아기 엇영¹⁴⁰⁾ 무우유화 허렌 현¹⁴¹⁾ 팔전 아니우다 우리 법당에 영금이 좋으난 오라건 법당 수룩을 올려¹⁴²⁾ 보민, 아기가 있을 듯 허옵네다.”

황지국 대감님 권제 받았 먼정¹⁴³⁾에 소곡소곡 나고 간다. 김정국이 대감님 부배간이 강모디는 강나룩¹⁴⁴⁾ 수다비¹⁴⁵⁾는 수나룩 모다 비는 모나룩 가삿베도 구 만장, 송낙베도 구 만장 두릿베도 구 만장 마바루에 바루 바루 시꺼¹⁴⁶⁾ 간다. 금마답에 수리 두어간다. 올레¹⁴⁷⁾에는 막음 두어간다. 첩첩 산중에 올라간다. 싱근¹⁴⁸⁾ 돌에 물팡돌¹⁴⁹⁾이 잇언 쉬언 앓아시난 네눈이 반동개¹⁵⁰⁾가 들이 쿵쿵 네 쿵쿵 주꺼¹⁵¹⁾ 가난, 양반을 보민 네 발을 주꿍고 중을 보민 양발을 들렁 주꿍곡 쌍늬를 보민 누어근 주꾸는 네눈이 반동개가, 네 발을 들런 들이 쿵쿵 네쿵쿵 주꺼가난 데서님이 굳는 말이

“소소중아 소소중아 먼정에 나고 보라. 어느 양반이 떡에서 법당 수룩을 오라시니.”

“먼정에 나고 보니 임정국 대감님집이서 수룩을 오랏습네다.”

절간 법당 안으로 소곡소곡 들어간다. 올레에는 막음 둔다 금마답 수릴 두어간다.

갓영 간걸로 상탕에 메를 짓고, 중탕에 모욕허고 하탕엔 수죽 씨언 은푼체에 도금을 올린 돈아 올뎨 월광님 지어 갈 뎨 일광님, 중천비당 당돌림 옥계 천신님도 사나사나, 백일불공을 드립디다. 데서님 굳는 말이

“임정국대감님아 벅 근이 차민은 아들이 나고, 혼 곁량이 떨어지민 뎨 주식이 날 듯 험네다.”

꼬까막은저울데¹⁵²⁾로 저울이난, 혼 곁량이 떨어지었구나.

“훈저 내려 갑서. 합궁일을 받아근 천상베필을 무어 봅센.”

137) 늦이 : 알게, 낮추

138) 수주팔자 : 사주팔자

139) 엇이렌 현 팔저과 : 없으라는 팔자입니까

140) 엇영 : 없어서

141) 허렌 현 : 하라는

142) 수룩을 올려 : 수룩 들이다. 잉태(孕胎)를 못하는 여인이 잉태하도록 빌다

143) 먼정 : ‘먼올레’에 마련되어 있는 정낭

144) 강나룩 : 발벼의 일종. 거친 땅에서도 경작이 되는 발벼

145) 수다비 : 수담(水畜), 논

146) 시꺼 : 실러

147) 올레 : 제주도 집 특유의 공간으로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좁은 길목

148) 싱근 : 심은

149) 물팡돌 : 말을 타고 내릴 때 밟고 타고 내릴 수 있게 만든 받침대 = 물팡, 팡돌

150) 네눈이 반동개 : 눈가에 점이 있어 네 눈으로 보이는 제주산 토종 사냥개

151) 주꺼 : 짚어. ‘주끄다’는 개가 짚는다는 뜻

152) 꼬까막 은저울데 : 까마귀 주둥이 같은 갈퀴에 달아매게 된 옛 저울

허난, 절간 법당을 하직혜연 내려 오라 간다. 해는 열락 서산에 다 지어가는구나. 집이 오란 합궁 일을 발안, 천상베필을 무으난 석 덜 백 일이 뉘여가난, 안산 유테가 뉘여가는구나.

입던 옷엔 뚝네¹⁵³ 나고 먹던 밥엔 밥에 골네¹⁵⁴ 나고 먹던 장엔 장칼네¹⁵⁵ 먹던 물엔 펄네¹⁵⁶가 나 간다.

다서으서 일고으덥 아음 열덜은 당후난 아긴 납데다. 여주식이 납데다. 임정국 대감님이 아기 이름이나 지어 보저

“느진덕이 정하님아, 먼정에 나고 봅서 때는 어느 때가 뉘여시니.”

“아이고 때는 이 산 앞은 발이 번어 수다. 저 산 앞은 불이 번어 수다. 저 산엔 노가 단풍이 진 듯 험네다.”

이 아기랑 이 산 앞이랑 발이 번고, 저 산 앞이랑 줄이 번영 왕데월상 금하늘, 노가단풍아기씨로 이름을 지와 가옵데다.

노가단풍 아기씨, 혼 설 두 설 열다섯은 십오 세 당험데다.

황금산이 신령이로구나. 천하임정국 대감님 천하 베실 살레 읍서 펜지 답장 오라 간다. 지에 내려 짐진국 부인님 지에 베실 살레읍서 펜지 답장 오라 간다.

부베간이¹⁵⁷ 앓안¹⁵⁸ 걱정을 험디다 아덜 주식이 그뜨민¹⁵⁹ 책실로나 데령¹⁶⁰ 갈 걸, 여주식이랑 데령 가지도 못후곡 어뎡 허민 좋고, 의논을 허연 느진덕이 정하님을 데려당 곤는 말이

“느진덕이 정하님아, 아기씨 궁 안네 놓아건 궁 안에서 밥을 주고 옷을 주고, 행공발신 시경 우리 덜 베실 살레 갖당 올 때까지, 아기씨 궁 안에서 키와주민 갖당 오랑 니 네덜 종반문설 시겨주멘.”

허난

“어서 기영 험서¹⁶¹.”

아버지가 증그정¹⁶² 어머니가 문을 증그정 마은으덥 모람장 서른으덥 빗골장¹⁶³, 스물으덥 고무 살장, 아방 증근 열쎄 어뎡 가져간다 어뎡 증근 열쎄 아방 가져근, 이른으덥 주심통췌¹⁶⁴ 질루 정강 체와 가는구나.

임정국대감님 천하 베슬 살레 올라가고 짐진국이 부인님 지엿 베실 살레 내려가난 황금산이 주접 선성님은 후를날은 삼천선비 일만선비들광, 바둑 장귀를 두어갑디다 월출 동경은, 허공에 둥-허게 떠 올르난

153) 뚝네 : 땀냄새
 154) 골네 : 굵은 냄새
 155) 장칼네 : 장 냄새
 156) 펄네 : 개펄 냄새
 157) 부베간이 : 부부간에
 158) 앓안 : 앉아서
 159) 그뜨민 : 같으면. -이라면
 160) 데령 : 데리고
 161) 기영 험서 : 그렇게 하십시오
 162) 증그정 : 잠그고
 163) 빗골장 : 살장의 종류
 164) 통췌 : 자물쇠

“저 돌(月)은 곱기는 곱다만은 계수나무 박혔구나.”

영 곱아가난¹⁶⁵⁾ 주접선성님 근는 말이

“저 돌이 곱긴 고와도 가운데 계수나무 박힌 듯 후고, 저 돌 보단 더 고운 아기씨가.”

금세상에 컴덴¹⁶⁶⁾ 허난

“금세상에 크는 아긴 누게고.¹⁶⁷⁾”

노가단풍 아기시엔 허난

“강 본메 본짱¹⁶⁸⁾을 가정 올티야¹⁶⁹⁾.”

“가정 올 수 잇입네다.”

영 허난, 황금산 주접선성님은 권제를 받으레 네리저 하늘 7큰 굴송낙, 두 귀 높은 굴장삼, 아강 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 웨오 누다¹⁷⁰⁾ 메어 가는구나. 백파염줄은 목에 걸고 손에 단주를 심어권 권제를 받으레, 금세상더레 소곡소곡 네리난 천하임정국 대감님 먼 올레더레 들어서며 나서며

“소승은 절이 뵈네다.”

아기씨가, 궁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워낭소리 난 듯 허난

“느진덕이정하님아, 먼정에 나고보라. 아바님이 오는 워낭 소리가, 어머님이 오는 워낭 소리가 나고 보렌.”

허난 느진덕정하님이 먼 올레 나산 보난 하늘과 7뜯헌¹⁷¹⁾, 데서님이 잇었구나.

“어느 절당에 데섭네까.”

“동계남은 은중절에 살ampus다. 서계남은 상세절에 살ampus다. 남계남은 농농절에 살ampus다. 북하산은 미양안동절에 살ampus다. 당도 파락 튀고 절도 파락 튀고, 권제 삼문을 받으레 내려신디¹⁷²⁾ 우리법당에 오랑 백일불공 드령 낳은 아기시가 금년 열다섯이 당허연, 멩도 부족헐 듯후고 복도 부족헐 듯 헤여 권제를 받으레 내렸수다.”

안으로 들어 간 아기씨 상전님전, 소실 말을 허난

“난 아버지 증근 열췌 어멍 갖영 가고 어멍 증근 열췌 아버지 갖영 가부난¹⁷³⁾ 난 못 나갈 거난 느진덕이 정하님아, 니가 권제를 갖영 강 네어뵈 오렌.”

권제 받으레 권제 갖영 먼정에 나고 가난

“아이고 오것사¹⁷⁴⁾ 무신 말 입네까, 느진덕 정하님 정성은 그뜯 허우다마는, 느진덕 정하님 훈 뵈 주는 것광 아기씨 손으로, 훈 홉 주는 거 맞살 수가 없읍네다. 강 경 곱 읍센¹⁷⁵⁾.”

165) 곱아가난 : 말하니까

166) 컴덴 : 크고 있다고

167) 누게고 : 누구인고

168) 본메본짱 : 제주 무속에서 증거가 될 만한 사물. 본디 징표나 신의 명함

169) 올티야 : 오겠느냐

170) 누다 : 바로

171) 7뜯헌 : 가뜯한

172) 내려신디 : 내렸는데

173) 갖영 가부난 : 가져가버리니

174) 오것사 : 이것이

175) 강 경 곱 읍센 :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허난 안네 드르완¹⁷⁶⁾ 그 수실을 고난

“강 곁읍서¹⁷⁷⁾ 아방 중근 열췌 어멍 갖엉 가고 어멍 중근 열췌 아방 곳앙 가부난 못 나가켄.”

허멍 곁으난 밖에 간 데서님 안티 그 말을 곁으난

“느진덕이 정하님야 그 중근 문을 올라지민¹⁷⁸⁾ 아기씨 손으로 권제를 네여 주크겐¹⁷⁹⁾ 강 들어방 읍서.”

강 보난

“중근 문만 열어주민, 나데로 이 문을 열영 강 권제를 네여 주크메, 이 문을 열어두 렌.”

영 허난 황금산 주점선성이로구나, 하늘옥황 풀려옴던 천왕낙화 금정옥술발- 들러 받으난 천하가 요동허고, 지하가 요동허고 마은으덥 모람장, 서른으덥 빗골장 스무으덥 고무살장, 일은으덥 조심통췌가 질로¹⁸⁰⁾ 절강허게 열아지어가는구나.

노가단풍조지맹왕 아기씨는 하느님이 보카¹⁸¹⁾ 청너울을 씨어 간다. 지하님이 보카 흥너울을 씨어 간다. 아니 보던 중에 얼굴 베오리야 뵤너울 씨어 간다. 권제를 갖언 먼정에 소곡소곡 나왔구나.

주점선성님은 전뎛기를, 혼 짝 귀는 물곡 혼 짝 귀는 잡앗구나 혼 짝 손은 장삼 속에 담아두언, 권제를 네여 주난

“높이 들렁 낮이 시르릉 시르릉 비읍서, 혼 방울이 멩도 떨어지고 복도 떨어집네다.”

“혼 짝 손은 어디 갖느냐 니 정귀精鬼랑 물었느냐 나 정귀랑 물었느냐.”

“혼 짝 손은 옥황에 단수육갑 지프레¹⁸²⁾ 갖습네다.”

높이 들러 낮이 시르릉허게 권제를 비와가난 다 비와 가는디, 전뎛기를 짝 허게 물었단 걸 네려부난 권제는 땅 알더레¹⁸³⁾ 떨어지엇구나. 황금산 주점선성님은, 은수저를 꺼네멍 고는 말이

“이 거 떨어지면 안 췌 거난 이 은수저로 방울 방울 좇어놉서.”

은수저로 방울 방울 좇을 새에, 없던 손이 네 들앙 아기씨 머리 삼세 번을 쓸어가난 줌막줍막 누레여 가는구나에-

“이 중 저 중 퀘췌헌 중 양반이 집이, 권제 받으레 못 덩길 중이로구나.”

“후욱 맵서 노욱 맵서. 석 덜 백일 녀으민 나 생각이 무디무디 날 거난 그 때랑 철췌데 그뎛¹⁸⁴⁾ 보멍 좇앙¹⁸⁵⁾ 읍서.”

이 말을 곁아두언 황금산 주점선성님은 혼 번을 들러 치난 천하가 요동을 한다. 두 번을 들러 치난 지하가 요동 한다. 삼세 번을 들러치난 일은으덥 조심통췌 질로 절강 증가지어 가는구나-

176) 안네 드르완 : 안에 들어와서

177) 곁읍서 : 말하십시오

178) 올라지민 : 열고 나면

179) 주크겐 : 주겠다고

180) 질로 : 저절로

181) 보카 : 볼까

182) 지프레 : 짐으러

183) 알더레 : 아래로

184) 그뎛 : 틈, 경계

185) 좇앙 : 찾아서

노가단풍 아끼씨

“느진덕이 정하님아, 굿사¹⁸⁶⁾ 근 말은 필아곡절 혼 일이며. 먼정에 나 강, 가건 송낙귀도 끊영 오고 장삼귀도 끊영 오렌.”

허난 송낙귀도 끊영 오라 간다. 장삼귀도 끊영 오라 가는구나에.

석 덜 백일 당해 가난에, 아끼씨가 죽을 스경 뒤편에 가는 구나. 아이고 먹던 밥에 밥 골네 나고, 먹던 물엔 펄네 나고, 입던 옷엔 땀네가 나고 야겐 흥졸 뒤편에 가는구나.

“아이고 아끼씨상전 죽을 사경이 닥치난 어땡허민 좋코.”

“세곰 세곰 연드레 먹고 저라 여미저나 먹고 저라.”

느진덕 정하님 상저님 살리젠 송동바구니¹⁸⁷⁾ 옆에 끼영 앓던 굴미굴산¹⁸⁸⁾ 아야산 신산곶을 올라간 여미체 연드레를 타 앓던 높은 낭에 열메로구나 딸 수가 엇이난, 황금산이 신령이로구나, 모진 광풍이 불어 가난 모진 광풍에 열멘 떨어지언, 송동바구니에 문딱¹⁸⁹⁾ 담안 오란, 아끼씨 상전 문딱 안네여똥¹⁹⁰⁾ 아끼씨는 죽을 사경 닥치난, 아니 웰로구나. 천하임정국 대감님도, 베실 그만 살양 읍서 삼년 살 건 석 덜에, 석 덜 살 건 단 수홀에 무청 읍서. 지에 짐진국부인님도 삼년 살 베실 석 덜에 석 덜 살 베실은 단 사홀에 무청 읍서. 아끼씨 상저님 죽을 사경 닥쳐수다.

어서 천하베슬 뭇간¹⁹¹⁾ 들어온다. 지엿베슬 뭇가근 들어오랏구나. 일은으뵈 고무살강 질로 절강 열여 놓아간다. 아끼씨상전님은 아바님전 선신 가져. 은상식도 두리 논다 분상식도 두리 논다. 헤 거울 몸 거울 두리 놓아간다. 풀 산치메 입어 앓안, 남부모에 여주식이난 소곡소곡 고계 숙연, 소곡소곡 먼정에 간 아바님안티 선신문안을 올리난

“아이고 나 딸아 착허다. 어땡연 눈은 곰방눈¹⁹²⁾이 뒤편에 입을 작박¹⁹³⁾ 입이 뒤편에 야겐¹⁹⁴⁾ 흥졸이 뒤편에, 베는 무사 동동 베가 뒤편에 발은 무사 동동 발이 뒤편에시니.”

“아이고 아바님아, 느진덕정하님 뒤편에 삼식을, 흙 삼식을 헤영 놔두렌 허난 뒤편에 삼식을 허고 아바님이 오는가 어머님이 오는가. 창궁기로 발을 동동 굴리단 보난 눈은 곰방눈이 뒤편에, 야게는 흥졸이 뒤편에 베는 두릉베가 뒤편에, 발은 동동 발이 뒤편에수다.”

“나 딸아기 착허다. 어머님전 선신 가라.”

아이고 여주식에 여부모난, 무신 송이 잇이리야. 어머님안티 갈 땡 헤 거울 몸 거울도 চল리지 안헤고, 풀죽은 치메 입어 앓안, 조직조직¹⁹⁵⁾ 헤연 걸언 간 선신문안 허난

“아이고 이 나 딸아 궁 안네도 부름이 들어시나.¹⁹⁶⁾ 눈은 무사 곰방눈이고 야겐 무사 흥졸이고 베

186) 굿사: 금방

187) 송동바구니: 작은 대바구니

188) 굴미굴산: 깊은 산을 일컬을 때 씀

189) 문딱: 모두

190) 안네여똥: (물건을) 드리고

191) 뭇간: 마쳐서. =무끄다, 뭇다, 뭇다

192) 곰방눈: 곰박눈. '곰박'에 난 구멍 같이 일그러진 모양

193) 작박: 주걱

194) 야겐: 목(經)은. 야게 =아가기, 야개기

195) 조직조직: 같은 일을 연달아 갖게 치르는 모습

196) 궁 안네도 부름이 들어시나: '궁 안에도 부름이 들었다'는 주로 처녀가 임신했다는 표현

는 무사 등등 베가 꿰고 발은 등등 발이 꿰여시니.”

아바님안티 골은 말 쿠짱후게¹⁹⁷⁾ 골으난

“아이고 으년아 나도 헤 본 헨 행실이어. 이 거 어떻 헨 일인고.”

은데양에 물은 떠다 놓안 젓가슴을 헤천 바레여 보난, 아기씨 베 안에 종이 아기덜 삼형제가 앓앙 컴구나.

“이 년 저 년 죽일 년아 잡을 년아. 데동통편에 청뎃섭에 목 걸령 죽일 년아. 궁 안네도 부름이 들 여시냐. 앞 밧디¹⁹⁸⁾랑 작두를 걸라. 뒷 밧디랑 버텡¹⁹⁹⁾을 걸라.”

조각눔을 불러다 동이 푸짱 저이 푸짱, 아기씨 죽이젠 허민 느진덕 정하님 근는 말이

“아이고 상전님아 나가 잘못이우다 날 죽입서.”

느진덕 정하님 죽이젠 헤여가민 아기씨 근는 말이

“아고 아바님아 어머니야, 느진덕이 정하님 무신 췌가 잇수파. 나 잘못이우다 날 죽입센.”

허난

“아이고 이거 허나 죽이쟁 허당, 다섯 목숨이 죽일로구나. 아니웨영 아방눈에 골리난다²⁰⁰⁾. 어멍 눈에 시찌난다.²⁰¹⁾ 어서 나고가라.”

아바님전 들어 간, 살암 십서.

“나 딸아기야 어머니 허는 일 어쩔 수가 없구나.”

금봉체²⁰²⁾ 네여 주어

“나 아기야, 가당 가당 못 넘은 일 잇건 금봉체 두리 놓앙 넘어가라.”

금봉체 네여 주난 느진덕 정하님 거느리어 시군문 바곳디²⁰³⁾ 나사난 동서막금헌 질²⁰⁴⁾ 어딜 가코²⁰⁵⁾. 가단 보난 굴형에 진 물에 동산더레 찰랑찰랑 치뎃기난

“느진덕이 정하님아, 저건 어떤 녀시파.”

“부모 놓아 두영 주식 먼저 나오난 건물 건드리우다.”

넘어 간다 가단 보난 관관세 불이 부뎃구나²⁰⁶⁾.

“저건 어떤 녀시파.”

“부모 가심 불 지든 녀시네다.”

관관세도 넘어 간다. 청일산이 당허난 금봉체 두리 놓앙 넘은다. 청수와당 당허난 금봉체 두리 놓 앙 넘은다. 흥일산이 당허난 흥일산도 넘은다. 흑수와당 넘어 간다. 뱅일산이 당허난 뱅일산도 넘어

197) 쿠짱후게 : 바르게

198) 밧디 : 발에

199) 버텡 : 항틀

200) 골리난다 : 거슬린다. 민요에서 음울을 맞추기 위해 사용됨

201) 시찌난다 : 거슬린다.

202) 금봉체 : 금부체(金扇)

203) 바곳디 : 바깥에. 밖에

204) 질 : 길

205) 가코 : 갈까나

206) 부뎃구나 : 불었구나

간다. 벵수와당 넘어 간다. 조심드리 넘으난 건지산이 당허엿구나. 아기 베영 머리 따운 거 보기 싫
 영 건지 영영 건지산 넘어 가난 수 삼철리 낙수와당 당허연, 넘어 가젠 허난 넘어 갈 수가 엇엇구나.
 금봉체를 놓안 두리를 놓아두어도 넘어 갈 수가 엇엇구나. 아기씨 비세 그치²⁰⁷⁾ 울어 간다. 비세 그치
 울단 무정눈에 잠은²⁰⁸⁾ 드난, 요왕 부원군이 오랑

“훈저 일어낭 바레여 봅서.”

거북이가 잇이난

“나 등에 타민 수 삼철리 낙수와당을 넘어 안네쿠다에-²⁰⁹⁾”

일어나난 거북이가 이십데다. 거북이 등에 뒤에 탄난 수삼철리 낙수와당 질을 넘어가난 느진덕이
 정하님 근는 말이

“아기씨 상전님아 감은 암쇄 지장밭디 든 듯 허웁네다.”

어서 열두문이 당허난 인정 걸 돈 엇어 간다. 아기씨 열두복 훗단치메, 복복이 부려근 열두 문에
 인정 걸어 두어근 느진덕이 정하님 으둑 폭치메 네 폭씩 갈라 입어 앓언 황금산에 철쪽데 그릇 보
 명 올라 가단 보난 시군문에 송낙도 혼 짝 귀가 없는 것 잇곡, 장삼귀도 없는 것이 먼정에 걸어지언
 간 송낙도 맞이난 맞앗구나. 장삼도 간 맞차보난 맞앗구나. 철죽데 그릇보명, 절간 법당에 들어가난

“후욕혈 땀 언제고 노욕혈 땀 언제고 날 훗안 온덴 말이 뭇 말 입네까. 후욕 노욕허연, 공이 들고
 지가 들든 알크메 츠나룩²¹⁰⁾을 네여 주건 이 걸 다 깡 읍센²¹¹⁾.”

허난 아기씨로구나 먼정에서 츠나룩을 까젠 허난 니빨로 까젠 허난 니빨이 아프고 손으로 까젠
 허난 손이 아프고, 아기씨 까단 까다근 무정눈에 잠은 오랏구나.

하늘에 부영새, 땅 아렌 도닥새²¹²⁾, 알당에는 노념새²¹³⁾, 밧당에는 시념새²¹⁴⁾ 오조조조 동잇 바위
 에 앓앗구나. 무정눈에 잠자단 엄뜩후게²¹⁵⁾ 일어난

“주워²¹⁶⁾ 저 새.”

다우리난²¹⁷⁾, 부영새덜은 하늘더레 날아가는 게 날게로 나룩²¹⁸⁾ 껍데기 다 불려두언 츠나룩 간건
 들언 곳언 들어 가난

“아이고 이 나룩 깡 오젠 허난²¹⁹⁾, 고쟁은 허엿구나마는 후뉘²²⁰⁾ 중은 두가속²²¹⁾ 출령 사는 법이

207) 비세그치 : 비새 같이. 비새는 비가 올 듯 할 때 잘 우는 새

208) 무정눈에 잠 : 어렵고 괴로운 일이 닳치거나 잠을 이룰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 드는 잠

209) 안네쿠다에 : 드리겠습니다

210) 츠나룩 : 찰벼

211) 깡 읍센 : 까서 오라고

212) 도닥새 : 도둑사(盜邪)인 듯

213) 노념새 : 놀음놀이하는 새

214) 시념새 : '노념새'에 대한 조음구

215) 엄뜩후게 : 깜짝 놀라

216) 주워 : 닭이나 새를 쫓는 소리 =쉬워

217) 다우리난 : 쫓자

218) 나룩 : 논벼

219) 깡 오젠 허난 : 까서 오려고 했더니

220) 후뉘 : 그렇지만, 하지만

221) 두 가속 : 딸린 식구

엇이난 불뚫땅에 네려 강 몸 헤산 헤영 살렌.”

헤엇구나.

시왕곱은 연찢더레 제누립네다-. 불뚫땅을 네립네다. 불뚫땅에 네리난 원구월~ 초으드레²²²⁾ 당허난 본명두가 솟아나져, 알로 낱젠 허난에 아바지도 못 본 그릇이난 어머니님 누단²²³⁾ 조드랭이²²⁴⁾로 나와 간다.

신구월 여레드레(十八日) 당허난 신명두가 솟아나젠 허난 누단 조드랭이는 형님 나난 놀핏네²²⁵⁾가 나고 웬²²⁶⁾ 조드랭이로 나와간다.

삼구월은 쓰무으드레가 당허난 삼명두(三明斗)가 솟아나져 누단 조드랭이는 큰성님 웬 조드랭인 셋성님²²⁷⁾이 나난에

“날랑²²⁸⁾ 어머니 오목 가슴²²⁹⁾ 헤쳐근 나 보저.”

오목가슴 헤천 나오난

원구월~ 초여드레 본명두도 왕이 자랑²³⁰⁾

신구월~ 여레드레 신명두도 왕이 자랑

삼구월~ 스무으드레 삼명두도 왕이 자랑

이 아기덜 아방 엇인 아기덜, 키와 간다.

바농질 허멍 이 아기덜 공부를 시킵네다. 삼천서당에 글공부를 배우젠 허난 돈은 엇고, 이 아기덜 강 여피 강²³¹⁾ 앓앙 먹 굴곡, 굴묵²³²⁾도 강 진으곡²³³⁾ 물심부름 허멍, 이 아기덜이 삼천선비덜광 그 찌 글을 베와 가는 것이, 삼천선비덜은 종이도 잇곡 먹도 잇곡 붓도 잇이난 글을 쓰주마는 이 아기덜은 쓸 글이 엇이난 제를 허연 손바닥으로 꼭꼭허게 눌령 하늘 천 헤여 가민, 이 아기덜토 제 우잇 터레 하늘 천 따 지 글을 베와 가난, 이 아기덜 이름은 젓부기 삼형제로 이름을 지와 가는 구나에-

젓부기 삼형제 글을 베앗구나.

우리나라 상세관 과걸 본덴 허난 삼천선비 일만선비 과거 보레 올라가는 구나.

“아이고 어머니아 어머니아 우리도 과거를 가쿠다.”

“아이고 니네덜 과거를 가젠 허민 어뎡 연 갈 거고.”

“허락을 헤여 줘서.”

어머닌 은석냥을, 훈 사름이 훈 사름이 훈 낭씩 네여 주난 갓엇구나. 갓엇 삼천선비덜광 그찌 상

222) 초으드레 : 초파일(初八日)

223) 누단 : 오른, 오른쪽의

224) 조드랭이 : 겨드랑이

225) 놀핏네 : 피비린내

226) 웬 : 윈

227) 셋성님 : 둘째 형님

228) 날랑 : 나는

229) 오목 가슴 : 명치

230) 왕이 자랑 : 아기를 재울 때 '자랑자랑'하는 소리

231) 여피 강 : 옆에 가서

232) 굴묵 : 아궁이

233) 진으곡 : (불을) 때고

세관더레 올라가난에, 황금산이 신령으로

“아피 가는 선비덜은 과거 낙방이고 뒤에 가는 젓부기아덜 삼형젠 과거급젤 헐로 구나에-.”

부름 썰에 삼천선비덜은, 이 말 들언 좌우 공논 헤여 갑데다.

“우리덜 저거 젓부기 아덜덜 데령 가민, 우리 분명이 과거 낙방이난.”

가단 보난 배나무 배좌수집이 잇입데다.

“이디 강 이 애기덜 이 배낭²³⁴⁾ 우터레 올려뒀²³⁵⁾ 우리가 먼저 강 과걸 보젠.”

“어서 기영 협서.”

“설운 아기덜야, 느네덜 이 집이 가 배나 탕 오라. 우리 돈 혼 낭씩 모여주멘.”

허난

“어서 기영 협서.”

배나무 배좌수집이 올라 간 배를 타는 게 이 아기덜 허리꿈 클런, 배를 타단 보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 헤엿구나. 이 때 삼천선비덜은 상세관에 올름명 동문 서문 남문, 다 잡앗구나 붓전에 강 붓도 다 거두와 간다. 먹전에 강 먹도 다 거두와 간다. 종이전에 강 종이도 다 거두와 가는 구나에-.

그날 저녁 배나무 배좌수 꿈에 선몽²³⁶⁾ 시겨 갑데다. 황금산이 신령으로 배 하나 낭 하나에 청룡 뱀룡이 혈켜지고 틀어지고 선몽을 시기난, 배좌수님은 일어 낭

“이 거 필아곡절 험 일이어.”

나간

“구신이나 생인이나.²³⁷⁾”

“구신이 어찌 이 고단까지 올 수가 잇습넬까. 우리덜은 젓부기 삼형제우다. 배 타레 오란 네려가지도 못하고 영 해수다.²³⁸⁾”

“아이고 설운 아기덜야. 니네덜 바지 다님이나 클러 보라.”

바지다님 클르난 와르랭이²³⁹⁾ 배 털어전, 이 아기덜 삼형제가 네려 오난

“설운 아기덜야 흔적 과거 헤레 오르렌.”

헤연²⁴⁰⁾ 과거비를 돈을 보테어 주어가는 구나에-.

서울 상시관에 올라 가는질에 청만주에미가 누다²⁴¹⁾ 들러 웨우²⁴²⁾, 웨우 들러 누다 질을 갈라 간다.

234) 배낭 : 배나무

235) 올려뒀 : 올려두고

236) 선몽 : 현몽(現夢). 꿈에 나타남

237) 구신이나 생인이나 : 귀신인가 사람인가

238) 영 해수다 :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다

239) 와르랭이 : 와르르

240) 헤연 : 해서

241) 누다 : 오른쪽으로

242) 웨우 : 왼편, 왼쪽

간 보난 동문도 잡아분다. 서문도 잡아불고 남문도 다 잡아 불었구나. 갈 디가 잇이난 풋죽할망네²⁴³⁾ 집이 들어 간 풋죽 훈 사발씩 사먹어 앓언, 시왕버들낭 아래 간 즈음 잡데다. 그날 저녁이, 황금산이 신령으로 풋죽할망한티 선몽을 시기길

“할마님아, 어저께 와난 아기덜 다시 아침이 오랏걸랑, 뽕그랭허게시리²⁴⁴⁾ 밥 멕이고, 웨 손지안 티 강 종이 사곡 먹 사고 붓 상 오렌 헤영, 그 아기덜 글 써 주걸랑²⁴⁵⁾ 상시 관인 지동토인²⁴⁶⁾ 동무류 앞더레 강 그 글을 놔두렌.”

선몽을 시기난 어서 기영 꿈에 선몽을 시견, 듯날 아침²⁴⁷⁾은 당허난 그 아기덜이 다시 오랏구나. 뽕그랑허게 베불게 멕여두고, 종이여 먹이여 붓이여 네 노난 젓부기 삼형제가 큰성님은 천도천왕을 글을 씨고, 셋 성님은 지도천왕을 글을 씨고, 족은 아시²⁴⁸⁾는 인도인왕을 글을 씨난, 웨손진, 물심부름 오랏단 갖영 간, 지동토인 동무류 앞더레 놓아 간다. 이 아기덜은 이 글을 씨어 된 시왕버들 낭아레 간 다기 무정눈에 즈음 자가는 구나에-

상시관 과걸 보아 된 삼천선비 일만선비덜 과거 줄 글이 엇었구나.

지동토인 동무류아렌 보난 난데엇인 글이 잇언, 그 글을 베와 보난²⁴⁹⁾ 천도천왕 지도지왕 인도인왕 천하 멩필이로구나.

“이 글은 이거 누게가 썼느냐.”

“이 글은 젓부기아덜 삼형제가 썼수다.”

“이 아기덜 어디 잇이니.”

“저 디 시왕 버들낭 아래 즈음 잠수다.”

“그 아기덜 강 데령 오라.”

데령 오난

“니네덜이 이 글을 씨시냐.”

“우리가 썼수다.”

“이 글을 다시 혼 번만 써보라.”

“아이고 으것사 못 씌네편까 발가락에 끼와도 쓸만 험네다. 입으로 써도 쓸만 험네다.”

이레 활활 저레 활활 쓰룩 글을 쓰난, 삼천선빈 과거 낙방이고, 젓부기아덜 삼형젠, 큰아덜은 문성급제 셋아덜은 장원급제, 족은아덜은 팔도도장원 급제를 헤여 가는 구나-

급제 허여 가난에²⁵⁰⁾

“어뎡 허난 양반은 과걸 아니주고 종이 아기덜은 과걸 주엄수과²⁵¹⁾.”

243) 풋죽할망네 : 팔죽할머니네
244) 뽕그랑허게시리 : (배가) 불룩하도록
245) 주걸랑 : 주거든, 주면
246) 지동토인 : 관아의 심부름꾼
247) 듯날 아침 : 뒷날 아침
248) 족은 아시 : 작은 동생
249) 베와 보난 : 보아 보니
250) 가난에 : 가니까
251) 주엄수과 : 줘니까

“어떻 허난 그건 줄 알아지크니.”

“베옥상을 찰려주어 봅서²⁵²⁾ 알아 볼 도레가 있습니다.”

베옥상을 찰려주난 술과 고긴 아니 먹언, 그 상 알더레 놓아부난, 그때 그때 술과 고기를 먹어서 민, 우리 심방도 과거 흘 일인데, 그때 술과 고기를 아니 먹어부난 과거 낙방 시겼구나.

그 법으로 그때 그 과것상 못 받은 법으로, 아무디 가도, 책상 반양 맞아근 덩기렝 헤영 공식상 반양 맞이는 법이, 마련 뒤어쑤다.

서울 연주문을 열리민 과거 주켄 허난 삼첨선비 일만선비 연주문을 마쳐도, 어느누게가 맞칠수가 엇어 간다.

젯부기아덜 삼형제 근는 말이

“우리 과거 아니주어도 좋수다. 우리 기술이나 혼 번 부려 보쿠덴.”²⁵³⁾

후난

“어서 기영 허렌.”

후영 큰성님은 우이 마쳐간다. 셋성님은 아레 마쳐구나 족은아씬 가운데 마치난에, 연주문이 와 르랑허게 쓰러지어 가는 구나에-.

과연 과거 줄만 허다. 제쳐 과거 따뎀다. 큰성님은 문성급제 셋성님은 장원급제 족은아씬 팔도도 장원급제 허난, 선배 후배 마호베 거느리어 간다. 쌍드레기 월메물세 벌려독게 연가메 호신체를 네여 주어간다. 영끼 몽끼 파랑당도 영서명끼 네여 주어간다. 어수웨²⁵⁴⁾ 비수에 행금주테 네여주언 이 과걸 헤민 어머니안테 갖영 내려오라 가난 삼천선비덜은 먼저 내려오란, 이 아기덜 너머 벌란허게 낫젠 헤연, 물명지²⁵⁵⁾ 전데로 목을 걸려단, 청뎃섭에 목 걸련, 깊은 궁에 가두아 가는 구나.

이 아기덜 삼형제 와라치라 과거 헤연 내려오라 간다.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탕에 네리난에 느진덕 정하님이, 품펜지 갖영 오란

“아이고 상전님아 상전님아, 과거엔 헛 말이 뭇 일잇파. 큰상전님 어제 그젯날 죽언, 임시 출병막(土壘) 찰려된 품펜지 갖언 오람수덴.”

허난

“아이고 요것사 무신 말인고. 아방 엇인 우리덜 낭 키와근 어멍 보렌 과걸 헤연 오논디, 어머니 죽덴 말이 무신 말인고. 어수웨도 돌아가라. 비수웨도 돌아가라.”

삼만관속 육방하인 다 보네 두어

“우리 어멍 우리덜 낭 키와근. 아이고 어멍 좃저.”

두루막 벗어근 혼 쪽 어깨 둘러메고, 행견²⁵⁶⁾ 벗언 우튼 두건 씨고 먹먹헌 가심이로구나. 머구낭 방장데 지퍼 앓언 어머니 죽은디 본메 본짱 좃아보젠 헤연 어머니 간 출병막을 헤천 보난, 어머니 물명지 단속곳 잇엇구나. 단속곳 본메 본짱 갖영. 어딜 가민 좋코. 워진 하르바님 좃앙 가난

252) 찰려주어 봅서 : 차려줘 보세요

253) 보쿠덴 : 보겠다고

254) 어수웨 : 어수에. 일없이 어정거리는 꼴

255) 가늘기도 가늘다

256) 행견 : 행전(行纏)

“서룬 나아기덜아 느네덜 어멍 좃이컬랑²⁵⁷⁾ 심방질 허렌.”

허난

“아이고 어멍만 좃인덴 허민 심방하고 개를 잡아도 심방질을 허쿠덴.”

허난 베석자리²⁵⁸⁾ 네여주난 그 법으로 신이 성방덜, 신자리 앓앙 굿허는 법이우다. 베석자리 네여
주멍

“나 손지덜아, 아버지 황금산을 좃앙가라.”

가단 보난 어주웨 삼녹거리 서강베포땡에 너사미 삼형제²⁵⁹⁾가 비세 고치 앓안 울엄십데다.

“아이고 서룬 아기덜아, 느네덜 앓안 무사 영 비세 고치 울엄시니.”

“우리 부모도 엇고 켜당도 없고 형제간도 엇수다.”

“오라 우리 육형제 무우게.”

어머님 단속곳을, 느 단쪽으로 들어간 뉘쪽으로 나오란 육형제를 무언

“요디 지경 앓아 이시라 허민 좃앙 올 사름이 잇덴.”

허연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땡에 놓아 두언, 황금산에 올라간 황금산 주점선성님전 절 삼베를
올림데다에-. 절 삼베를 올린

“나 조식이 아니로구나.”

“어떻 허민 아버님 조식이 뉘 수 잇입네까.”

“난 양반이 아기 둔적이 엇덴.”

허난 데공단 꼬칼²⁶⁰⁾ 드령 머리 삭발 헤여, 하늘 고른 굴송낙 두에 누른 굴장삼을 입언 절을 허난

“서룬 나 아기덜 잘 오랏저 느네덜 어멍 좃이컨들랑²⁶¹⁾ 심방질을 허렌.”

허난

“아이고 아버지 심방질을 헤영 어멍만 좃인덴²⁶²⁾ 허민, 심방질을 허쿠다에^{263)-.}”

서룬 아기덜 굴미굴산²⁶⁴⁾ 아야산 신산꽃을 도올라 간다.

물사오기 쉼사옥이 쫄라단, 좃체 북은 아버지 절간 법당 북을 멘드르다. 둘췌 북은 올랑국 법천왕
을 설련허고 세췌 북은 삼동막 서룬장귀 으숯부체 열두가막세를 마련헤여

“큰아덜아 상시관 과거 허난 뉘이 좋아니.”

“베옥상이 좁데다.”

“초감제 헤여보라.”

“셋아덜아 상시관 과거 허난 뉘이 좋아니.”

“어수웨도 좋읍데다. 비수웨도 좋읍디다.”

257) 좃이컬랑 : 찾을 거면. 찾으려면

258) 베석자리 : 젓자리. 제석(祭席)

259) 너사미 삼형제 : 너사메 너도령. 무악기(巫樂器)의 신

260) 데공단 꼬칼 : 대공단 꼬칼. 중의 머리를 깎는 칼이라 함

261) 좃이컨들랑 : 찾을 거라면. 찾고 싶으면

262) 좃인덴 : 찾는다고

263) 허쿠다에 : 하겠습디다

264) 굴미굴산 : 매우 깊고 험한 산 속

“설운 아기야 초신맛이 헤여보라.”

“족은아덜은 삼만관속 육방하인 좋읍데다.”

“누 단어께 금세미청 거느령 시왕맛이 허여보라.”

서룬 아기덜 서천 데모살왓디 네리난, 동이와당 췌철리아덜 불러다가 옥황에 전명녹이 네리난 남 천문에 남상잔 꺾을 세겨노난, 초체에- 초공하늘로 이체 울러 이공하늘로 삼체 울러 삼공하늘로 우 올리난, 엄뜻허난 깊은 궁에 가둔 어멍, 엄뜻허게 금세상더레 나오랏구나에-

“아이고 어머니م 훗젠 후난²⁶⁵⁾ 양반 풀안²⁶⁶⁾ 무반 삼아근 이 심방질 헤엿수다. 어머니아 혼저 걸읍서.”

어주웨 삼녹거리 서강베포땅에 네리난에 너사무너도령 삼형제 잇구나.

평저남을 비어단 마은으덥 초간주 설련허고 유저남을 비어단 서른으덥 이간주 설련허고 신평남 을 비어단 쓰물으덥 하간주 멘드난 부름 불어가난, 부름또벽 막고 뜻 불어가난 뜻도벽을 막고 동산 세별 상간주 연양당주²⁶⁷⁾ 육고비 동심절은 무으난 벨이 숨슴 돌이 숨슴

“어머니아, 우리덜 보고프건 저 하늘에 별을 보멍, 우리덜 시름 시끔서²⁶⁸⁾. 어머니이랑 이싱 삼하 늘로 앓앙 이시민²⁶⁹⁾ 다시 훗앙 주슨이 잇수다. 날라근 어머니아 우리덜 삼형제랑, 저싱 삼시왕더 레 도올라가 오리다-.”

저싱 삼시왕더레 올라 가단 보난 유정싱 따님아기 훗일곱 설에 싱근돌에 물팡돌²⁷⁰⁾ 노념놀이 허 엄십데다. 올라가단 보난

“요거 양반이 집이 주슨이로구나. 양반이 원수나 갇아보저.”

황금산에 올라간 아바님전 육간제비²⁷¹⁾ 네여줍센 헤연, 육간제비 파랑공에 육간제비를 갖언 오 란, 유정싱 따님아기 콤²⁷²⁾에 찾앗구나. 그게 신에 신병이 나난 일곱 설에 신병이 난 게, 열일곱 나 난 눈 어둑고, 스무일곱 나난 눈뜨고 서른일곱 나난 다시 눈 어둑고, 마은일곱 나난 눈 뜨고 쉬운일 곱 나난 눈 어둑고, 예순일곱 나는 헤에 눈을 떴구나. 유정승이 따님아기기도 시름이나 시끄젠 헤연, 네려가단 보난 알엿녘²⁷³⁾ 주북장젯집이, 단뜰애기 죽언 열두메에 무겐 잇입데다. 울음 우는 소리가 난 들어간

“지나가는 신이 아이가 들엿수다.”

“신이 아이고 팔저 곳은 아이고, 우리 단뜰애기²⁷⁴⁾ 죽언 열두메에 메치메장²⁷⁵⁾ 헛덴.”

헤연

“영 헤여 봅서 혼 번 맥이나 지퍼 보게.”

265) 훗젠 후난 : 찾으려 하니

266) 풀안 : 팔아서

267) 연양당주 : 심방이 자기 집에 그의 수호신을 모신 곳을 '당주' 또는 '연양당주'라 함

268) 시름 시끔서 : 시름을 달래십시오

269) 이시민 : 있으면

270) 물팡돌 : 말을 타고 내릴 때 밟을 수 있게 만든 받침대

271) 육간제비 : 작은 엽전 모양의 점구인 간제비 여섯 개를 꿰어서 만든 무구

272) 콤 : 품

273) 알엿녘 : 아래쪽

274) 단뜰애기 : 외딸. 외딸아기

275) 메치메장 : 익사하여 찾지 못하는 시체를 짚으로 꾸민 것

멕은 지프난, 멕은 놀암구나²⁷⁶⁾

“아이고 아기사상전 아니 죽었수다. 백지알데김이나 놀려봅서.”

백지알데김을 놀리정, 백지알데김을 놀령 나오멍 허는 말이

“나 나가불민 아기사는 소왕게꿈 한게꿈을 물영 살아날 거난, 살아냥 곳 해고정 허건 남천문밖
유정승뜨님엔 해연 좃앙 오읍소서에-.”

십 년 동안을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땅에 덩기단 보난

“알엿녓 조붓장젯집이서 유정싱 뜨님아기 십 년 전이 우리집이 오란, 소지 꺾어시난 오란 곳 해
줍센.”

영 허난 이게 시왕범질에 잡혔구나-

“삼시왕에서 시군문 바꿨디 업데 헨건 누게가 뒤겿느냐.”

“유정싱이 뜨님아깁네다.”

부정이 탕천헌 듯 허난 삼선향 부정 가여간다.

“물멧지 전데에 목을 걸령 올리리라.”

목을 걸령 올려 꼬가막은저올데²⁷⁷⁾로 저올이난, 백근량이 참데다. 약밥약술 내여준다. 어인 테인
수리감봉 막음 두어간다. 삼천기덕 내어주라 신소미청 내어주라. 삼천기덕 일만제기 내어주난 알
엿녓 조붓장젯집이 간 큰곳 해연 오란, 삼시왕에 증명 허엿수다-

유정싱뜨님아기 놓은 연줄로, 일은셋님 아버지 열흔 설 넘어근 이 심방질 허난, 한씨 어머니광 부
베간 멧언 행원서 마은으둑 상단골 서른으둑 중단골 쓰물으둑 하단골 으지허단, 곧 예순 나는데
에, 소시월 열아흐렛날 스삼스테에 행원공회당 마당이서 살 차 목심 삼시왕 증명허난 아버지 손떼
묻은 조상 한씨 어머니 모션 덩겨근²⁷⁸⁾, 이 아덜 이 심방질 허난

“아이고 아까운 아기, 이 심방질 허덴 말이 무신 말이고. 아이고 나 아기, 나 행원 와지민 아니 웰
일이난, 서른 나 아들이, 날랑 성안 가건, 놀랑 행원 지경 아버지 걸던 자국 어머니 걸던 자국 요 심
방질 허렌.”

헤여된 성안 간 살다근 삼시왕 증명허여 불고 아버지 손떼 묻은 조상 어머니 손떼 묻은 조상 처부
모 아버지 어머니네도 산때에 이 사위광 그찌 산 앞 산 뒤²⁷⁹⁾ 덩기단 삼시왕 증명허난, 이 사위안티
손떼 묻은 이 조상 말아당 멧 번 아니허젠 이 심방질도 안 헤민 살아진덴 헨다. 허는 장사헤영 안뒤
곡 허단 허단 버치난 조상들 다 안헤쿠덴 다 못앙 네껴뵙²⁸⁰⁾ 죽억 살악허난

“이젠 아니 웰로구나. 조상 그리치는양²⁸¹⁾, 아버지 어머니 그리치는양, 이 심방질 허쿠덴.”

허연 쉬운 념영 목에 나력병²⁸²⁾ 그치.

276) 놀암구나 : 뛰는구나

277) 꼬가막은 저올데 : 까마귀 주둥이 같은 갈퀴에 달아메게 되어 있는 옛 저울

278) 모션 덩겨근 : 모시고 다니니

279) 뒤 : 뒤

280) 못앙 네껴뵙 : 마구 부쉬 던지다. 내던지다

281) 그리치는 양 : 가르치는 데로

282) 나력병 : 나력(癩癧). 임파선 질환

4. 이공본풀이 (오춘옥 구연)

이공 서천도산국 난산국이 어딴니까. 옛날이라 옛적에 김진국대감님이 사옵데다. 이제 원진국대감님 사옵데다. 혼 날 혼 시 난 동갑이고 이웃에 사난 친헌 친구 뉘옵데다.

원진국이 대감님은 들진 밧²⁸³은 벨진 밧²⁸⁴ 누는 중 끼는 중 고데광실, 높은 집 남단북단 넓은 밧 천하거부제로 잘 살아 가옵데다. 김진국이 대감님은 아무것도 얻어지언 가난하게 사옵데다.

살아가는 게 이십쓰물 삼십서른 수십마흔이 근당 헤어도 애기 얻언 무위 삼 허옵데다. 후를 낳은 원진국이 대감님은 하도 천하거부제로 얻인 거 얻이 부제로 잘 살아지난 친구 밧 덜광²⁸⁵ 삼천선비 덜광 삼도전거리 앓아네 두어 바둑 두어 장귀 뚫데다. 동계남은 은중절 서계남은 상서절에 당도 파락 뉘데다 절도 파락 뉘옵데다.

권제삼문²⁸⁶을 받아당 현 당 현 절 수리허젠 헤연 데서님은 절간 법당을 직히고 소서님은 금세상 더레 시권제삼문 받으레 소곡소곡 누립데다.

후를 낳은 덩기단, 원진국 대감님네 사는 동네에 근당허난, 삼도전거리를 넘어 가명 원진국대감님 집더레 들어사명 나사명 짓알로 도누리며

“소승은 절이 뵈네다에-.”

“원천강이나 가집데가, 화주역이나 가집데가, 단수육갑 오행팔팔 지퍼봅서.”

“나는 일생 살아근 수십이 넘어가도 들진 밧 벨진 밧 누는 중 끼는 중 다 거니려 천하거부제로 잘 살아도 인간 오란 주식 생불 없습네다. 원천강에 팔저수주가 애기 얻언 무위허렌 현 팔저파.”

대서님은 원천강을 네여놓고 화주역을 네여놓안 단수육갑 오행팔팔 지편 굳는 말이

“천하에 원진국대감님아 우리절간에 영급이 좋고 실력이 좋고 수덕이 좋은 우리절에 왕 석 덜 벅 일만 수록²⁸⁷이나 드러봅서 아들이고 딸이고 생불이 잇일 듯 허옵니다 에-.”

“어서 기영 험서.”

원진국에 대감님 아곳²⁸⁸ 생각을 헤보난 김진국대감님도 혼 동네 살곡 친헌 사이가 뉘곡 나광 ㄱ똥²⁸⁹ 동갑이곡 헌디 생각해 보난 김진국대감님도 주식이 없는디 ㄱ찌²⁹⁰ 불공 드리레 가겐 곱아 보젠 허연 김진국이 대감님신디 소실 말을 허난

“원진국대감님아 원진국대감님은 하도 잘 사난 수록을 드령 주식을 보주만은, 난 하루 이틀 하루 밥 삼시도 먹기도 어려운 나 팔저 수주가 뉘곡 우리가족 형편에 어떻 행 강 나가 수록을 드립네까 에-.”

283) 들진 밧 : '달이 지거나 떨어진 밧.'이란 뜻인데, '넓은 밧'을 가리킴

284) 벨진 밧 : '별이 떨어진 밧'이란 뜻으로, '넓은 밧'을 가리킴

285) 밧 덜광 : 벋들과. -광, -광 =--와/과

286) 권제삼문 : 종이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부처님에게 올리기 위하여 빌어 가는 재미 =권재

287) 수록 : 수록. 아이를 가지기 위해 부처나 신령에게 기도하는 일

288) 아곳 : 까딱

289) ㄱ똥 : 같은

290) ㄱ찌 : 같이

“기영 협주마는²⁹¹⁾ 읍서 불공 고찌 올라가게.”

“어서 걸랑 기영 협서.”

원진국이 대감님은 하도 잘 사는 대감님이란 강답에는 강나록 모다베는 모나록 출려간다. 물명지도 동 앓언 강명지도 동 앓언 출려간다. 잔뜩 지언 절간 법당 수록디리레 올라가는구나.

김진국이 대감님은 가난허곡 서난허난 동서으로 나사근 올레²⁹²⁾ 가위 마런 허멍 시권제삼문을 받아간다. 두 대감이 절간 법당 도올란, 원불당엔 원수룩²⁹³⁾ 천불당엔 천수룩, 지장단에 칠성단에 불공이사 석덜 백일 디려간다.

석덜 백일 뒤는 날은 데서님이 데추남에 꼬까막세 저울델²⁹⁴⁾ 앓아네연²⁹⁵⁾ 백근장델 저우런, 근는 말이

“원진국대감님아 원진국대감님은, 잔뜩허게 강납에 강나록 모다베 모나록 물명지 쟁멍지, 잔뜩허게 지영 완 불공을 헤여도 정성이 맞질 못 허난에 예, 여궁네를 체급 흘 듯 협네다. 김진국대감님은, 예 시권제삼문을 받안 오란 불공을 드려도 정성이 기떡허난, 백 근이 잔뜩 찬, 아들 생불을 체급 흘 듯 허십네다에-.”

불공 드려 간다. 불공을 드리레 올라 갈 때 두 대감이 약속이사 허여구나. 원진국이 대감님 근는 말이

“김진국이 대감님아 우리가 절간에 강 불공드령 서로 고틀 아들애길 나나 엇갈리영 아들 나나 딸을 나나 영 허건, 고틀 애길 나걸랑 게로 형젤 삼곡 엇갈리영 서로가 아들 딸을 낳건 서로가 양사돈을 무웁기로.”

언약이사 헤여더라.

석덜 백일 이 불공을 드려, 내려온다 합궁일을 무어간다 천상베필 무어간다. 은픈체에 도금 놀려간다.

원진국이 대감님은 아방 몸에 석 들 열흘~ 어멍 몸에 아오열 둘을 준삭을 찬 낳는 것은 아들이사 솟아난다. 예~허 김진국 대감님은 아들이사 솟아나난 사라대왕으로 이름 석제 지웁네다.

원진국 대감은 아오열 둘을 준삭을 찬 낳는 게 여궁네가 솟아나난 원강 애기로 이름 삼자 지와 간다.

벨충당을 무어 놓안 상다락에 노념헌다 중다락에 노념헌다. 하다락에 노념이사헌다. 혼 설 두 설 열다섯 십오 세가 커 가난 하도 부젯칩이 애기라 동으로도 문훈짱이 오고, 서으로도 소지가 문훈짱이 오랑, 일로도 딸을 줍서 절로도 딸을 줍서 허여가는구나, 간다흔 부젯칩이서 오랑 문훈짱을 들려도, 양 원진국뚜님애기 월광애긴 야 눈도 거듬떠 아니 베리는구나²⁹⁶⁾-.”

후를 낳은 사라대왕이 근는 말이

“아바님아 어머님아, 아이고 우리도 저런 원진국뚜님애기 부젯칩이 애기 신디 혼 번 문훈짱이나

291) 기영 협주마는 : 그렇기는 하지만

292) 올레 : 제주도 집 특유의 공간으로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좁은 길목

293) 원수룩 : 부처님께 자식을 비는 비념

294) 데추남에 꼬까막세 저울델 : 데추남이 꼬까막귀. 데추나무로 만든 옛 저울. 까마귀 주둥이 같은 갈퀴에 달아 매게 되어 있음

295) 앓아네연 : 드리고

296) 베리는구나 : 보는구나

디러보게 옵서.”

“아이고 설운 얘기가 그런 부젓칩이 어떻 해연 우리가 가능에 엇이 문혼짱을 드리느니, 미시걸 앓영 가느니.”

“아바님아 어머님아, 엇인 사름은 경도 살렌 혜수과. 아무 것도 엇건 이 남빈네 낭까락지라도 앓영 혼 번 강 문혼짱을 드러보기가 어찌 후오릿가에.”

김진국대감님은 아도²⁹⁷⁾ 어렵게 사난, 앓영 갈 거 엇이난 남빈녀에 낭까락질 앓영 간 원진국 따님 애기신디 문혼짱을 드러가는구나.

원진국이 따님애기 원강애기씨가 그런 간다후는 집이서 은빈네 은가락지, 벨 걸 다 앓영 오라도 눈도 혼 번 아니 거듬뜨단 예 김진국대감님 아덜 예 사라데왕신디서 김진국대감이 야 문혼짱을 디리난 남빈네 낭까락지 앓영 완 문혼짱을 디리난 서른으둑 니빠디²⁹⁸⁾가 허우덩씩후게²⁹⁹⁾ 웃어가는구나.

원진국이 허는 말이

“설운 원강얘기야 나 뜰얘기야 한다허는 거부체집이서 은빈네에 은까락지 늦비녀여 늦가락지 다 앓영 와근 문혼짱을 디러도 눈도 혼 번 아니 거듬똥 바레단 그런 가난혼 집이서 남빈녀여 낭까락질 앓영 와도 서른여덟 니빠디를 허우덩씩 들렁 웃는 일이 어떻 헐 일일려나.”

“아바님아 어머님아 그런 말씀 많서. 아이고 엇인 사름 잇인 사름이 은빈녀에 은까락지 늦비녀에 늦가락지 앓영 오는 것보단, 엇인 사름 남빈녀에 낭까락지 앓영 오는 것이 얼만이나 무음 먹고 성심을 먹고 공이 들었수과.”

그 말도 들언 보난 그럴 듯 허여 가는구나에.

사라데왕 허고 원강애기, 수지³⁰⁰⁾ 그남 해연³⁰¹⁾ 인간 혼설 허연 살아간다. 애긴 가졌구나.

생불을 들어 산 서너 녀덜 데으숯 덜 예실곱 덜 일고으둑 덜 잠안 준삭 차는데 후룰날은 서천꽃 밧디서

“사라데왕님아 꽃감관을 살레 옵서 꽃생인을 살레 옵서.”

펜지 답장이 오랏구나

“아이고 어떻 허민 좋으리. 늬이 집이 부젓칩이 단뜰애기³⁰²⁾ 야 혼서 무영, 깊은 정도 못 서꺼 본디 이 얘기 처가속 얘기도 갖영 늬이 우의튀곡 헌디, 이 처가속을 놔똥 나가 어떻 해영 꽃감관을 살레가리.”

진 한숨 즈른 한숨을 지어가는 구나에.

후를 날은 원강애기 원강부인이 곤는 말이 저녁식스 상을 들렁 가난 진 한숨은 즈른 한숨 쉬어 가난에

297) 아도 : '매우, 너무도'를 뜻하는 '하도'의 잘못 발음

298) 니빠디 : 잇뭉. =넛바디

299) 허우덩씩후게 : 매우 기빠서 입을 크게 벌리며 웃는 꼴

300) 수지 : 사주

301) 그남 해연 : 가능해서. 가능 =가남

302) 단뜰애기 : 외딸아이. 외딸 =웨똥

“사라데왕님아, 아이고 사라데왕님 남인 가정님아 무신 근심이 잇영 경 한 숨을 쉬엄수과.”

“아이고 부인님아, 원강애기 원강부인님아 곧도 말곡 이르도 많서. 나는 늬이 집이 단뜰애기 부젯칩이 단뜰 무남동저 돌아다 놓왕 깊은 정도 못 나눅곡 한창 사는디, 저싱 서천꽃बाट디서 꽃감관을 살레 오렌 후난, 아이고 저싱은 야, 처가속을 들양 간 사는 법이 아니랑 늬이 단뜰애기 늬이 위시겨 노록 허영, 어뎡 허영 놓아두영 가리. 이 일로 허영 근심을 헤여 한숨을 쉬엄 수다에-.”

“이만 허민 어뎡 허리 나는 남편 뜰좌근³⁰³ 저싱 꽃밭 그찌 가쿠다³⁰⁴. 가당³⁰⁵ 가당 나가 죽어지는 혼이 잇어도 난 뜰랑 가오리다.”

“어디랑 오젠 헤염 시넨.”

말려도 말을 아니 듣다. 이만 허민 어뎡 허리 그찌 이젠 뜰란 말리단 버천 원강부인을 들안 에~ 사라데왕님을 저싱 꽃밭 꽃감관을 살레 간다.

가단 보난 헤는 열락 서산에 다 저물앗구나. 아멩해도³⁰⁶ 으 때가 뉘연 어슬어슬 헨 저물아 감은 허곡 바싹 열문 허난 이날 밤은 어디 강 으지헤영³⁰⁷ 날을 세영 가리 질 여피 보난, 에~ 어웁페기³⁰⁸ 후나 잇이나 으 어웁페기라도 으지허영 오늘 저녁 이날 밤을 세영 가젠 어웁페기를 으지헤여 잇엇 더라.

이~허, 주 축시가 넘어가난 천양 득³⁰⁹은 주지반반³¹⁰ 목을 들러 울어 간다.

“사라데왕님아 아이고 저건 어뎡 득이 저영 울엄수과³¹¹.”

“쳐야 지년 들어 지년장제집이 정 득이 정 울엄쩌.”

“아이고 설운 남인 가정님아 사라데왕님아 난 암만이라도 혼 자국도 더 못 걸으쿠다 뵤 불어지곡 콩고실³¹² 그치³¹² 발은 붕물고³¹³, 날 저디 강으녕에³¹⁴, 종으로라도 풀양³¹⁵ 차비 노수 나 허영 갑서-.”

“그걸 보라 원광부인님아. 나 미시거엔³¹⁶ 곱아니. 오지 말렌³¹⁷ 아니 허여냐. 사름³¹⁸을 어뎡 강 종으로 풀켓느냐.”

제년 들어 지년 장제 집이 간

“종이나 삼서.”

303) 뜰좌근 : 따라서

304) 가쿠다 : 가겠습니다

305) 가당 : 가다가

306) 아멩해도 : 아무래도

307) 으지헤영 : 의지해서

308) 어웁페기 : =어웁페기. 역새포기

309) 득 : 닭

310) 주지반반 : 닭 울음 소리를 표현한 것

311) 울엄수과 : 읊니까

312) 콩고실그치 : 콩깍지 같이. =콩고질

313) 붕물고 : 불어 터 물집이 생기다. =북물다

314) 저디 강으녕에 : 저기 가서

315) 풀양 : 팔아서

316) 미시거엔 : 뭐라고

317) 말렌 : 말라고

318) 사름 : 사람

“우리 집인 누는 종덜 기는 종덜 잇이난, 그런 예펜 종 필요엇덴.”
 후옥만 다라다락 해여 간다. 그 옥 들언 나오란 따시 어웁페기 으지허연 잇이난 날은 거저 붉아
 가난 시 암톡도 놀게 들런 쯤지반반 울어간다.
 “저건 어딿 독이 저영 울엄수과.”
 “만연 들어 만연장젯 집이 독이사 울엄꾸나.”
 “아니고 남인 가장님아, 저디 강 날 종으로 풀앙 아멩이나 차비나 행 가사주³¹⁹⁾. 난 혼발짝으도 견
 질 못허쿠다. 발도야³²⁰⁾ 동시랑케 붓고, 예 곁을 자신이 엇수덴.”
 비세고치 울멍 글아가난 아이고 이만 허민 어뎡 허리, 만연장젯집이 간
 “종이나 샅서.”
 “우리 집인야 누는 종 기는 종 잇고, 예 그만 허민 쓸만 현 종덜 하난 저런 예펜³²¹⁾ 종 필요엇덴 안
 사켄.”
 만연장제가 옥을 헤가난 만연장제 큰 뜰애기 곤는 말이
 “아바님 저 종 사지 맙서. 우리 집안 망헝니다.”
 셋³²²⁾ 뜰애기 곤는 말도
 “아바지 저 종 사지 맙서. 우리 집이 망헝 종이우다.”
 족은³²³⁾ 뜰애기 곤는 말이
 “아바님아 저 종 샅서. 아바지 저 종 사민 우리 집이 유가부가 헝 종이우다. 아바지 허다 못헤영
 저 종 상 소처로라도 정헤여근에³²⁴⁾ 시름시고멍³²⁵⁾ 살기가 어뎡 후오릿가에-.”
 “어서 기영 허저.”
 종을 사저 무음 먹어 간다. 어이에 안터레³²⁶⁾ 불러단
 “어명은 얼마를 받겠느냐.”
 “돈 석냥을 받으쿠다.”
 “아~ 애기 배 속에 뵈 애긴, 얼마를 받겠느냐.”
 “은 석냥을 받으쿠다.”
 “아이고 어뎡 현³²⁷⁾ 말로 어명은 경 족영³²⁸⁾ 받고 애긴 하영³²⁹⁾ 받으켄 헤엄수과.”
 “난 나이가 이시곡 여편이난 얼마 부러먹지 못 헝 거고, 나 배 속에 뵈 애긴 아에 오래 부러먹곡
 헝 거난, 은 석냥을 받으쿠다. 천하 거부젯 집이난 그까지 돈 석냥에 은 석 냥에 문젯과.”

319) 행 가사주 : 하고 가야지

320) 발도야 : ‘-야’는 강조의 의미

321) 예펜 : 여편네

322) 셋 : 둘째

323) 족은 : 작은. 여기서는 ‘막내’

324) 정헤여근에 : 정해서

325) 시름시고멍 : 시름 달래면서

326) 안터레 : 안으로

327) 어뎡 현 : 어찌된

328) 경 족영 : 그렇게 조금

329) 하영 : 많이

근는 데로 주언 그 종을 사앗구나.

“이딴³³⁰⁾ 법은 어떤 허는디 모르쿠다마는³³¹⁾ 우리 국이 법은 부부간이 갈라 사젠 허민 밥상에 반찬 출령³³²⁾ 맞상 출려근에 밥을 먹어사 내외간이 갈라 삽니다.”

“어서 걸랑 기영 허저.”

각서³³³⁾ 추물³³⁴⁾ 일곱가지 메물적광³³⁵⁾ 열두 가지 보에반상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상 출령 들어가 난 맞상³³⁶⁾ 출려 앓안 밥은 먹으멍 근는 말이 원강부인 원강애기씨가

“사라데왕님아 남인 가장님아, 벤 애기랑 나민 무시거엔³³⁷⁾ 이름이나 지웁니까. 이름이나 지와 쥐동³³⁸⁾ 갑서.”

“아들랑 나컨³³⁹⁾ 신산만산 할락궁이로 이름을 지우곡 돌랑 나컨 벨광택이로 이름을 지우시라.”

“경 허거든에 폐적³⁴⁰⁾이나 주워뒵 갑서.”

상동낭 용얼레기³⁴¹⁾ 흔 짝 똑 허게 꺼견 폐적이나 주어가는구나.

부베간이 이별헤연 날은 붉아가난 나고 가는구나. 사라데왕은 꽃감관을 살레간다. 원광부인은 아이고 후룻 저녁은 누워시난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어느 누게 뒤우과.”

“나 만연장제 뒤 노라.”

“어떤 일로 오십데가.”

“아이고 나 느허고 시름이나 시경 이날 저녁을 세어보쟁 오랏노라.”

“이딴 법은 모르쿠다마는, 우리 법은 벤 애기가 낭 석 덜 백 일 몸을 야 잘 조리헤여사, 몸허락을 허는 법이우다에.”

“어서 기영 허저.”

아옴 열 덜 과만준삭 차네 원광부인님은 낳는 게 아들이사 난다. 이름은 신산만산은 할락궁이로 이름 지와간다. 이 애기가 흔 둘 두 돌 석 돌 백 일이 넘어 간다.

후룻저녁도 잇이난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어느 누게 뒤우과.”

330) 이딴 : 여기

331) 모르쿠다마는 : 모르겠지만

332) 출령 : 차려서

333) 각서 : 각 곳. 온갖 것. 이것저것

334) 추물 : 행사 때 제공하는 음식물

335) 메물적광 : 메물은 메밀가루, 국간장 등으로 만든 제사음식. 적(炙). ‘-광’은 ‘-과’

336) 맞상 :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먹을 수 있게 차린 상

337) 무시거엔 : 무어라고. 뭐라고

338) 지와 뒤 : 지어두고

339) 나컨 : 낳으면

340) 폐적 : 표적

341) 용얼레기 : 열레빗

“만연장제 뉘여지는구나.”

“미신³⁴²⁾ 일로 옴데가.”

“나는 느허고 오늘 저녁 시름이나 시깁 가젠 오랏노라.”

“이딧 법은 모르쿠다마는 우리 법은 이 얘기가 켜 걸름발 베와근 저 질레³⁴³⁾에서 대막덩이³⁴⁴⁾에 물 탕 돌리멍³⁴⁵⁾ 노념을 헤가사 몸 허락을 험니다.”

“어서 기영 허저.”

그 얘기가 에 서너네 설 데으섯 설 뉘연 저 질레에 돌아 덩이멍 데막덩이에 물을 탄 노념 허멍 옥 아³⁴⁶⁾ 가는구나.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아이고 어느 누겿과³⁴⁷⁾.”

“나는 만연장제 노라. 느허고 오늘 저녁 시름 시깁 놀당 가젠 오랏노라.”

“아이고 이딧 법은 모르쿠다마는, 우리 국이 법은 이 얘기가 켜, 열다섯 십오 세 녀멍, 세경 농잠 데³⁴⁸⁾를 지핑 저 세경땅에 강 빛을 갈아가사 부베간이 몸 허락을 허는 법이우다에-.”

그 때엔 만연장제가

“훈 번 속꼬 두 번 속꼬 으년 나헌티 문짝 문짝³⁴⁹⁾ 서너 번을 속아지엇구나.”

부예³⁵⁰⁾가 후려난 웅심³⁵¹⁾을 네멍 근는 말이, 큰 딸애기

“그걸 봅서. 아버지 그 종 사지 맙센 아넵데가.”

셋 딸애기도

“아바님아, 나 말 들엉 그 종 사지 맙센 아넵데가.”

“이 종 죽여볼라. 안뉘퀴엔³⁵²⁾.”

해 가난, 족은딸 얘기가

“양반이 집이서 큰일 납니다. 사름을 어떻 죽입네까. 경 말아기녕이³⁵³⁾ 뉘 벌역이나 시겨봅서-.”

“어떤 벌역 시기느니. 느가 지적허라.”

아덜 난 건 후룻저녁 어느 제 멩지³⁵⁴⁾ 천 동³⁵⁵⁾이 앞이 무룩이³⁵⁶⁾ 차다 놔지곡, 예에 신산만산 할락

342) 미신 : 무슨. =무신

343) 질레 : 길

344) 대막덩이 : 대막대기

345) 물 탕 돌리멍 : 말을 타 달리면서

346) 옥아 : 성장하고, 옥다 =피나 지혜가 있다. 약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 성숙하다. 말귀를 알아들을 만큼 성장하다

347) 누겿과 : 누구십니까.

348) 농잠데 : 잠데, 잠대 =쟁기

349) 문짝 문짝 : 잘 빠져나가는 꼴

350) 부예 : 화

351) 웅심 : 화

352) 안뉘퀴엔 : 안되겠다고

353) 말아기녕이 : 말고

354) 멩지 : 명주

355) 동 : 피륙의 길이를 재는 단위. 한 동은 50필임

356) 무룩이 : 가득하여 넘치게

궁인 신디찍 피우멍 노꼬멍 비세 7치 울당 보민 옆더레 노 천 동이 꼬아당 무룩이 놔진다. 사라데왕 영기 실력이로구나. 그걸 앓아단 바찌가난³⁵⁷⁾ 죽일 수가 엇어 가는구나. 어떤 벌역 시겨보코

“기영 말아근에 에이새끼라³⁵⁸⁾ 낭 쉬은³⁵⁹⁾ 바리³⁶⁰⁾를 하루에 강 다 헤여당 우리 저 우영³⁶¹⁾더레, 하루에 다 데명³⁶²⁾ 다 놀렌.”

허난 에이세끼라 저산 7지 올란 굴미굴산 신산 꽃을 도올란 혼 가지 두 가지 어러 떠럼아-냥을 헤여 가민 쉬인 바리가 다 허여지곡, 혼 바리 시끄민³⁶³⁾ 쉬인 바리가 다 시꺼지곡, 혼 바릴 오랑 데며 가민 쉬인 바리가 다 데며, 혼 날 혼 시 에이새끼라 낭 쉬은 바리를 헤여단 데며 가난 죽일 수가 엇어 간다.

“어떤 벌역 시겨 보리.”

세 번째는

“밤 천시를 갈양³⁶⁴⁾ 너이네덜³⁶⁵⁾ 에이새끼라 오날 하루에³⁶⁶⁾ 그랑좁씨³⁶⁷⁾를 혼 섬을 주건 그걸 다 뿌령 다 불려근녕이³⁶⁸⁾ 다 마무리 시경 오라사 느네덜 살려주마.”

“어서 기영 험서.”

예에~ 원강부인 허고 신산만산 할락궁이 에이새끼라 에허 쉬 천 시를 몰아 앓은 밤 천실 가네, 혼 판일 갈민 야, 쉬은 판이 천 시 하루에 다 얼 어이광 뜻에 다 갈아지곡, 그랑좁씨 혼 말을 뿌리민 혼 섬을 다 뿌려지곡, 혼 판일 불리민 쉬운 바리가 다 불려지언, 밤이 씨를 다 부쨌³⁶⁹⁾ 밧을 다 불려된 오랏구나.

“이 놈덜아, 어멍 허난 근추 이른 멜망일(滅亡日) 절명일(絶命日)에 가네 밧에 씨를 부쨌부난 씨가 절명 홀로구나. 그 좁씨를 다 강 좃어오라.”

이런 벌역을 시겨 가는구나. 에이새끼라

“아이고 갈수록 금강산이여. 나 팔저로구나.”

비세 7치 울멍 간 혼 방울 두 방울 불려 논 그 좁씨를 좃가단 보난 비세 7치 울어진 게 무정 눈에 좁이 들언 푸뜩 깨난 보난 옥황세가 오조조조 오란 다 좃어 놓앗구나. 아이고 그거 잔뜩 멩텅이³⁷⁰⁾ 그득 가멩이³⁷¹⁾ 그득 그랑좁씨 혼 섬 좃어 논 걸 시경 오랑 바찌난 아이고 데추남 저올데에 저올이난

357) 바찌가난 : 바쳐가니

358) 에이새끼라 : 어버이와 자녀. 에이새끼. ‘-라’는 ‘-가’

359) 쉬은 : 신

360) 바리 : 마소 한 마리가 등에 실어 나를만한 무게의 분량

361) 우영 : 울타리 안에 있는 터알

362) 데명 : 쌀아서. 쟁여서

363) 시끄민 : 실으면

364) 갈양 : 갈아

365) 너이네덜 : 너희들

366) 오날 하루에 : 오늘 하루에

367) 그랑좁씨 : 좁쌀. ‘좁쌀’에 ‘그랑’이 덧붙여 자잘함을 나타낸 말

368) 불려근녕이 : 밧아서

369) 부쨌 : 뿌려서. ‘부쨌다’는 밧에 씨앗 따위를 뿌리다

370) 멩텅이 : 주로 곡식 따위를 담아두거나 나를 때 쓰는 짚을 곱게 엮어 만든 망태. =망대기, 망텅이

371) 가멩이 : 가마니. =가매기

“훈 방울을 어디 간 느네 엿을 사 먹었느냐, 떡을 사 먹었느냐.”

좁씨 훈 방울이 엿덴 죽일 팔로 들러 가는구나에-

후를 날은 비가 너시너신 초록은 초근초근³⁷²⁾ 비가 오다가난에 신산만산 할락궁이가

“어머님아 어머님아 오늘은 집이 드난 심심도 허고 땡기단 보난 지침도 허고, 어땡 헨 무시거 먹고 정도 헤연 적적허우다. 콩짚레³⁷³⁾라도 훈 좀만 헤여단 볍까줍서. 콩이라도 먹구정 허우다.”

“설운 얘기야 늬이 종살이 허는디 콩은 어디 잇느니.”

“그 말 맙서. 만연장제 이런 천하 거부제칩이 콩장막을 털어도 콩짚레 훈 사발 나 먹을 콩짚레 나 읍네다에-.”

만연장제 집이 콩장막을 간 터난에, 뒤왓세기로 후나 썸은 콩짚레가 나온다. 솟디 놓안 오독독독 볍까가난 만연장제 신산만산 할락궁이가 작박³⁷⁴⁾, 국자, 밥자 다 남죽³⁷⁵⁾이연 곱저된³⁷⁶⁾

“어머님아 저 올레³⁷⁷⁾서 만연장제 오렌 어머님 불럼수다.”

어명은 진짜카부덴³⁷⁸⁾ 불르난 올레더레 확 네 돌아분 어겐, 밥자여 국자여 남죽이여 문 곱저된

“어머님아 나 먹을 콩 다 카범수다³⁷⁹⁾. 훈적 왕 콩 젓읍서-.”

밥자도 못 훗안 주왓주왓³⁸⁰⁾ 남죽이여 국자여 콩 젓을 건 못 훗안 헤가난

“아이고 나 먹을 콩 다 카범수게. 손으로라도 젓읍서.”

어머님 바삭 때분 솟창³⁸¹⁾더레 손을 간 바짝허게 부찌멍

“어머님아 날 바른말을 해줍서. 날 낳은 나 아버지 곤디 간딜 강 확실허게 수실대로 곱아줍서-.”

“설운얘기야, 느네 아방은 만연장제 아니냐.”

“그 말 맙서. 날 낳은 나 아버지민 무사 이런 고통을 줍네까. 바른 말을 험서.”

“아 따불라³⁸²⁾. 아 따불라. 이 손 내불민³⁸³⁾ 나 바른말 허키여. 느네 아방은 꽃감관으로 사라대왕 인디, 느 나 베쓰곰에 벤 떼에 꽃밭디 꽃감관으로 갖저.”

“어머니 경 허민 폐적이 잇일 거 아닛과.”

“기여.”

상동냥 용얼레기 훈 짝을 네어주어간다.

“아이고 느네 성진 성펜은, 예에 김진국대감이여, 웨진 웨펜은 원진국대감이여.”

쌉허게 츠레로 말을 곱아 주어간다.

372) 초근초근 : 차근차근

373) 콩짚레 : 콩 타작하고 나서 여문 것을 거두고 남은 죽정이. 콩이 잘 되지 않아 여물지 못한 것. =콩졸레

374) 작박 : 나무토막을 길고 둥그스름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의 하나

375) 남죽 : 넓적 길쭉한 나무로 만든 죽젓개

376) 곱저된 : 숨겨두고

377) 올레 : 제주도 집 특유의 공간으로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좁은 길목

378) 진짜카 부덴 : 진짜일까봐

379) 카범수다 : 타버립니다

380) 주왓주왓 : 갑자기 손이나 팔을 이리저리 내미는 꼴

381) 솟창 : 솔바닥

382) 따불라 : 뜨거워라

383) 내불민 : 놓으면

“어머님이 난 아버지 좃앙 감수다. 어머니 아무리 만연장제 집안 식구덜 죽이젠 뉼 벌역을 벨 수 단을 꾸며도 절대 나 간디 그리청 데답허민 큰일나메. 어머니 죽는 혼이 잇어도 나 간디랑 그리쳐주 지랑 맏서-.”

“어서 기영 허라.”

“어머님이 범벅이나 해줍서. 나 저싱 아버지 꽃감관 살레 간디 아버지 좃이레 가멍 배고프민 정 심 요기를 허쿠다. 나 먹을 거랑 촌 그루³⁸⁴ 닻뉼 소곰 혼 점 노나마나 허곡, 개 먹을 걸랑 느쟁이³⁸⁵ 라도 닻뉼 소곰 닻뉼 놓왕 범벅이나 해영 싸 줍서.”

범벅을 해영 싸주난 가는 것이 천 리 길을 근당 해여³⁸⁶ 간다.

천리둥이가 좃아와네 발등어리를 물어 끼참지게 좃아오라 가난

“천리둥아, 천리둥아. 느도 생각허민 늬이 집 종 살이 나도 생각허민 늬이 집 종 살이여. 요 범벅 혼 덩어리를 먹영 어서 저레 물러 사라.”

야 그 범벅 혼 거리 덩어릴 뎃기³⁸⁷ 꼭허게 들러 먹으난 짤짤 해연 물 좃아 간 물 먹는 어께 만리 길도 근당 해여 간다.

만리둥이도 좃아 완 발등어리 물어 그치젠 허여 가난

“만리둥아, 만리둥아. 느도 생각허민 늬이 집 종 살이여, 나도 생각해영 보민 늬이 집 종 살이여. 요 범벅 혼 덩어리 주건 먹영 어서 저레 물러 사라.”

팍허게 들러 먹으난 짤짤 해연, 목은 그웃그웃³⁸⁸ 물 무디 생각난 물 좃안 간 먹는 어께 저싱 서천 꽃밭 들어 사는 구나에-.

저싱 서천꽃밭을 들어 사 간다. 밤은 들었구나. 발등어리 넘은 물도 넘어 간다. 동무를 존등이 넘은 물도 넘어 간다. 날은 저물안 어둑으난 야 신 돛박³⁸⁹ 우이 간 잇이난 이 밤 저 밤 지픈 밤이 뉼 난 궁네청 신네청 정남청 소남청덜 꽃감관이 서천꽃밭디 물을 잉어³⁹⁰ 물을 주렌 허난 물동이 앓 언덜 물 잉으레 오랏구나. 돛박³⁹¹ 우이 앓영, 물동이에 물을 잉영 앓으민, 잉어 가민 돛박³⁹¹을 틀영 들이치곡 들이치곡 암만이라도 이상해 뉼언, 허는 말이

“구신이냐 금이.”

“구신이 어디 잇입네까.”

“금이냐.”

“금수여수 아닌 덜 금이 어디 잇습네까.”

“옥이냐.”

“옥출경덜 아닌덜 옥이 어디 잇습네까. 나는 인간에 사라대왕 아덜 신산만산 할락공이가 뉼음네

384) 촌 그루 : 찰가루, 찹쌀가루

385) 느쟁이 : 나깨. 메밀을 갈아 가루를 체에 쳐내고 남은 속껍질. =느쟁이

386) 근당 해여 : 접근하여. 가까워져서

387) 뎃기³⁸⁷ : 던지니

388) 그웃그웃 : 목이 마르고, 숨이 막히어 힘을 차릴 수 없이 토가 올라올 듯한 꼴

389) 돛박³⁸⁹ : 동백나무

390) 잉어³⁹⁰ : (머리나 어깨 위에) 이고

391) 돛박³⁹¹ : 동백나무잎. 씹 =섭, 섭상귀, 입상귀

다.”

신산만산 할락궁이가 뵈니덴 허난

“우리 아버지 서천꽃밭디 꽃감관을 살레 오랏수다.”

“야 궁네청이 허나 꽃감관 살레 오디 간 저 저디 아덜이렌 후멍 아버지 좃안 오고렌 헤염수다.”

그 더이에 그 사름을 돌안 오렌 헤연 안터레 돌안 들어가난

“너이야 성진 성펜이 어디냐.”

“김진국대감님이 우리 성하르방입주.”

“웨진 웨편이 어디냐.”

“웨 원진국대감님이 우리 웨조상이우다.”

“경 허민 느네 아방 이름은 뭐이냐.”

“사라대왕 이우다.”

“너이 어멍 이름은 뭐이냐.”

“원강부인 이우다.”

“너 이름은 뭐이냐.”

“신산만산 할락궁이우다.”

“폐적을 갖엇느냐.”

“앗어십주.”

상동냥 용얼레기 혼 짝을 내어 난 아버지거영 내여노난 쯤에 짐숙 맞아 가는구나.

“내 쯤식이 분명 후는구나. 느네 어멍은 벌써 만연장제 집식구덜 손탕에 죽어네 저싱 갖저. 서천 꽃밭디 강 어머니 도살릴 꽃을 타 주거들랑 이 꽃을 앗영 강 어머니를 도살령 이 서천꽃밭더레 보내 민, 나 이승서 느네 어멍광도 늬미 집이 부젯칩이 단뿔애기광도 혼서 무언 지픈 즘을 서건 살아보도 못허곡 나가 느네 어멍이영 사랑보멍 살거곡, 늘라근녕이³⁹²⁾ 나 못산 대신, 예에 싸움꽃을 내어주영 앗영 강 싸와 가걸랑 만연장제집 식구덜 일가 친척 모이렌 후영예에 웃음꽃을 내어주영 웃어 가걸 랑 멜망꽃을 내어 주어근녕에 혼 날 혼 시간에, 만연장제 집식구 싹 씨 멜망 시기당 메 죽은똥 허나 만 냉경 느광 처가속 삼아근녕에 나 못산 대신 이승에서 좋은 세상 호화스럽게 잘 살라에-.”

“어서 걸랑 그영 험서.”

꽃감관님 곱은 대로, 아버지 곱은 대로 집이 오란 보난 아널서라 만연장제 집식구덜

“이 늬 저 늬 어딜 강 와시니.”

죽이젠 들려들어 간다. 들려 들어가난

“날랑 죽임이랑 허고데나양 나 재미진 옛말을 근건 날 곱은 말을 다 들영 죽입서.”

“어서 걸랑 기영 허저.”

형제간덜, 친구에 일가친척 다 불러옵센 헨 불러단 앗전 울음꽃을 네여 놓안 막 웃어가난, 싸움꽃 을 내어 놓안 느 머리 메멍 나 머리 메멍 죽저 살저 싸워 가난, 멜망꽃을 내어 노난, 혼 날 혼 시에 말

392) 늘라근녕이 : 너는

연장제 일가친척 식구덜 허나토 엇이³⁹³ 씨멜족 헤어 가는구나에-

만연장제 죽은 딸애기 장방³⁹⁴ 속에 곱앗단

“아이고 상저님아 상저님아 날랑 살려줍서.”

“내가 상전이나 네가 상전이지.”

아이고 너 우리 어멍 죽은 덜 그리쳐주민 살려주켤 허난

“어서 기영 험서.”

간 그리치는 건 보난, 지픈 지픈 천지손 물에 간 죽여원 들이쳤구나.

“요 물속에 저 어른네 어멍이, 죽은 신체가 잇언 요디 죽여단 들이쳐 베여수다.”

“아이고 어머니아 무신 즘을 영 잠이파.”

“아이고에 설운 애기 신산 느가 할락궁이.”

“어머님 좃안 오랏수다. 무신 즘을 영 잠이파.”

그만 장 일어납센 허난, 에-삼 혼정으로 사라대왕 영기 실력으로 와들랭이³⁹⁵ 살아나 일어나 간다.

야 물은 뵁따불고³⁹⁶ 어머니 신체만 잇엇구나. 축원을 허난 어머니 말 글을 꾀, 빼 오를 꾀, 슬 오를 꾀, 피 오를 꾀, 오장 육부 기릴 꾀 차례 차례 놓안, 금봉드리체로 후리멍

“어머님 일어납센.”

허난 와들랭이 일어났구나 어머니 누워난 흑이, 자리에 흑³⁹⁷을 몽크런 동그려 가난 병것떡³⁹⁸이 뒤흔고 방울 방울 일곱 방울 열네 방울, 큰곳엔 열네 방울, 앓인제 죽은 곳엔 일곱방울 예에 팔제 곳인 심방침인 안팎으로 방울 방울, 쓰물여덟 방울 병것떡도 네 불 영 허는 법, 그리동벽 안동벽 신동벽 자동벽 청데왓디 청너울 씨우는 법 벵데왓디 뵁너울 씨우는 법, 마련 헤엿수다에- 마련을 허여두고

“어머님이랑 설운 어머니 날 만장 고생 하영 험수다. 아버지광 좃앙 강 나 이승서 못 산 대신 오레 강 지픈 정 주멍 삼서.”

만연장제 죽은 딸애기광 신산만산 할락궁이는 천상베필을 무언에 부모 아방 어멍 못 산 대신 만연장제 침이 그 재산 다 초치 해연 부모 못산 대신 이 애기 천하 거부제로 잘 살앗젠 허옵데다.

원강부인은 저싱 서천꽃밭디, 사라데왕님 꽃감관을 좃앙 갖구나.

“아이고 설운 원강부인님아 고생 헤엿구나. 저싱 법은 예 주년 날 촘썰그든 법 이수농장법 부부간 출령 사는 법이 아니난, 어서 저싱 서천꽃밭디 야, 저싱 어멍으로 들어 가근에 혼 설 두 설 세 설 네 설~, 열다섯 십오 세 안네, 이싱서 멩 쫄랑덜³⁹⁹ 이싱 어멍 놔팅 저싱 서천꽃밭디 온 애기덜 물을

393) 허나토 엇이 : 하나도 없이

394) 장방 : 집안에 마련된 창고. =고팡

395) 와들랭이 : 앉거나 누웠다가 가볍고 잼싸게 벌떡 일어나는 꼴. =오들랑이

396) 뵁따불고 : 모자라 버리고. ‘뵁뜨다, 부뜨다.’는 작거나 깎끼다. 모자라다는 뜻

397) 흑 : 흙

398) 병것떡 : 제주의 무속 떡. 쌀가루나 메밀가루로 반죽하는 송편과 비슷한 떡

399) 쫄랑덜 : 짧아서

주라. 밥을 주라. 수돚을 주멍⁴⁰⁰ 키와 주라.”

“예.”

원강부인님 서천꽃밭디 이에 저싱 어명으로 간 보난에, 이싱서 어머니 아바님 잘살아근에 낫사발 에 밥을 주멍 먹던 애기 저싱 가도 낫둥이를 내여주고, 이싱서 어멍 아방 못살아근에 사기사발 그릇 난거나 박세기 남박세기⁴⁰¹ 쿡박세기에나 차롱착⁴⁰² 꽃데기⁴⁰³에나 터진 바위⁴⁰⁴ 투다진⁴⁰⁵ 사발에 나 영 해영 밥 먹던 애기덜은 저싱 가도, 그와 그찌 사기둥이여, 타진 그릇이여, 금난 그릇이여, 차롱 착 꽃데기영 내여주멍 서천꽃밭디 야 그물양⁴⁰⁶ 칠년 한기지만 느네덜 꽃감관은 나오랑 이 동이 네 여주멍

“저 물 가 잉어당 꽃밭디 물을 주렌허멘.”

허민 설운 나 아기덜 낫둥이 들렁 우는 애기덜은 체 혼에 물을 잉어 당 꽃밭디 잘 주어 가민 시왕 석석 번에 환생꽃이 버록버록 핏디다마는 차롱착 꽃데기나 사기사발 금난 거나 바위 투다진 거나 깨어진 그릇이나 쿡박세기 남박세기에 주어볼민 그 그릇에 물은 잉어 가당 머위정당⁴⁰⁷ 쉼정당⁴⁰⁸ 에 발을 걸렁 씨러지민 동인 천리 만리 강 부수 씨러지어 가민, 제 혼에 물을 못 잉어당 주당 보민 검뉴울꽃⁴⁰⁹ 뉘어지어 가민 꽃감관 꽃생인은 나오랑 아렛드리 벗은 애기덜 노봉저고리 입은 애기 덜 금봉드리체로 뻘뻘하게 정갱이 서너 번씩 후리멍

“너네덜은 이싱 어멍도 없느냐. 아방도 없느냐 부모형제 일가친척 없겠느냐. 어서 이승 강 낫둥 이 깎 물동이 깎, 에 반양 왕 곳인 동이 사당 서천 꽃밭디 물을 혼저 혼저 주라. 이 꽃뉴우는 거 보 령.”

허멍 답달헤여 가민 이승더레 돌아사근에

“날 낳은 어머니야, 날 낳은 아바님야. 우리도 부모 조상 잘 살양 낫 사발에 밥을 주멍 먹곡 낫사 발에 물을 주멍 먹어나시민 저싱 가도 낫둥일 네여 주멍 제 혼에 꽃밭디 물을 주어서민 무사 이 벌 역을 받음네까. 어머니야, 아바님야. 낫둥이 깎 인정 줘서.”

은동이 깎, 물동이 깎 인정 줘센허멍 이싱더레 돌아상 가망헌 눈동자에 해영헌 니빠디에 걷는 애 기, 기는 애기, 젓 먹던 애기, 아이고 비세그찌 울멍

“어머니야 인정 줘서. 꽃동이 깎, 은동이 깎, 물동이 깎 줘센.”

울어 가민 이싱 잇인 애기덜 어릴 적에 열다섯 십오 세 아기덜 남중 보살 여중 보살덜, 정끼 정세 불러주곡 우로 역계 알로 설쎄 이질 베아피야 열두 풍문조혜 다 불러 주어 가민, 옛날엔 약도 없곡

400) 수돚을 주멍 : 구멍이 주위의 흙을 모아 올린다. 흙을 북돋아준다. =굳올린다

401) 남박세기 : 나무바가지

402) 차롱착 : ‘차롱’은 대나 씨리를 걸쳐 네모나고 속을 깊숙하게 하고 뚜껑을 만들어 주로 음식 따위를 넣어 다니기 좋게 만든 그릇. ‘착’은 돌이 쌍을 이루는 것 중의 한 개

403) 꽃데기 : 꼬트머리

404) 바위 : 테두리. =바우

405) 투다진 : 부서진. 깨진

406) 그물양 : 가물어서

407) 머위정당 : 마의정당. 땡땡이땡굴의 하나

408) 쉼정당 : 쉼정동. 읽이나 줄기가 조금 뚝뚝하고 질긴 땡땡이땡굴

409) 검뉴울꽃 : 시들어가는 꽃

의학이 발전이 안 돼영, 어둡은 시절이난 설새낭 이질 베아피더레 가 가민 혈 수 것이 솟검댕이⁴¹⁰ 나 굽영 흰죽에 양 탕 맥이곡 정끼⁴¹¹ 헤 가민 침이나 마치곡, 서광이나 골양 맥이곡 부정영사나 골 양 맥이곡, 설새낭 배 아팜 헤가민 썩이나 늘썩이나 영 삐정 맥이곡 영허던 시절에덜은 아옴 애기 열 애기를 나도, 다 못 키왕 반작 허곡 못 키운 사름은 삼분 폐도 허곡 후룻저낙 자 나민 질여피 어 충이 후나썩 두 개씩 이시곡 영 헤여 낫수다.

영 헤영 애기덜 못 키와 가민 옛날은 심방 빌영 구할망 질 치곡 예- 옥황천신 불도맛이 허곡 구천 왕악심질을 청 곳인 할망 곱갈랑 인정 걸영 터진 공방 배송허곡 영 허멍 키와 낫수다. 큰곳 혈 떤 서 천곳연짚로 헤영 이공짚로 헤근닝에, 잘 악심을 꺾영 터진 공방 배송허곡, 영 허멍 살앗수다마는 요 즘 시덴 모든 문학이 발전이 뉘난 의학도 발전뉘곡 허난, 소앗과 전문의 잇곡, 영 헨 시국이 변천 뉘 난 가족이 계획허라 아들 딸 구별을 마랑, 두 개만 나렝 허곡 현대시덴 나가난 독신생활 허곡 결혼 해도 애기 안 낭 부부간이 살당 말켄 허곡 잘 나민 세 개 두 개 제우 나민 후나 낭 설러부는⁴¹² 시절 이 뉘여수다마는 옛날 부모 조상님네 네운 법으로 애기덜 못 키와 가민 할망 불도 알로다 다 농곡, 구할망질 처근에 구악심을 제출허곡 허멍 살오던 시절에 큰곳 허시는 이공짚로 이 악심을 꺾곡 이 악심 풀곡 또이 불도맛이헤영 불도맛이 앞으로 구할망 악심질 잘 곱 갈랑 거끄곡 허멍 애기 덜 키와낫수다.

5. 삼공본풀이 (정태진 구연)

위 돌아오랏습니다, 제가 돌아오랏습니다.

날 신공시 옛선생 어간 허며 삼공주년국 위가 돌아오랏습니다, 삼선향 마령마추 시권제⁴¹³ 받아 위올리며 삼주잔 게골아 도올리며 삼공주년국 신풀건 신 느려 하렘 험서-

삼공안땅 주년국 어간이 뉘엇습니다. 옛날 옛적에 우잇녘에 강이도령 샅데다. 아레녘에 강이이서 불 사옴데다.

호를날은 우잇녘에 풍년 뉘엇저 영허여⁴¹⁴ 강이영성이서불 우잇녘⁴¹⁵에 얻어먹저 올라오고 강이도령은 아레녘에 풍년 뉘엇저 영허여 얻어 먹으레 가는데 서로 질레⁴¹⁶서 만났구나. 통성명 허난 그 젓날은 혼성친 뉘다시프고 서로가 얻어먹는 게와시 뉘어진다. 그젓날은 통성명 무언보니 혼 팔저 혼 사주 뉘엇구나. 우잇녘에 얻어 먹으레 거리 거리마다 덩겨간다. 우잇녘에 풍년 들엇젠 말이 언말

410) 솟검댕이 : 솔 밑에 붙은 검댕이나 그을음

411) 정끼 : 경기. 경풍(驚風)

412) 설러부는 : 그만두는

413) 시권제 : 종이 부처에게 올리기 위하여 빌어가는 재미. =권재삼문

414) 영허여 : 이렇게 해서

415) 우잇녘에 : 위쪽에

416) 질레 : 길

이여. 그젠 아랫녘에랑 이젠 얻어먹저 허여 네려산, 이 거리 저 거리 뎡검꾸나.

그때엔 날은 저물아 으지 홀긱 엇고 영 후난 이젠 뎡기는 게 어허~ 정이 인연 멧게 뉘여지고 그때는 어느 몰과리 체 이젠 뉘연 강이도령, 강이영성 그 때는 부베간 법 마련헌다. 부베간 법 마련헌난 이제는 석덜 열흘 준삭 차 낳는 게 여궁녀⁴¹⁷⁾가 솟아난다.

이젠 날은 이 아기 나난 먹는 것도 나오곡 입는 것도 나온다. 이제는 다시 부베간 법 무영 따시 나는 게 두 번 첫 똥아기 낱곡 다시 나는 건, 똥아기 삼형제가 솟아났구나, 이 아기 일름 성명을 지와 보저 영허여 문저 난 것은, 은장아기로 일름 성명 지와 간다. 두 번째 난 아기는 낯장아기로 일름 성명을 지왔구나. 세 번째 나온 아기는 감은장아기로 일름 성명 지옴데다.

이 아기덜 삼형제 솟아나니 이젠 강이도령, 강이영성이셔불 이제는 고데광실 높은 집도 나온다. 또 이제는 먹을 만 쓸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젠 아바님 허는 말이

“서룬 아기덜아 이레오라 보저.”

불런 말을 허난, 큰똥아기 불런

“너는 누게 덕으로 나왔느냐.”

말을 후니 그 때는

“첫째는 하나님어 덕입네다. 둘째는 지와님이 덕입네다. 셋째는.”

이제는

“아바님 어머니어 덕입네다.”

“나 똥아기 적실허다⁴¹⁸⁾.”

영허여

“느 방으로 어서 들라.”

셋똥아기 불러다가

“너는 누게 덕으로 나왔느냐.”

아까 그똥 식

“하나님 지와님 아바님 어머니어 덕입네다.”

영허여 말을 허난

“서룬아기 나 똥 적실허구나. 느 방으로 어서 가라.”

감은장아기 불러 놓고

“서룬아기야 너는 누게 덕으로 나왔느냐.”

“하나님도 덕입네다. 지와님이 덕입네다. 아바님이 덕입네다. 어머니 배똥알⁴¹⁹⁾ 선그릇이 덕입네다.”

영허여 말을 허난

“아이고 이년아 저년아.”

417) 여궁녀 : 여자

418) 적실허다 : 틀림없이 확실하다

419) 배똥알 : 배꼽이나 그 아래 중요 부위

후욕만발 허여 간다.

“너는, 나 딸아기 아니여. 후욕만발허여 어서 나고 가라.”

후욕허난 은장아기, 그젯날은 나고가져 영허여

“아바님, 어머니 열두 풍문조혜 불러나주저.”

영 허여 이 아기는 청주녕이⁴²⁰ 몸으로 환심을 허여간다. 이젠 데말치 중말치 아말치로 뒤, 속는 제 마련허여 가는구나. 그 뎨 날은 야아 이제 나고간다. 아닐서라 후를 낳은 아바님 눈 창문앞에 어 뜻서뜻 허여 가는구나. 그때는 또 이 문을 올안 바라보난 어떤 동네 강아지고치 오란 할죽 할죽 먹 는 소리가 낫구나. 영 허여 아닐서라 솟을 올안 보난 벳보섭에 쌀기쌀성 불러나 주고, 이젠 아바님 당오름 쓸 지었구나. 어머니 이제랑 열두 송험⁴²¹ 불러주었구나. 그 때 감은장아기 나고가난, 아이 고 큰딸아기 은장아기 늦장아기도, 이제는 서룬동생, 아바님 어머니 몸에 후욕만발 허여 나고가난 이 동싱도 나고 가는디 난달 부린달 아주 영허여 설운성님네도 아시영⁴²² 웨늘창 나고간다.

나고 가부난 아바님 당달봉수 눈이 어둑어 부러트구나. 이제는 할망 으지혜영 흘목⁴²³ 잡앙 이레 저레 못 바리난 요레 걸음서 저레 걸음서. 영허여, 가는구나 그제는 족은딸아기인 이제야 족은 마통이⁴²⁴ 만낭 이제야 고데광실 높은 헤여 부제로 잘 살았구나. 큰 딸아기, 셋 딸아기 이제는 서로 짝을 메와 사는 게 이제는 큰 마통이 셋 마통이 족은 마통이, 이제는 마를 판 들어오라 간다.

아바님, 어머니 이 아기덜 훗아보져 영허여 뎡기다가 바라보난 큰 딸아기 사느디 들어갓구나. 그 떤는 아이고 마통이덜 마 판 들어오는 소리여. 이제는 셋 딸아기 사느디 훗아 방문 허저 그리도 간 보난 마파는 디 마를 판 또 이제는 들어오는 소리가 낫구나.

큰 딸아기 셋 딸아기 이제는

“우리 아바님, 딸달봉수가 뉘어지영. 아이고 서룬아기덜 훗이레 이레 저레 방문허며 훗앙 뎡겨주 마는, 에이고 우리아기덜 후욕혈 뎨 어떤 떤며 네짚을 뎨 어떤 뎡런고.”

영허여 후를 낳은 이제는 족은 딸 감은장아기 사느디 이제는 걸인잔치 헤염젠 소문 들어지난에

“그디나 한 번 이젠 모든 음식이라도 먹저.”

영 허연, 이제는 훗이명 물으명 갓구나. 간 바라보난에 아닐서라 잘살아 걸인잔치 헤염구나. 할망 은 하르방 흘목을 비여잡안 어서 들어가난에 음식을 출런 들어가난 이제는 그 음식을 베고픈 짐에 먹는 게 문떡⁴²⁵ 먹어가는구나. 그 뎨 먹언 이제 족은 딸아기가 생각을 후는뉘

“아이고 우리 아방, 어머니이 이제는 나딸 아니엔헤연 후욕헤연 네쫓차 부러트구나마는.”

영허여 이젠

“아이고 설운 하르바님아, 할마님아.”

그떼야

420) 청주녕이 : 청지네

421) 송험 :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징조

422) 아시영 : 동생이랑

423) 흘목 : 손목

424) 마통이 : 마 캐는 아이

425) 문떡 : 남김없이, 전부

“아이고 들은 말이나 잇수과. 본 말이나 잇수과. 들은 말 본 말 글읍서.”

영허여 말을 혼다.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영허여 아바님, 어머니 이제는 방으로 불러다가

“너는 누덕으로 나왔느냐.”

“하나님 지와님 아바님 어머니가 뱃똥 알 선그릇입네덴 말을 아이고 네 조식 아니렌 헤연, 후육 만발을 허난 어서 나고가라. 영허니, 이제엔 나고오랏구나.”

그때에는 설운 아바님 훌목 비여 잡안

“아이고 설운 아버지가 분명허구나 아이고 들은 말 본 말 설운아바님, 일천 놀레로 시름허거 들 랑⁴²⁶ 일천간장 다 풀리명.”

어둑은 눈 어떡 터정 오닐 오닐 오닐이여. 메일 장상 오늘인가. 성도 얼말 가실 손가 강이도령 강 이영성이서불로 만나 인연이 뉘난 이젠 날은 부베간 법 뉘엿구나. 애긴 나는 게 큰 똥, 셋 똥, 족은 똥아기 솟아난an 일름 성명 지와트구나. 은장, 뇨장, 감은장아기로 일름 성명 다 지와두영 먹을만 쓸 만 뉘엿구나. 그췌 날은 똥애기덜 불령

“족은 똥아기 누덕으로 나왔느냐.”

말을 허난

“어머니 뱃똥 알 선그릇 뉘옵니덴.”

말을 허난

“나 똥아기 아니로구나 나고가라.”

말을 허난 족은 똥아기 열두 송흙 다 불러 놓안 아바님 당달봉서 헤여지고 셋 똥, 큰 똥 나고간다.

후를 날은 아이고 큰 똥, 셋 똥 사는데 좃안 방문허여 족은 똥아기 잘 살아근 걸인잔치 헌덴 허난 그덜 좃안 간 상봉 뉘여 설운아바님 좋은 음식 먹고 들은 말 본 말 일러간다.

“아이고 나 똥아기 적실허다.”

적실허다 영허여

“설운 아바님아, 이제랑 어둑은 눈 번뜩허게 뜬서.”

아이고 눈은 번뜩허게 뜨엇구나.

삼공안땅 주년국 난산국을, 신 풀엇습네다. 신틀어 드러나가며, 글 허기도 전상⁴²⁷, 활 허기도 전상, 밧가는 거 전상. 뉘여지는구나 공부허는 거 전상이여. 또 이저는 어~

우리 인간들 노름 허는 것도 전상이여. 활 허기도 전상, 이젯날은 굿인 전상 어서. 저 부젯침으로 나수아불곡, 좋은 전상이랑 어서 먹을 연, 입을 연 나수와 줍센. 영허여 삼공안땅 주년 난산국은 열 에 허나 십일조 신 풀엇습네다-

426) 들랑 : ~하거든

427) 전상 : 늘 하는 버릇이나 모습

6. 세경본풀이 (이승순 구연)

옛날이라. 임진국에 대감님 쯔진국에 부인님 열다섯 십오세 근당허난 입장 갈림 허시난 절진 밝은 별진 빛 천하거부로 잘 살아도 양도 부베간이 삼사십이 근당허여도 쯔식 없어 호호 탄복 허옵데다.

김진국 대감님 동네 금반상 두어 바둑 장궐 뛰어도 선비덜 앞이 쯔식 없는 나무림⁴²⁸⁾을 받고 말 모른 가막새도 날이 어둑아가면 이 남 저 남 어멍 강골 아방 강골 부물 훗앙 아끈만은 김진국 대감님 쯔식 없어 호호 탄복 허는 것이 후룰날⁴²⁹⁾은 산천구경을 간 오라시난 쯔진국에 부인님은 느진덕정하님보고

“김진국대감님 저녁상이나 출려⁴³⁰⁾다 드리렌.”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험서.”

느진덕정하님은 저녁상을 출려 앓언 김진국 대감님 누운 방으로 간

“김진국대감님아 저녁진지 상을 들여 보냄수덴.”

헤여도 안으론 문잡아 누워 응그답을 아니 허여가난 느진덕정하님은 쯔진국부인님 신디 강

“부인님아 어멍 허난 대감님은 저녁 진지상을 출련 들여보네도 응 그 답도 아니허염수덴.”

허난 그 떼엔 쯔진국이 부인님은 열두폭 홀단치마 깍을 둘러 입어 앓언 대감님 누운 방으로 간

“대감님아 어멍 허난 문을 잡아 누웁디가 이 문을 읍센.”

헤가난 그 떼에사 부드나시⁴³¹⁾ 문을 열려 가옵데다에-. 쯔진국부인님은 방안으로 들어가곤

“어멍 허난 저녁 진지상을 출련 들연 보네어도 응 그 답도 안 헛수겐.”

허난

“부인님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돌진 밝을 허민 뵈 허멍 별진 밝을 허민 뵈 험니까.”

아기 없는 혼탄을 허노렌 허난 그 떼에는

“대감님아 우리도 웃일 일이 이십니다.”

“우리가 뵈 노코 웃일 일이 잇습네겐.”

허난

“은단평에 서단마게⁴³²⁾ 춤쉴⁴³³⁾ 혼 평 쫘끈⁴³⁴⁾ 무경 각반 장판에 이레 동그리곡 저레 둥구름 시민 우리도 웃일 일이 잇습니덴.”

허난

“어서 거랑 기영 헤여 봅서.”

428) 나무림 : 남을 업신여겨 낮추어 보거나 알잡아 대함

429) 후룰 날 : 하룻 날

430) 출려 : 차려서

431) 부드나시 : 반듯하게

432) 서단마게 : 서답마게. 빨래할 때 젖은 것을 두드려 때를 빼는 방망이

433) 춤쉴 : 명주실

434) 쫘끈 : 줄이나 끈으로 힘 있고 단단하게 동여맨 끈. =쫘끈

부베간이 각진 장판에 이레 둥그리곡 저레 둥구려도 그 뎨 웃음이 아니 나간다. 어늦동안 날 붉는 줄 몰르게 먼동 금동 데명천지는 밝아 가옵디다에.

동계남 상중절 서계남 상세절 부처 직헌 데서님은 헌 당 헌 절 혈어지난 시권제 삼문⁴³⁵⁾ 받으레 김진국 대감님 집으로 야 소곡소곡 들어가명

“저 소송절이 뵈니덴.”

허난

“어느 절 데서가 뵈옵니까.”

“예 동계남 상중절 서계남 은중절, 부처 직헌 데서종이 온데, 헌 당 헌 절 혈어지난 시권제 삼문 받아다가 헌 당도 수리하고 헌 절도 수리하고, 명 없는 자는 명도 제거 주곡 복 없는 자 복도 제거 주곡 생불 없는 자는 생불을 취급시켜 주저, 시권제 삼문을 받으레 내려 사수덴.”

허난

“야 데서님아 우리도 생불을 볼 수가 잇읍니켤.”

허난

“백근 준데 출령 우리 절간 법당으로 오랑 원불수룩이나 드러봅서.”

“어서 걸랑 기영 험서.”

데서님은 시권제 삼문을 받아 절간드레 소곡소곡 올라 사부룻구나에-

양도 부베간은 데백미도 일천 석 소백미도 일천 석 가삿 베 구 만장 송낙 베도 구 만장 출려노코 동계남은 상중절 서계남은 은중절 원불수룩 소곡소곡 올라간다.

석들 열흘 원불을 드려 석달 백일 뵈는 날은 데추남 은저울데로 저우런 보난 백근이 못네 차난 데서님이

“김진국 대감님아 조진국에 부인님아, 원불수룩을 드렸수다만은 데추남 은저울데로 저우런 보난 백근이 못네 차난 강 야 천상베필을 무엄시민 여궁녀라도 솟아 날듯 허켤.”

일러 가옵데다에-

양도 부베간은 절간 알터레 소곡소곡 내려 산다. 집으로 들어오란 합궁일을 청하여 천상베필 무어간다. 천상베필 무어가는 것이 혼돌 두돌 연석덜 뵈여가난 조지국에 부인님은 밥에 밥네 나간다. 물에 펼네 나간다. 국에는 장칼네도 나간다. 아오열돌 그득찬 나는 건 바려보난 어 체비세 알아구리⁴³⁶⁾ 그튼 아기에. 물아레 옥돌 그뜬 아기에. 여궁녀가 솟아난다. 이 아기에 어늦동안 말 곱음 찡 베와 간다. 곱음마 찡 베와 간다. 이 아기에, 이름이나 지와사 혈 걸. 아바님 지운 이름은 가령허다 가령 비로 이름 지와 간다. 어머니 지운 이름은 비록 이 아기에 여주식이라도 이 아기에 설영 낭젠 허난 절간 법당으로 간 조청허영 낱저 조청비로 이름 생명 지와 가옵디다에.

이 아기에 조청비 아기에씨는 어늦동안 열다섯 십오 세도 근당 허여간다.

후를 낱은 느진덕정하님 연서답⁴³⁷⁾ 허연 오란 마당에 간 연서답을 야 너는 건 바려보난, 조청비

435) 시권제 삼문 : 권재삼문. 중이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부처에게 올리기 위해 빌어가는 재미(齋米). =권재

436) 알아구리 : 아랫 턱

437) 연서답 : 빨래. 세답

아기씨가 간 바려보난 느진덕정하님 손이, 하도 고와지난

“느진덕 정하님아 닌 어떻 허난 손이 고와지닌.”

허난

“아이고 아기씨상전님아 모른 말 허지맘서 종이 한집도, 메일 연서답을 허여가난, 손광 발이 문
돌문돌⁴³⁸⁾ 고와점수덴.”

허난

“게건 나도 야 연서답 갈 떼랑 나도 그찌 돌양⁴³⁹⁾ 가렌.”

일러 간다.

“어서 걸랑 기영 험서에-.”

후를 낚은 조청비아기씨 느진덕정하님 거니리고 연서답을 간 와라차라 연서답을 허젠 허난 느진
덕정하님 조청비아기씨 바려보난, 궁근팡⁴⁴⁰⁾에 맞안 연서답을 허여가난

“아이고 조청비아기씨 상전님아 어떻 허난 야 수답을 허여도 궁근팡 맞앙 연서답을 허염수과. 이
루 후제⁴⁴¹⁾ 아기씨상전님 팔저도 팔저만 허쿠덴.”

일러 가옴데다에-.

연서답을 와라차라 허노렌 허난 하늘옥황 문왕성 문극성 아들 문왕성 문도령이 지하레 서천약국
거무선생앞이 글광 활을 배우레 내려사단 바려보난 곱닥헌 야, 처녀 아기씨가 맞안 연서답을 와라
차라 헤염시난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언

“야 길 넘어가던 도령인디 물이나 혼 주박 떠 주민 먹영 가쿠덴.”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험서.”

허던 서답 놓아된 조청비 아기씨는 포주박에 물을 떠 야 버드낭쌈⁴⁴²⁾을 확허게 흘턴 물에, 동글동
글 띠완 드리난 문도령님은 물을 먹언

“어떻 허난 남자 대장부 먹는 물에 양 나무쌈을 띠완 줍수겐.”

허난

“급허게 물 먹당 물에 체헌 건 약방 약도 업십니덴.”

허난

“얼굴만 고운줄 알앗더니 무옴씨 꺾지도 고와지었구나.”

조청비도 문도령 얼굴을 보난 하도 얼굴이 고와지난

“어디레 가는 도령님이 뉘십네까.”

“나는 옥황에 문왕성 문도령인디 지하레, 거부선생 앞이 연삼년 글광 활을 배우레 내려사는 길임
넌.”

438) 문들문들 : 걸면이 매끄러워 거칠 것이 없이 부드럽고 매끈매끈한 꼴

439) 돌양 : 데리고

440) 궁근팡 : 흔들리는 받침대나 빨래터 따위. 잘 고정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리를 나타내는 말

441) 이루 후제 : 이후. 이후에

442) 버드낭쌈 : 버드나무 잎

허난

“우리 집이 오라바님 잇인디 우리 집이 강 오라바님 보네크메⁴⁴³) 그찌 친구 벗을 헤영 가기가 어찌 허오릿가.”

“어서 걸랑 기영 험서-.”

조청비는 허단 서답 놓아두고 집으로 오란 아바님 어머님 방에 놀러들언

“아바님아 저도 글공부를 헤영 오쿠다.”

“어서 걸랑 기영 허렌.”

허난 남자방에 놀러들언 남자도령 그찌 출려 앓언 문도령 신디 간 그찌 통성명을 허는 것이

“난 옥황에 문도령이 됩니다.”

“난 지하레 조청비도령님이 됩니덴.”

헨 그찌 성통명을 허곡 친구 벗을 허언 서천약국 거무선생 아피 글광 활을 배우레가 가는구나에-.

글광 활을 배우레 들어가난 선생님 허는 말이

“너이덜 돌이 꼭그치 혼날 혼시에 글공부 오라시난, 혼 책상에 앓앙, 글공부 허곡 혼 상에서 밥 먹곡 혼 방을 쓰멍 연삼년 글공부 배우렌.”

허여 간다.

“어서 걸랑 기영 험서-.”

문도령님광 조청비는 혼 상에 앓앙 글공부 허여간다.

혼 책상에 앓앙 글공부도 허곡 혼 상에서 밥도 먹곡, 혼 방에서 즘을 자게 뉘난 조청비는 문도령 신디 은데양에 물을 떠당 소복히 낵 은젯가락을 걸친 문도령신디

“문도령아 문도령아 야 물 우티 걸친 은젯가락 떨어지민, 글도 떨어지곡 활도 떨어질거난 매우 멍심 허영 즘을 자라.”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뉘날은 선생 아피가민 문도령은 즘 못장 책상에 업더정⁴⁴⁴) 졸당 보민 조청비 보단 글도 떨어지곡 활도 떨어져 가옵디다에-.

후를 낵은 문도령님 금마답⁴⁴⁵)에 나고보난 가메기⁴⁴⁶) 첫늘게에 편지 문안 오랏구나. 바련 보난 옥황에서 문도령신디

“야 이젠, 지하레 내려상 연삼년 글도 베울만이 베와실 거 활도 베와실 거, 혼저 글공부 활공부 무청 옥황에 도올랑 야, 약속헌데로 서수왕에 입장 갈 야 입장 결혼허렌.”

일러 가는구나 에-. 문도령님 거무선생 앞이

“글광 활을 그만 베왕 야 옥황에 강 서수왕 뜰애기 앞이 입장 갈림하게 뉘어수덴.”

허난 조청비도

“문도령 우리 올 떼도 꼭그치 오곡 혼 상에서 밥 먹곡 혼 책상에서 앓앙 공부허곡, 혼방에서 글공

443) 보네크메 : 보낼테니

444) 업더정 : 업드려서

445) 금마답 : 마당

446) 가메기 : 까마귀

부를 헤시난 문도령 가게 뉘만 나도 그찌 가쿠다.”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문도령은 주청비광 일천서당 나고오는구나. 오단 날은 더워지난

“문도령아 난 나보단 글도 활도 떨어지난 널랑 알통⁴⁴⁷⁾에 강 금으라. 날랑 우통⁴⁴⁸⁾에서 몸을 금으 키여.”

“어서 걸랑 기영 허렌.”

허연 주청비는 옷통에서 소미만 견언 물소리만 팡당팡당 뉘단 알통더레 바라보난 문도령은 알통에서 옷광 문들락후게 벗언 이레 참방 저레 참방 몸 모욕을 허여 간다.

“멍텅헌 문도령아 연삼년 간 니영 나영 혼 방에서 글공빌 허여도 여자 남자 구별을 못허는 멧텅헌 문도령아, 야 난 먼저 집으로 가켄.”

허여 옷을 입언 주청비는 먼저 집으로 들어오라 간다.

그 때에는 집으로 들어오라 아바님신디 간 어머님 방에 놀려들언

“아바님 어머님 연삼년 글공부 배왕 오랏수다.”

“명심보감 소략초간 잘허연 오랏구나. 나 딸 기특허다. 니방으로 들렌.”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험센.”

허연 그 때에는 남자 방에 놀려들어 남자입성 벗어두고 여자 방에 놀려들 여자입성 입어 바련 보난 야 문도령 생각이 깜빡 잊언 그 때엔 야 바깸디 나고 바라보난 문도령이 잇엇구나.

그 때에는 상다락도 무어 간다. 중다락도 무어간다. 하다락도 무어간다. 초경 이경, 야사 삼경 근당허난 문도령님은 옥황사람이니이 밤 저 밤새에 옥황으로 도올를 시간이 뉘여지난 주청비 누운 방 안에 가 방 앞이 간 군메로 어식더식 비치와 가난

“귀신이나 생인이넨.”

허난

“아이고 난 귀신도 생인도 아니 문도령이엔.”

허난 그 때에는 야허 문도령 방으로 들어 간 문도령 주청비신디

“난 이거 아메도⁴⁴⁹⁾ 옥황에 강 아바님 어머님신디 강 야 서수왕에 장게 못 가키엔 헤어동 오크메⁴⁵⁰⁾ 주청비야 느 날 생각허영 야 이거 기다럼시렌.”

허멍 그 때에는 야

“나 이거 옥황에 도올라도 나 보듯 보렌.”

허멍 그 때에는 문도령님이 주청비신디 도실씨⁴⁵¹⁾를 후나 주언

447) 알통 : 아래 우물

448) 우통 : 위(上) 우물

449) 아메도 : 아무래도

450) 가키엔 헤어동 오크메 : 가졌다고 해두고 올테니

451) 도실씨 : 복숭아 씨

“창문 발라 싱경⁴⁵² 날 보듯 보렌.”

허여동 야 그 켜 문도령님은 옥황사이니 이 밤 저 밤 새에 옥황더레 상천허여 부러수다에.

조청비는 문도령 준 도실씨를 창문 발라 싱경 어늦동안 혼 입 두 입 울려 간다. 야 도실꽃이 만발 허민 문도령님이, 지하레 조청비 날 좇앙 올 건가 허여도 아니 오라 간다.

도실 열매가 올라 가면 옥황에 문도령님 지하에 조청비 날 좇앙 올 건가 해도 아니 오는 게 후를 날은 창문을 열고 보난 어느 동안 날도 붉기전이 해변 사름덜은 몰무쉬⁴⁵³ 거느리멍, 낭허레 감시 난 조청비애기씨 상전님은 느진덕정하님신디 정술덱이신디

“야 어늦동안 날 붉기전이, 해변 사름덜도 몰무쉬 거느령 산 중 산 중 낭허레 가느디, 정이엇인 정수남이도 밥만 먹어지민 즘만 자젠 말앙, 혼저 강 낭허영 오렌 허영 강 일리렌.”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험서.”

정술덱이 정수남이신디 간

“낭을 헤영 오렌.”

허난

“오날은 날은 늦어불곡 허난 넬 날은 몰 아읍 쉼 아읍 문딱 출령 네 노민, 해변사름덜 혼 들치 낭 헤오는 거 나, 넬 강 후를에치 험 혼 들치 혼 거 만이민 나 해당 데미켄⁴⁵⁴.”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뒷날은 정이엇인 정수남이 낭 허레 보네젠 허난 쉼⁴⁵⁵ 아합도 질메지왕⁴⁵⁶ 네여논다. 몰 아합도 질메지왕 네여논다. 쉼 아합 몰 아합 이구십팔 열으둑 무리 거니런 산 중 산 중 낭허렌 가단 보난 어 늦동안 봄이라 헤는 진 진허고 먼 길 걸어나난

“점심이라도 먹영 낭을 허영 가준.”

허영 동더레 벌은 가지 쉼 아합도 메여간다. 서러레 벌은 가지 몰 아합도 메여두고 정심을 먹으난

“야 이건, 혼 즘 장 일어낭 낭이나 헤영 가준.”

허연 정심먹은 혼 즘 잔 일어난 바라보난 진 진헌 헤에 쉼광 물덜은 어느 풀 혼 줌 물 혼 번 아니 멕연 네부난, 동서러레 다 자빠져시난 조꼳더레 바라보난 바싹 물른 멩게낭⁴⁵⁷인가 잇이난 멩게낭 벅탄 슷불 와랑와랑 피와노왕

“익어시냐 혼 점 설어시냐 혼 점.”

허는 것이 정이엇이 정수남이 쉼 아읍 몰 아읍 다 구왕⁴⁵⁸ 먹어 가읍디다에.

452) 싱경 : 심어서

453) 몰무쉬 : 마소, 우마. '무쉬'라고만 하기도 하고 '몰무쉬'라 하기도 함

454) 데미켄 : (물건을) 한곳에 차곡차곡 쌓아 놓겠다고

455) 쉼 : 소

456) 질메지왕 : 길마 지워. '질메 =길마'란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등에 엮는 안장

457) 멩게낭 : 청미래덩굴

458) 구왕 : 구우며

다 먹어두고 황기도치⁴⁵⁹만 둘러메언 내려오단 바라보난 올리소에 올리⁴⁶⁰ 혼 쌍이 잇이난
“아저 물 우티 우에 앓은 올리 혼 쌍이나 잡앙 강 상전님 눈에 드령 나 집으로 들어 가젠.”

헤연 물 우티 앓은 올리 혼 쌍을 황기도치로 다락허게 마치난 올리 혼 쌍은 물 우터레 푸드득이
늘아가불고 황기도치는 물 아래 풍당허게 들어가부난 이젠 이거 황기도치라도 좇앙 가젠 허연 입
엇던 가족 점벙이⁴⁶¹ 벗언 낭 우터레 걸쳐두고, 물알 물러레 들어 간 이레 참방 저레 참방 바라봐도
황기도치는 어느 물 속더레 펄 속더레 들어가부러신디 좇진 못허고 물 벳기디 나오란 바라보난 여
정이엇인 정수남이 입엇던 가족 점벙이는 헤변사름덜 낭 허영 가단 굽을텡이⁴⁶² 요거 허기 좋덴 허
연 굽을텡이 허연 내려 가부난 동더레 바라 보아도 입이 넓은 야 개광입⁴⁶³만 번들번들 헤시난 그걸
알⁴⁶⁴을 금천⁴⁶⁵ 집으로 들어오란 빈 항 속에나 곱앗당⁴⁶⁶ ‘이 밤 저 밤 다 즈건 나 늙는 방드레나 들
어가젠’ 험게, 정이엇인 정술덱이 정수남이 낭 허영 오라시민 장콰이라도 끌영 저녁을 주젠 장 거
리레 간 보난, 난디엇인 빈 항 뚜쟁이가 들썩들썩 춤을 추어가난 겁이 바락⁴⁶⁷ 난 정술덱이 어 거 야
이거 주청비 아기씨 상저님신디 간

“상저님아 난디엇이 장 거리레 간 보난, 빈 항 뚜쟁이가 들썩들썩 춤을 침수덴.”

허난 그 떼는 수장남⁴⁶⁸ 수벨감⁴⁶⁹을 다 불러들여

“야 어서 열렌.”

허연 올안 보난 야 난디엇이 정이엇인 정수남이 야 그 안네 곱아시난 그 떼에는

“야 쉼 아합 물 아합은 어떻 헛느냐. 낭은 너 허영 온 것이 어느게닌.”

허난

“아이고 아기씨 상전님아 나 죽을지라도 나 혼 말이라도 곱아동 죽으쿠덴.”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그 떼에는

“아기씨 상전님아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쉼 아합 물 아합, 거니려 산 중 산 중 낭허레 올라가단
바라보난, 야 문왕성 문도령님이 궁녀 신녀청 거느령 테역단풍 존디서, 북장귀 두드리멍 노는 것이
하도 조앙 그걸 구경허단 바라보난 쉼 아합도, 간간무레⁴⁷⁰ 일러부러수다. 물 아합도 일러불곡⁴⁷¹,

459) 황기도치 : ‘황기’와 ‘도치’ 모두 ‘도끼’를 말함

460) 올리 : 겨울 철새인 오리 따위를 모두 일컫는 말

461) 점벙이 : 잠방이, 훌바지

462) 굽을텡이 : 구불랭이, 짐을 질 때 등이나 엉덩이를 누르지 않게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받침

463) 개광입 : 쥐똥나무 잎

464) 알 : 아래

465) 금천 : 감추어

466) 곱앗당 : 숨었다가

467) 바락 : 성이 나거나 하여 갑자기 기를 쓰는 모양

468) 수장남 : 수(首) 남자 머슴

469) 수벨감 : 수(首) 별감(別監)

470) 간간무레 :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림

471) 일러불곡 : 잃어버리고

쉐 아홉 몰 아홉 좃젠, 가시자울⁴⁷²로 다 덩기단 보난 입엇던 옷도 갈갈기 다 찢어졌수덴.”

허난 그 때에는 정이엇인 정수남이 죽일팔로 야 허단, 문도령 말이엔 허난

“게민 느 이 번만 살려줄테니 넬이라도 당장 문도령 잇인 곳을 그리칠 수 잇겠느냐.”

“어서 걸랑 기영 허라헙서.”

뒷날은 상전님 태왕⁴⁷³ 간 마굿간에 간 야 물막에 간 물도 흔 필 헤여 노안 물안장을 지와 간다.
몰쿠셔도 지나 간다.

“상전님 요레 훈저 몰 우터레 탐서 물안장 우터레 탐서, 나 물을 이끄곡 정심을 정 문도령신디 어서 가게마썸.”

가는 것이 먼 길이라 가단 가단 보난 헤야 이거 시장도 허곡 허난

“정수남아 오라 우리 정심이나 먹영 가게.”

“어서 걸랑 기영 헙센.”

허연 산 중으로 들어 간 정심을 먹젠 허난 정이엇인 정수남이가

“상전님아, 우리 둘이 마주 앓양 밥을 먹어가민 먼 뒷 사람은 부베간이 낭 허레 오랏당, 우릴 보민 부베간이 밥 앓양 먹엄덴 허곡 조곳딧⁴⁷⁴ 사름은 보민 상전광 종이 훈디 앓양 밥 먹엄덴 허영 송을 봅니께.”

“어떻 허느니.”

“상전님이랑 상전님이 메 높은 동산에 앓양 밥 먹읍서. 난 종이 한집이난 아무 굴형⁴⁷⁵더레라도 네려 상 밥 먹쿠다.”

“어서 걸랑 기영 허라에-.”

정이엇인 정수남이 굴형더레라도 네려 산 밥을 평비아기⁴⁷⁶만씩 먹어나 가웁디다. 어 조청비아기 씨 상전님은 벳⁴⁷⁷ 와랑와랑⁴⁷⁸ 나는 높은 동산에 앓양 범벽을 흔 적 똑허게 끈어 먹으난, 짤짤한 먹을 수가 엇언 알러레 굴형더레 바라보난, 정이엇인 정수남이가 하도 맛중게 정심을 먹엄시난

“정수남아 니 음식 맛은 어떻 허느닌.”

“아이고 상전님아 종이 한집이 맛을 출령 먹읍니까.”

“아이고 상전 노릇허기도 힘들다. 난 경 안 헤도 상전이엔 헤영 벳 와랑와랑 나는 높은 동산에 앓양 범벽을 흔 적 끈어 먹으난 짤짤허연 못 먹키여.”

그 때에는 동산 우터레 올라오란 상전님 먹은 범벽은 반찬 삼고 이녁 밥은 밥을 삼안

정이엇인 정수남이 정심을 먹어 간다.

먹언 가는 것이

472) 가시자울 : 가시자울, 가시덤불

473) 태왕 : 태워

474) 조곳딧 : 조갓딧. 걸 또는 가까운 곳

475) 굴형 : 움푹 패이거나 깊이 빠진 구렁

476) 평비아기 : 꺾병이. 평 병아리

477) 벳 : 별

478) 와랑와랑 : 불 기운이 사방에 넘치는 꼴

“정수남아 예가 칭칭 몰라지다. 요 물을 먹영 가게.”

“이 물은 궁녀 신녀청 손발 씻인 물입네다.”

요 물 먹영 가겐 허민

“요 물은 물 무쉬 쉼 무쉬 먹는 물입네다.”

가단 보난 시네 방청이 물이 잇었구나

“아이고 정수남아 우리 여기서 물을 먹영 가게.”

“상전님아 집 안네서만 방 안네서만 산 생각 허지ampus. 드룻⁴⁷⁹⁾ 노변 오민, 물 먹는 것도 다 예가 이십네다.”

“어떻 허영 물을 먹느니.”

“상전님아 나 돈저 물을 먹으크메 나데로 꼭 예 허영 목을 먹읍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에-.”

정이엇인 정수남이 웃도릴 확하게 벗언 높은 낭에 걸쳐 두언 업더지언 물을 먹언 일어 산

“상전님도 나와 그치 꼭 그치 물을 먹어야 험니덴.”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즈청비 상전님도 웃도 웃저구릴 벗언 낭 우티 걸쳐두고 업더전 물을 먹노렌 허난 정이엇인 정수남이,

“정수남아 영허지 말앙 우리 아명해도 오닐은 날이, 날을 저물앙 집이 못네려 갈 거난 호롱담을 좃어당 느영 나영, 호롱담을 다왕 움막을 짓영 움막 안네서 느영 나영 후룻밤을 지세영 널일 날랑 집으로 네려 가기가 어찌 허겟느냐.”

“어서 걸랑 기영 험서.”

호롱담을 좃어다가 움막을 지어간다.

“정수남아 널라근 밧갓디서 찬바람이나 아니 들어오게, 움막을 어느 어욱⁴⁸⁰⁾이영 세⁴⁸¹⁾영 헤어당 움막을 막으라. 날랑 움막 안네서 불이나 살람시키여.”

“어서 걸랑 기영 험서.”

정이엇인 정수남이 야 세영 어욱이영 헤어당 야 이거 이 고망⁴⁸²⁾에 막으민 저 고망엿 거 안으로 확 뺩⁴⁸³⁾ 불살랑 추와불곡⁴⁸⁴⁾ 저 고망 막으민 이 고망엿 거 확 불살랑 추와부는 것이, 움막 벧긋디서 만⁴⁸⁵⁾ 뺩뺩 돌단 보난 어늦동안 날 붉는 줄 몰르게 먼동 금동 데명천진 붉아부룻구나.

정이엇인 정수남이 엇인 부에가 나⁴⁸⁶⁾ 움막 안네 들어가난

479) 드룻 : 뒤에 단어가 합성되어 ‘들’이라는 뜻

480) 어욱 : 역새

481) 세 : 새. 벗과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482) 고망 : 구멍

483) 뺩 : 빼서. 빼내서

484) 추와 불곡 : 치위 버리고

485) 벧긋디서만 : 바깥에서만

486) 부에가 나 : 화가 나서

“정수남아 경 용심⁴⁸⁷만 네지 말앙 나 동무립⁴⁸⁸ 베게 삼앙 누렌.”

허난 서른 으둑 닛바디⁴⁸⁹ 허우동쌩⁴⁹⁰ 웃어간다.

베게 삼앙 동무립에 누우난 침데질 허던 은장도로 웬 귀로 오른 귀레 오른 귀로 웬 귀레 찢러난, 저 산 얼음 녹듯 구름 녹듯 움막안네서 정이엇인 정수남이 소르륵하게 죽어가웁디다에-.

야 그 떼에 조청비 아기씨 상전님은 정이엇인 정수남이 움막안네 놓아두고 물을 탄 집으로 네려 오는 게 어떻 허난 야 이견 놀랑네⁴⁹¹ 놀핏네가 건득후고, 저 물공지엔 무지력 총각⁴⁹²이 바짝 둘랑 오람덴 일러가는구나. 집으로 들어 간 먼정⁴⁹³ 올레⁴⁹⁴ 물을 메어두언 어머니신디 아바님신디 간

“어머님 아바님야 정이엇인 정수남이 행실이 하도 곳언 이만 저만헤언 움막안네서 죽여된 오랏 수다.”

“기집년이 남도 낫져. 어떻 사람을 죽이느니. 어서 나고가렌.”

허난 아방 눈에 골리난다⁴⁹⁵ 어멍 눈에 신지난다⁴⁹⁶.

어허 조청비 어딜로 가리오. 가단 가단 바려보난 주모땅이 근당한다. 주모땅을 근당하고 보니 야 주모땅에서 주모할마님이 비단클에 앓안 왓각찰각 비단을 짬시난, 조청비가 야 주모 할마님신디 간

“질 넘어가는 길손인디 먼 길 걸어나난 에도 몰라지난⁴⁹⁷ 물이나 혼 사발 얻어먹영 가젠 험수다.”

“어서 걸랑 기영 허렌.”

허연 주모하마님은 정저레⁴⁹⁸ 물 거리레 가분 수이에 조청비 애기씨 상전님은 할마님 차단 비단클에 앓안 와락차락 비단을 짜노렌 허난 할마님 물거련 오란 보난 어늦동안 비단클에 앓안 비단을 짬시난

“아이고 서룬 애기야 비단이라 헨 것은 혼 새가 글르민 다 글러부는 거여.”

바려보난 할마님 짬 비단보단 조청비아기씨 짬 비단이 더 고와섯수다에-. 그 떼에는

“야 어드레 가는 아긴데”

“지하레 조청빈데 아바님에 골리나곡 어머니님 눈에 신지나, 갈 디 올 디 엇인 몸이 뒤어수덴.”

허난

“게건 우리집이 수양뜰애기로 들영 나영 그찌 비단클에 앓앙 비단이나 짜멍 살기 어찌 허겟느냐.”

487) 용심 : 화

488) 동무립 : 독무립, 무릎

489) 닛바디 : 닛바디, 잇바디, 치열

490) 허우동쌩 : 허우당쌩, 매우 기빠서 입을 크게 벌리며 웃는 꼴

491) 놀랑네 : 피비린 내, =놀핏내

492) 무지력총각 : 어리석고 무지한 총각이라는 뜻으로 알잡아 이르는 말

493) 먼정 : ‘먼올레’에 마련되어 있는 정낭

494) 올레 : 제주도 집 특유의 공간으로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좁은 길목

495) 골리난다 : 거슬린다

496) 신지난다 : 거슬린다

497) 몰라지난 : 마르게 되니, 마르니

498) 정저레 : 정지로, 부엌으로

“어서 걸랑 기영 험서.”

그 때에는 비단을 짜 간다.

후를 낳은 주모할마님이 도폭을 허는 것이

“할마님아 이 도폭은 누가 입을 지야 도폭입니까.”

“이만 저만허여 옥황에 문도령, 서수왕에 장게 갈 때 입을 도폭이여.”

“할마님아 그 도폭은 나가 지우쿠다.”

“어서 걸랑 기영 험서.”

조청비가 비세고치 울멍 문도령 입을 도폭을 지와가멍 안썸에 조청비 이름 삼 자를 세겨가는구나. 할마님은 그 도폭을 갖언 조부줄⁴⁹⁹⁾을 탄 옥황에 문도령신디 간

“야 요 도폭을 입읍센.”

헤연 도폭을 문도령님이 그 도폭을 확 입언 안성금을 메젠 바라보난 조청비 이름을 딱세겨져시난

“할마님아 이 도폭은 누구가 지와시냐.”

“우리집이 수양뜰애기 조청비가 지엇덴.”

허난 그 때에는 문도령이

“할마님아 이 밤 저 밤 야 뉘면 나가 조청비신디 가크메 조청비신디 강, 이 밤 저 밤 새에 나 강 문을 올렌 허건 문도령 오라신간 헤영 문을 올렌 험서.”

“어서 걸랑 기영 험서.”

할마님은 지하레 내려 산 야 이건

“조청비가 짠 도폭을 입언 누구가 지어수겐 허난 조청비가 지엇덴 허난 이 밤 저 밤 새에 널 좇앙 오겐.”

헤연

“어서 걸랑 기영 험센.”

허연 아닌게 아니라 이 밤 저 밤 새 근당 허난 조청비 누운 방앞으로 간 야, 군메⁵⁰⁰⁾고찌 어씩더씩 야 군메를 비치와가난 조청비가 문도령인 줄 알안

“귀신이나 생인이냐. 귀신이건 옥황더레 도올르곡 생인이건 누구가 뉘시닌.”

허난

“난 옥황에 문도령이 뉘시덴.”

허난

“문도령님이건 야 문도령 때문에 췌 엇인 정이엇인 정수남이 움막에서 야 죽언. 어멍 눈에 골리 나곡 야방 눈에 신지 난 몸 뉘여시난, 옥황사름이니 옥황 서천꽃뱃디 도올랑 사름 살릴 꽃이나 헤영 읍센.”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렌.”

499) 조부줄 : 하늘 옥황에 오르내리는 넝쿨 줄

500) 군메 : 그림자

허연 문도령은 옥황에 도올란 피 오를 꽃 말 글을 꽃 사름 살릴 꽃 허연 오라시난

“문을 올렌.”

허난

“야 이건 사름살릴 꽃이엔.”

헨 확 받아앗안 문을 툇 더끄난⁵⁰¹⁾

“어떻 허난 문을 열림 야 더끔시넨.”

허난

“문도령님이 분명허건 야 창궁기⁵⁰²⁾로 상손가락⁵⁰³⁾을 네물민 알 도레가 잇수덴.”

허난 창궁기를 정이엇인 정수남이 살아나웁디다에-

정수남이 살려 집으로 둘안 들어 간

“어머님이 아바님이 정이엇인 정수남이 살려 오랏수덴.”

허난

“기집년이 남도 낫져. 독험도 독허다. 어떻 사람을 죽이곡 살리느니, 어서어서 문 뵈기디 나고가 렌.”

허난

“정이엇이 정수남이 살려 오민 어머님 아바님 야 주식으로 받아 드리카부덴.”

허난 야 허

“눈에 나고 가렌.”

허난 아명허민⁵⁰⁴⁾ 어떻 허리오. 혼 설 짝 두 설 짝 열다섯 십오 세 입단 옷 다 갖언 주청비 어딜로 가리오. 동으로 들어 서으로 난다. 서으로 들어 동으로 난다. 삼도전거리 근당허고 바라보난 시녀 궁녀청들이 비세그치 앓아 울엄시난

“어떻 헨 울엄시니.”

허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옥황에, 시녀 궁녀청인데 문왕성 문도령님 지하레 주청비, 상사병이 난 죽을 소경이 뵈언 지하레 주청비 먹던 물이라도, 강 떠 오렌.”

헤연 야 우리에 주청비 먹던 물 구할 수가 없언 옥황에도 도올르지 못허연 비세그치 울엄수덴 허난

“게민 나가 주청비 먹던 물을 야 이거 떠 줄테니, 나도 신녀 궁녀청광 그찌 옥황에 도올 수가 잇겠 느냐.”

“어서 걸랑 기영 험서.”

그 때에는 시녀 궁녀청 거너리언 야 주부줄을 탄 옥황에 도올라 가는구나에-

옥황에 도올란 어헌 얼굴을 가리언 우선 문도령 눈 방이나 알젠 허연

“문도령 시권제를 네여줍서 높이들러 알려레 시르르시르르 혼 방울이 떨어지민 멩도 떨어지곡

501) 더끄난 : 닫으니

502) 창궁기 : 창문에 난 구멍. 밖을 내다보기 위해 낸 구멍. =창공, 창궁

503) 상손가락 : 가운데 손가락

504) 아명허민 : 아무려면

복도 떨어집네다. 문도령 방은 어느 방이 됩십니겐 ”

해연 방 알안 놓아 뒸단,

초 경 이 경 떼가 뒸난 문도령 방 앞으로 간 나무에 걸터 앉안 서창헌⁵⁰⁵⁾ 노래를 불러간다.

“저 달은~ 밧긔 곱긴 곱다마는 달 가운데 계수나무 잇어지고, 하늘 옥황문도령 얼굴마니 곱질 못 허덴.”

서창헌 노래를 불러가난 그 때에는 문도령님이 확하게 방문을 올안 나오곡 바련 보난

“이런 노렐 불림시냐 누가.”

“난 이거 지하레 조청비가 뒸우덴.”

허난

“조청비건 어서 낭 알러레 네려오렌.”

해연 낭 알러레 네려 산 건 바려보난, 아닌게 아니라 조청비가 뒸엿구나. 방으로 돌안 들어 간 낮 이는 펡풍⁵⁰⁶⁾ 두에서 살려 간다. 밤이는 야 부베간 법 마련허연 살아간다.

어 서수왕예선 훈저 훈저 예문예장 가져 들이렌 후를 멧번씩 독촉이 오라가난 그 때에는 조청비가 문도령신디

“설운낭군님아 아바님신디 강 예속을 제경⁵⁰⁷⁾ 읍서.”

“무시거엔 강 예속을 제경 오느닌.”

“아바님신디 강 예속을 제끼뒸 묵은 것이 좋덴 허건, 어 서수왕에 장게 못가켄 허곡, 새것이 좋덴 허건 날 네불어뒸 서수왕에 장게듭서.”

“어서 걸랑 기영 허게.”

아바님신디 강 예속을 제끼는 게 야, 아바님이 모든 것이 다 이거 묵은 것이 좋덴 허난

“게민 나 아바님 말씀테로 서수왕에 장게 못가게 뒸엿수다.”

후를 날은 어허 문도령 아바님이 조청비신디 오란

“나 메누리가 적실허면 벵탄숯불 오랑와랑 잉얼잉얼 피와노왕 칼선드릴⁵⁰⁸⁾ 발아 나콧 발아들민⁵⁰⁹⁾ 나 메누리로 적실허덴.”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헉센.”

허연 벵탄숯불 잉얼잉얼 피와노왕 칼선드리 발아간다 발아오는 게 마지막에 야, 발 뒤꿈치로 피가 빨긔하게 나난 문도령 아바님이

“어땡 허난 놀랑네 놀핏네가 건뒸헨.”

“열다섯 십오 세가 근뒸민, 여자라 헨 건 전부름 후부름 법이 잇습니다.”

그 걸 그 말도 들언 보난 맞을만도 허엿구나.

505) 서창헌 : 구슬프고 서러운

506) 펡풍 : 병풍

507) 예속을 제경 : 수수께끼 놀이 해서

508) 칼선드릴 : 칼선드리를. 칼날 두 개가 모두 위로 향하여 놓인 것

509) 발아들민 : 걸어오면. =발아오/가다. 발아땡기다. 발 붙이기 어려운 곳을 기어 다니거나 걸어 다니다

살아가는 게 서수왕에선 하도 이거 독축을 오라가난

“설운낭군님아 아멩 해도 혼 번은 강 야 오라야홀 길 강, 혼 잔 술이라도 데접후건 혼 잔술에 새
510)가 들엉 야 좋은 목숨 죽어질 거난 야 먹지 말앙 입장 결혼 못허쿠덴만 헤여팅 오라뵈센.”

허연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말을 타 야 보네난 서수왕에서 일가 방상⁵¹¹⁾덜이 마딱 모다앗언 혼 번은 죽일팔로 혼 번은 살릴팔
로 실려간다.

술 혼 잔 권허는 게 혼 잔 술에 야 물 우티서 먹는 게 혼 잔 술에 소르룩기 야 물 알려레 털어지언
죽으난 물은 이녁만⁵¹²⁾ 영마의 짐승이난 이녁만 집이 오라시난

“아이고 설운낭군 그만큼 시견 보넨 놔두난 혼 잔 술에, 야 곳인 새가 부떠 죽었구나.”

그 물을 탄 도령님 물우티 테완 집으로 오란 방안네 놔두고 야 무췌 조베기⁵¹³⁾도 헤연 멕여가는구
나.

그 때에는 다 허여두고 정이엇인 정수남이 움막에서 죽을 때 옥황서천꽃밭 들어 간 사름 살리는
꽃 헤여단, 정이엇인 정수남이도 살려나시난

“나도 서천꽃밭 좃앙 들어 강 사름 살리는꽃이나 허여당 문도령이나 살리준.”

영 허연 가단 가단 다 서천꽃밭 좃안 들어가는 것이 죽은 화기새⁵¹⁴⁾ 야 서천꽃밭디 허나 던저된
야 서천꽃밭 이레 저레 넘보노렌 허난 서천꽃밭 부성감 대감님이

“어떻 허난 놈이 서천꽃밭을 넘보느냐.”

“예 놀아가는 화기새를 혼 화살에 맞췄는디, 서천꽃밭디 떨어지언 화기새를 좃젠 험수다.”

“너도 너 재주만 허난 우리집 조운사위 허기 어찌 허겄느냐.”

“어서 걸랑 기영 험서.”

서천꽃밭 부성감덕에 어 조운사우 들어나 가는구나. 서천꽃밭 들어 간

“요 꽃은 피오를 꽃 말오를 꽃 오장육부 오를 꽃, 사름살릴 꽃.”

이엔 허난 오독독기⁵¹⁵⁾ 사름살릴 꽃만 꺾언 쿨에 곱저간다.

야 후를 날은 부성감집이 단똥애기 아바님신디 간

“아이고 아바님아 아바님 손으로 조운사우도 잘 험수다. 어떻 허난 살아도 남자 여자 구별을 못
허염수덴.”

허난 후를 날은 조청비 불러단

“이만 저만한 일이 잇겄느냐.”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 상시관에 과거 보레 가젠 허난 몸정성을 허염수덴.”

510) 새 : 사악함. 나쁜 일이나 징조. 잡귀

511) 일가 방상 : 일가 친척

512) 이녁만 : 자기만

513) 조베기 : 수제비 같은 음식

514) 화기새 : 봉(鵬)새(鳥)

515) 오독독기 : '오독독'하는 소리를 내며 단번에 부러지는 골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렌.”

허연 허를 낳은 조청비 나고오젠 허난 부성감집이 단뿔애기

“설우시던 낭군님야 야 우리가 혼인을 허영 얼굴도 익숙지 아녀곡 오레 살아나지도 아녀곡 영 허난.”

“서울 상시관에 과거 들어가민 어느제사 올디 몰르난 상동낭 용얼레기⁵¹⁶⁾ 반착 본메본짱 네여 안넬틴.”

허난

“야 이루 후제 본메본짱 네여줍센 허건 요 거 맞추민 설운낭군인줄 알쿠다.”

“어서 걸랑 기영 허렌.”

허영 그 때에는 조청비 나고오젠 허난 서수왕에서 본메본짱 상동낭 용얼레기 반착을 네어주어 가옴데다.

그걸 갖어 조청비는 집으로 오란 문도령 신디 누운 방문 올안 피오를 꾀 솔오를 꾀 말기를 꾀 사름을 살릴 꾀 허연 야 설운 낭군 살려 문도령 살려

“설운낭군님야, 이만저만이 현 설운낭군 살리젠 서천꽃밭 야 부성감집이 단뿔애기 조운 사우로 들어시난 그디랑 전부름 이디랑 후부름 허영 가명 오명 삼센.”

보네여 간다.

“어서 걸랑 기영 허게.”

보네연 놔두난 문도령님은 전부름이 뉘여도 아니오라 간다, 후부름이 뉘여도 아니오라 간다. 아명허민 어떻 허린 열두복 훗단치마 깎을 둘러 곱게 단장허연 야 먼발치로 간 야 바라보아도 문도령님은 조청비신디 눈도 떠 거듭 떤 아니 바리난

“영 허난 남자는 야 웨무음이로구나. 아명 허면 난 옥황에서 살아지랴. 이왕지서 옥황에 인간에 야 이거 내려사젠 허민, 염주신농씨나 들어 강 열두시만곡⁵¹⁷⁾이나 다 허영 인간에 강 내려 강 인간 덜 농업 농서 허영 살기 마련 허긴.”

허영 염주신농씨 들어 강 열두시만곡을 타는 게 제일 마지막에는 모멸쌀⁵¹⁸⁾ 탄 급하게 놀딜 것이 난 소중길⁵¹⁹⁾ 확 벗언, 모멸씬 야 이거 놓아난 법으로써 모멸씨는 니귀 나귀 소중귀기도 닳덴 허염수다.

열두시만곡씨 탄 지하레 내려오단 보난 여 장남덜 으라 장남덜 밧덜 갈암시난

“길 넘어가던 길손인디 정심이나 먹영. 야 이거 먹단 거 잇건 먹영 가쿠덴.”

허난

“우리집이 장남덜 먹을 정심도 엇덴.”

허난

516) 용얼레기 : 열레빗

517) 열두시만곡 : 가을에 거두는 곡식의 총칭

518) 모멸쌀 : 메밀씨를

519) 소중길 : 소중기를. =소중의. 무명이나 삼베로 만든 여자의 속옷

“요 밧디랑으녕에⁵²⁰ 밧 갈당 벳보섭도 야 이거 쌀기쌀성을 불러주라.”

밧 갈단 장남덜 갑자기 베아팡 이레 핑핑 저레 펑펑 누윙 둥글게 베아팡 누윙 둥글게 광난이⁵²¹ 쩡도 불러주기 마련한다.

그 때에는 옛집을 좇양 오젠 허연 먼정으로 옛집을 들어사고 보난 어늦동안 정신이 엇인 정수남 이 야 이거 먼정 올레로 들어사가난 허부제끼⁵²² 업더저 절을 허여간다.

“아바님 어떻허여.”

“어머님도 죽은 때가 오래였수다. 아바님도 죽은 때가 오래였수다.”

“설운아바님이랑 제석하르바님으로 들어상 받으서. 어머님이랑 제석할마님으로 들어 상 받기 마련협서.”

정이엇인 정수남이 칠 월 열나흘 백중사리⁵²³로 들어 상 받기 마련을 한다. 주청비는 야 세경신중 마누라로 들어 상 상 받기 마련을 후읍데다.

세경신중 난수생 신폴어 잇습네다.

7. 차사본풀이 (이승순 구연)

체서님~ 본산국이 어답네까

동경국 범을왕님 사웁데다 김치골에 김치원님 사웁데다. 동문 밧껏⁵²⁴ 역력후고⁵²⁵ 똑똑헌 강림 일 사웁데다. 상중절은~부처 직헌 데서님도 사웁데다, 과양땅에 과양성이 사웁데다.

동경국범을왕님 아들이사 낳은 게 삼삼은 구 아홉 형제 솟아난다.

이 아기덜 우이로도 삼형제 탄싱허난 열다섯 십오세 근당허니 멩이 줄라⁵²⁶ 인간 하직 허웁데다.

알로도 삼형제 탄싱허난 이 아기덜토 열다섯 십오세 근당허난 멩이 줄라 인간 하직 하웁데다.

새로 삼형제 탄싱허난 이 아기덜토 열다섯 십오세가 스고전명 메기⁵²⁷라 가웁데다. 이 아기덜 삼형제는 동네 금방 십리 밧껏 일천서당 무어놓고 가멍 십리 오멍 십리 글공부를 베와간다.

후를 낳은 범을왕 아덜 삼형제 일천 서당 글공부 간 오단 동네금방상 연그늘 아레서 노념놀이 놀 암시난 동계남은 상중절은 서계남은 은중절 부처 직헌 데서님은 헌 당 헌 절 혈어지난 시권제 삼문 받으레 절간 알러레 소곡소곡 사웁데다에-.

520) 밧디랑으녕에 : 발은, ‘-이랑으네에’는 뜻을 강조함

521) 광난이 : 갑자기 통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급질의 한 종류

522) 허부제끼 : 주로 덩치가 큰 사람이 넓적 평퍼짐하게 엮드린 꼴. =넙작이. 허부작이

523) 백중사리 : 백중제(百中祭). 마불림

524) 밧껏 : 바깥

525) 역력후고 : ‘역역후다’는 사람이 약아서 미련하지 아니하다는 뜻

526) 줄라 : 짧아

527) 메기 : 아무 것도 없거나 하던 것이 ‘끝’임을 나타내는 말

내려오단 내려보단 동경국을 근당하고보니 연그늘 아래서 범을왕 아덜 삼형제가 일천 서당 간 오단 노념놀이 놀암시난

“설운 아기덜 니네덜 서이가 꼭그치 노념 노는 걸 보난 범을왕아기겐.”

후난

“기넨.”

후난

“설운 아기덜 너이덜도 열다섯 십오세가 당허민 스고전명(四顧定命)이 메기난 매우 멍심허렌.”
일러두고 넘어 가옵디다에-.

그 말 들언 동경국 범을왕 아덜 삼형제는 비세그치⁵²⁸⁾ 올명 집으로 들어가명

“명 쫄르게⁵²⁹⁾ 날 나준 어머니야 단명허게 날 나준 아버지야 우리도 어떻 허게 열다섯 십오세? 하지만 야 살게 납데가.”

“설운 아기덜 느네덜 거 무신 말이고.”

“어머니야 아버지야 우리 삼형제 오널 일천 서당 글공부 간 오당 연그늘 아래서 노념놀이 놀암시난 데서님이 넘어가단 범을왕아들 겐후난 ‘김네덴’허난 우리를 보고 열다섯 십오세가 스고전명이 메기난 매우 멍심허렌 일러두고 넘어가옵디다에-.”

그 말 들언 동경국 범을왕님

“수장남⁵³⁰⁾아 수벨감⁵³¹⁾아 먼정⁵³²⁾ 올레에 나고 강 혼 저 데서 잇건 안으로 청허여 들이라.”

“어서 걸랑 기영 험서.”

수장남 수벨감은 먼정 올레 나고보난 아닌게 아니라 데서님이 소곡소곡 오람시난

“데서님아 범을왕네 집이 사는 수장남 수벨감인데 먼정 올레 강 데서님 잇건 혼 저 청허영 오락수덴.”

허영

“경 안해도 동경국범을왕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로다에-.”

데서님은 동경국범을왕 집으로 들어사난 동경국범을왕이 허는 말이

“데서님아 데서님아 죽다남은 이 아기덜도 열다섯 십오세가 스고전명이 메기라 허니 이 아기덜 죽을 날만 알곡 어떻 허민 멍과 복을 잇어 날수겐.”

일러 간다. 데서님이 말이로다.

“이 아기덜 멍과 복을 잇어나젠 허민 데공단 고칼⁵³³⁾ 드려 머리 삭발 시기곡 중이 행착⁵³⁴⁾ 출령⁵³⁵⁾ 우리 절간 법당으로 보네영 연삼년 이야기덜 야, 절간 생활을 시겸시민, 멍과 복을 잇어 날 듯 험니

528) 비세그치 : 비세 같이. ‘비새’는 비가 올 듯할 때 잘 우는 새

529) 쫄르게 : 짧게

530) 수장남 : 남자머슴

531) 수벨감 : 남자 머슴을 높여 부르는 말

532) 먼정 : ‘먼 올레’에 마련되어 있는 정낭

533) 데공단고칼 : 대공단고칼. 중의 머리를 깎는 칼이라 함

534) 행착 : 차림새

535) 출령 : 차려서

다.”

데서님은 이 말을 일뢰된 시권제⁵³⁶⁾를 받아 나아가는구나에-. 동경국범을왕님 앓아 탄복을 허여 가는 게 후를 낳은 삼형제가 아바님 어머님신디 간

“아바님아 어머님아, 울지말양 살암십서. 사람이 삶광 죽음이 맞삽네까. 우리 절간 법당으로 강 절간 종서 허영 연삼년 멩과 복을 빌영 오쿠다.”

“어서 걸랑 기영 허라에-.”

그때에는 이 아기덜 삼형제 절간으로 보네젠 허난 은기 녹기 네여준다. 백비단도 삼삼은 구 아홉 필을 네여주어 가웁디다. 범을왕아덜 아기덜 삼형제 멩과 복을 빌레 동계남 상중절 서계남은 은중 절로 소곡소곡 들어간다. 절간 안으로 들어 간 데서님전 문안인사 위올려 간다. 데법당으로 간 부처님전 선신문안 올려 가웁디다에-. 은기 녹기 올려간다. 백비단도 삼삼은 구 아홉 필을 올려간다. 아 적이면 아적 불공 저녁이면 저녁 공양 들어간다. 절간 알려레 소곡소곡 내려 산다. 내려 사단 바러 보난 어늦동안 과양땅이 근당헌다. 과양땅이 근당하고 잠시 잠간 들렀수덴 허난 과양성이 부인님은 하도 욕심이 과헌 사람이란

“아이고 설운 아기덜 니네덜 말을 들언 보난, 야 귀헌 집이 아기덜이로구나.”

“등에 백비단을 족덴.”

허난

“백비단이라도 요레 부령 훈저 쉬렌.”

허연 안체로 돌안 들어 가

“설운 아기덜 느네덜 먼 길 내려오라나시난 우선 시장도 헤실거여만은 애가 큰 큰 몰라실거난⁵³⁷⁾, 야 도약주라도 훈 잔 헤여다 졸테니 씨원허게 마섬시민 느네덜 밥을 헤영 주마.”

“어서 걸랑 기영 협서.”

그때에는 과양성이 부인 이녁냥으로⁵³⁸⁾ 정제에 늘려들영 삼 년 먹은 고장 물에 오 년 묵은 지름을 낵 도약주를 풀풀 끌여다간 이 아기덜 훈 잔씩 먹이난 아덜 범을왕아덜 절간에서 아침 저녁 마시는 곡차카부덴 훈잔식 마시는 게 동서러레 다 자빠져 가는구나에-.

초경 이경 야사삼경 근당 허여도 이 아기덜 깊은 즈에서 깨어나질 안허난 수장남도 불러간다 수 벨캄도 불러간다.

“과양성이 부인님아 어땡 허난 이 밤중에 우리를 불렀습네까.”

“그런 것이 아니곡 오널 낮이 아이중덜이 오란 허는 행실이 귀썸허난, 야 도약주를 멕연 무딱 깊은 즈에 들어시난, 낮말은 새가 듣곡 밤말은 쥐가 듣는 법이여 쥐도 새도 모르게 과양땅에 광청 못 디 강 돌 돌아멩 들이쳐불면 너이덜 옛날부떠 종이문세 걸어주마.”

“어서 걸랑 기영 협서에-.”

과양성이 집이 사는 수장남 수벨캄은 과양땅은 동네 금방상 광청 못디 강 돌 돌아메영 무딱⁵³⁹⁾ 들

536) 시권제 : 종이 부처에게 올리기 위하여 빌어가는 재미. =권재삼문, 권재

537) 애가 큰 큰 몰라실거난 : 애가 바싹 말랐을테니

538) 이녁 냥으로 : 자기 스스로

539) 무딱 : 모두

이쳐 가는구나. 하나 꽃은 푸린꽃이 뒤편이다.

그만이 앓안 바려보난 하나 꽃은 야 방실방실 웃는 꽃도 같아지곡 우는 것도 같아지곡, 용심⁵⁴⁰⁾난 꽃도 그타지난, 야 요거 물 우티 앓안 그만이 볼수가 었었구나. 요 꽃을 꺾어 집안으로 강 나가명 들어오명 보존하여 삼색꽃을 오독독기 꺾어나 가옵데다.

야 꺾으는 게 이 삼색꽃은, 과양집이 과양성이네 집이 사는 수장남 수벨캄덜 과양청 못디 무딱 들 이쳐부난 민물 황저국이

“설운 아기덜 넬 날은 틀림엇이 과양성이 부인이 오고 볼거난, 삼색 연꽃이로 물 뱃기디로⁵⁴¹⁾ 네 보넬테니 느넬덜 과양성이 원술 갠렌.”

허명 광청못디 민물 황저국이 이 아기덜 무딱 삼색 연꽃이로 네보넬 꽃입네다에.

과양성이 부인 삼색꽃을 오독독기 꺾어 앓안 집으로 오랑

하나 꽃은 일문전 꽃와 간다.

하나 꽃은 상깃밀 꽃와 간다.

하나 꽃은 뒷문전도 꽃와 간다.

과양성이 부인님은 바깥도로 나가젠 허민 앞살작이⁵⁴²⁾ 강 박끼 메는 간, 뒤터레 장 거리레 가젠 허민 뒷살작이도 메는 간, 상깃밀⁵⁴³⁾에 앓안 쉬젠 허민 상귀박떼기도 박박 메는 간 헤가난

“야 요늬이 꽃 보양 나 가망 들어오명 나 보젠 허난 나를 허우툷엄꾸나⁵⁴⁴⁾. 야 불러레나 짚어볼라.”

복복 부비전 정동화리⁵⁴⁵⁾에 간 불천수훼 시겨 가옵데다에.

옛날은 불씨가 어려울 때난 뒷집이 청테산 주모 할마님은 과양성이 부젯집에 정동화리에 불방울 이나 하나 빌어가져, 야 오란

“불방울 하나 빌레 오랏수덴.”

허난

“저 정동화리에 간 제를 헛싼⁵⁴⁶⁾ 복센.”

허연 정동화리에 간 제를 헛싼 보난 귀헌 불씨는 다 꺼전 었고 난디 었이 삼색 구실⁵⁴⁷⁾만 있어군나.

뒷집이 청테산 주모할마님은 바깥더레 나아가명

“요 과양성이 부인님아, 야 정동화리에 귀헌 불씨 꺼져부난 이 집이도 불씨 송시⁵⁴⁸⁾ 아니민 쥬엔.”

540) 용심 : 화

541) 뱃기디로 : 바깥으로

542) 앞살작이 : 앞머리. ‘살작’은 귀밑털이나 머리털을 낮게 이르는 말

543) 상깃밀 : 생깃밋. 제주의 건축에서 대청과 구들방 사이에 있는 으뜸이 되는 기둥의 아래쪽

544) 허우툷엄꾸나 : ‘허우툷다’는 잡아 닳치는 대로 할퀴고 뜯다는 뜻

545) 정동화리 : 질그릇 화로의 일종 또는 청동화로(靑桐火爐)

546) 헛싼 : 해쳐, 흘트려

547) 구실 : 구슬

548) 송시 :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징조 또는 흉사

허난

“간 봅서.”

간 야 허~허

“삼색구실로만 잇수덴.”

허난

“이거 무신 말이고.”

영 허난 그때도 옛날은 여주가 부젓칩이 시냇 강 정동화리에 귀헌 불씨 꺼져부는 것도 칠거지악 이 혼 췌가 뒤텔수다에-

과양성이 부인 삼색구~슬 잇덴허난 야 귀헌 불씨 거져분 생각도 안허곡 정동화리에 간 제를 헛싼 보난 아닌게 아니라 삼색구실이 잇엇구나.

“요거 손에 방 노리게허기 좋다.”

손노리게 허다

“이거 누윙 입 노리게나 허저.”

이에 방 입 노리게 허단 목 알러레 소로록 허게 삼색꽃이 이제 무딱 누려가 부러트수다-

흔 들 두 덜 아호열 들 그득 차난 야방 엇인 아기 삼형제가 솟아난다, 이 아기덜 자는 것도 글발소리 노는 것도 글발소리 뒤텔간다. 어늦동안 열다섯 십오 세도 근당을 허읍데다. 후를 낳은 일천 선 비덜이 서울 상시관에 과결보러 가게 뒤텔난 과양성이 낳은 아기덜 삼형제

“어머님 우리도 강 과거나 보양 오쿠다.”

“어서 걸랑 기영 허라.”

과양성이 부인님은 아덜 삼형제 과거 보레 보네여뒤텔 날만 붉아가민 높은 동산에 강 앗앙, 어는 제 랑 우리 아덜덜 과거 보양 당선 뒤텔 오콘 헤영 마불림 검불림 허노렌 허난, 후를 낳은 과양땅으로 삼만 관속 육방하인 일괄로 일기생 와라차라 비비등당 오라가난 과양성이, 부인님은 아덜덜 삼형제 과거허영 오는 줄은 몰르고

“어떤 집이 아덜덜은 팔저가 종양 과거에 당선 뒤텔 오는고. 오늘 과거 당선 뒤텔 오는 사람덜랑 문전더레 돌아 앗앙 문전더레라도 절 허건 속곡허영 좀 자는 듯이 다 죽으렌.”

후옥만발을 헤여 가읍데다에-

과양성이 부인님 바련보난 이녁집으로 와라차라 들어오라 가난

“야 누윙 춤 바깥⁵⁴⁹⁾ 나 얼굴러레 질 줄 몰랏구나, 아덜 삼형제 과거 보양 오는 줄 알아시민 나가 무사 후옥을 허리오.”

집으로 근 와랑와랑⁵⁵⁰⁾ 들음질 허영 간 보난 아닌 게 아니라 아덜 삼형제가 과거 보양 오랏구나. 문성급제 자원급제 팔도 도자원 문밖 높은 과거에 당선 뒤텔 오라시난, 야 과양성이 부인 아덜 삼형제 앗저 낳

“설운 아기덜 느넬덜 서울 상시관에 강 과거 보양 오는 것도, 집안 문전 조왕 덕택이여. 우선 문전

549) 누윙 춤 바깥 : 누워서 침 뱉아

550) 와랑와랑 : 사람이 힘차게 내달리는 꼴

모른 잔치가 어디시니 문전상을 출려 노완 어서 문전더레 절 삼베를 허라.”

허여된,

“야 동네잔치를 허겐.”

허여된 이 아기덜 문전상을 출려 낀 절을 삼시번 속곡허게 일어나질 안허난

“설운 아기덜 흔저 일어나렌.”

바련보난 문전 앞이서 좀 자는 듯이 다 죽엇구나에.

과양성이 부인 집으로 오란 앓아 생각을 허난

‘나 아덜 삼형제 낳덴 허난 원임도 나 이거 개로 취급 허여구나 야, 난덜 그만 이시리야.’

날만 붉아가면 성담 안터레 들어가진 못하곡 성담 벋기덜로 들으투락 네투락 허명

“개고튼 원님 쉼고튼 원님이여”

하도 후옥을 헤여가난 원님도 이녁 절체를 몰란 날만 붉아가민 성담 벋기덜레 바리멍 진 한숨 쪼른 한숨으로 세월을 보네는 게 후를 날은 지동토인⁵⁵¹⁾님이 오란

“원님아, 요즘 무신 고민이 잇언 날만 붉아가민 성담 벋기덜레 먼더레 바리멍 진 한숨 쪼른 한숨으로 날을 보네염수과.”

“그런 것이 아니고 과양땅에 과양성이 부인 날 좃안 오란, 혼 날 혼 시에 아덜 삼형제 난 혼 날 혼 시에 과거후연 혼 날 혼 시에 죽어시난 나신디 요절첼 허렌 허난, 산 사람 곱뜨민 나가 이 미신 절체를 허주만은 야 과양성인 난 아덜 삼형제 죽언 봉분 허여부난 살릴 수도 엇곡 나도 어떻 허영 절체를 못 헐 일이곡 허난, 허나 두 개 아덜 삼형제 혼 번에 낳덴 허니 개삼성이 분명허덴 허영 개 추급을 허연 야 보내여 부난, 나 신더레 날만 붉아가민 개고튼 원님 쉼고튼 원님 하도 후옥을 헤여가난 널 날은 붉으민 과양성이 부인 나신디 미신 옥을 헐 건곤허연 나도 고민이노렌.”

허난

“원님아 원님아 경 허지 말고 야 과양성이 아덜덜 삼형제 죽은 절첼 허젠 허민 청허영 저 동원 마당더레 청허여 들여사 이 절첼 험네키.”

“감히 우리가 저싱 염녀왕을 동원 마당더레 청허여 들일 수가 잇느냐.”

“역력하고 똑똑헌 강림이가 잇수게. 강림이 동원드레 불러들여 절체를 허여보민 강림이가 하도 역력하고 똑똑허난 좋은 절첼 헐 겁네다.”

“어서 걸랑 기영 허게.”

강림이는 동문뵈섯 강파도 감심이 아덜 강림이가 뒹웁데다. 강림이는 인간 탄싱허난 역력하고 똑똑허연 열다섯 나던 헤에 입장 갈림시난 집이도 아니 들어가곡 장안에 장뵈섯디 야, 기생첩 거니령 살명 양 세월 가는 줄 몰르게 살았구나. 강림이 불러들이지 야 성방 이방 수령속도 불러살 일 밤이를 야하 토론을 허여간다. 게폐문도 열려간다. 삼십삼천 은종도 울려간다. 혼 날 혼 시에 야 강림이 어서 수관장에 꺾을 맥여 불러들이지 강림이 수관장에 꺾이여-. 강림이가 그때에는

“성방 이방님아 날 살려줍서. 수령 소또님아 날 살려줍센.”

흔덜사 꿈짜 업시 동원 마당더레 불러들여 가는구나, 동원 마당더레 불러들인 강림이

551) 지동토인 : 관아의 심부름꾼

“김치원님아 어떠한 일로 나를 꺾을 맥여 동원 마당더레 불러들였습네까.”

“너는 역력하고 똑똑허난 열다섯 나던 해에 입장 갈림시긴 후론 수관장에 일도 혼번 보곡 미참허연, 야 장안네 기생첩 장밧갓디 기생첩을 거니려 살아시난, 수관장에 미참한 일로 너를 동원마당드레 불러 들였노라.”

“꺾이란 게 뭘 꺾을 맥이갓습네까.”

“그런 것이 아니고 과양땅에 과양성이 난 아덜, 혼 날 혼 시에 죽어시난 이 아기덜 절첵 허젠 허민 저싱 갓다 올 사름은 너 뺏긴 것이난 저싱 간 염녀왕을 청허갓느냐, 목숨을 바치갓느냐 장안네 목숨을 바치갓느닌.”

허난 강림이는 목숨은 아까와지곡

“목숨만 살려준덴 허민 저싱까지라도 강 염녀왕을 동원 마당더레 청허여 들이쿠다.”

“어서 걸랑 기영 허라에-.”

그때에는 원님이

“저싱을 가젠 허민 저싱 관장펠 갖어사 야 저싱을 갓다온덴.”

허명 흰종이에 검은 붓으로 썩 강림이, 야 이름 석 잘 썩 똥똥 몰안 네여 주어간다.

저싱 관장페렌 허난, 그 걸 갖언 기생첩 마다 좇아 강

“나 이만 저만 허연 잠시 잠깐 저싱 갓다오게 똥 노렌.”

허난 어느 기생첩

“저싱 말이엔.”

허난 들은 책 아니허여 간다. 아명허면 큰부인신디 강 만단정힐 허영 일뤼윙 가젠 허영 강림이가 큰부인신디 오랑 보난 야, 큰부인님은 보리방에⁵⁵²⁾ 물 적저 놓안 오뉴월 방에 혼자, 들이 쿵쿵 네 쿵쿵 지엄구나.

강림이부인 야 방에를 짓단 바레보난 강림이가 오랏구나.

“아이고 설운 낭군님아 오랜만간이 날 좇안 온 게 저 올레에 가시나 아니 싸십데가.”

영 글아도 속숨⁵⁵³⁾ 정 글아도 속숨

“아이고 설운 낭군님아 여자이 죽은 소견으로, 그만씩 골은 게, 에나 돌름데가⁵⁵⁴⁾. 혼 저 방안으로 들어걸읍서.”

방안으로 들어 간

“설운 낭군님아 부베간이 못 헐 말이 어디 십네까. 무슨 고민이 잇십니겐.”

허난

“그런 것이 아니고, 나 오널 동원 마당더레 급허게 꺾을 맥여 불러들여, 저싱 강 염녀왕을 동원 마당더레 청허여 들이갓느냐 목숨을 바치갓느넨.”

허난

552) 방에 : 멧돌방아

553) 속숨 : 잠잠. ‘속숨하다’는 잠잠하다,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문다는 뜻

554) 에나 돌름데가 : ‘에들다’는 탐탁스럽게 덤비지 않고 따로 떨어지려고 하다는 뜻

“목숨은 아까와지고 잠시 잠깐 저싱은 갖다오게 뒤텔노렌.”

허난

“설운 낭군님아 저승길이 어디랑 가젠 허민 가고 오젠 허민 읍네까. 저싱을 가젠 허면 저싱 관장펠 갖어서 험네다. 저싱 관장펠 네여줍데가.”

“네여 줘라.”

“요레 보여 봅서.”

보여 보난 흰종이에 검은 글법이난

“흔 일 알곡 두 일 모르 설운 낭군님아. 흰종이에 검은 글법은 이싱 법입네다. 이싱 법을 갖영 어뎡 저싱을 갖다오쿠가. 저싱을 갖다오젠 허면 원님신디 제쳐 강 야 저싱 관장페를야 줍센 허영 읍서.”

“어서 걸랑 기영 허게.”

그때에는

“야 나가 갖다오쿠덴.”

허명 열두복 훗단 치마 깍을 둘러입어 강림이 부인님이 그 걸 갖언 원님신디 제쳐 가단보난 야하~허 솜작지가 이시난 치메통에 잔뜩 담안 원님신디 간 바락허게 비우명

“나 원님아 원님아, 강림이 저싱을 갖다 오렌 허명, 야 어뎡 이싱법을 줍디가 이걸 갖영 저싱을 갖다오렌 허건, 기언이랑 무기언을 험센.”

허난

“누게가 뒤텔.”

“아이고 난 강림이 큰부인이 뒤텔우덴.”

허난

“강림이만 역력헌 줄 알앗더니 강림이 큰부인도 역시 역력허고 똑똑헌 부인이로구나에-.”

그때에는 붉은 토맹지 야 게랄 허나 난 흰 붓으로 활활 젖언 글을 씌 네여 주어 간다. 강림이 큰부인 붉은 토맹지⁵⁵⁵⁾에 흰글을 죽은 걸 야 그걸 뿔뿔 물안 집으로 오란

“설운 낭군님아 요게 저싱 관장 펴니다.”

저싱을 가젠 허면 백시리⁵⁵⁶⁾ 석 징도 지어간다. 흔 징은 문전하르바님, 흔 징은 조왕할마님쩍시⁵⁵⁷⁾ 흔 징은 강림이 저싱 가명 시장허고 베고프민 먹을 정심으로 마련을 허옵디다에-. 강림이 문전더레 절 삼베 시겨 가옵데다. 조왕할마님신디도 간 절 삼베를 시겨나 가옵데다. 강림이 부인

“야 저싱을 갖다오게 뒤텔노라.”

그때에는 강림이 부인님이 야 상 혼상을 출련 강림이 흔 잔 술에 일 베 일 베허는 것이 영롱성에 깊은 즙이 들었구나. 깊은 즙이 드난 강림이가 야 이거 붉은 토맹지를 갖단 저싱이불 삼 야 툃허게 덮어 두고 쫓데 흔 쌍 향노상납 피워간다.

555) 토맹지 : 제주에서 짠 명주로 무게도 있고 독특했다고 함

556) 백시리 : 고사를 지내거나 빌 때 쓰는 떡으로, 쌀가루로만 만든다

557) 조왕할마님쩍시 : 적시. 조왕할마님 뒤텔

강림이 저싱 길이 어덜런고 가단가단 바려보난 노인 하르바님 노인 할마님도 앓았구나, 강림이가 앞으로 간 속곡허게 절을 허난

“야 너이 허는 행실은 궤뽀허나 너이 큰부인 성심이 기뻛허면 너허~ 저싱 염네왕 좇아 들어 갈 길을 그리치저 허는 팔만사천 제 조왕할마님이노라.”

“어딜로 가면 저싱 염녀왕은 만날 수 잇습네까.”

“저싱 질은 머나 먼 길 가당 보면 일은 으뎡 길이 실거여 일은 으뎡 길을 다 지나고 나면은 너가 들어 갈 길은 제일 제일 죽은 거무 연뽀만이 헛 길을 헤쳐 들어가다 보면 야 이 염녀왕이 당도 할 거렌.”

일러 가옴디다에-

강림이가 가단가단 보난 삼백관 야~ 삼신산 삼백관 이섯구나. 절 삼베도 드러간다.

가단가단 보난 청산 백산 이서간다. 가단 보난 일른으뎡 길이 이섯더라. 요 길은 바려보난 야 천 지혼합시도 들어간 길

계벽시도 들어간 길

천지왕 지부왕 바구왕 데소별왕 들어간 길

총명부인 들어간 길

요 길은 바려보난 어허 천군지군 인왕만군 들어간 길

옥황상저 들어간 길

지부수천 데왕 들어간 길

요 길은 바려보난 산신데왕 들어간 길

다섯 용신 들어간 길 서산데서 들어간 길

인간불도할마님도 들어간 길

초공전도 들어간 길

이공전도 들어간 길

삼공전도 들어간 길

전병서님 신병서님 들어간 길

원왕감서 도서님 김추염나 테선데왕 범고튼 수천데왕 들어간 길

진간데왕 들어간 길

초간데왕 들어간 길

송제데왕 들어간 길

오간데왕 들어간 길

다섯염녀데왕 들어간 길

번성데왕 테선데왕 평등데왕 들어간 길

도시데왕 십전데왕 들어간 길

지장생불데왕 좌도판관 우도판관 열다섯은 동주판관 수제왕도 들어간 길

요 길은 바려 보난 야 제일 죽은 거미연뽀만이 헛 길

강림이 들어 갈 길이 뉘엿수다에-

거미연뿔만이 족은 길을 헤쳐 허울허울 들어 가다 바라보난 질토레비⁵⁵⁸)가 질을 따까 가옴데다. 백시리도 한 자 흔 징네여 주어간다. 저싱 동관도 동관이여 이싱 동관도 동관이 뉘옴데다. 야 질토레비

“염녀왕 만나레 오리시민.”

강림이 보고

“웃적삼을 벗어 줍센.”

허난 강림이가 웃적삼을 벗어 길토레비신디 주난 길토레비는 높이 들러

“강림이 본 강림이 본 강림이 본.”

삼 혼정을 불르난 야 저싱 염녀데왕 염녀부인 앞은야 선베 두엔 무궁데장 거니리고 몰 들르멍 기 들르멍 와라차라 내려사는구나. 야 그때에는 강림이가 봉에눈을 버릅뜨고 정동⁵⁵⁹) 그똥 팔따시를 걷어 저싱 염녀데왕 염녀부인 탄 앞, 내려사는 가메 앞으로 간 팍허게 가마를 야 이거 막아 사, 가옴데다에-. 그때에는 저싱 염녀말이 데왕 말이로다

“어뎡 허난 무섭고 서껍지도⁵⁶⁰) 아니헿 저싱 염녀왕 탄 가메 앞으로 왕 야 감히 어느 누구가 막아 섬시닌.”

허난

“저싱 왕도 왕입네다마는 난 인간에 강림인디, 어~ 저싱 관장폐를 갖언 잠시 잠깐 저싱 염녀왕을 동헌 마당더레 청허젠 야 이싱 강림이가 뉘옴니덴.”

허난

“역시 역력하고 똑똑헌 강림이가 뉘엿구나.”

저싱 염녀데왕님도 강림이 앞이 인정 소정허연

“야, 강림아 이리저 말고 인간에 조북장제 단똥야기 몸에 신병 낭 넬모렛 날 수오시가 뉘여 가민 오닐 시왕연맛이로 누려 상 넬모레 수오시가 근당허민, 잠시 잠깐 어 동헌 마당더레 누려 사켄.”

후난

“어서 걸랑 기영 험센.”

허연, 그때에는 강림이도 저싱 염녀왕 탄 가메 흔 부출⁵⁶¹)을 인간에 내려사고 바라보난 아닌게 아니라 조북장제 단똥야기 몸에 신병 낭 죽을 소경 뉘여지난 밧갓딜로 천지염네뎡 좌우독기헤 신수 풀고⁵⁶²) 나비줄전기 삼버릿줄⁵⁶³) 안으로 수훤당클 메연 그 날은 금마답⁵⁶⁴)으로, 저싱 염녀왕도 살려

558) 질토레비 : 길 안내인

559) 정동 : 땡땡이땡굴

560) 서껍지도 : ‘서꺼지다’는 뒤섞이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뜻

561) 부출 : 문짜 등을 만들 때 기준이나 중심 뼈대가 되는 테두리나무

562) 신수풀고 : ‘신수푸다’는 신이 내려 모인다는 뜻 또는 귀한 것을 옮겨 놓다의 뜻

563) 버릿줄 :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줄. 쟁기나 연, 그물 따위에서 주로 쓰임

564) 금마답 : 안뜰

살려옵센 허연 이원수저도 살려 살려 살려옵서.

강림이는 먼정 올레에 신수퍼도 야, 아니 거느려 가난 ‘나도 혼 번 부술⁵⁶⁵⁾을 부러보주.’ 확하게 허 데기난 신이성방 수문절박⁵⁶⁶⁾ 헤여가옵데다.

연당알에 역력헌 신소미가 나산 강림이 상 혼 상을 출려 놓안

“저먼정 신수폰 강림이도 오리정 신청케로 살려옵서.”

허데기란 신이 성방 수문절박 풀려간다.

염녀왕은 염녀당클러레 신수 퍼간다. 이원수자는 이원수자 상더레 신수퍼 사는구나. 강림이도 몸 받은 상더레 신수퍼 일 베 이 베 후는 게 야 깜박 줌든 수에 야허, 본가 조복장제 집이서 시왕연맛이 로 높은 신전님네 다 청허연 야 그때에는 시왕전에 역가⁵⁶⁷⁾를 바찌젠 영허연 본가에서 열두징 금시 리 처단 수제상에 농곡 술 혼 병을 꼬주완

“시왕전으로 옵센헌 신전님네 초방광으로 사나옵센.”

허연 야 엄뜨 헨 엄뜩허연⁵⁶⁸⁾ 깨나고 바려보난 염녀왕도 간곳이 업구나. 이원수저도 간 곳이 어십 데다. 저싱 이싱 소도리⁵⁶⁹⁾ 잘허는 조왕 할망신디 간

“염녀왕은 어디 갔수과.”

“염녀왕은 상을 받안 어늦동안 염넛데 우틸로 가 신수퍼텐.”허난

강림이가 염녀데 우터레, 퍼짜허게 올르난

“역시 나를 알아보는 역력허고 똑똑헌 강림이로구나.”

강림이가

“저싱염녀왕님아 올 때에는 저싱 법으로 삼혼정을 불려 저싱을 오랏수다마는”

그때에는 염녀왕 실력으로 강림이가 엄뜩허여 야 이거 깨고 보니 강림이 죽어시카부덴 일가 방상이 다 모다 앓았구나에. 제일 문 저 아바님 앞이 문 저 앓안 오른 홀목 비여잡안 비새고치 울단

“아바님아 나 엇이난 어땡 헛데가.”

“설운 아덜 엇이난 야, 이거 무디무디 이거 생각 나렌.”

허난

“아바님이란 오른 홀목 비여잡아시메 아바님 살당 돌아가시민 아바님 걷던 자국 나가 걸으멍 성펜⁵⁷⁰⁾을 생경 망데 목데 방장데⁵⁷¹⁾ 지평 아바님 무디무디 생각허멍 삼년상 공 값으쿠다. 어머니은 나 엇이난 어땡.”

“아이고 난 니 죽어부러 시카부덴 아무 생각 엇이 가심⁵⁷²⁾만 먹먹허여렌.”

565) 부술 : 요술 또는 피로 눈을 속이는 일

566) 수문절박 : 사문-결박. 본래 ‘백성을 잡아다가 사사로이 결박하는 일’의 뜻이나, 곳에서는 흔히 온몸을 결박함을 나타낼 때 씀

567) 역가 : 제주 무속에서 굿을 할 때 평소예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 신에게 바치는 물건. 쌀, 돈, 피륙 따위

568) 엄뜩허연 : 깜짝 놀라

569) 소도리 : 남의 말을 이리저리 전파하는 일. 말전주

570) 성펜 : 친가

571) 방장데 : 방장대. 장사 났을 때 상주가 짚는 상장 막대. 아버지 상일 때는 보통 왕대로 만들

572) 가심 : 가슴

허난

“설운 어머니 웨편을 생경⁵⁷³ 살당 돌아가시민 머구낭 지평 삼년상 공 값으쿠다.”

형제간은 옷우잇 부름이로구나.⁵⁷⁴ 그때에는 강림이 큰부인과 같이 즘을 장 넬 날랑 붉는 날, 어서 원님신디 강 만단정회를 저싱 갓단 말을 허젠 영헌 것이, 이 밤 저 밤이 뒤여도 강림이 소식 엇이 난 야 김치원님이 강 야 지동토인보고

“어서 강림이네 집이 강 보라.”

강림이네 집이 오랑 보난 즘을 잠시난 와랑와랑 돌아 간

“김치원님야, 강림은 저싱도 아니 가곡, 집이서 즘만 잠덴.”

허난

“어서 불러 들이라.”

강림이 불러들영

“야 너 어떻 허난 저싱을 갓다오렌 허난 저싱도 아니 갓다 오고, 집이서 즘만 잠시니.”

후난

“야 김치원님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밤 저 밤 수에 저싱을 갓다 오랏는데 저싱 염녀데왕님은, 인간에 조복장제, 말조단뜰애기 신병 낭 시왕맞이로 상을 받아 낵 네일 모렛날 수오시가 뒤여 시왕이 옥황드레 도올를 시간에 잠시 잠깐 동헌 마당더레 오기로 약속이 다 뒤엿수덴.”

허난

“너 아명헤여도 너 말을 믿지 못헐거난, 염녀왕이 동헌 마당 넬 모레 올때까지 하옥허켄.”

영 허명 야 그뎨 원님이 강림이를 하옥시겨 가옴데다에. 하옥을 시겨간다.

네일 모렛날 사오시가 근당허난 베락치듯 너른목에 베락치듯 동헌 마당더레 와라차라 네려 사는 구나, 염녀왕 네려 사 가난 야 그때에는 원님도 야 어딜 곱으리오 확하게 튀지둥⁵⁷⁵ 두에 간 숨어가 는 것이 염녀왕은 불써 알아 강테공서목시 불러들여

“저 튀지둥을 데툽⁵⁷⁶ 쓰려 사렌.”

허여간다. 데툽드려 튀지동도 싸 간다. 피가 빨긋허여난 그 법으로 심방은 굿허젠 허민 붉은, 야 이견 뽉근 거 노란 거 푸린 거, 멧 가지 복색옷을 헤여 입영 곳을 허는 법입네다.

그때에는 야 네려 산 조치원님신디

“너 고을 야 이거 원님이면 원님이지 어떻허연 아무 췌엇인 강림이 저싱까지 보네여 나를 청헤여 동헌 마당더레 불러 들영.”

그 때에는

“어서 바른 말을 허렌.”

허난

573) 생경 : 섬겨. 섬기다가

574) 형제간은 옷 우잇 부름이로구나 : 형제간은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어쩔 수없이 '옷 위로 부는 바람'과 같이 사이가 뜨게 마련이라는 뜻

575) 튀지둥 : 튀기둥

576) 데툽 : 혼칸 툽. 옛날 툽으로 길이가 약 2미터나 되는 큰 툽

“저싱 염녀데왕님아 염녀부인님아 나 과양땅에 과양성인디 혼 날 혼 시에 아덜 삼형제 난 혼 부
부로 살려 주카 부덴 봉분을 간 박박 판 보난 야, 신체는 간 곳 었고, 아덜 삼형제 누워난디 거미줄
만 영성이 지어졌구나에-.”

그 때에는 동헌 마당오란

“야 염녀데왕님아 야 아덜 삼형제 누운 봉분은 간 보난 신체는 간 곳 었고 헛 봉분이 돼었수덴.”

허난

“요거 죽여도 곱게 죽일 수 었구나. 앞 밧디랑 슯청 걸라. 뒷밧디랑 먹통 걸라.”

조각נם을 불러간다. 번기를 씨왕 목에 큰칼 씨왕 죽일 팔로 둘러간다.

“어서 바른 말 허렌.”

허난

‘아이고 바른 말허민 살려줄 건가.’

“염녀데왕 염녀부인님아 그런 것이 아니고 동경국범을왕이 아덜덜 삼형제 열다섯 십오 세가 스
고전명 맥이게 돼여진다. 데공단 고깔디령 머리 삭발허곡 주이 행차⁵⁷⁷⁾ 틀러 절간으로 들어가건 연
삼년 멍과 복을 빌영 고향산천 내려가다 우리집이 시장허곡 야 베고판 우리 집이 들러시난, 백비단
도 나가 문딱 빼앗아부렀수다.”

그 때에는 이 아기덜 독헌 도약주를 맥연 과양땅 광청못디 강 문딱 들이쳐부렀수덴 바른말을 허
여 가옵디다에-.

그 때에는고을백성 다 불런 광청못을 푸고 보니 설운 아기덜 열두 빼만 남아시난, 이 아기덜 살려
다가

“동경국 어멍국 아방광 좃앙 가렌.”

허연 동경국더레 보네여두고 그 때에는 원님신디

“강림인 하도 역력허고 똑똑허다 혼정을 좃이갓느냐 육신을 츠지 후갓느넨.”

허난 원님은

“나 강림이 육신을 츠지후쿠덴.”

허난, 야 전옥안네 가둔 강림이 삼혼정을 빠 옥황더레 염녀왕은 상천을 헤여붙데다.

상천허여부난 원님은 강림이신디 간

“강림아, 너 저싱 이싱 심부름을 잘 허여시난 야~허 원을 잘 풀어시난 너 저싱 갓다운 말이나 혼
번 곱아보라.”

영 곱아도 편편 정 곱아도 편편 헤여가난

“너 그만허난 저싱 갓다운 큰양 험덴.”

허명 원님이 덩드렁 닳은 주먹으로 확 네 곱기난 강림이가 덩글랑허게 쓸어집디다에-. 강림이 부
인 앞에 부고장을 보네여 간다. 강림이 부인 동헌마당 놀려들어

“설운낭군 강림이 저승을 갓다오렌 허난 아니 갓다오라십데가, 염녀왕을 청허여 들이렌 허난 아
니 청허여 십데가, 어서 본데로 말을 헤여 줍센.”

577) 행차 : 차림새

허난 그 때엔 동헌마당에 이레 펡펡 저레 펡펡 누윙 등글단 보난 신데자 수페머리⁵⁷⁸⁾ 이레 저레 허터저시난 짝으로 급허게 머리 무끄기 마련을 허여갑데다 좋은 호상법 마련한다. 설운낭군 살아 먹는 몫 쓰는 몫 야 삼년상 놓게 마련 마련 한다. 소상 데상 졸곡허기 산에 금벌허기 마련을 허여간다.

이제는 시대가 개화 때뉘여, 부모 죽어도 일 년에 다 이거 복을 받는 때가 뉘엿수다에.

강림이는 저싱을 가난

“인간에 강 나 이거 칠십 향년 팔십고레, 구십은 단명법 백이 나오면 못 사는 인간법이난 체서 행착을 출려줄테니 인간을 강 내려 상 나이 한 사름 부떠 조근조근 잡혀 오렌.”

이거 체서 행착 네여 준다. 남방사주 접저고리 남방사주 야 벌통 행견 야 코제비 보선에 종이 반달 메여간다. 앞이 보난 날릴 용 제 뒤에 보난 임금왕 제, 홍사줄을 읍에 차고 저싱 관장폐는 등에 지곡 적베지는 네여 주난 품에 품언 인간더레 내려사고 바려보난 가마귀가 놀암시난 가마귀신디

“야 나가 걸영 가는 대신 이 적베질 너 신디 물림을 헤 줄테니, 이걸 물영 강 어서 인간을 잡형 오렌.”

헨 가메기신디 적베질 물려주난 가마귀는 적베질 물어 앓어 인간 잡히레 내려사단 바련 보난 밧흔 구석에서 물 잡는디가 이시난, 가마귀 적베질 물어 앓어 물 잡는

‘사람덜 야 물 잡양 가분 두에랑, 뜻뜻헌 피나 얻어먹영 가주긴.’

허연 이레 펡펡 저레 펡펡 다니노렌 허난 물잡는 사람은 물발통을 확허게 뽀 확허게 댕기난 가메기는 이녁 맞침시카부덴 겁절에 웃터레 푸두둑허게 놀멍 적베지는 알더레 문드려부난 농구렝이는 바깳디레 나왔단 움막허게 들러 먹어부난 영허난 법으로 헤연 야 구렝이는 아홉 번 죽어도 열 번을 환싱허는 법이 뉘엿수다. 가메기는 적베지 일러부난 인간도 못 잡히곡 강림이신디 오라시난 강림이가

“어떠 허난 인간을 안 잡현 오라시니.”

허난 가메기가

“야 적베지 일러부런 인간을 못잡현 오라수덴.”

허난

“적베지 일러볼 댕 누게가 보앗느냐.”

허난

“소로기가 보앗수다.”

소로기 불러다

“너 가메기 적베지 일러볼 때 보앗느넨.”

허난

“아이고 난 본 도레도 들은 도레도 엇덴.”

허난

“요것도 헨 거짓말 험덴.“

578) 신데자 수페머리 : 길고 숲처럼 무성한 머리

허멍 입주둥이 간 무지려부난 소로기는 물이 기리와도 야 이거 비오는 날만 기달리는 법 아닙네
까. 가마귀는 저 강림이 앞이 메는 메그찌 맞곡

“너가 적베지 일러분 데로 어서 강 인간을 잡형 오렌.”

허난, 가메귀는 적베지 일러부난 아무라도 문저 보는 이 부떠 저싱을 야 돌양 가준 영허연 인간
더레 네려 사단 바려 보난 열다섯 십오 세 난 허공아기 데바지에 물 질언 정제레 들어 감시난 높은
가지에 간 까옥까옥 울멍 저싱 글라 저싱 글라 굿이 옮겨가난

“하르바님 할마님 까마귀 완 저싱 글렘 험수게.”

“나가 무사 저싱을 가느니.”

“아바님 어머니님 저싱 글렘 험수게.”

“무사 나가 저싱을 가느니.”

가마귀는

“깍깍 저싱 글렘.”

허여가난 허공아기 야 그뎨 물팡돌 우티 데바지에 물허벅 버려 창문뚱에서 데바지 와쌍 허게 깨
멍 까마귀 먼정더레 좇차난 법으롭서 지금도 사람은 죽영 집이서 죽영 신체 나갈 때, 야 사기그릇
깨곡 사기그릇 그대 못 깨민 심방덜 강 귀양풀이 허영 콩 뿌령 나가멍

“신체 나갈 때 망데기⁵⁷⁹⁾ 깨수과.”

허영

“아니 깨수덴.”

허민

“요레 줍서 하나 망데기 줍센.”

헤영 와쌍 깨는 법은 그 체서 다시 돌아보지 말렌 헤영 방법으로 사기 망데기 깨는 법입네다에.
열다섯 십오 세 난 허공아기 야 강림이 앞이 일림을 시기난 강림이는 야 어린소녀 둘안 저싱을 가
난 염녀데왕님

“야 강림아 어떻 허난 너 적베지 네여 줄 때는 인간 강 나이 한 사람부떠 조근조근 저싱을 돌양 오
렌 허난 살 날이 구 말년 같은 어린 소년부터 돌양오랏느냐.”

“야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은 네려 사고 바려 보는 거슨 물 거슨 두리 이수농장법이 잇영 조상 놉
뵈 쥘 오고 부모 놉 뵈 야기 오는 법이 이싱 법 입네다.”

“역시 역력하고 똑똑헌 강림이여.”

흔 직함도 올려 논다. 그 법으로 아침 일찍 밤 까마귀 소리는 동네 금방상 화제 날 까마귀 소리 아
침 일찍 우는 까마귀 소리 영장 날 까마귀 소리 낮 가마귀 소리 반가운 허 소식 올 까마귀 소리입네다.

동방세기 삼철년도 잡혀들이라. 동방세기 삼철년을 어떻 잡양 가리오, 동방세기 고을에 완 보난
연못이 이시 난 강림이가 차롱착에 검은 솟을 낀 북북 아침 저녁 씻어 가난 동방세기가 아으로 어
룬으로 멧 가지 변식허멍, 오랑 봐도 강림이가 앗양 솟을 씻엄시난 혼 번은 말이나 걸어보저

“어떻 허연 솟을 씻엄 딘.”

579) 망데기 : 향아리보다는 높이가 낮고 배가 덜 나온 그릇이나 부리는 향아리와 크기가 비슷한 그릇

허난, 강림이가

“예 우리는 검은 솟을 차롱착에 낱 북북 씻엄시민 흰솟 뽕니덴.”

허난 동방세기 삼철년 이녁 자신도 모르게

“나 동방세기 삼철년을 살아도 검은솟 씻엄 흰솟 뽕 덴 말 못 들었구나.”

“요것이 동방세기 삼철년이로구나에.”

동방세기 삼철년도 저싱 갓습네다. 왕이 손도 저싱 가고 네팔벽 웨팔벽 같은 양반은 저싱을 갓네다. 영~ 말 잘후는 소진장도 육국은 다달 헤여도 염녀왕 못 달레여 저싱 갓습네다. 진나라 진시왕도 만리토성을 다 출령 오멍 살젠 영허여도 마은 넷 절머 청춘 때에 저승 간 베 잇습네다.

전주 이 뚝에 하르바님 할마님네 팔주 굿어오던 전주 이 뚝에 아바님네 아 팔주 굿인 한 씨 어머니 낳아주던 정 씨 생모 어머니 네영 불쌍 헌 막네 이모님 네 웨진 조상님 뒤으로는 이른 넷 님 낳아 주던 친정부모 아바님 어머니 네영 데동헌 일 아님네까, 이왕지서 죽영 간 일 청원이 섭섭이 생각ampus 금번은 데로 들령 엄중헌 시왕전광 삼시왕 앞으로 저싱 질을 치어 닦아잇습네다.

어젯 날 시왕전 몸받은 데명왕체서님네 별관체서님네 팔저 굿영 뎅기던 부모조상 삼시왕에 증명 허던 멩도멩감 삼쳐서 관장님네 인간 강림수제님네 체서님아 체서님아 영가 영신님 아옵 영신님 뽕습네다.

영 허 난 저싱 더레 안동 허영 가명 하다 구박이 굴지 말앙 손에 사줄 풀령 갑서, 발에 박술 풀령 갑서 풀령 갑센 허영, 오닐 체서 난수생 신포잇습네다.

8. 문전본풀이 (오춘옥 구연)

에~ 문전 하르바님 헤만국은 문전 할망 들만국은 문전 아방 남선고을 남선비웨다. 문전 어멍 여산고을 보조국입데다.

에 이십쓰물 사십 서른 살아가도 허나 두 개 낳단 보난 아들이사 일곱 성제 오멍 습습 솟아난다. 옛날은 송년은 들고 이 얘기덜 베가 고편

“밥을 줍서 물을 줍서.”

비세구치 울어 간다.

후를 낳은 여산고을 보조국이 말을 후웨

“남선비야 남인 가장님아 메역 혼 베 시꺼 네건⁵⁸⁰⁾ 육지 강 메역 장서 헤여근 무곡으로나 바짱 읍서, 저 얘기 덜 베고팡 우는 걸 봅서 저 얘기덜 밥이나 멕여보게.”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전베 독선⁵⁸¹⁾ 메역 혼 베 실런 부름 부는 양, 절 지는 양 가는 것이 오동나라 정짓고을 들어간다.

580) 시꺼 네건 : 실어 내면. 실으면

581) 전베 독선 : 한 배 가득

개맛⁵⁸²디 간 베는 메여놓고 굿디 누령 메역시세 존딜로⁵⁸³ 강 폴젠 허누렌 허난 그 동네 귀일저데 노일이 뜰이 사웁데다.

귀일저데노일이 뜰이 곧는 말이

“어디서 온 어룬잇과.”

“난 이거 에 남선고를 사는 남선빈디, 우리동네 영 메역이 좋아도 메역시세가 엇고 송년은 들언 먹을 건 엇이난, 식군 오망오망허곡, 이 동네 메역시세 좋덴 허난, 메역 오랑 풀앙 무곡 바짱 강 우리 애기덜, 밥이라도 헤여 주젠 메역 혼 베 실런 오랏수다에-.”

“아이고 읍서. 나영 가만 장서 잘 헤영 메역 잘 풀아 네쿠다.”

“어서 걸랑 기영 헉서.”

남선빈 췌 소망이엔 귀일저데노일이뜰을 뜰환⁵⁸⁴ 들어 간다.

혼 폰 네기 두 폰 네기 허단 보난에 남선비 전베독선 실렁 온 메역 혼 벤 오꼳⁵⁸⁵ 허게 다 들러먹어 젓구나.

‘아이고 이만허민 어떻허코 가도 오도 못허고 물 막은 섬이 오라노코, 집일 가짱 헤도 차비 노수도 엇고.’

남저 데장 부릅서 누게그라 근도 못허고 당신 혼자만 속에서 썩 살럼을 살아가는 구나. 남선고를 서 애기덜 일곱 성제허고 큰부인은 어느 날이민 이 남편네 무곡 바짱 오걸랑 이 애기덜 베부른 밥 멕이린 메날 메날 손가락 오그력 폐약 세어가는구나.

‘아이고 어떻 허민 좋리.’

아이고 남선고를서 허단 버천 남선비 큰부인이 생각 곳덴

‘이 아방을 아명이나 좃아보저.’

하도 곱곱허고⁵⁸⁶ 답답허난 백발 술에 흥낙실에 야 상동낙에 용얼레길 츄실 혼 췌 묶거 놓고 일곱 성제 즈 제와된 이 밤 저 밤 지폰 밤은 뉘난, 바당더레 누려간 성장⁵⁸⁷ 발명 아이고 이 성장에 강 발 아덴경 이 물 떡에 이 돌 떡에 강 흑허게 댕기곡 저 물 떡에 강 흑허게 댕기곡 허멍

“남선비야 살았건 몸으로 읍서. 죽영 저승 갓걸랑 혼정으로 머릿거월이라도 혼 거월만 요 상동낙 이 용얼레기러레 혼정으로 걸어집서-.”

그 날 밤이 다 세도록 헤여봐도 산 소문 죽은 소문 아무 그적 엇어 가는구나. 지침⁵⁸⁸은 딱허고 간 오난 즘은 몰련⁵⁸⁹ 궤롭고

‘이 날이나 올 건가 저 날이나 올 건가’

582) 개맛 : 갯머리

583) 존 딜로 : 좋은 데로

584) 뜰환 : 따라

585) 오꼳 : 전부. 완전히

586) 곱곱허고 : 답답하고

587) 성장 : 선창. 물가에 다리처럼 만들어 배가 닿을 수 있게 한 곳

588) 지침 : 기침

589) 즘은 몰련 : 잠은 와서

뒷날도 따시 간 경 허난 그 가운데도 막둥이 일곱 번째 죽은 아덜이 제일 머리가 역력하고⁵⁹⁰⁾ 똑 똑했던 것이라 남은 성덜 으섯 성덜 좀자렌 허난 그자 좀만 부수 자도 죽은 아시가 어머니, 허는 게 아메도 이상 헤 베연 어멍 간디 뒷날 처녀는 좃아갓구나.

“어머님아 바다에 누려 간 아버지 좃젠 경 백발 술에 흥낙실 상동낙에 용얼레기 츄실 혼 젤 즐라 무겐 설운 남편 살앗건 몸천으로 읍서. 죽엇건 용얼레기러레 머릿거럭 혼 거월만 올라옵센.”

허멍 아이고 땡겨가난

“어머님아 생각 헤영보민 것도 잘헤는 일이라도 그런 일을 헤영 아버지 좃지 못 헉네다. 읍서 넬 랑 붉으면 우리 일곱 성제가 골비골산 아야심산 신산꽃이 올라근 예에 곧은 낭을 베어오걸랑 베나 짓영 그 베 탕 읍서. 아버지 좃아 아버지가 간 섬에 좃아 가보기가 어떻 후우쿠과에.”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뒷날 아적 날이 붉앗구나.

아들 일곱 성제가 도치⁵⁹¹⁾ 들른 이 자귀⁵⁹²⁾ 들른 이 호미⁵⁹³⁾ 들른 이 허멍 저 산꽃은 신산꽃 만산 예 저 산천을 올라가는구나. 꽃이 올라가네 일곱 성제가 낭을 헤영 누려와 가는구나. 바당 더레 누려와 그 낭 단장헤연 불리 없는 민둥 베 터워⁵⁹⁴⁾ 곱든 베 혼 척을 짓어간다. 뒷날은 그 벨 다 짓은
“읍서 우리 아버지 좃으레 가게.”

남선비 큰부인이 금금이 생각하여 보난

‘이 네 젓영 저 베 탕 저 마 물막은 섬까지 가당 보민 경 허당 감 세라도 멧 날 멧 칠 걸릴 걸 모진 광풍이나 혼 주제 불민 이 베 얽어지민 아뭇 줘도 엇인 것덜, 살아보지 못헌 나 애기덜 아까운 것덜 나까지 으답 애이세끼라 혼 날 혼 시 꿰기 입에 갈로구나 아이고 어떻 허코.’

“설운 애기덜아 나가 튼넨 보난이, 느네 아버지 나시 웃이영 헤 논 거 안 앗영 와져찌.”

이 애기덜을 달레연 집이 강 그 거 앗영 오랜 일곱 성제를 보네 두고 어멍 혼 자만 그 베질 헤영 저 바당을 나간다.

아이덜 일곱 성제가 집에 간 오란 보난 설운 어멍 베를 띠완 한강 바당 네 젓언 베질헤연 가뻐꾸 나. 설운 애기덜 어머님아 아버님아 비세까지 울어가는구나.

감감 허는 게 여산고를 보조국은 오동나라 정지고을을 들어갓구나. 남선비 간 섬으로 들어가졌구나. 아이고 동서러레 슬피난, 야 이녁 눈에 익은 베가 멧엇구나, 그 베 옆더레 남선비 큰부인 탕 간 벤 닳줄헤연 무겐 메여두고 아이고 남선비 탕 온 벤 요거로구나, 오레 개맛디 메연 예 지렁이 네여 부난 아이고 베창아렌 늦만 빌탁하고 데오살만 과작헤엇구나.

이 남인 가정을 좃안 가젠 혼 게 수소문 수소문 허멍 그 동네 가름⁵⁹⁵⁾ 안트레 들어가단 보난 지장 밧디 근당헤여 간다. 아이고 지장밧을 근당허난 지장밧디 새 두리는 애기가

590) 역력하고 : ‘역력하다’는 사람이 약아서 미련하지 아니하다는 뜻

591) 도치 : 도끼

592) 자귀 : 자귀. 나무 껍는 연장

593) 호미 : 낫

594) 터워 : 떼. 나무 등의 일정한 토막을 엮어 물에 띄워서 타고 다니는 것. =테우

595) 가름 : 마을 안의 구분된 거리

“요 새야 저 새야 너미도 경 옥은 켈 허질 말라. 밥주리⁵⁹⁶ 옥은 간에도 아니 못은 춤 그물에 들어 서라.⁵⁹⁷ 남선비 옥은 간에도 메역 전베독선 해연 무곡장서 오랏단 귀일저데노일이 뜰 호탕에 넘어 난 메역 흔 베 오꼳 다 먹으난 가도 오도 못해연 물막은 섬에서, 귀일저데노일이 뜰광 부베간 삼안에 데추나무 코칼집에 도졸귀⁵⁹⁸ 엇인 거적문을 들고 체죽⁵⁹⁹ 도고리⁶⁰⁰ 족 숫구락⁶⁰¹ 꼬아 놓고 물 뚱 불에 등을 숙연 앓아서라. 주어 저 새-.”

“설운 얘기가 곶사⁶⁰² 미신게엔 골안디.”

“질 넘어 가는 할마님 가는 질이나 갑서. 나 골은 말 췌 들영 무시거 허쿠과.”

“설운 얘기가 그게 아니여, 고운 헌벽 주마 좋은 덴기 주마 고운 구실⁶⁰³ 주마. 나 느 고운 방뒤⁶⁰⁴ 주크메, 흔 번만 더 곶사 골은 말 더 골아드라.”

“어서 걸랑 기영 협서.”

지장⁶⁰⁵ 맛디 새 두리는⁶⁰⁶ 아이가

“요 새야 저 새야 너미도 옥은 체 허지 말라. 밥주리 옥은 간에도 아이 못인 춤 그물에 들어서라. 남선비 옥은 간에도 메역 흔 베 전베독선 해연 오란 무곡장서 왓단 귀일저데노일이 뜰 호탕에 넘어 가네 메역 흔 베 오꼳 다 먹어부난 차비도 엇고 갈디 올디엇언, 귀일저데노일이 뜰광 부베간을 삼안 데추냥에 코칼집에 도졸귀 없는 거적문을 들고 체죽 도고리에 족 숫구락 꽃아.”

요 제 넘고 저 제 넘언 들은 데로 좇안 간 보난 아녜서라, 그 얘기 골은 데로 들은 데로 그 서늱 그 메치에 앓앗구나-

남선비 큰부인 여산고을 보조국이 들어가멍 허는 말이

“주연이나 못이쿠다.”⁶⁰⁷

“아이고 요 어른아 요 거 이 막살이에 어느 걸랑 나 궁둥이에 데곡 어느 걸랑 주인 어느 걸랑 나그네 궁둥이 델 나위 잇수과.”

“경 곤질 맵서 나도 우리 집이 가민 우리 고향에 우리집 이만한 집은 잇수다. 다 나사민 나그네 몸이 췌니다. 허거들랑 무뚱⁶⁰⁸이라도 빌립서.”

“어서 기영 협서.”

헐 수 없이 무뚱 빌언 으지헤여 간다. 먼 질 베 질 허연에 가나난 베는 바싹 고평 시장기는 그윽고

596) 밥주리 : 참새

597) 밥주리 옥은 간에도 아니 못인 춤 그물에 들어서라 : 참새 역은 간에도 아이 모진 그물에 들었더라

598) 도졸귀 : 돌쩌귀

599) 체죽 : 겨죽, 곡식 껍질로 쑨 죽

600) 도고리 : 함지박

601) 족 숫구락 : 자루가 붙은 숟가락

602) 곶사 : 아까. 금방

603) 구실 : 구슬

604) 방뒤 : 장난감

605) 지장 : 기장

606) 두리는 : 쫓는

607) 주연이나 못이쿠다 : 주연-멧다. 먼 길을 떠난 사람이 남의 집에 손님으로 신세를 지며 머물다

608) 무뚱 : 드나드는 문이 있는 출입구나 그 가장자리 주변

웃 나고

“아이고 요 어룬아 솟이나 빌립서, 나 먼디 베질 헨 와나난 벤 바싹 고판 못 살쿠다, 밥이나 허영 먹저.”

“어서 기영 협서.”

솟은 강 열안 보난 메날 메날 체죽만 썬 먹언 솟도 즐바로 아니 아니 씻쳐신 그라, 체에 체죽이 빌 탁하게 솟바위⁶⁰⁹⁾에 눌었구나. 앞बाट 돌러들언 삼소세길⁶¹⁰⁾ 걷어다네 혼 불 두 불삼세불을 씻어놓고 나룩 쓸을 앓어단 판짜⁶¹¹⁾ 싯천⁶¹²⁾ 밥을 허여간다. 각서 추물 열두 가지 일곱 가지 메물 젓각 즐련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상을 즐련, 남선비 안티 들러 가는구나.

“남선비야 요 어룬아 요 밥이나 먹읍서.”

아이고 먹읍센 헨 밥은 아니 먹고 베푼 그튼 양지⁶¹³⁾ 주옹아반⁶¹⁴⁾ 연주지듯 주먹탱이 만씩⁶¹⁵⁾ 눈물은 비세⁶¹⁶⁾지듯 울어가는구나.

“아이고 요 어룬아 저 어룬아 어뎡 헨 일잇과. 밥상 즐려다 넌, 먹읍센 헨 밥은 아니 먹고 비세고 짜 우는 일이 이게 무슨 일이입니까에-.”

“근도 말곡 일르도 맙서. 나도 남선고를 살아난 남선비우다. 나도 고향에 잇일 땐 우리 큰애기어 명이 나나시 이와 그찌 밥상 즐련 들러 오민 베푼른 밥도 먹었수다마는 아이고 나 정체가, 오늘날에 오란에 이 고펡이 뉘고 이 정체가 뉘었수다.”

“아이고 요 어룬아 저 어룬아 나가 남선비 큰부인 저 어룬 큰각시우다.”

“아이고 이 거 무신 말잇과.”

남선빈 예 오동나라 정짓고를 무곡장서 간, 예 밥도 굶곡 먹을 거 어이난, 체죽만 먹단 보난 요센 말로 영양실조사 걸려신디 눈도 어둑고 나이도 들어가고 허난 큰부인 얼굴을 몰랐구나. 홀목⁶¹⁷⁾을 비여 잡안 남선비도 울고 여산고를 보조국 남선비각시도 울곡 비세고찌 통곡허멍 우노렌 허난에 헤는 열락서산 지언 아멩해도 요만 때쫘 어슬어슬헤여 가는디, 남선비 족은 부인 귀일저데노일이 돌년은 어디가네 저물양 무신 짓사 허멍 놀당 와신디, 셋담으로 튀영 오멍 치멧귀에 체 혼 줌 싸 앓언 오란, 아이고 혼들 혼들 들어오멍

“요 어룬아 저 어룬아 난 허건 허건 베고프건 저 어룬 베고프게 말양 저녁 체죽이라도 혼 사발 썬 어네쟁, 아이고 늬이 품푼이 헤영 체 혼 사발 요 치멧귀에 받양 오랑 보건 저 어룬이랑, 집이서 일엇이 놀멍 넘어가는 간나이 닳은 년광 히야까시만 허멍 이게 미신 일잇과 예-.”

아이고 그 게 아니로군나

609) 솟바위 : 솟 가장자리

610) 삼소세길 : 한삼영굴. =삼수세기

611) 판짜 : 의심할 나위 없는 확실한 상태. 틀림없이

612) 싯천 : 씻어서

613) 양지 : 얼굴

614) 주옹아반 : 향로

615) 만씩 : 만큼

616) 비세 : 비새. 비가 올 듯할 때 잘 우는 새

617) 홀목 : 팔목

“넘어가는 간나이가 아니란 남선고을서 우리큰애기 어명이 나를 좇안 오라신걸~.”

아이고 그 땐 세⁶¹⁸로 세 말듯이

“아이고 성님 나 몰랏수게 몰랏수게. 나도 그찌 가쿠다. 날 놓아뒀 어떻 성님만 가쿠과, 나 강 그
찌 물 부림씨라도 허멍 그찌 살쿠다.”

예 고집헌 큰애기 어명은

“어서 기영 협서.”

남선비는 남저 걸음이란 베 개맛더레 베 타레 오는 게 더불버불 걸씩걸씩 걸언 앞이 오라간다.

남선비 큰각시 여산고를 보조국하고 귀일저데노일이 뜯은 걸으멍 말 곁으멍 두 씨앗⁶¹⁹이 오단
보난에 아이고 짚은⁶²⁰ 짚은 물이 봐지난

“아이고 설운성님, 먼질 오랑 물막은 섬에 오랑 갈땐 양 몸에 모욕을 행 가사주, 경 아녀민 몸에
물비리여 갱비리여 몸에 굶인 야 허물도 나곡 안 좀니께 읍서 모욕이나 헤영 걸읍서.”

“어서 기영허라.”

남선비 큰부인은 솔직하고 순진헌 성질이난 호박사리 영낙사리 쉬운데자 수폐건지머리⁶²¹ 초레
초레⁶²² 우알메기웃⁶²³ 활닥 벗언 먹고 모욕을 헤여간다. 귀일저데노일이 뜯은 아이고 목욕을 허멍
예 웃은 번는 추룩허단

“서룬 아시아⁶²⁴ 영허라 느 등이나 밀어주저.”

“우로 누린 물 발등에 짓넙게. 성님 먼저 밀어네쿠다 이레 굶읍서.”

예 귀일저데노일이 뜯은, 남선고를 여산고를 보조국 등을 밀어주는 추룩⁶²⁵ 물을 등더레 좁아노
멍 두어 번 손을 밀어주는 추룩허당 세경바리는⁶²⁶ 트멍엔⁶²⁷, 예 등을 간 팍 밀이난, 짚은 천지소
물에 남선비 큰부인은 소르룩끼⁶²⁸ 골라 앓앗구나에⁶²⁹.-.

백탄 불에 얼음 녹듯 여산고를 보조국은 천지소 물에 빠전에 죽어간다. 귀일저데노일이 뜯은 남
선비 큰부인 입던 옷이영 호박사리 영낙사리 쉬운데자 수폐건지머리영 초레 초레 다 건져여 놓고
입던 옷이영 다 건져 놓고 남선비 큰각시광 똑그찌 출련, 꿩갯맛디 오란 보난 남선빈

“그자덜⁶³⁰ 무시거 헤시닌.”

후여 웨난

618) 세 : 허

619) 씨앗 : 시앗. 남편의 첩

620) 짚은 : 깊은

621) 수폐건지머리 : 무성한 탄머리

622) 초레 초레 : 차례차례

623) 우알메기웃 : 위 아래 웃

624) 아시아 : 동생아

625) 추룩 : -하는 척

626) 세경바리는 : 한눈 파는

627) 트멍엔 : 틈에

628) 소르룩끼 : 살그머니 저절로 되는 모양

629) 골라 앓앗구나에 : 가라앉았구나

630) 그자덜 : 여태까지

“아이고 오단 보난 귀일저데노일이 뜰 하도 하도 행실이 궤뒸헨 나 물러레 건미련 죽여된 나만 오랏수다.”

남선빈 눈 어둑어 놓고 큰각시 입던 옷이영 오고생이⁶³¹ 건지영 헤지난 큰각시카부덴

“그 년 잘 죽여비였저. 오라. 혼저 이 베 타라. 애기덜 기다럼시네. 집이 가게.”

허멍, 베를 탕 베질 헤여 한강 바당 오라간다. 물무루⁶³²를 넘어서 가난 베가 흰뎡데가 헤득헤득 바레저가난 아덜 일곱 성제 남선고를 개맛디서 메 날 메 날 올멍 아버지 어머니 올 날을 기다리단, 아이고 눈 익은 베 뎡데 바지난

“우리 아버지 오람구나, 우리 어머니 오람구나.”

지꺼진⁶³³ 집에 큰아덜은 갓을 벗어 두릴 놓아 간다.

둘쨌 아덜은 멩긴⁶³⁴ 벗어 두릴 놓앗구나.

세번째 아덜은 창웃⁶³⁵ 벗어 두릴 놓앗구나.

네번째 아덜은 저고릴 벗어 두릴 놓아간다.

다섯번째 아덜은 행경⁶³⁶ 벗어 두릴 놓아간다.

일곱에영 9섯번째 아덜은 신을 벗어 두릴 놓아간다.

아이고 일곱 번째 막둥이 똑똑헌 녹디생인은 칼을 앓안 칼선두릴⁶³⁷ 버쩍허게 두릴 놓아 가는구 나에-.

아이고 성덜 일고 9섯 성제가

“아이고 나 아시아, 아버지도 오곡 어머니도 멘날 메칠 기다리당 부모조상 오논디 느 무신때문 칼선두릴 놓암디.”

“성님네 모른 소릴 맏서 아바진 우리 아바지라도 어멍은 우리 어멍이 아닐거우다.”

“무사 그럴 리가 잇시넨.”

베를 개맛디레 들어오란 밧줄 무꺼간다.

“아이고 어머니 고생 허여수다. 아버지 고생 허엿수다. 아이고 혼저 읍서 혼저 읍서, 우릴 살리젠 혼 게.”

아이고 영 글아가난 귀일저데노일이 뜰 근는 말이

“설운 애기덜아 먼 바당 베질 헤영 오라나난이, 수질도 허고 멀미도 허고 머리도 헛득허고 나 견질 못헤키여. 썩이 늘락 늘락헤연 느네 제기⁶³⁸ 걸어지건 제기 걸라. 날랑 조름에⁶³⁹ 천천히 가마에-.”

631) 오고생이 : 물건이 상하지 않고 본디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꼴

632) 물무루 : 파도

633) 지꺼진 : 기꺼운, 신이 난, 기쁜

634) 멩긴 : 망건

635) 창웃 : 두루마기

636) 행경 : 행전(行纏)

637) 칼선두릴 : 칼선두리를. 심방이 신칼 두 개를 위로 향하게 세워놓아 다리 모양으로 놓인 것

638) 제기 : 빨리

639) 조름에 : 꿈무니에

집일 오랏구나.

“아이고 어머니게 우리 배 고파 못 살쿠다. 혼자 혼자 밥 해줍서. 배 부른 밥 먹쿠다. 우리 멘 날 메 칠 굶었수다.”

“나 멀미헤연에 안직꺀지도 머리가 허~뜩헨 정신이 아뜩아뜩 정신 못 चल्ल 나 밥 헐 정신었다. 느 네덜 양으로⁶⁴⁰⁾ 오닐랑⁶⁴¹⁾ 밥 해여시라.“

“어서 기영협서.”

귀일저데노일이 뜰년 걸 눈은 감고 썩 눈은 트고 구농훈⁶⁴²⁾ 즘을 잔다. 자는 추록 자는 추록 허멍 귀로 엇들었구나.

“아이고 어머니 혼 즘 자나난 이젠 멀미끼가 싹 멀리지 안헐수과, 혼자 밥 चल्ल서 우리 밥 먹쿠다.”

“어서 기영허라.”

아이고 예 설운 애기덜 신디 밥상을 चल्ल려 가는 게 아방 받던 상은 큰아덜신더레 엇바과 놓아 가곡에 장 향도 몰랑 주악주악⁶⁴³⁾ 밥 쓸 향도 몰랑 주악주악 살렘살이가 어뎡헌디, 그자 서투러 가는구나. 그 가운데 요망진 죽은아덜 녹디생인 늬이 어멍이 분명 헐 걸 눈치 চে엿구나.

“요 걸 봅서 성님네 나 말이 맞지 안허냐.”

“기여 맞다. 기여 맞다.”

일곱 성제가 다 눈치를 알아가는구나. 날 낳은 어머니아~ 우리 일곱 성제 놔뵤 어디를 갑디가. 우린 어뎡 허렌 허곡 우리 아방은 어뎡 살렌 해염수과. 비세고찌 울단

“우리가 울염시민 해결이 남네까. 암만이라도 우리 사를 메⁶⁴⁴⁾를 헤사주. 이 다슴어멍⁶⁴⁵⁾ 힘은 믿영 못삽네다. 우리 읍서 일곱 성제가 짝 혼 못⁶⁴⁶⁾씩 지영 강 짝신이라도 삼양장에 강 풀앙 걸로 입고 입이라도 읍서허게.”

아들 일곱 성제가 짝 혼 못씩 지영 간 동지섯덜 설한풍이 웨엇던가, 멘도롱헌⁶⁴⁷⁾ 담엠⁶⁴⁸⁾에 으질 헤영 간 노 꼬곡 헤연에 신을 삼아 가노렌 허난 남선비 죽은부인 귀일저데노일이 뜰이 암만이라도 눈칠보난 아덜 단 아덜 일곱 성제 호탕에 기냥은 못 살암직 허난, 어떤 수작을 짓겨도 이 아덜 일곱 성제를 다 죽여뵤 나가, 이 남편광 이 살림을 촌질허영 살아 살로구나. 머릴 써 간다. 궤를 부려 간다.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여.”

640) 양으로 : 스스로

641) 오닐랑 : 오늘은

642) 구농훈 : 행동과 마음이 몹시 이상스럽고 음험함

643) 주악주악 : 기웃기웃

644) 사를 메 : 살 방도. 살아나아갈 길

645) 다슴어멍 : 의붓어미

646) 못 : 생선 등을 열 마리를 한 단위로 세는 데 쓰는 말

647) 멘도롱헌 : 따뜻한

648) 담엠 : 울타리나 담장가

꺄뵁⁶⁴⁹) 해연 방에 누원 다 죽어가멍 둥굴어 가멍

“아이고 요 어른아 저 어른아, 난 영 아팜 죽어 가는 디, 저 어른은 무시거 힘이파. 올로 요레 뵁후 게 동넱뵁으로 돌앙 강 뵁서. 삼거릿질에 가민 예에 멩기 혼넱 쓴 할망이 막 일도 잘 알고 점 잘 진 덴 험디다, 그 디 강 들어 보양, 나 먹을 뵁이나 기냐 혼 번 문점이나 지어웁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예에 동넱뵁으로

“요 어른아 다시 올로 셋넱 뵁으로 아무만이나 강 뵁서. 삼도전거리에 멩기⁶⁵⁰) 쓴 할망이 너미 도 뚝뚝 행여, 점 잘 현덴 험디다. 그 디 강 문점 지영 웁서 혼 말이나 지느냐.”

“어서 기영 허저.”

남선비 슯고집현 사름이란 새에 뵁뵁하게 서넱담 엠더레 돌아가는 어겐, 귀일저데노일이뵁은 예 험간예 간 어느 제 확후게 못 바리는 트멍에 멩기 하나 못가는 질로 돌아오노렌 후난 귀일저데노 일이뵁 혼 숨에 뒷담 뵁언 들어오란, 멩기 간 험간예 뇌뵁 구들에서

“아이고 뵁여 아이고 뵁여 아이고 어뵁허민 좋고.”

이 시간도 곧 죽어짐직이 허노렌 허멍

“무시거엔 굴웁디가.”

“긔사 굴은 데로 혼 말에 지어렌.”

허난

“아이고 그거 뵁서 점도 지민 혼 말에 지민 맞웁니께. 혼 저 강”

청테산 마고할망 샅데다.

옛날은 불이 귀허난, 아이고 불 슯강알⁶⁵¹)에 문엇당, 그 불 불영 밥허곡 허는 시절이란

“남선비아 불이사 잇수파 나 조반 허젠허난 불 담으레 오랏수다.”

“저 슯밋디 근영 뵁서.”

스밋디 불은 엇구나 아이고 간 보난, 남선비가 슯밋디 앳안 장뵁칼을 싯퍼렁후게 싯금싯금 굴암 시난

“이거 어뵁 허연 영 칼을~.”

가단보난 멘도롱 현 담 엠 으지허연에 짝 혼 몬씩 지영 간 신을 삼안구나.

“아이고 설룬 애기덜아 불쌍헌 나 야기들아, 느네 아방은 느네 어멍 아판 어디간 들으난, 느네 일 곱 성제 예 냉 먹으민.”

예에 여망진 뚝뚝헌 녹디생인 아방안티

“장뵁칼을 줍센.”

해연 앳안 성님네영 일곱성제가 비세 그찌 올멍 굴메굴산 아야산은 신산긔더레 저 산천을 올라 사 간다.

649) 꺄뵁 : 꺄뵁

650) 멩기 : 망태기

651) 슯강알 : 걸어 놓은 솔의 아래

아이고 걷단 보난 다리도 아프고 베도 고프고 지치고

“기자 혼 머리치만 후쓸⁶⁵²만 더 먹엉 독부족허민 펠롱 헤점직허다.”

“아이고 어머니 경 험서 주식이 뉘고 그거 못험니까. 어머니 병⁶⁵³들어 오레 누우난, 머리에 쉬영 니⁶⁵⁴영 바글바글 일어실거우다, 머리에 니나 잡아네어뉘 나 죽우쿠다.”

“중벙 든 디 야 머리 니 잡으민 아니 뉘는 법이여.”

“경 허민 영 험서 어머니, 방 자리도 오레오레 치우지 아녀노난 추접 헤수께, 눈 자리자로 나 잘 치왕 청소헤 네뉘, 나 죽우쿠다.”

“중벙 든 데, 눈 자리도 아니치우는 법이여.”

그 법으로 옛 어른덜토 중벙 든 딴 자리라도 확확 아니 걷곡 영허는 법 입데다.

영 헤여뉘 생각을 헤보난 부에가 후려난

‘요눔으 예펜으로 행 우리 어멍 죽고 우리 아방 이 정체 뉘곡 우리 일곱 성제 이고셴 햄꾸나.’

양 곳 오곳 들런 쉬운데자 수페건지 머리 확확 견우완, 시렁⁶⁵⁵ 우터레 확 허게 들러 뇌뉘 자릴 확 확 견언 보난, 으숫 개 잇엇구나. 혼 손에 셋 썩 들런 지봉 우터레 올라가멍

“요 동넛 어른덜 다슴어멍 허는 걸랑 날 방덜 정다습서⁶⁵⁶ 날 방 정다습서 설운 성님덜 살앗걸랑 몸천으로 읍서. 죽엇걸랑 혼정으로 읍서.”

아이고 일곱 성제가 동서남북 좌우팔방으로, 와락차락 둘러들어간, 남선빈 겁절⁶⁵⁷에 올레⁶⁵⁸ 더레 돈단 눈 어둑곡, 나이 들곡 허난 올레 정살낭⁶⁵⁹에 강 탁 쓰러지난 목을 걸러 죽엇구나.

“우리 아바진 숙고집헌 나 아바지 요망헌 저 예편 만난에 우리 살리레 뎡기단 고셴만 헤엇구나. 아뉘 쉼도 엇인 아바지로구나.”

일곱 성제가 엄토 감장⁶⁶⁰ 잘 시겨간다. 귀일저데노일이 뉘년은

“아이고 영겁절에 이건 무신 소린고.”

쉼 지어지난 돈노렌⁶⁶¹ 야 올레 펜으로 돈노렌 헨 게, 벤소짜더레 돈단, 옛날 드들팡, 도세기⁶⁶² 질루는⁶⁶³ 드들팡⁶⁶⁴에 간 민착허난⁶⁶⁵ 바락 드들팡 아레 발 혼 짝을 능그린게, 쉼어지난⁶⁶⁶ 쉬운데자 수페건지머리에 드들팡에 간 목을 메어 죽어가는구나.

652) 후쓸 : 조금

653) 병 : 병

654) 니 : 이

655) 시렁 : 벽장

656) 정다습서 : ‘정다습다’는 어떤 일에 크게 혼이 나서 다시는 하지 아니할 만큼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뜻

657) 겁절 : 겁절. 갑자기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한 서술

658) 올레 : 제주도 집 특유의 공간으로 거룻 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좁은 길목

659) 정살낭 : 정낭. 집의 출입구에 문이 없을 때에 사람이나 짐승의 출입을 막기도 하는 긴 나무

660) 감장 : 감장허다.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만들다

661) 돈노렌 : 달린다고, 뛰어난다고

662) 도세기 : 돼지

663) 질루는 : 기르는

664) 드들팡 : 부춘돌

665) 민착허난 : 미끈하고 평평하니

666) 쉼어지난 : 마비되니

“요년 저녕 들봐 죽어도 원술 못 갚을로구나.”

쉬운데자 수폐건진 박박허게⁶⁶⁷ 메어단 저 바당에 들이치난 지충⁶⁶⁸ 몰망⁶⁶⁹으로 환생이 웨여가는구나. 데가린 달라단⁶⁷⁰ 뎃기난에⁶⁷¹ 돌도고리⁶⁷²로 환생 헤여간다.

눈은 들완 뎃기난 서울 늬이 왕방울로 환생 헤여간다.

닛발⁶⁷³은 빠단⁶⁷⁴ 뎃겨부난 저 바당 데오살⁶⁷⁵로 환생 헤여간다.

손톱 발톱 빠단 뎃기난 바당에 물곰붓⁶⁷⁶ 췌곰붓딱지⁶⁷⁷로 환생 헤여간다.

젓 가슴을 뜯라단 뎃기난 굴멩이⁶⁷⁸로 환생 헤여간다.

벧도롱⁶⁷⁹은 뜯라단 뎃기난 저 바당에 벨망⁶⁸⁰으로 환생 헤여간다.

베설⁶⁸¹은 빠단 뎃겨부난 물베염⁶⁸²으로 환생 헤여간다.

똥고망을 뜯라단 뎃기난 물문주리⁶⁸³로 환생 헤여간다.

양다리는 뜯라단 뎃기난 드들팡으로 환생 헤여간다.

가운디 무을은 뜯라단 뎃겨부난 데전복에 소전복에 환생 헤여간다.

손은 뜯라 뎃기난 곰베⁶⁸⁴로도 환생, 발은 뜯라 뎃기난 췌스렁⁶⁸⁵으로 곰베로 환생을 헤여구나.

남아 잇는 건 들라일와 원수를 못 갚으난, 독이옥에 낀 독독 뵈안⁶⁸⁶ 그루 멘들안 허풍 부름에 불려가는구나에-.

살아서도 인간 피만 먹곡 다슴애기 피만 먹영 살젠 헤난 년이난 죽영 가도 인피만 먹기 마련헤영 모기여 극다귀여 푸리여, 이런 야 베투⁶⁸⁷이여 하간 무는 벌레로 환생을 헤여구나에-.

그 법으로 여름나민 모기영 극다귀영 바글바글 헤영 사름 핏넴세만 마추멍 사름 우이만 들영 모기 물어불곡 극다귀 물어불곡 영 허는 법입데다.

이만 허민 어떻 허리

667) 박박허게 : 물건을 긁거나 찢는 소리

668) 지충 : 해초의 하나

669) 몰망 : 모자반. =몸

670) 달라단 : 도려내서

671) 뎃기난에 : 던지니

672) 돌도고리 : 돌을 함지박 모양으로 만든 그릇

673) 닛발 : 이빨

674) 빠단 : 빼다가. 빼내어

675) 데오살 : 거북손

676) 물곰붓 : 물곰뱃. 털이 많으면서 겉이 물렁물렁한 군부의 하나

677) 췌곰붓딱지 : 군부의 일종인 딱지조개의 껍데기

678) 굴멩이 : 군소

679) 벧도롱 : 배꼽

680) 벨망 : 삿갓조개

681) 베설 : 대장과 소장

682) 물베염 : 물뱀

683) 물문주리 : 말미잘

684) 곰베 : 곰방메. 발을 갈면서 생긴 흙덩이를 때려 부스러뜨리는 기구

685) 췌스렁 : 쇠스랑. 땅을 파헤쳐 고르거나 풀 따위를 쳐내는 데 쓰는 농기구

686) 뵈안 : 뵈아서

687) 베투 : 벼룩

“우리 아바진 아뭇 췌도 엇곡 잘 감장 헤두곡, 어머니 죽은 신체라도 혹시 훗아 질건가.”
 수소문 헨 베 타 앓언 어머니 가 가난 섬을 훗안 일곱 성제 간다. 오동나라 정지고를 가난 아이고
 어떤 할망이 잇단
 “느네 어디서 오란다.”
 “우린 양 남선고을서 오라십주.”
 “아이고 우리 딸도 남선고을 간 살암신게.”
 “요놈으 늙은이가 우리 어멍 잡아 먹은 늙은이 야 어멍 담따.”
 “우리 어멍 죽은 딜 아니 곱아주민 우리 일곱 성제가 할마니 죽이쿠덴.”
 겁 주어 가난
 “기여 곱아 주마.”
 그리치는 건 간 보난, 돛박낭아레 물이 습박헌⁶⁸⁸⁾ 디로구나.
 “아이고 성님네 이 물 펴십서, 나 서천꽃밭디 강 족은 녹디생인 족은 아덜이, 어머니 도환싱 시길
 꽃을 강 꺼깁 타 오쿠다.”
 “어서 곱랑 기영 허라.”
 암만 퍼봐도 그늬이 물은 아니 부뜨고⁶⁸⁹⁾ 서천꽃밭디 돌아다 두렌⁶⁹⁰⁾ 광세신덜⁶⁹¹⁾ 간 부탁허난 송
 어 으숫 무리만 사주민 저싱 서천꽃밭디레 두라다 주쿠덴허난
 “어서 기영 협서.”
 송어 으숫 무리 사주난 가망 광-후민 헨 무리 광-후민 한 무리, 물리단 보난, 꽃밭디 간 꽃 타 앓언
 올 때 광곽 물리단, 으숫 무리 다 물련 마지막 광허난 물릴 건 엇언, 아이고 송어카부덴 광상광⁶⁹²⁾을
 간 예, 광센 광허게 물어부난 그 법으로 독무렵⁶⁹³⁾에 광상광은 따로 노는 법이웨다에-.
 어머니님 도환싱 시길 꽃을 탄 왕
 “아이고 성님네 물도 안푸고 그자 뭇 헷디가.”
 “암만이라도 이디 물 안 부땀져.”
 “어머님아 어머님아 설마 이 물속에, 어머니 혼정이 잇건, 우리 일곱 성제 오랏수께 물을 뺏땀
 서.”
 축원 허난 물은 부짱 뺏땀 늣⁶⁹⁴⁾만 빌탁⁶⁹⁵⁾ 체만 슬그랑⁶⁹⁶⁾ 헤엇구나.
 말 곱을 꽃, 피 오를 꽃, 빼 오를 꽃, 오장육부 기릴 꽃, 가족 입을 꽃, 열두 신뻬⁶⁹⁷⁾ 기릴 꽃 초레 초

688) 습박헌 : 가득한 꼴

689) 부뜨고 : 줄고, 마르고, 부족하고. ‘부뜨다’는 액체 따위가 줄아서 말리붙는다는 뜻

690) 돌아다 두렌 : 데려다 주라고

691) 광세 신덜 : 왜가리 한테

692) 광상광 : 무릎뼈

693) 독무렵 : 무릎

694) 늣 : 곰팡이나 이끼 따위

695) 빌탁 : 물에 젖어 축축한 꼴

696) 슬그랑 : 고스란히

697) 신뻬 : 뼈

레 놓아네 금봉드리체로 삼세 번을 후리멍

“어머님아 무정 눈에 줌도 염치 엇이 잠수다, 우리덜 어멍 신체라도 좃젠 왓수께, 어머님이 분명 후건 일어납서, 혼정 잇건 일어납서.”

와들랭이⁶⁹⁸ 어멍 도환생 시겨간다. 일어나보난 어머님 누워난 자린들 네볼리아. 흑을 동글동글 동글 동그려 가난 동그릇후게시리 모양이 뒤엿구나, 으숫 성제가 우로 꼭꼭꼭꼭 손가락으로 돌아가멍 고망⁶⁹⁹을 찢러구나, 아이고야 죽은아덜 녹두생인은 가운데만이 주먹으로 푹허게 고망을 뜯 루난 시리⁷⁰⁰ 일곱 고망 남선비 아덜 예, 뜯론 고망 그 법으로 시리 일곱 고망 법도마련 헤엿수다.

어머님은 좃안 도살련 집이 모션 오란

“어머니, 아이고 물에만 오레 오레 우리 때문 고생허멍 덩기단 살아나부난, 추윙 아무디나 못 삽 니께 설운 어머님이랑 멘도롱헌⁷⁰¹ 조왕⁷⁰²으로 들어삽서. 아이고 어머님 오레 굶어나난 시장 헤연 못삽니다.”

“날랑 문전⁷⁰³으로 들어 상.”

죽은 아시 녹디생인 곤는 말이

“나가 일문전에서 받다 남은 거 조왕더레 앓당 궤 물걸랑⁷⁰⁴ 어머니 베불리 받아 먹곡협서.”

그 법으로 삼맹일 기일 제섯 때, 문전에 예 문전제 지네영, 예 송능혜영 초잔은 예 제반⁷⁰⁵겅영 지붕 웃터레 올리곡, 따시 두 번체 알⁷⁰⁶ 잡식헌 건 조왕더레 궤묻는 법입데다에.

법지 법도 마련헤여 간다. 귀일저데노일이뜯은 저 화장실 저 벤소에 드들팡에서 죽으난, 저시, 아저 조왕할망으로 큰어멍은 들어 사곡 귀일저데노일이뜯은, 서각부인으로 들어사기 마련헤엿수다.

남선비는 올레 어긋담에서 죽으난 올레 어귀 정살지신⁷⁰⁷으로 들어사기 마련, 아들 일곱 성젠 동방 청제 장군, 서방 백제 장군, 남방 적제 장군, 북방 흑제 장군, 중앙 황제 장군, 토신 장군, 좌우방 신장으로 각방 벌여 사기 마련 허고, 마곳데 죽은 아덜 녹디생인은 역력후고⁷⁰⁸ 똑똑헌 녹디생인 문전 초질 헤여수다.

난산국 풀엿수다.

그 법으로 조왕광 이제 벤소는 두 씨앗이 뒤어부난, 옛 어룬덜 곤는 말이 잇수다. 벤소 헤난디 조왕 못 허곡 에 벤소엿 거 조왕더레, 요 검질이라도 혼 가지 낭가지라도 들이청 불을 떼나 들이치민

698) 와들랭이 : 앉거나 누웠다가 가볍고 잼싸게 벌떡 일어나는 꼴

699) 고망 : 구멍

700) 시리 : 시루. 떡을 찌내는 도구

701) 멘도롱헌 : 따뜻한

702) 조왕 : 부역이나 술을 건 주위를 경건히 이르는 말

703) 문전 : 마루방과 마당으로 통하는 길이나 그 주변

704) 궤 물걸랑 : 궤 묻거든. '궤 모시다'는 제주 무속에서 비범하기 위하여 당신(堂神)에게 메밥과 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705) 제반 : 잡식. 제사 때 제사가 끝나고 나서 제물에서 조금씩 건어 놓은 음식

706)알 : 아래

707) 정살지신 : 정낭을 지키는 신

708) 역력후고 : '역력후다'는 사람이 약아서 미련하지 아니하다는 뜻

급헌 동티⁷⁰⁹ 불러주는 법입데다에-. 조왕광 벤손 두씨앗 뒤난 수와상각 법으로 이런 급헌 동티도 불러주는 법입네다.

난산국 일문전 하늘님 본산국 신을 풀었수다.

9. 칠성본풀이 (서순실 구연)

칠성한집님전 난산국이 어딴네까 본산국이 어딴네까.

옴날옴적 장나라 장설용이 대감님 살읍데다. 송나라 송씨부인 살읍데다. 부베간을 멧이난 남단법당은 유기전답 좋읍데다. 느진덕이 정하님⁷¹⁰ 거느리어 이십쓰물 삼십은 서른 넘어저도 자식이사엇어근⁷¹¹ 무우유화 허십데다.

동계남은 은중절 서계남은 상세절, 남계남은 농농절 북하산은 미양안동절 푼처⁷¹² 직헌 데서님은 당도 파락웁데다, 절도 파락웁데다. 인간에 네령 권제를 받으레 네리저, 하늘 그른 굴송낙⁷¹³, 두 귀 누른 굴장삼⁷¹⁴, 아강베포⁷¹⁵ 직부잘리, 호롬준치⁷¹⁶ 워우나. 메여간다. 벵파염줄은 목에 건다. 손에 단주⁷¹⁷를 심어간다. 하늘 그른 금주랑 철죽데를 지평, 권제를 받으레 네리난 장설용대감님 먼올레⁷¹⁸에 들어사며 소송은 절이 웁니다.

“어느 절당 데섭네까.”

“동계남은 은중절 살암수다. 당도 파락 뒤고 절도 파락 뒤연 인간에 권제삼문 받아다 멧 없는 이 멧을 주저 복 없는 이 복을 주저. 생불 없는 조슨은 생불 주젠 권제를 받으레 네렸수다. 높이 들러놋이 시르르르, 훈 방울이 떨어지민 멧도 떨어집네다. 복도 떨어집네다.”

권제를 네어주난 먼정⁷¹⁹더레 데서님은 소곡소곡 나가난

“데서님아 데서님아 우리덜 수주팔저나 그남이나 헤여봄서 단수육갑을 지품네까. 오 옹팔관을 지품네까.”

“기영 험서.”

단수육갑을 지퍼간다 오옹팔관을 지퍼가난

709) 동티 : 금기에 의해 손을 대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아 그를 관장하는 신의 노여움을 사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

710) 느진덕이 정하님 : 하녀를 일컫는 말. 보통 '하님'으로 부름. '느진덕'은 느린 행동의 표현인 듯

711) 엇어근 : 없어서

712) 푼처 : 부처. =푼체

713) 굴송낙 : 꼭지가 하나인 고깔

714) 굴장삼 : 소매 폭이 넓은 장삼

715) 아강베포 : 종이 재미(齎米)를 얻으러 다닐 때 지는 멧빵인 듯

716) 호롬준치 : 종이 재미(齎米)를 얻으러 다닐 때 지는 자루

717) 단주 : 손목에 차는 짧은 염주

718) 먼올레 : '올레'가 긴 골목처럼 이어지는데 올레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와 길에 이어지는 공간의 주변

719) 먼정 : '먼올레'에 마련되어 있는 정낭

“장설용에 대감님아 송설용에 부인님아, 아기 엇영 무우유화 허렌 현 팔전 아닙네다. 우리 법당에 오랑 수룩을 올리민 아기가 있을 듯 허옵네다.”

데서님은 절간 법당 소곡소곡 올라가난 장설용 대감님 부베간이 강모디는 강나록 수다비는 수나록 모다비는 모나록 가삿베도 구 만장 송낙베도 구 만장 두릿베도 구 만장 바리바리 실러 간다. 금마담⁷²⁰에 수리 두어간다. 올레에는 막음 두어간다. 첩첩 산중이여. 절간 법당 소곡소곡 올라가니 상탕에는 메를 지어 올리곡, 중탕에는 모옥허여 간다, 하탕에는 수족 씨처 은분체에 도금 올려 놓안 돌아 올 땐 월광님도 사나사나 지어 갈 때에는 일광님도 사나사나 석 달 백 일 불공을 올립네다. 데서님 근는 말이

“장설용에 대감님아 송씨부인님아, 오널은 백일 불공이 꺾나는 날이난 꼬까막은 저울데⁷²¹로 저울이영 백 근량이 차민 아들이 날 듯 허고, 혼 곶량만 떨어저도, 여 주식이 날 듯 험네다.”

꼬까막은 저울데를 네여노안 저울이난, 혼 곶량이 떨어집네다.

“집이 가건 합궁일을 받안, 천상베필을 무어 봅서 여 주식이 탄생 험 듯 허옵네다.”

네려 오다근 헤는 열락 서산에 지어간다. 이 밤 저 밤 야사 삼경 깊은 밤이 당허난 어욱베기 으지 헤영 무정눈에 즈을 자난 앞 이맹인 헛님이요 뒷 이맹인 돌님이요. 양단 어쨌 금산세벌 벳긴 듯 험 아기씨가, 선몽을 시기난 일어나난 꿈이로구나 집이 네려오란, 합궁일을 받안 부베간이 천상베필을 무으난, 석달백일은 당허난 안산 유테가 뒤것구나. 먹던 밥에는 골네⁷²²가 나고 먹던 물에는 물네 펄네⁷²³가 나고, 먹던 장에는 장칼네⁷²⁴가 나고 입던 옷에는 뚝네⁷²⁵가 난다. 일고으덥 덜 아옴열덜이 당허난 아긴 난건 보난 여주식이 나옴네다에-.

이 아기가 나~난 상다락에 노념헌다. 중다락에 노념 헤여 간다. 혼 설 두 설 데으섯 설은 당 헤가 난 장나라 장설용에 대감님 천하 베실⁷²⁶ 살레 옹서. 송나라 송씨부인님은 지혜 베실 살렘 옹센 헤 연 펜지 답장이 오랏구나. 부베간이 걱정이 테산이 똤네다.

‘어땡 허민 좋고 이 아기씨가, 어땡 나은 애기랑 어땡 헤똥 가코. 아덜 주식이 그뜨민 책실로나 데령 갈 걸, 여주식이난 아니 똤로구나.’

“느진덕이 정하님아, 아기씨 궁 안네 가두왕 우리 올 때까지 아기 키웁시민⁷²⁷, 강 오랑 종뵤문셀 시겨주멘.” 허난

“어서 기영 험서.”

아버지가 중근 열췌, 어멍 가져간다 어멍 중근 열췌 아방 가정 간다. 아바님은 천하 베실 살레 가져, 어머님은 지엿 베실 살레 가져 먼 올레 나고 가는구나-.

720) 금마담 : 안뜰. 마당

721) 꼬까막은 저울데 : 까마귀 주둥이 같은 갈퀴에 달아매게 되어 있는 옛 저울

722) 골네 : 굶은 냄새

723) 펄네 : 개펄 냄새

724) 장칼네 : 장 냄새

725) 뚝네 : 땀 냄새

726) 베실 : 벼슬

727) 키웁시민 : 키우고 있으면

아기씨는 증근 문을 열영 앓언 나왕 아버지 탄 가메 연분출에 돌아지어근⁷²⁸⁾ 아바님광 고찌 천하 베실 살레 올라가는구나.

올라 가단 보난 목은 각단 세각단 밧이 당허난 아기씨는 떨어진다. 아기씨 느진덕정하님은 암만 동서드레 바라보아도 아기씨는 엇엇구나.

“아이고 장설용에 대감님아 삼 년 살 베실랑 석 덜에 살고, 석 덜 살 베실이랑 단 수홀에 무청 읍서. 아기씨가 상저님 나간 후제 간고무중이 뒤엇수다. 아이고 송씨부인님 아 지엿베실 살 거. 삼년 살 건 석덜에 무치곡 석덜 살 거 단 수홀에 무칩서. 아기씨가 간고무중이 뒤엇수다.”

천하베실 살레 간 들어오라 간다. 지엿베슬 살레 간 들어오라 간다.

아기씨는, 목은 각단 밧디 세각단 밧디 낮이는 촌이실을 맞아 간다. 밤이는 흥이실을 맞아 간다. 앞이 오는 데서님이 오랏구나.

“나를 데령 걸읍센.”

허난 아기씨 장삼 속에 담아 앓언, 장설용 대감님집더레 먼올레⁷²⁹⁾ 들어사며 나사며 소송은 절이 웹니다.

“소송 절이 꿩고 뒤고 다 필요엇저. 느네 법당에 강 불공 드려 나온 애기가 간고무중을 헤여시난, 단수육갑을 지퍼보라. 오용팔관을 지퍼보라.”

단수육갑을 지퍼간다. 오용팔관을 지퍼간다.

“아이고 장설용에 대감님아 앓이민 앓일만 훈디서 보아지쿠다, 사민 살만 훈디서 보아지쿠다.”

이 말을 글아가난 요 중이 행실이로구나 잡젠허여 가난, 요술을 부려근 나고 가는구나 아기씨 먼 올레 간 보난 싱근 돌에 몰팡돌에 앓앗구나. 아기씨를 데려다근

“아이고 설운 아기야 눈은 무사 곰방 눈이 뒤고 입은 무사 작박 입이 뒤고, 목은 흥졸 뒤고, 베는 동동 베가 뒤고, 발은 동동 발이 뒤여시니.”

“아바님이 오는가 어머니가 오는가 보단보난 느진덕정하님 훗삼식을 허렌허난 데삼식을 허여근, 등등 등베가 뒤고, 발은 동동 굴리난에, 동동 발이, 뒤엇수다.”

아이고 송씨 부인님은

‘날로 헤 본 일이로구나.’

아기씨 젓가슴을 헤천 보난, 젓가심이 핏줄이 생겼구나

“아이고 요 년아 저 년아 궁 안네도 부름이 들여서냐. 아이고 죽일 년아 잡을 년아 데 동통편에 청 뎃섯에 목글러 죽일 년아.”

아멩헤어도 안뒤로구나 은데양에 물을 떠다 놓안 은젓가락을 걸천, 옷을 벅건, 물그밀 바라보난 아기씨 베 안네, 베염⁷³⁰⁾이 일곱이 사련 앓앗구나.

누추허고 더럽구나. 아방 눈에 글리난다 어멍 눈에 실찌난다.

728) 돌아지어근 : 매달려서

729) 먼올레 : ‘올레’가 긴 골목처럼 이어지는데 올레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와 길에 이어지는 공간의 주변

730) 베염 : 뱀

동이와당 췌철이 아들 불러다군, 무췌설갑⁷³¹) 짜간다. 일은 ㄴ뵤 조심통췌 질로 절강 중간⁷³²) 앓언
저바당에 띄웠더니 들물 고게에 췌물 고게 흥당망당 떠 덩긴다.

남방국으로 무췌설갑 올라오저.

저 산지⁷³³) 들어사젠 허난 산지는 칠머리⁷³⁴) 감찰지관 췌여근 못네 든다.

화북(禾北)으로 들젠 허난 가릿당 해신당이 췌여근 못네 든다.

삼양(三陽)으로 들젠 허난 시월도병수가 췌여근 못네 든다.

신촌(新村)은 들젠 허난 신촌은 큰물당 췌여근 못네 든다.

조천(朝天)으로 들젠 허난 세콧할망 췌여근 못네 든다.

함덕(咸德)으로 들젠 허난 훈 물 두 물 급서왕이 췌여근 못네 든다.

신흥(新興)으로 들젠 허난 볼렛낭 박씨할망 췌여근 못네 든다.

북촌(北村)으로 들젠 허난 일뤼한집 췌여근 못네 든다.

동복(同福)으로 들젠 허난 상에와당 물켓낭 올라오던 일뤼한집 췌여근 못네 들고

김녕(金寧)으로 들젠 허난 알성세기 밧성세기 췌여근 못네 들고

행원(杏源)으로 들젠 허난 남당 한집 췌여근 못네 들고

한동(漢東)으로는 들젠 허난 황세웃 밧 부세웃 밧 비즈남 부데오름⁷³⁵), 상갈퀴에 솟아난, 구월 구
일 한집이 췌여근 못네 든다.

펑데(坪岱)로 들젠 허난 수데기 한집이 췌여지고

상세화리(上細花里)로 들젠 허난 상세화리~, 천조 백조 췌연 못네 들고

하도(下道)로 들젠 허난에 여레불도 췌여근 못네 들고

종다리(終達里)로 들젠 허난 종다리 토지관한집 췌여근 못네 들고

시흥리(始興里)로 들젠 허난 시흥리 본향한집 췌여 못네 들고

오조리(吾照里)로 들젠 허난 족지할망당에 췌연 못네 들고

성산(城山)으로 들젠 허난 향파두리 짐통경(金通精) 만리토성 들었구나.

다시 머리 돌런 함덕 오름 무쟁이쿠지에 무췌설갑이 올리난, 연날은 앞물에 들 때난, 일곱 집이
일곱 줌녀⁷³⁶)가 앞물에 들젠 네려오단 보난 무췌설갑이 잇이난, 니가 봉갓저⁷³⁷) 나가 봉갓저 하도⁷³⁸)
싸웁디다. 억무송동지 영감님은 송동바구니 볼락 춤데⁷³⁹) 들런, 앞물에 볼락 나끄레 오단 보난, 일
곱 집이 일곱 줌녀가 싸웁시난

“아이고 요 년 췌긴년덜아 니네덜 무사 동세백이 싸웁시니.”

731) 무췌설갑 : 무쇠석갑(石匣)

732) 중간 : 잠가서

733) 산지 : 제주시 건입동의 지명

734) 칠머리 : 제주시 건입동의 지명

735) 부데오름 : 조천읍 선흘리 부데오름

736) 줌녀 : 해녀

737) 봉갓저 : 주웠다

738) 하도 : 매우, 대단히

739) 춤데 : 낚시대

“아이고 하르바님이 요걸 봉가신디 나가 먼저 봉가수다.”

“아이고 요 년 생긴년덜야 느네덜 싸우지 말앙, 그걸 나가 열어주건, 느네 그 속에 잇인 걸랑 느네 갈라앗곡 그 무췌설갑이랑 나 주민, 담벳괵 봉초갑이나 허켄.”

후난

“기영 험셴.”

허연 하르바님이 이른으뎝 조심통췌 열언 보난 베움⁷⁴⁰이 일곱이 나오란, 아이고 누추허고 더럽고 추접허구나. 볼락 춤데여 비창⁷⁴¹이영, 깔쿠리⁷⁴²로 동서더레 다 케우라가는구나.

그때에 일곱 집이 일곱 즘녀, 앞물에 들레 갓다근 신에 신병 나~간다. 우로 역계쟁, 머리에 아피, 등 아피, 양단 어께 열두 신뻬가 아프곡 쑤시곡 절리곡 집이 오란 벨 일을 헤도 아니 좋안, 어디간 들으난 손으로 지은 췌척이엔 헤연

“이거 칠성에 걸렸구넨.”

헤연 두에 칠성한집을 모션, 헤여 가난 일곱 집이 일곱 즘녀 다 뺑은 좋고 부제로 잘삽데다 그리서 얻어 먹언 살젠 허난

“아이고 설운 나 아기덜야 우리 아기 혼 밧디 앗앙 얻어 먹영 살 수가 잇이나. 오라, 우리 성안더레나 다들 그찌 들어가게.”

성안더레 들어오젠 허난 낮인 가민 인간덜 눈에 뜨곡 밤인 가민 밤질이랑 못가곡

“오라 우리 데룻질⁷⁴³을 놓아뿔 소룻질⁷⁴⁴로 어서 가게.”

함덕(咸德)을 넘어 간다. 조천(朝天) 만셋동산 올라 가 영끼 몽끼 불려두고 신촌(新村) 열네못가에 영끼 몽끼 불려두고 신촌은 진드르 들어가난 이제도 신촌 진드르 길은, 먼 질이우다 자동차도 가민 백이십씩 뽀으멍 가는 질이라. 일곱 애기덜 데려 앗앙 그 질을 가젠 허난 질다 질다 진드르로 이름 지와 간다.

어서 가단 보난 화북(禾北)은 들어 가난 아기덜 옷이 다 추접헤엇구나. 가단 보난 베릿네에 물이 펜췌 펜췌⁷⁴⁵ 잇이난

“설운 나 아기덜야 오라 우리 성안터레 가젠 허민 목은 옷이랑 벗어 두영, 가시낭에 걸쳐두영 여기서 몸모옥 허라.”

몸모옥 헤연 세웃을 곱아 입언 베릿네도 넘어간다. 고우니무룰⁷⁴⁶ 동산은 올라사난 지치고 다치고

“이 동산은 높아지다.”

제주 백성덜 성안더레 송수 들이레, 연날은 걸영 덩길 때난 고우니무룰 동산 올라사단 보민 송

740) 베움 : 밤

741) 비창 : 헤녀가 바다 속에서 전복 같은 것을 깔 때 쓰는 쇠로 만든 비스듬하고 길쭉한 연장

742) 깔쿠리 : 갈고리

743) 데룻질 : 대로(大路)

744) 소룻질 : 소로(小路)

745) 펜췌 펜췌 : 빛을 받아 '번췌번췌'하며 빛을 잇달아 발하는 꼴

746) 고우니무룰 : 제주시 건입동에 잇는 지명

서들일 말도 잊어부러 간다.

고우니무를 동산을 넘어 가져 동문으로 들젠 허난 동문지기 잡았구나.

서문으로 들젠 허난 서문지기 잡았구나.

옛날은 칠성골이로구나. 옛날 칠성 산지 네⁷⁴⁷에 간, 이거 앓안 일곱 애기들이영 잇이난에, 옛날 칠성골 송데장 부인님은 요즘은 집에서 수돗물을 먹주만은, 옛날은 여자 물허벅 지영, 물을 질어당 먹는 시대난 물허벅 지영, 송데장 부인님이 산지네드레 들어가단 보난에 난디엇인 베엄이 일곱이 사련 잇이난

‘이거 필아곡절헌 일이로구나.’

앞치메 벗영 들어 가명

“우리 집이 테운 조상이결랑 이레 다 앓양 이십센.”

혜연, 간 물을 떠 지영 나오단 보난, 앞치메에 일곱 베염이 다 들어오랏구나. 집이 오란 연양 상고팡에 모시난, 송데장부인님은 부제가 뵈데다 옛날도 부제는 칠성골만 사고, 이제도 비싼 옷도 다 칠성통에만 풀곡, 부제만 사는 동네가 뵈읍네다.

송데장부인 집이 가근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 영 모다정 살 필요가 잇이나 이제랑 다 이녁만씩 곱 갈랑 살게.”

“기영 험서.”

설운 아기덜 동창지기 서창지기 남창지기 창고지기 마련 혜여 간다. 안느로는 연양 상고팡⁷⁴⁸은 데독간도 촌지 소독간도 촌지 데도지도 소도지도 검은 독 누린독 촌지헌다.

두으론 감낭⁷⁴⁹ 알⁷⁵⁰ 미강⁷⁵¹ 알로 청주쟁이⁷⁵² 흑주쟁이, 청기와지 흑기와지 할라산을 띠를 들런, 메 족은 애기가 글로 좌정을 후멍

“어머님 가심이랑 열려 안네져.”

미강낭 알로 좌정 헛저 허읍네다.

칠성한집님 난산국을 풀었수다. 본산국을 풀었수다.

747) 산지네 :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山地川)

748) 고팡 : 곡식 따위를 저장하기 위하여 집안 한쪽에 마련된 창고

749) 감낭 : 감나무

750) 알 : 아래

751) 미강 : 굴

752) 주쟁이 : 노적거리의 윗부분을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게 덮는 도구

10. 지장본풀이 (오춘옥 구연)

1) 지장본풀이 - 1

본주지관님네 무른 땅 막안, 새가 괄곤 이는 듯후는구나. 지장만보살로덜 신누려 하렘 험서에-.

지장아 지장아 지장에 본이여
 지장이 본이사 어디야 본인고
 청하늘 천도전 백하늘 백도전
 도전에 풀이로 신폴어 올리저
 강남은 천저국 일본은 주년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뉘웁니다.
 면은 십사면 뉘네테다. 구좌음은 행원입니다.

동계남 상서절 서계남 금백당 영급과 수덕이 좋아야지더라. 좋아지난에 데백미 증백미 하백미 거
 느리고 그젯 날은 상납상축 귀곳추고 송낙지 구만장 가사지 구만장 거느려 놓고서 원불당 가더라.
 원수룩⁷⁵³ 드리난 지장이 아기씨 솟을라 나드라.

흔 설이 나든 헤 어머니 무렵에 연조세 받던고⁷⁵⁴. 두 설이 나든 헤 아바님 무렵에 앉아 연조세 받
 드라. 식 설이 나든 헤 할마님 무렵에 연조세 받던고. 네 설과 다섯 설 근당허난 하르방 무렵에 앉아
 연조세 받던고. 연조세 받오난 이 얘기는 으둡 설 나던 헤에 하르방 할마님 다 죽어 가더라. 아홉 설
 나던 헤 아바님 어머니 다 죽어 가더라. 나년이 팔저야. 나년이 사주야. 어딜로 가리오.

일로나 가던고 이런 송저로손 떼메다 보난 아홉 살에 동방네 금방상 웨삼촌택으로 백방을 나더
 라. 수양을 가난에 개 먹단 접시 술랍을 돌린다⁷⁵⁵. 술랍을 돌린나 하늘이 밥 준다. 지에⁷⁵⁶가 웃 준
 다.

열다섯 십오 세 근당사 허난에 착허덴 소문이 절로야 나는고. 원구녁 차난 질로 절로 착허다 허는
 소리오. 일러야 가더라. 후를 날은 그 때 은장이 거리서 문혼장 어서 가저. 늦장이 거리로 무남정 가
 지에 은장이 거리에 문혼을 가저 영허난 옥황에 문도령 출삭이 나더라. 가고보니 허급을 허난 이바
 지⁷⁵⁷ 보낸다. 이바지 받고 신랑이 가더라. 신부가 오더라. 가는 날 오는 날 좋은 일 허던고 생남⁷⁵⁸
 을 보더라. 나 며늘아가야 착험도 착허다. 유기야 전답을 다 물려주는고. 다 물려주난 생남을 보더

753) 원수룩 : 원수룩. 부처님께 자식을 비는 비명

754) 연조세 받던고 : '어리광을 부리다'의 뜻

755) 술랍을 돌린다 : '술랍을 돌린다' 함은 손가락으로 밥의 양을 계산하여 준다는 뜻

756) 지에 : 지하

757) 이바지 : 혼례가 치러지기 전에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혼례에 필요한 물품

758) 생남 : 생남(生男). 득남

라. 생남을 보난 이 아끼 혼 두 설 당허난 시부모조상 다 죽어 가시고. 이 아끼 혼 설 식 설 넘어나 가난에 아바님 어머니 다 죽어 가더라. 설은 낭군님 꺾지사 오독독 죽는고 나년이 펼조야. 나년이 사주야. 어딜로 가리오.

훗 날곱 살 넘은 이 아기도 오독독 죽더라. 나년이 펼조야. 나년이 소주야. 어딜로 가리오. 동네야 금방상 시누이 텍으로 첩방⁷⁵⁹을 가난 시누이 말이사 혼 지방 넘으면 잡을 말 벳길 말 다울여 가더라⁷⁶⁰. 시누이 신디 촛안 간 바리난⁷⁶¹ 시누이 역신은 벳록⁷⁶²이 닷 뒤여 니가 닷 뒤여 다 예열 누눈고. 그는 데구덕⁷⁶³ 지어나 놓고 주천강 연못디 연서답⁷⁶⁴ 가시고. 연서답 가난에 후꿈만⁷⁶⁵ 아끼 물명지⁷⁶⁶ 단속곳 벌언 잇어구나. 연서답 오는데 예숙을 제끼나⁷⁶⁷. 예숙을 제끼난 예숙이 지더라. 물명지 단속곳 다 벗어 주는구나.

동으로 오는 데서가 오더라. 서으로 오는 소서가 오더라.

“데서야 소서야 나 팔져 곱립서.”

“일러나 가던고 초복은 좋구나. 중복이 나쁘다. 말복은 좋구나.”

일러나 가더라. 그젠 날은 데서님 말이사

“대액년 소액년 전도전 식커리에 액년을 막읍서. 부모야 조상 설운 낭군님 설운 애기 전세남 허십서. 육무를 허십서.”

일러나 가더라. 대액년 소액년 다 막아주고서 어딜로 가리오. 그젠 날은 저 산중 올라나 가시고. 굴목낭⁷⁶⁸ 서리에 굴목낭 지동에 문 헤여 오는고 집 세와 가더라. 집 세와 놓고 청지아 올린다. 백지아 올린다. 다 올려 놓고서 어딜로 가리오. 옥황에 도올라 누에씨 타다가 누에를 싱근다. 누에가 크는고 누에씨 으문다. 누에씨 타다가 누에 싹 빠는고. 그땐 날은 초감제 두리여 불도에 두리여 일월에 두리여 초이공 두리여 시왕에 두리여 일러나 간다.

후다가 남은 건 후룸전데 직부찰리 헤여 놓고 동으로 들어 서으로, 서으로 들어 동으로 시권제 받아 가는구나. 권제 받은 그땐 날은 집으로 오라. 그땐엔 세콜방에 헤여놓고 이제는 청비발아기덜 불러 놓아 방에 점져 헤여 간다.

이에도 방에여

이에도 방에여

이에도 방에여

방에 점져 헤여 두고 그젠 날은 체할망 부르라. 체할망 부른다. 체아렛 그를은 좀지는고 체 우잇

759) 첩방 : 제주도 초가집의 마루와 부엌으로 통하는 작은 마루인 '첩방'=첩방마리

760) 다울여 가더라 : 서둘도록 재촉하다. 내물거나 내쫓다

761) 바리난 : 보니

762) 벳록 : 벳록

763) 데구덕 : 대로 걸어 만든 조금 큰 바구니

764) 연서답 : 빨래

765) 후꿈만 : 작은

766) 물명지 : 얇고 가는 명주

767) 예숙을 제끼다 : 수수께끼 놀이를 한다

768) 굴목낭 : 느티나무

그를은 따시 이어 방에여 이어 방에 헤여 놓고 그젯 날은 펜⁷⁶⁹⁾ 할망 시리⁷⁷⁰⁾ 할망 불러 간다.

그때는 초감제 시리여 초감제 펜이여~

이제야 불도에 시리여 불도에 펜이여

또 이젠 시왕에 시리여 펜이여 문딱 헤어나 가는구나.

헤여두고 지주여~ 초감제 제주여 분향에 지주 헤여간다.

헤여 놓고 두 일레 열나흘 전세남굿 육마을 곳 헤여간다.

헤여 놓고 그젯날은 지장 아기씨 어딜로 가리오, 은장이 거리로 늦장이 거리로 감은장거리로 어서가져 가다 보난 요 새 저 새 근당 한다. 지장새여 요 새 저 새 추어 혈쭈-. 추어 혈쭈~ 헤여두고 지장만보살 신평엇구나.

요지장은 어느 누게가 일라 지장인고 영 험거든, 일른셋님 일은넷님 쉬운넷 고디 신평 일라 지장이여. 마은 두 설 마은 일라지장이로구나. 서른 으섯 일라지장이여 지장만보살 신평엇습네다~.

2) 지장본풀이 - 2

문훈장 오더라, 수주가 좋더라.

시집을 가는고 가는 날 저녁이 생남을 보시고 지장에 애기싹

열여섯 나던 헨, 씨어머님 죽는고.

열일곱 나는 헨, 씨아바님 죽는고.

열여덟 열아홉 나난에 씨할마님 죽는고.

곧 쓰물 나난에 씨하르바님 죽는고.

설우신 낭군님 다 죽어 가는고.

오독독 죽는고 나년이 팔저야 나년이 수주야 어딜로 가리오.

씨누이 방으로 지방을 나시고 시누이 나 딸년

헌 지방 넘은잔 잡을 말 허는고.

두 지방 넘은잔 구을 말 허는고.

시누이가 허나민 베품이 닷 뒤여 니 다뒤 뒤더라. 어딜로 가리오.

지장에 아기씨 그는데 서구덕 세경은 물마께⁷⁷¹⁾ 연세답 가는고. 연쪽남 거리로 연네뭇디 연세답 가난에

동으론 데서가 오는고

서으론 소서가 오는고

“데서야 소서야 나 팔절 골리라. 나 수주 골리라.”

769) 펜 : 찢 싹떡

770) 시리 : 떡을 찢내는 도구

771) 물마께 : 빨래용 방망이

“초본은 좋아도 중본은 굿수다.

중본은 굿어도 말본은 좋수다.

씨어머님 씨아바님 씨할마님 씨하르바님 친정에 아바님 어머님 하르바님 할마님 설우신 낭군님
까지

초세남 여입서

이세남 여입서

삼세남 여입서.”

지장에 애기썸 연폭낭 거리로 연폭낭 싱근다.

누에밥 맥인다. 누에 즙 제운다. 누에쌀 타는고.

물멩지⁷⁷² 동앗언 갱명지 동앗언

서미녕⁷⁷³ 서마페⁷⁷⁴ 올이사 자는고.

마은데자 끊어서 상청은 두리여.

서른데자 끊어서 중청은 두리여.

쓰물데자 하청은 두리여.

시왕은 데두리 영쳐서 데두리 마련을 허는고.

일곱자 끊어서 직부야 잘리여.

석자오치 끊어서 호름은 전대여.

접아도 가는고 웨우사 메여근

누다도 돌른다 누다야 메여서 웨오사 돌른다.

동으로 들어근 홉동녕 허는고

서으로 들어서 세동녕 허는고

제 넘어 가는고.

말 넘어 가는고.

섬 넘어 가더라.

굴묵낭 도고리⁷⁷⁵ 쏘이사 씻는고.

조눔도 조늘써 그는데 서구덕

쏘이사 건진다 실물을 들룬다.

굴묵남 방에 도에남 절굿데 어꼿심 들여근

이어도 방에여

지어도 방에여

지어도 가는고 체 할망 디리라.

772) 물멩지 : 얹고 가는 명주

773) 서미녕 : '미녕'은 무명

774) 서마페 : '마페'는 삼실로 짠 베로 결이 굵고, 품질이 좋지 못함

775) 도고리 : 함지박

체 아랫 그롤은 좀진도 좀질씨⁷⁷⁶⁾ 주는 펜 허는고.
 그 체우잇 그롤은 훔음도 훔구나⁷⁷⁷⁾.
 짓넙은 사레에 물 좁아 노면서 어깨심 드리라.
 동네에 청비발 애기씨 다 잡아 심어도 허위여 미는고. 데국서 들어온 찌그만 연시리에 불화식 허는고.
 삼덕을 앓지라.
 책깁델 띠운다.
 더운 징 우른다.
 단 징 올른다.
 초공전 하늘로 지울려 가는고
 이공전 하늘로
 삼공전 하늘로 지울려 가는고
 열말썬 데도판 금시리 해단, 시왕수제 당클러레 위 올려 가는고.
 연당알 신소미 네여 노안 삼 고냥⁷⁷⁸⁾ 딸라단 세변군졸 지사귀여 가는고.
 시왕전 앞으로 동글동글 넘놀려 가는고.
 삼도전 네여단 시왕당클러레 위올려 가는고
 옆도전 네여단
 강반도 비엿저
 연당도 비엿저
 연당 만당 그득여 가는고.
 지장에 애기씨 시왕 십이데왕 앞으로 열두스천 시우장문 잡아 놓안, 친정부모 씨부모 남인 가장 양친부모 조상에
 초세남 허는고
 이 세남 허는고
 삼 세남 올린다
 열두폭 치메랑 폭폭이 버려단 열두야 시우장문에 저 인정 거는고.
 지장에 애기씨 좋은 일 헤엿저 새몸에 갑데다.
 머리론 두통새
 눈으로 흘깃새
 코로는 버롱새
 입으론 약심새
 가슴엔 어열새

776) 좀진도 좀질씨 : 자잘하기도 자잘하다

777) 훔음도 훔구나 : 굶음도 굶구나

778) 고냥 : 구멍

오금엔 조각새

남조엔 공방새

여자엔 해말림 불러나주는고 추위나 월주- 월쭈 월짱 포르릉 포르릉 짓놀아가는고.

요야 지장은 어느 누게 일라야 요 지장인고.

이 씨로~ 저승은 도신혜, 이승은 상신총 일른셋님 일룬 지장.

오 씨로 멩두 상하님, 이른넷님 일라야 요 지장.

당주조스이에 쉬운네 설, 곧 쉬인 일라야 요 지장.

마은넷 마은돌 쓰물 서른으섯 일란 지장.

당주조스덜

일룬 지장

공든 지장

지든 지장

지장 만보살 신폴어 올립네다.

11. 사만이본풀이 (이중춘 구연)

옛날 옛적이 주년국땅 수수만이가 식 설엔 아방 죽고 다섯 설엔 어멍 죽어 부난 거리 동녕 해연 얻어 먹으레 뎡기다가, 후를 낳은 장대감 따님 애길 만난 보난, 혼 날 팔제 소주난 홀목심언 얻어먹으레 뎡기는데, 열다섯 십오 세가 넘어서난 남녀 구별법을 알아지난 물 혼 사발 뜨어 놓안, 인간 혼 서를 허난 애긴 나는 건 보리끄르 밀끄르 오망속속을 솟아나난 이 애기덜 구명도식을 못 시견

“밥을 줍서 옷을 줍서.”

비세그치 울어 가난 장대감이 따님애긴 쉬인 데자 수페머릴 비연 수수만이 그라

“장터에 강 이걸 풀양 쓸 받앙 오민 이 애기덜 혼 때라도 베푸른 밥을 멕이케엔.”

해연 수수만이 각시 머리 앓안 장터에 간 돈 석 냥을 받안 장 구경을 허염시난 질이 넘은 마사총을 풀암시난, 그걸 산 오란 집더레 읍데다. 수수만이 각신 어느 때랑 쓸 받앙 오민, 이 애기 덜 베푸른 밥을 멕이큰 허단 보난 구레텡이 닳은 걸 우뚝지에 둘러 메연 오라시난

“그건 뭇 허는 거우꽂? 쓸은 어디레 붙데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것만 들러근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 신산곳을 도올랑 노는 꿩 불질 헤영 마쳐 당 구명도식(救命圖食)헌덴.”

허난

“아이고 이 어룬아 이 애기덜 베풀우는 걸 봅서. 저 어룬만 앓앙 강 잘 먹곡 시영삼센.”

허난 수수만이 마사총⁷⁷⁹⁾을 둘러메면 굴미굴산 노조산 아야산 신산곶을 도올란 노는 썩에 불질 허민 헛방이곡 헛방이곡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집데다.

집더레 못 오난 돌멩이 죽언 도리담은 다완에 초경 이경 수수삼경 짙은 밤을 거세와 가난
“수수만아 수수만아~.”

하도 불러 가난 세 번 불르민 데답 허젠 허난 두 번만 불런에 아니 불르난 무서웁고 서끈헤연 뜯
눈으로 날을 세웁데다.

뒷날 아척⁷⁸⁰⁾에 불러난 방향으로 간 보난, 뽕년 조상이 땡그르르 궁굴엄더라.

“너가 수수만이냐 너이 메영 땡기는 총은 나가 앓아 땡기던 총인디. 나는 백정성이 아들롭서 신
산곶을 오란에 사농을 허단 모진광풍은 만나난 나이 몸은 이와 그치 땡 난 나를 돌아단 잘 위허민
부제팔명 시겨주멘.”

허난 뽕년조상 모상오란 울레에 물코실낭 상가지에 걸어두고 안내 들어 간 가속그라 소실 말을
굴오난, 수수만이 각시 멘 보선창으로 나완 보난 뽕년조상은 알더레 떨어지언 땡그르르 궁굴엄더
라.

법지법이나 마련허저 오뉴월 영청 한더위에 물코실낭 아래 누윙 으씩허게 추운 징을 부러주민 쫓
터는 병을 마련허여 두고, 뽕년조상 모상 안노로 들어 간 마리 데천 한간에 놓아네 상물 숨아 몸 모
욕을 시겨놓고, 안고팡으로 상다락을 무언 기진멜 지어 올린 삼선향을 지듯탄, 수수만이 절 삼베
를 허여두고 뒷날부터 신산곶을 도올라 노는 썩 불질허민 백발백중으로 맞아집데다. 노리 각속 사
심을 마쳐다가 슬케긴 먹언 구멍도식허고 동네에 전준이 뒷철관 조은이 으뜸 덜토 분작일허고 가
죽머린 푸는 것이 헤포 삼년이 땡난 고데광실 높은 집, 남단북단 너른 밧, 물모쉬⁷⁸¹⁾, 유기전답 제산
일 란 잘 살아가난 집에 조상은 물 훈 직을 아니 줍데다. 저상법은 이수농장법이라 주년 날 촌썰 그
뜯 법이로구나.

오월은 초나흘 팔월 열나흘 선덜 그름이 당허민 저상 팔데문을 열려근 이싱 가민 삼맹일을 먹영
오렌헤여 선덜 그름 당헤연 저상팔데문을 열려 저상간 영가들을 다 이싱더레 보네여두곡, 염네왕
이 순례차를 땡기단 보난 웨헌 영가들이 비세그치 울엄 시난

“너히들은 어찌헤여 맹일 먹으레 아니 간 비세그치 우느냐?”

“저히들은 인간 탄생을 허난 주년국 땅 간 살앗수다, 아덜 하나 난 수수만일 놓아두고 집도 밧도
엇언 제산도 못 물러 주언 오랏수다 마는, 수수만이 뽕년조상 봉가단⁷⁸²⁾ 잘 위엿허여가난 부제 팔
명 살아지난 우린 가도 물 훈직을 아니 주고 가도 베고판 올 거난 아니 간 울엄수멘.”

허난 염네왕이 몸 받은 삼처서를 불러다가 수수만일 잡아오렌 허난, 그 때 그 시절 수수만이 곧
서른 나는 헤우년 입데다.

수수만이 잡으레 처서님은 남방사주 봉에바지 북방사주 저고리 별통행경 뽕녹버선 서송메투리,
종이 반절 돌아메고 남수왓지 저전데 남비단 섭시에 비단에 퀘지 운문데단 남바찌고 억금창금 비

779) 마사총 : 마상총(馬上銃)

780) 아척 : 아침

781) 물모쉬 : 마소

782) 봉가단 : 주워다가

서리 창검을 둘러받아 넓은 목엔 번게치 듯 좁은 목엔 베락치 듯 와락차락 누려사 가난 뺨년 초상은
이걸 미리 알안

“수서만아 수서만아.”

하도 불러가난 수서만이 각시

“뺨년조상도 베붙어 가난 벨 요망을 다 헤염구나.”

고팡에 간 뺨년조상을 누려단 뒷बाट레 댕겨부난 땡그르르 궁굴어간다. 그날은 수수만이 새 혼
마릴 못 마치난 이거 집이 무신 일이 낫구나.

누려오단 보난에 이름 불리는 소리가 나난, 간 보난에 뺨년조상이 땡그르르 궁굴엄더라.

“아이고 이거 어떠한 소실이 뵈네까?”

“너는 부모조상 물 혼 직 아니 준 줘로, 염네왕에 몸 받은 처서가 오라가난 이걸 골아주젠 헤연 하
도 야단 헤여 가난, 너네 각신 나를 이와 고치 구박을 헤엿덴.”

후난

“기영후난 여주엔 혼 건 산더레 돌아왔앙 소필 보민 치메깍 젓는 줄 모르는 여주의 소견이 아납
네까. 죽은 일은 알곡 살 도레가 업십네까?”

“너가 살아 나커 들라 근, 데공단 고깔 들어 근 머리 삭발허곡 상탕이 메를 짓곡 중탕이 모욕허곡,
기진 메 지어올려근 이와 고치 방엑상을 출려 근, 테역단풍 원아지지 청결터로 가근 높은 평풍 책상
을 싱경 평풍에랑 수수만이라 이름 석잘 씨영 부찌두영, 백보 벳겅디 업디허곡 너의라근 집안 안느
로 벳겅딜로 상관지 오르지 법을 마련후고 천지월덕이망주 하늘이 칭칭허게 헤시 만서 당글을 줄
싸 메영 염네왕을 청 헤 영 타는 물안장 드러근 방엑허민 알아볼 도레가 잇젠.”

후난 곧는 데로 다 출련~

테역단풍 원아지지 청결터로 간 잇이난, 삼처수님은 연등상널 가능을 헤연에 누려오단보난 이와
고찌 출려 노와시난 시장 헌 처수 시장깁 물리고 신발 떨어진 처수는 신발을 골아 신고 왕래노수 떨
어진 처수님은 왕래노수를 받아 눅으걸 고이 먹으민 목 걸리고 등 걸리는 법이로구나. 평풍더레 바
레여 보난 수수만이라 이름 석자가 씨연 부찢더라. 어차불쌍 수서만이 잡으레 오논디 수수만이 정
성을 받아지엇구나. 여~어 뺨년고든 소리로 우레고찌 질런 수수만일 불르단 나오난 어~ 홍사줄을
네어노완 소문절박을 험데다.

“어서 가저.”

제촉을 후난,

“처수님아 혼 베코만 눅여 좁서, 집이 가근에 보리끄르 밀끄르 나은 애기 덜 잘 잇이렌허고 가속
그라 잘 살당 오렌 골아두영 가쿠덴.”

후난 처수님도 인정 받은 게 잇이난 집더레 오단 보난 연물소리가 와랑실랑 나간다. 금마답은 바
레여 보난 큰데 세완 염네왕을 청헤연 타는 물 안장드런 방엑 헤염더라. 염네왕도 인정을 받암시난

“우리도 수수만일 풀어주젠 허연 너 이름 광 비슷한 이름이 없느냐?”

“오만이가 잇수덴.”

후난 오만일 둘안 저성을 가난 저성 문센 선후도착이 뵈엿구나. 삼처수 전옥으로 하옥을 시킵데다.

후를 저녁은 염네왕에 몸 받은 책실덜이 순체차를 덩검시난에 팔제 동관은 유학성제로구나.

“우릴 살려드렌.”

허난

“어떻 허민 살릴 도레가 잇이리.”

“오늘저녁 염네데왕이 옥롱성 즘을 들어불거들랑 이싱 문세 주년국 땅을 좇앙 스스만이 서른에 죽으렌 혼 걸, 금베리에 츄 먹을 곱앙 열십자우이, 은뵓을 들렁 세 혼 마릴 올려노민 일천천 쩌가 쥔 거난 이것만 고찌 드렌.”

허난 그건 웨론 일이 아니로구나 그와 고치 고찝데다. 모리듯날 수오 시는 근당허난 앞뵓뒤 작뒤 걸라, 뚝뵓디 벌통 걸라 조각 늠을 불러단 동이 꺾닥 서이 꺾닥 죽일 팔로 들어가난 삼쳐소가 곱는 말이

“스스만이 서른에 죽으렌 혼 문셀 우리 눈더레 베와쥌센,”

허난 좌도나철 우도나철 취판관이 문셀 활활 걸언 보난 서른이 아니라 삼철년이 뉘었구나.

“이건 너이덜이 혼 노릇이로구나 그만허민 처서 관장 쥔 만허다. 동방색일 잡앙 오렌.”

허난에 주친강 연네뵓디 간 검은 걸 앞안 간 와락차락 씻엄구나, 석덜 열흘 백일 쩌 뉘는 날은 동방세기가 넘어가명 넘어오명 보아도 검은 것만 씻엄시난 하도답답 허난

“이 어른아, 어떻 허난 검은 걸 기영 오렐 씻임이우파.”

“저 어른은 혼 일은 알고 두 일은 몰람수다.

검은 것도 오레 씻이민 희어지는 법이우덴.”

허난

“어차불쌍 나가 삼철 년을 살아도 이런 말은 아니 들어 보과렌.”

허난

“요걸 동방세기로구나.”

소문절박을 헤연 염네데왕에 바쥔 베가 잇입네다.

12. 영감본풀이

1) 영감본풀이 - 1

할마님 연줄로 헤여근 한동지영감 몸받은 선왕일월이여.

선왕님도 선왕님도 일월로 신도업 드립네다.

선왕님은~ 서울이라 먹장꼴서 허정싱이 아들 일곱 성제가 탄생은 허난

저~ 함경도라 백두산 두만강 줄기에 노념 후곡

평양도라 묘양산은 데동강 줄기에 노념 후곡

황해도 구월산은 임진강 줄기에 노뎀을 허고
강원도 금강산은 해금강 줄기에 노뎀을 허고
경기도 삼각산은 한강 줄기 노뎀 허고
충청도 계룡산은 금강 줄기 노뎀 허고
경산도~ 테백산은 낙동강 줄기에 노뎀을 허곡
전라도 지리산은 용림수에 노뎀 허곡
제주도 할로산은 수훼 바당 노뎀 허난
할로영산 장군선앙
서늘곳은 애기씨선앙
뛰미곳은 도령선앙
데정곳은 영감선앙
완돈 가민 덕판선앙
일본은 곰빠라 선앙
망만 부튼 쉼폐지에
짓만 부튼 도폭에
만주에미 철쭉데 혼 뱀 못헌 곰방데에
허터지면 열니 동서
모여지면 일곱 동서
낮인 연불 밤인 신불
금정 옥정 초록 측색 반앙
이물 받은 선앙
고물 받은 선앙
오라근 상 받읍서.
마까우에 토시연분
치장남은 용두머리
놀던 선앙 선앙님도 신도업 드립네다.

2) 영감본풀이 - 2

뭉고 뭉은 선왕 일월조상이랑 에밀렉 줄풍네로 놀고갑서.
어~양 어어양 어양 어양 상산이여~
닷구나 닷구나
칠선 바당이 조기선 선님
어양 어야 어어여~

동이요왕은 광덕이 요왕
 서ियो왕은 광신요왕
 어양 어야 어어여~
 남ियो왕은 광덕ियो왕
 북ियो왕은 흥요왕이여
 어양 어야 어어여~
 뭍고야 뭍은 선왕이 놀저
 영급이 좋던 선왕님아에~
 어~ 어야 어어여~

선왕이 근본이 어딜러나
 서울이아 먹장골서~
 어~ 어양 어어여~
 허정상승 아들이사 일곱 형제가 솟아나니
 어~ 어양 어어여~
 팔도야 명산을 추지를 허고
 수혜야 바당을 노념을 허고
 어~ 어양 어어여~
 함경도라 백두산에 두만강 줄기에 노념을 허고
 어~ 어야 어어여~
 평양도는 묘향산에 대동강 줄기에 노념을 허고
 어~ 어양 어어여~
 황해도라 구월산에 임진강 줄기에 노념을 허고
 어~ 어야 어어여~
 강원도는 금강산에 헤금강 줄기에 노념을 허고
 어~ 어양 어어여~
 경기도라 삼각산에 한강 줄기에 노념을 허고
 어~ 어양 어어여~
 충청도는 계룡산에 금강 줄기에 노념을 허고에~
 어~ 어양 어어야~
 경상도라 태백산에 낙동강 줄기에 노념을 허고
 어~ 어양 어어야~
 전라도는 지리산에 용림수로나 노념을 허고에~
 어~ 어양 어어여~
 제주도는 할라산에 수혜 바다로 노념을 허고에~

어~ 어양 어어요~
허터야지면 열네 동서 모아지난 일곱 동서에~
어~ 어양 어어요~
망만 부튼 세피리에 깃만 부튼 도폭을 입고
어~ 어양 어어요~
흔 뽕 못 흔 곰방데에 만주에미 철죽데에
어~ 어양 어어요~
청사초롱에 불을 밝형 어뜩은 철리 어뜩 말리
어~ 어양 어어요~
떡기야 존 건 주수지여 맛이야 존 건 주옥 안주
어~ 어양 어어요~
야체가 놀저 금체가 놀저
일은넛님 녁 날 때 감아진 선양님이여
어~ 어양 어어요~
일은넛님 젊 때 육지 물질 간 때 못 살아 원액헌 영혼도 놓서
어~ 어양 어어요~
눔도 글앙 욱합니다. 부절 엇는 짓이우다.
주손도 늙고 조상도 늙어수다.
어~ 어양 어어요~
이번 촌미랑 간장 풀려 네건 오씨 부인 일은넛님광 곱 갈라 삼서.
어~ 어양 어어요~
뭉고야 뭉은 선양님네랑 울복소리로 놀고 갑서~
어~ 어양 어어요~
조상님도 다 간장 풀립서

3) 영감본풀이 - 3

주손이 낙 허민 조상이 낙 험네다. 야 이거 이른넛님 몸받아 오던 요왕 선왕 일월님네랑 어기여차
닷감기 서우젯소리로 잠시 잠깐 간장 풀령 갑서.

어야 어어양 항
어허 어야 항
어기여차 소리로 놀고 가져-.
아하 아하 아하~ 아~
어허 어양 어허~요.

일만 일신 삼만 제석 어울 없이 놀던 신전님
 아하 아하 아하~ 아~양
 어허 어양 어허~요.
 산으로 가면 산신이 놀고
 물로 가면은 용신이 놀저
 아하 아하 아하~ 아~양
 어허 어양 어허~요.
 동이 청용신 놀고 갑서
 백금산도 요왕이여
 아하 아하 아하~ 아~양
 어허 어양 어허~요.
 적금산도 요왕이여
 흑금산도 요왕입네다.
 아하 아하 아하~ 아~양
 어허 어양 어허~요.
 물 아래는 용신이 놀저
 물우이는 선왕이 놀저
 아하 아하 아하~아 양
 어허 어양 어허~요.
 뭇첫구나 깍꺸구나
 당쫘하님 이른넛님 저 가슴에 뭇첫구나
 어헝 어헝 어아~ 아~양
 어허 어양 어허~요.
 열 번 말양 이 번 혼 번
 저 몸 신병을 걸어 주십서.
 아하 아하 아하~ 아~양
 어허 어양 어허~요.
 옛날 전주 이 뚝에
 높이 놀던 일월이 놀저
 아하 아하 아하~ 아~양
 어허 어양 어허~요.
 일은넛님 몸받아 오던
 요왕 선왕이 놀고나 가져
 아하 아하 아하~ 아~양
 어허 어양 어허~요.

요왕에 근본이 어딜런고
선왕에 근본이 어딜런고
아하 아하 아하~ 아~양
어허 어양 어허~요.
서울이라 먹장골은
숫어나던 어승성이 아덜덜
아하 아하 아하~ 아~양
어허 어양 어허~요.
팔도 명산을 좇일 험 때
강원도 금강산 네 차지여.
아하 아하 아하~ 아~양
어허 어양 어허~요.
테백산도 네 차지요
소백산도 네 차지요
아하 아하 아하~ 아~양
어허 어양 어허~요.
삼월산도 네 차지요
구월산도 네 차지요
아하 아하 아하~ 아~양
어허 어양 어허~요.
목포 호남 유달산 차지
저 진도 안 섬 진도 밧 섬
아하 아하 아하~ 아~양
어허 어양 어허~요.
벨 바당에 놀던 임신
아하 아하 아~양
어허양 어허~요.
죽은 아덜 오소리 잡놈
으싸 으싸 반만 부른 헛베리에 짝이 없는 신을 신고
아하 아하 아~양
어허양 어허~요.
흔뻘 못흔 곰방데예
아하 아하 아~양
어허양 어허~요.
낮이는 들면 신뿔에 놓고

아하 아하 아~양
 어허양 어허~요.
 밤인 들면 연불에 놓고
 아하 아하 아~양
 어허양 어허~요.
 할라산은 장군서낭 데정곳은 아기씨 서낭
 아하 아하 아~양
 어허양 어허~요.
 청순 가난 솟불미 서낭
 아하 아하 아~양
 어허양 어허~요.
 세당 덕수 불미나 서낭
 아하 아하 아~양
 어허양 어허~요.
 송영감에 김영감에 놓고나 가져
 아하 아하 아~양
 어허양 어허~요.
 상잔으로 중잔으로 하잔으로 받던 임신
 아하 아하 아~양
 어허양 어허~요.
 행원 마듯 들어나 가면
 아하 아하 아~양
 어허양 어허~요.
 상불턱 중불턱 하불턱에 놀던 임신
 아하 아하 아~양
 어허양 어허~요.
 이른넷 님 쇠네넷 님
 아하 아하 아~양
 어허양 어허~요.
 간장 간장을 풀러나 갑서
 아하 아하 아~양
 어허양 어허~요

4) 영감본풀이 - 4 (선양풀이)

선양님은 서울이라 먹자꼴서 허정싱아덜 일곱 성제 솟아나난
함경도 백두산 두만강 줄기 노념을 후고
페양도 묘양산 데동강 줄기 노념을 후고
황해도 구월산 임진강 줄기에 노념을 후고
강원도 금강산 헤금강 줄기에 노념을 후고
경기도 삼각산은 한강 줄기에 노념을 후고
충청도 계룡산은 금강 줄기에 노념을 후고
경산도 테백산은 낙동강 줄기 노념을 후고
절라도 지리산은 용림수에 노념을 후고
제주 할로영산 스훼 바당에 노념을 허난
제주 할로영산은 장군선양
선을꽃은 애기씨선양
띠미꽃은 도령선양
데정꽃은 영감선양
완돈 가민 덕판선양
일본가민 곰빠라 선양
망만 부튼 쉼테지에
짓만 부튼 도폭에다
만주에미 철쭉데에
흔 뱀 못헌 곰방데에
허터지면 열니 동서
모여지면 일곱 동서
연불 신불 금정 옥적 초록 축색
맞춰오던 선양님네덜 오라근 상받읍서
들물서는 서와당
쌀물서는 동바당
안여곳에 밧여곳에 정살여 지방여 도랑여에
이물 받은 선양이여
고물 받은 선양이여
땃 가우에 도시연불 짓장남은 용두머리 놀던 선양님네덜 일부 흔 잔덜 헤여근
상선 무엇수다
중선 무엇수다
하선 무엇수다
제주나는 서산지 제물 사물은 초기진상

웃드린 산물 진상 헤각으론 편포진상 전베독선 실렴수다.
물항에 물 실르고 쓸항엔 쓸 실르고 전베독선 실렴수다.
본국으로 회선덜 헉서.

연구진

연구책임	좌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공동연구	조현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구보조	양재연	제주학연구센터 연구보조원

제주학연구 65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 여신 관련 텍스트 분석

발행인 || 김동전

발행일 || 2019년 12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이도1동 1244-4)

제주문화예술재단 3층

전화, (064) 747-6138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 www.jst.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747-2 9309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